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철학박사학위논문

인식적 양상 문장에 대한 다원적 관점투영 상대주의 옹호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최 동 호

인식적 양상 문장에 대한
다원적 관점투영 상대주의 옹호

지도 교수 강 진 호

이 논문을 철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 년 **4**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최 동 호

최동호의 철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 년 **6** 월

위 원 장 김기현 (인)

부위원장 강진호 (인)

위 원 선우환 (인)

위 원 이병덕 (인)

위 원 한성일 (인)

초 록

본 학위논문은 ‘인식적 양상(Epistemic modals)’에 대한 언어철학적 논의를 다룬다. 여기서 ‘인식적 양상’이란 ‘필연적인(necessary)’, ‘가능한(possible)’, ‘~일 수(도) 있다(might)’ 등과 같은, 양상적 어휘의 인식적 사용과 관계되는 것으로, 일반 양상들과 달리 그것은 ‘주체의 인식적 상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가령, ‘열쇠는 서랍에 있을 수(도) 있어(The key might be in the drawer)’와 같은 표현은 그것을 주장하는 주체의 인식적 정보상태와 무관하지 않다. 주체 A가 아는 바에 따르면, 열쇠는 서랍에 있을 수도 있지만, 주체 B가 아는 바에 따르면, 열쇠는 서랍에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열쇠가 서랍에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A와 B의 주장은 모두 합당해 보인다. 각자 자신의 증거에 비추어, 어떤 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할 권리들을 지니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인식적 양상 표현들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 의문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중심이 되는 의문은 ‘P가 인식적으로 가능하다’는 문장의 의미 및 진리값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가 혹은 변하지 않는가, 그리고 변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인식적 정보상태에 따라 변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철수가 “열쇠는 서랍에 있을 수(도) 있어”와 같이 인식적 양상을 포함하는 문장을 발화했을 때, 철수가 말한 문장의 의미와 진리값은 (상황의 요소들 중에 하나인) 주체의 지식상태에 상대적인가 혹은 절대적인가? 그리고 만약 상대적이라면, 어떤 주체의 지식상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는가? 이에 대해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두 유력한 주장은 ‘맥락주의(Contextualism)’와 ‘상대주의(Relativism)’라고 불리는 입장들이다. 대략적으로 말해서, 맥락주의는 화자 및 화자의 지식상태를 인식적 양상의 중요한 요소로 삼으며, 상대주의는 판정자 및 판정자의 지식상태를 인식적 양상의 중요한 요소로 삼는다. 인식적 양상에 대한 최적의 이론으로 적합한 것은 맥락주의 또는 상대주의인가? 아니면 제 삼의 대안이 존재하는가?

나는 본 논문을 통해서 ‘인식적 양상 문장에 대한 다원적 관점투영 상대주의’

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논증할 것이다. 내가 옹호하고자 하는 주장을 간략히 표현하자면, 그것은 인식적 양상에 대한 올바른 이론은 다양한 사례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인식적 요소인 주체의 지식상태에 대한 규정이 기존의 이론들이 주장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복잡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화자'와 '판정자'라는 기존의 범주들 이외에도, '판단자'와 '판단-귀속자', '메타 판단-귀속자' 및 '서술적 정보상태'라는 요소들이 두루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P일 수(도) 있다'는 인식적 양상문장의 의미 및 진리값은 다음과 연관된다: 판단-귀속자가 귀속시킨다고 메타 판단-귀속자가 귀속하는 판단자의 서술적 정보상태. 단, 이때 판단자, 판단-귀속자, 메타 판단-귀속자, 서술적 정보상태는 각각의 사례들에 따라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는 맥락주의나 상대주의의 주장으로 충분할 수 있다. 나의 제안은 맥락주의와 상대주의의 어떤 측면들을 모두 포용하며, 이들로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 몇몇 부가적 요소들을 첨가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제안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기존의 논의들에 위와 같은 추가적인 요소들이 덧붙여져야 한다는 것을 각각의 요소 별로 순차적으로 논증했다.

그러면 논문의 개요를 소개하도록 하자. 나의 논문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뉜다. 나는 기존의 이론들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논문의 1부에서 제시하고, 나의 새로운 제안을 2부에서 서술할 것이다. 1부의 내용은 '논문 전체를 위한 예비사항으로서 가능세계 의미론 일반 및 지표사와 인식적 양상문장에 대한 표준적인 이론을 소개하고, (가변주의의 대척점인) 고전적 불변주의 이론을 정리'하는 1장과 가변주의의 대표적 두 입장인 맥락주의와 상대주의의 여러 입장들을 개관하는 2장, 그리고, 보다 본격적으로 맥락주의에 대한 반론들과 상대주의에 대한 반론들을 각각 살펴보는 3, 4장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2부에서 나는 (1부에서 다루어진) 기존 이론들의 장, 단점을 선택적으로 수용/배제하는 새로운 이론을 주장할 것이다. 우선, 5장에서 나는 기존 논쟁들이 (어떤 종류의) 다원주의를 선택함으로써 큰 수정을 가하지 않고서 해결될 수 있음을 보인다. 그리고 6장과 7장을 통해서 나는 기

존에 제시된 바가 없는 새로운 반론들을 다루기 위해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보일 것이다.

주요어: 인식적 양상, 맥락주의, 상대주의, 다원주의, 내용, 양상 패러미터

학 번: 2007-30732

목 차

서론.....1

1부. 인식적 양상문장의 내용과 양상 패러미터에 대한 기존 이론들과 그 문제점들..... 9

제 1 장. 지표사 및 인식적 양상문장에 대한 표준적인 형식 의미론과 고전적 불변주의.....9

1.1. 표준적인 가능세계 의미론의 개요 10

1.2. 지표사에 대한 카플란의 가능세계 의미론..... 12

1.3. 인식적 양상에 대한 크랏저의 표준적 이론..... 17

1.4. 일반적인 고전적 불변주의와 인식적 양상에 대한 고전적 불변주의..... 22

제 2 장. 불변주의에 대한 가변주의의 도전들: 인식적 양상문장에 대한 맥락주의와 상대주의 26

2.1. 맥락주의의 대두..... 27

2.2. 상대주의의 대두..... 36

2.3. 맥락주의와 상대주의 논쟁을 둘러싼 두 문제와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서의 패러미터의 본성문제 49

제 3 장. 맥락주의에 대한 반론들.....58

3.1. 맥락주의에 대한 기존의 반론들..... 59

3.2. 도청논증에 대한 맥락주의의 대응과 그 문제점 75
3.3. 맥락주의의 결정적 문제로서의 비화자 중심적 용법 86

제 4 장. 상대주의에 대한 반론들 90

4.1. 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에 대한 반론들 90
4.2. 내용 상대주의에 대한 반론 103
4.3. 상대주의의 한계로서의 화자 중심적 용법 105

2부. 인식적 양상문장의 내용과 양상 패러미터에 대한 다원적 관점투영 상대주의 107

제 5 장. 논쟁 해결의 실마리로서의 다원주의 108

5.1. 여러 가능한 입장들의 구분과 이 장에서 옹호될 입장들 108
5.2. 여러 다원주의들에 대한 옹호 117
5.3. 주장 내용으로서의 판정자 상대적인 두꺼운 내용의 존재 옹호 128
5.4. 기존 논의들에 대한 현재 구도 내에서의 해결 131

제 6 장. 인식적 양상문장의 내용과 양상 패러미터에 대한 온건한 다원적 관점투영 상대주의 135

6.1. 다원적 관점투영 상대주의의 개요 136
6.2. 패러미터 및 내용 일반에 대한 몇몇 구분들 139
6.3. 관점투영적 양상 패러미터 ≪Y⟹X≫의 도입 152

제 7 장. 인식적 양상문장의 내용과 양상 패러미터에 대한 급진적인 다원적 관점투영 상대주의 176

7.1. 메타 판단-귀속자의 도입 176

7.2. 서술적 정보상태의 도입 184

7.3. 다원적 관점투영 상대주의에 대한 정리와 이에 대한 몇몇 부가적 논의들 200

결론 207

참고문헌 209

Abstract 220

표 목차

[(표) 가변주의 내의 네 입장들] 44

[(표) 가변주의의 네 입장들에 대한 이상적인 명칭들] 57

[(표) 세 종류의 맵핑들과 두 질문들에 따른 여러 가능한 입장들] 111

[(표) 화자, 청자, 제삼자의 입장 구분과 판단-귀속자 및 판단자의
일치여부에 따른 다양한 패러미터 혹은 내용들] 150

[(표) 인식적 양상문장의 내용과 양상 패러미터에 대한
급진적인 다원적 관점투영 상대주의] 200

그림 목차

[표준적 카플란적 스토리] 14

[완전한 카플란적 스토리] 16,28,37

[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 38

서론

만약 과거에 인간이 외부적 환경을 수동적으로 지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현실 세계에만 관심을 가졌었더라면, 그는 생태계 먹이사슬의 정점에 설수 없었을 것이다. '울타리를 이런 식으로 쳐 놓는다면 맹수들이 침입할 **수(도)있다**'와 같은 가능성(possibility)에 대한 사고나,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음에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옴에 **틀림없다**'와 같은 필연성(necessity)에 대한 개념이 인간에게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매에게 순식간에 낚아채져서 유명을 달리하는 개구리의 신세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과 필연성에 대한 개념은 생존의 과정뿐만이 아니라, 고차원적 학문탐구의 과정 속에서도 필수적이다.

우리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만 보지는 않는다. 즉 현실세계가 실제로 어떠한가의 문제만이 우리 인간의 탐구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세계가 지금과 달랐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단순히 어떤 사실이 참인지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참인지**를 궁금해 한다. 어떤 사실은 우연적으로 참인가? 아니면, 필연적으로 참인가? 이런 가능성 및 필연성은 철학에서 '**양상(modality)**'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양상에 대한 논의 중에서도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양상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양상적 언어 표현들의 의미에 대한 언어철학적 논의이다. 내가 본 논문에서 언어철학적 논의에 집중하는 이유는 양상 표현들에 대한 의미론적 논의들이 양상의 본성을 해명하는 형이상학적 작업들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고 내가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밀접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조차도 언어철학적 논의들이 형이상학적 논의들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적어도 인정한다. 따라서 양상에 대한 의미론적 논의들은 철학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탐구 주제 중에 하나이다.

양상적 표현들의 대표적인 예는 형용사 표현으로 '가능한(possible)', '불가능한(impossible)', '필연적인(necessary)', 부사 표현으로 '가능하게(possibly)', '아마도(probably)', '필연적으로(necessarily)' 그리고 동사 표현으로 '~일 수(도) 있다(might)', '~임에 틀림없다(must)'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양상 관련 표현들 및 양상

자체에 대한 논의는 해당 양상의 성격에 따라서, 자연법칙적(nomological), 형이상학적(metaphysical), 의무론적(deontic), 인식적(epistemic)인 것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1] 즉 과학, 형이상학, 가치론, 인식론의 각 분야에 따른 양상 논의들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양상들 중에서 필자가 본 논문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인식적 양상(Epistemic Modals)'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인식적 양상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양상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보도록 하자. 자연법칙적 필연성은 자연적, 물리적 법칙과 관련된 필연성으로, 이런 필연성은 "어떤 것도 빛보다 더 빠를 수는 없다."와 같은 문장에서 나타난다. 반면에 형이상학적 필연성은 본질적 속성과 연관된 필연성으로, "당신은 다른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수는 없다."는 문장에서 나타나는 필연성이다. 어떤 가능한 세계에서는 빛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물질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자연법칙의 필연성이 어긋나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위의 부모의 예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형이상학적 필연성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다른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이미 당신이 아닐 것이라는 직관을 우리가 보통 갖기 때문이다.[2] 따라서 이런 점에서 형이상학적 필연성은 자연법칙적 필연성보다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의무론적 양상은 도덕법칙과 관련된 것으로, "당신은 모임에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집에 있지 말고, 모임에 반드시(필연적으로) 가야 한다."는 문장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실보다는 당위 및 가치에 대한 것을 그 주제로 하는 양상이다.

이상의 양상들과 비교할 때, 인식적 양상은 가치(당위)보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무론적 양상 보다는 자연법칙적 양상 및 형이상학적 양상에 더 가깝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식적 양상은 자연법칙적 양상 및 형이상학적 양상과 차이점을 갖는다. 자연법칙적, 형이상학적 양상이 '인식하는 주체와 어느 정도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것만을 포함하는데 반해서, 인식적 양상은 '인식적임'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객관적 사실뿐만이 아니라 주관적 사실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

1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종류의 양상들에 대해서는 스탠포드 철학 사전(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의 'Modal Logic' 'Varieties of Modality', 'The Epistemology of Modality' 항목들을 참조하라.

2 물론, 이러한 본질주의적 직관에 대해서 반대하는 철학자들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인식적 양상**은 **주체**[3]**의 인식적 상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양상**을 의미한다. 가령, "골드바흐의 추측(2보다 큰 모든 짝수는 두 개의 소수(Prime number)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추측)에 대한 반례는 있을 수 없다"와 같은 발화 문장이 갖고 있는 명제 혹은 진리값은 그것을 주장하는 주체의 인식적 정보상태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 수학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해당 문장과 관련된 명제 및 진리값은 (반드시 특정주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의의 일반 주체가 아는 바에 일정부분 의존한다.[4] 다시 말해서, 인류에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실제로 반례가 있는지 없는 지와 다소 무관하게 위의 발화 문장은 참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5] 이런 점에 인식적 양상의 특수성이 있으며, 양상 일반에 대한 취급을 인식적 양상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인식적 양상에 대한 이론은 이런 인식적 특수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 볼 때, 어떤 것이 '인식적으로 가능하다(epistemically possible)'는 것은 어떤 것의 가능성이 그 주장을 하는 주체 및 이 주체와 유관한 일련의 주체들의 인식적 상황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적인 인식적 양상에 관한 이론은 "**φ일 수(도) 있다(might)**"는 발화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proposition) 혹은 이 문장의 내용(content)-본 논문에서 '명제'와 '내용'은 동의어로 사용된다.[6]-을 <**φ가 (주체에게) 알려진 것과 양립 가능하다**>로, 그리고 "**φ임에**

[3] 여기서 주체는 의식하는 주관 혹은 주관을 가진 개체를 의미한다. 그것은 문장에서의 주어를 의미하지 않는다.

[4] 물론, 객관적 사실과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5] 실제로 수학자들은 골드바흐의 추측이 현재 증명방법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 수학적 참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6] 일반적으로, '명제(proposition)'라는 것은 진리값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것, 즉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서, '그는 철학자이다'는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따라서 참, 거짓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제가 아니다. 반면에 '칸트는 철학자이다'는 그것이 참/거짓을 판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제에 해당한다. 그리고 명제가 이런 진리담지자(truth bear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등과 관련하여 그것은 때때로 '고전적인 명제(classical proposition)'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소위 말해진 것은 어떤 요소에 상대적으로 진리값이 종종 결정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상대화된 명제(relativized proposition)'를 옹호한다. 나는 후자의 용법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서의 명제 개념을 본 논문에서 사용할 것이며, 그것을 '내용(content)'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명제'와 '내용'은 서로 혼용되어 사용될 것이다.(그리고 나중에 언급될 것이지

틀림없다(must)"는 발화 문장의 내용을 **<ϕ가 아닌 것은 (주체에게) 알려진 것과 양립 불가능하다>**[7]로 분석한다. 그리고 필연성과 가능성은 서로 환원될 수 있다는 익히 알려진 사실[8]과 관련하여, 인식적 양상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은 단순성을 위해서 주로 '~일 수(도) 있다(might)'[9]는 가능성과 관련된 동사표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10] 필자 역시 본 논문에서 이런 추세를 따르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인식적 양상 표현들에 대한 철학적 논의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중심이 되는 의문은 "P가 인식적으로 가능하다(필연적이다)"는 문장의 의미 및 진리값이 **상황(situation)**[11]**에 따라서 변하는가 혹은 변하지 않는가**, 그리고 만약 변한다면 그것은 상황의 중요한 요소인 **누구의 인식적 상태, 즉 지식상태 및 정보상태**[12]**에 따라 변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인식적 양상문장의 내용과 진리값이 주체의 인식적 상태에 의존한다고 전제가 되었지만, 어떤 주체가 해당 인식적 가능성에 유관한지의 문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 주체는 일반적이고 암묵적인 임의의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특정 개인이 될 수도 있다. "열쇠는 서랍에 있을 수(도) 있어(The key might be in the drawer)"와 같은 발화 문장에 대해서 고려해 보자. 주체A가 아는 바에 따르면, 열쇠는 서랍에 있을 수도 있지만,

---

만, '의미' 역시 그러할 것이다.)

[7] 여기서 < >기호가 사용된 것은 일반적인 관습, 즉 (문장의) 내용(content) 및 명제(proposition)를 표현할 때, 그것을 진술(statement)과 구분하기 위해서, < >기호 안에 넣는다는 일반적인 학술적 관습에 따른 것이다. 이 기호는 논문 전체를 통해서 일관적인 방식으로 이와 같이 사용될 것이다.

[8] 'P가 필연적이다'는 것은 'P가 아닌 것이 가능하지 않다'와 동의어로 간주된다. 즉, 필연성을 □로, 가능성을 ◇로 표기한다면, 다음이 성립한다: □ P ≡¬ ◇¬ P

[9] 영어 단어 'might'에 대한 한국어 번역으로는 '~일 수(도) 있다' 이외에도, '~일지(도) 모른다'가 있다. 비록 후자의 번역이 보다 더 적당한 경우들도 때때로 존재하지만, 단순성을 위해서 나는 본 논문에서 'might'에 대한 한국어 번역을 '~일 수(도) 있다'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10] 'might'는 그 의미와 관련하여, 인식적 양상에 대한 논의에만 사용되는데 반해서, 'must'는 인식적, 의무론적, 목적론적 양상에 대한 논의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11] 여기서 '상황'이라는 용어는 아직 '맥락(context)'과 '지표(index)' 및 '평가상황(circumstance of evaluation)' 등의 구체적인 전문 개념들이 설명되지 않은 현재의 시점에서, 중립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필자가 의도한 용어이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논문이 전개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12] 본 논문에서 지식상태와 정보상태는 '(주체에게) 알려진 것'이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지니며, 서로 구분 없이 임의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주체 B가 아는 바에 따르면, 열쇠는 서랍에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열쇠가 서랍에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A와 B의 주장은 모두 합당해 보인다. 그들 각자는 자신의 인식적 증거에 비추어, 어떤 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할 권리를 지니는 것 같다. 따라서 앞선 골드바흐의 추측의 예와 다르게, (어떤 측면에서) 이 열쇠의 예에서는 인식적 가능성이 구체적인 상황과 무관한 일반 주체가 아니라, 특정 상황 내에서의 구체적 주체의 지식상태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다.[13] 따라서 인식적 양상에 대한 언어철학적 논의의 핵심은 '**어떤 주체의 지식상태**'가 인식적 가능성에 관계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적 양상에 대해 어떤 대립된 논의들이 전개되어 왔는지 개관해 보자. 논의 진영은 크게 **불변주의**(Invariantism)와 **가변주의**(Variantism)로 나뉠 수 있으며, 가변주의 내에 **맥락주의(Contextualism)**와 **상대주의(Relativism)**가 위치한다.[14]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고전적 불변주의는,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 및 진리값이 달라지는 표현을 '나','여기','어제' 등의 지표사(indexicals)[15]에 국한한다. 따라서 지표사가 아닌 인식적 양상을 포함하는 문장들의 의미 및 진리값은 상황 또는 상황의 요소들 중에 하나인 주체의 지식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거나 혹은 설사 주체의 지식상태와 연관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주체의 지식상태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맥락에 관계하지 않는) 일반적인 임의의 주체의 지식상태에 의존한다.[16] 이에 반해서, 인식적 양상에 대한 가변주의는 구체적 상황 속의 특정 주체의 지식상태에 따라서 의미 및 진리값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식적 양상에 대한 가변주의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인식적 양상문장의 의미 및 진리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주장임에 반해서, 불변주의는 가변주의가 주장하는 정도의 유동성은 거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우 거칠게 말한다면, 불변주의는 의미에 대한 절대주의에, 그리고 가변주의는 의미에 대한 고전적인 상

[13] 물론 이것은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며, 골드바흐의 추측 예 역시 특정 주체와 관련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4장 및 6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14] '맥락주의'와 '상대주의라'는 용어는 2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15] 'indexicals'에 대한 번역으로 '지표사', '지표어', '색인사' 등이 있지만, 나는 본 논문을 통해서 현재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표사'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16] 따라서 사실상 불변하는 셈이다.

대주의에 대응한다.[17]

사실 최근의 불변주의와 가변주의의 논쟁들은 인식적 양상을 주제로 하는 영역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취향술어(맛 관련 어휘), 도덕적 어휘, 미학적 어휘, 미래시제, 지식귀속, 인식적 양상 등에서 다양한 논쟁들이 펼쳐지고 있으며, 각 개별 논의들은 복잡하게 펼쳐지면서, 각 주제 영역 고유의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한 주제에 대한 논의들이 때때로 다른 주제들에도 역시 그대로 무리 없이 적용되기도 한다.

여기에 덧붙여, 현재 인식적 양상에 대한 논의는 가변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열쇠가 서랍에 있을 수(도) 있어'와 같이 인식적 주체, 혹은 인식 주체의 정보상태가 물리적인 발화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양상, 즉 **단순 인식적 양상**(Bare Epistemic Modal)[18]을 포함하는 문장들의 경우에, 그것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누가 발화하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 혹은 진리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직관이 그렇지 않은 직관보다 더 우세하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19]

---

[17] 가변주의가 대략적으로 상대주의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가변주의 내에 상대주의라는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기존 논의들은 용어의 규정에 대해서 아직 보편적인 합의에 다다르지 않았으며, 점차 표준적인 용어 사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 상황은 일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본문에서 '고전적 상대주의'라고 지칭하는 입장은 가장 넓은 범위의 상대주의로서, 그 입장은 단순히 'X는 Y에 상대적이다'는 상대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그것이 따른다는 것 정도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가변주의 내에서의 상대주의는 가장 좁은 의미의 상대주의로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판정자(assessor)의 상대성만을 인정하는 입장을 가리킨다. 그런데 나는 본 논문에서 이런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사이의 상대주의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다. 나는 2부에서 이런 중간적 의미의 상대주의를 제시하고 옹호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내가 본 논문을 통해서 논의하는 상대주의는 고전적인 상대주의-주로 총체적(global) 상대주의-와는 구분되는 특정주제에 대한 국소적(local) 상대주의이며, 유럽적 전통의 그것이 아니라, 분석철학 내에서 비교적 최근에 제시된 입장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라이트(Wright, 2007)는 이것을 '뉴에이지 상대주의(New age Relativism)'라고 부르며, 카펠렌과 호쏜(Cappelen& Hawthorne, 2009)은 '분석적 상대주의(Analytic Relativism)'라고 부른다.

[18] 이것은 핀텔과 길리스(2011)가 규정하는 용어이다.

[19] 심지어 핀텔과 길리스(2011)를 포함하는 몇몇 학자들은 가변주의의 대표적인 주장인 맥락주의를 고전 혹은 정전(canon)이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이것은 그만큼 가변주의(맥락주의)의 직관이 몇몇 학자들에게는 당연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런 생각에 따르면, 시공간적 정보가 명시되지 않은 "비가 온다"는 문장이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말해졌는지에 따라 그것의 의미 및 진리값이 달라지듯이, (시공간 및) 주체가 드러나지 않은 "열쇠가 서랍에 있을 수(도) 있다"는 인식적 양상 문장도 누구 혹은 누구의 지식상태를 토대로 말해졌는지에 따라, 그것의 의미 및 진리값이 달라진다.[20] 따라서 논쟁의 핵심적 관건은 '**구체적인 주체 혹은 주체의 지식상태라는 인식적 양상토대(Epistemic modal base) 혹은 인식적 양상 패러미터(parameter)[21]에 어떤 것이 보다 적합한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가변주의 내부의 두 입장인 맥락주의와 상대주의는, 매우 간단히 말해서, 이런 인식적 양상 패러미터에 화자(및 화자의 지식상태)와 판정자(assessor) [22](및 판정자의 지식상태)를 각각 대입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비록 맥락주의와 상대주의라는 이름으로 각기 불리고 있지만, 이런 가변주의 내의 두 입장은 모두, 인식적 양상 문장의 의미 또는 진리값이 특정 주체 및 주체의 지식상태에 상대적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보다 넓은 의미의 (고전적) 상대주의에 포함된다고 이해될 수 있다.

결국 최근의 추세는, 상대주의 일반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드러내왔던 영미

---

[20]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인식적 양상의 경우에도 주체 혹은 주체의 지식상태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는 인식적 양상이라는 주제 영역에만 한정되는 변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된 초점은 주체 그리고 주체의 지식상태에 맞춰진다.

[21] 여기서 **패러미터(parameter)**는 맥락(context) 및 평가상황(circumstance of evaluation)에서의 어떤 값-특히 평가상황에서의 어떤 값-을 의미하는 보다 일반적인 용어이다. 이것을 양상과 관련 지어 고려하게 될 때, 이것은 양상토대에 해당–특히 인식적 양상과 관련되었을 때 그것은 인식적 양상토대, 즉 인식 주체의 기준(standard)에 해당–하며, 개인적인 취향(taste) 술어와 관련될 때는 취향토대(taste base)에 해당한다. 나는 본 논문에서 '양상토대'와 '양상 패러미터', 그리고 '취향토대'와 '취향 패러미터'라는 용어를 서로 혼용하여 사용하겠지만, 되도록 '양상토대' 및 '취향토대'라는 용어보다는 '양상 패러미터'와 '취향 패러미터'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참고적으로 양상 패러미터(양상 토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본문에서 앞으로 제시될 것이다.

한편, 영어 표현 'parameter'에 대해서 '기준', '매개 변수' 등의 다른 한글 표기 대안들이 있지만, 이들 표현들이 많은 사례들에 적합하게 적용된다고 필자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그리고 용어의 특수성을 보다 잘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패러미터'라는 한글 음독 표현을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22] 이 글에서 'assess'와 관련된 용어들은 '판정하다'를 기준으로 번역된다. 예를 들어서, 'assessor'는 '판정자'로, 'context of assessment'는 '판정맥락'으로 번역된다. 이것은 앞으로 언급되게 될 '평가상황(circumstance of evaluation)'이라는 용어에서 'evaluation'을 '평가'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며, 이것과 'assess' 관련 단어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분석철학의 전통에서 극히 드물게도, 제한적인 영역에 대해서나마 상대주의에 대한 논의가 각광을 받고 있는 셈이다. 2000여 년 전 프로타고라스의 상대주의적 주장을 플라톤이 반박한 이래로, 상대주의 부류의 논의는 그릇된 주장이라는 낙인이 찍혀 왔으며, 현대 영미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에서 상대주의에 대한 반감은 지나칠 정도로 심하다. 하지만 이런 주홍글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상대주의는 다양한 주제 및 영역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비판 받기를 계속했다.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 잡은 상대주의가 없었던 이유는 상대주의적 통찰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상대주의자들이 그들 자신의 이론 내용들을 충실히 채우지 못했으며, 반 상대주의자들의 반론들에 만족스러운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적인 상대주의자들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나는 본 논문을 통해서 인식적 양상과 관련하여, 내가 제시하는 '인식적 양상 문장의 내용과 양상 패러미터에 대한 다원적 관점투영 상대주의'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논증할 것이다. 나는 기존의 이론들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논문의 1부에서 제시하고, 나의 새로운 제안을 2부에서 서술할 것이다. 1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4개의 장으로 이루어진다: 논문 전체를 위한 예비사항으로서 가능세계 의미론 일반 및 지표사와 인식적 양상문장에 대한 표준적인 이론을 소개하고, (가변주의의 대척점인) 고전적 불변주의 이론을 정리하는 1장, 가변주의의 두 하위 입장인 맥락주의와 상대주의를 개관하는 2장, 그리고 맥락주의에 대한 반론들, 상대주의에 대한 반론들을 각각 살펴보는 3, 4장. 여기서 특히 반론들을 주로 다루는 3장과 4장의 초점이 기존의 맥락주의와 상대주의는 극복되기 힘든 반론을 갖는다는 것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들과 관계되는 모든 반론들을 다루지는 않을 것이며,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내용만을 논문에 포함시킬 것이다. 다음으로 2부에서 나는 1부에서 다루어진 기존이론들의 장, 단점을 선택적으로 수용/배제하는 새로운 이론들을 주장할 것이다. 우선, 5장에서 나는 기존 논의들이 (어떤 종류의) 다원주의를 선택함으로써 큰 수정을 가하지 않고서 해결될 수 있음을 보인다. 그리고 6장과 7장을 통해서 나는 기존에 제시된 바가 없는 새로운 반론들을 다루기 위해서 내가 '**다원적 관점투영 상대주의(Pluralistic Perspective-projective Relativism)**'라고 부르는 새로운 입장이 필요함을 보인다. 이 주장은 그 온건성의 정도에 따라서 6장과 7장에서 각각 단계적으로 나뉘어서 서술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시작해 보자.

1부. 인식적 양상문장의 내용과 양상 패러미터에 대한 기존 이론들과 그 문제점들

1장. 지표사 및 인식적 양상문장에 대한 표준적인 형식 의미론과 고전적 불변주의

맥락주의와 상대주의라는 가변주의의 두 입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1장에서는 가변주의 및 불변주의를 막론하고, 모든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되고 있는 일련의 표준적 주장들과 가변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 2000년대 초반까지 널리 받아들여졌던 한 고전적인 입장[23]에 대해서 우선 논의해 보자. 나는 1.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논문 전체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전제되게 될 배경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나는 우선 의미론 일반에 대해서 표준적인 입장이라고 간주되는 가능세계 의미론의 개요를 정리하고, 가변주의에 대한 잠재적 시

[23] 여기서 '고전적' 혹은 '표준적' 이라는 표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나는 여기서 앞으로도 전제되게 될 보편적인 입장들에 대해서는 '표준적'이라는 용어를, 그리고 앞으로 반박되게 될 입장에 대해서는 '고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을 통해서 나는 이 용어들을 반드시 이런 의미로만 일관되게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논의하게 될 학자들이 이들을 통일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표준적 이론 혹은 고전적 이론'으로 가리키고자 하는 이론들보다 좀 더 최근 주장인 맥락주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즉, 맥락주의를 '고전 혹은 정전(cannon)'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으며, '표준적 맥락주의'라는 명칭도 있다. 특히 인식적 양상과 관련하여 그것을 일반 양상과 구분하면서 실질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시기가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락주의가 등장한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락주의를 기본적인 값, 즉 고전적 혹은 표준적 입장으로 간주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맥락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된 그 이후의 수많은 논의들에 비추어 볼 때, 맥락주의를 상대적으로 고전적, 표준적 입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나는 이런 사안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고전적 불변주의' 및 '고전적(표준적) 맥락주의'와 같이, 어떤 주장에 대한 고전적, 표준적 입장인지를 명시할 것이지만, 전체 입장들과 관련하여 내가 초기 기본값으로 삼는 입장은 (맥락주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표준적 이론들 및 고전적 불변주의이다. 따라서 나는 (해당 학자들을 따라서) '고전적 맥락주의'라는 표현은 때로 사용하겠지만, 맥락주의를 '고전'이라고 간주하지는 않을 것이다.

발점이 되는 카플란(Kaplan)의 지표사에 대한 이론, 그리고 본 논문의 중심 주제와 관련되는 인식적 양상에 대한 크랏저(Kratzer)의 이론을 각각 다루도록 하겠다. 그리고 1.4절에서 가변주의가 등장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당연히 되었던 인식적 양상에 대한 고전적 불변주의가 어떤 입장인지 정리할 것이다. 결국 1장의 내용은 본 논문의 주제에 대한 예비적인 배경지식에 대한 것들을 주로 포함한다. 다만 1.4절에서 다루는 '맥락 의존성이 지표사에만 국한된다고 주장하는 고전적 불변주의 이론'에 대한 내용만은 앞으로의 논의들을 통해서 반박되게 될 것이며, 이것 이외의 가능세계, 지표사, 인식적 양상에 대한 표준 이론들의 상당부분은 앞으로도 최소한적으로 전제되게 될 것이다.

1.1. 표준적인 가능세계 의미론의 개요

문장의 의미에 대한 이론으로서 보다 보편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입장은 '문장의 의미가 그 문장이 참일 조건, 곧 그 문장의 진리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진리조건 의미론(Truth-Conditional Semantics)이며, 그 중에서도 가능세계 의미론(Possible World Semantics)은 다양한 종류의 내포적(intensional) 현상들, 즉 양상(modality), 조건(conditionals), 시제(tense) 및 시간 부사(temporal adverbs), 의무(obligation) 그리고 정보적이고 인지적인 내용의 보고(reports of informational and cognitive content) 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장점[24]을 갖기 때문에 많은 철학자들이 가능세계 의미론을 전제로 하면서 논의를 진행한다. 양상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들이 가능세계 의미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의미론 일반에 대해서 가능세계 의미론을 전제하면서 논의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25]

가능세계 의미론에 따르면, 한 문장의 의미, 즉 진리조건은 '그 문장이 참인

[24] Perry(1998)

[25] 의미론의 큰 두 주류는 사용(use) 의미론과 진리조건 의미론이다. 이 중에서 보다 보편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입장은 진리조건 의미론이다. 비록 나는 개인적으로는 사용 의미론-그 중에서도 추론주의 의미론(Inferentialism)-을 보다 선호하지만, 보다 널리 인정되는 입장이 진리조건 의미론이라는 점, 그리고 본 논문에서 논의되는 바의 대부분은 사용 의미론을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진리조건 의미론이 예견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나는 본 논문에서 진리조건 의미론을 전제하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가능세계들의 집합'으로 간주된다.[26] 이런 가능세계 의미론은 외연논리체계(extensional logic systems)에서 다루기 어려운 내포적 현상들을 보다 용이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해주며, 형식 의미론에서 금과옥조로 간주되는 합성성(compositionality), 그 중에서도 내포(intension)의 합성성을 형식적으로 엄밀하게 보이는데 일조한다.[27] 일반적으로 의미(내포)[28]에 대한 합성성에 따르면, 복잡한 표현의 의미는 보다 단순한 표현들의 의미와 문법적 규칙들에 의해서 합성[구성]된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다"라는 문장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그 문장이 언제 참이 되는지 그 조건을 아는 것이며, 이 문장의 의미는 '소크라테스'라는 주어의 의미 및 '철학자이다'는 술어의 의미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서 가능세계 의미론은 '소크라테스'라는 고유명사의 내포를 '어떤 가능세계[29]가 주어졌을 때 소크라테스라는 대상을 산출하는 함수'로, 그리고 '철학자이다'는 술어의 내포를 '어떤 주어진 세계를 그 세계에서의 '철학자이다'라는 술어의 특정한 외연과 연관시키는 함수'로 간주한다. 한 문장의 주어와 술어의 내포가 이와 같이 가능세계와 연관하여 **함수적**으로 규정될 때, 이들 하부 문장적인 내포(의미)들이 그것들로 이루어진 완전한 문장의 의미, 즉 진리조건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결합되는지가 문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이런 가능세계 의미론의 설명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 용어의 내포를 '가능세계들로부터 외연으로의 함수'로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술어의 내포는 세계들로부터 '그들 세계들에서 해당 술어의 외연들이 있는 그런 세계들에서 존재하는 사물들의 집합'으로의 함수이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가능세계 의미론(진리조건 의미론)은 의

---

[26] 이하 가능세계 의미론에 대한 설명은 Lycan(2008), pp. 126-129에서 필자가 각색함.

[27] 합성성은 언어의 생산성 및 체계성 그리고 배움가능성 등을 설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상정되는 중요한 도구이다.

[28] '의미(meaning)'는 언어철학에서 다양한 측면들과 뜻들을 갖는데, 이들 중에서 한 측면에 따르면 의미는 내포(intension)와 외연(extension)으로 구분될 수 있다. 나는 본 논문에서 '의미'라는 용어에 대해 특정한 관점(측면)만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매우 느슨하게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용어들과 엄밀한 구분 없이 그것은 사용되게 될 것이다: '명제', '내용', '프레게의 뜻', '특성(character)', '내포', '외연' 등.

[29] 이 세계가 현실세계일 필요는 없다. 가령, '제우스', '용' 등과 관련해서 해당 가능세계는 현실세계가 아니다.

미(내포)의 합성성을 그것이 보다 잘 설명할 수 있게끔 해주며, 이 의미론을 따를 때 의미와 참(진리값)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런 가능세계 의미론의 틀 내에서 쉽게 포섭되지 않는 예외적인 현상이 있다. '나', '너', '어제', '거기' 등의 지표사가 갖는 맥락 의존성(context dependency)-즉, 지표사들은 맥락에 따라서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이 (과거의) 가능세계 이론에 따라서는 잘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철수와 영희 두 사람이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나는 남자이다"라고 발화를 했을 때, 둘은 같은 가능한 세계(맥락)에 있다고 간주되지만, 그들이 말한 내용은 <철수는 남자이다>와 <영희는 남자이다>로 각기 다르며, 그 내용의 진리값도 참과 거짓으로 서로 다르다. 지표사와 관련해서는 의미(진리조건) 및 진리값의 차이가 가능세계를 통해서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가능세계 의미론 그대로는 옳을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카플란은 가능세계 의미론의 틀 내에서 지표사에 대한 이론을 도입하였다.

1.2. 지표사에 대한 카플란의 가능세계 의미론

가능세계 의미론은 몬테규(Montague)를 거치면서, '문장 S가 가능세계 w에서 참이다'라는 그것의 중심 개념이 '문장 S가 지표(index) i에서 참이다'는 좀 더 일반화된 의미론의 중심 개념으로 발전되었다.[30] 여기서 몬테규가 '지표'라는 용어로 의미하는 것은 '문장 S의 진리조건과 유관한 모든 맥락적 요소들의 순서 n-중체'이다. 몬테규는 이런 지표의 요소에 세계, 시간, 사람, 장소 등을 (무분별하게) 모두 포함하였다. 몬테규는 기존의 세계 이외의 다른 요소들을 가능세계 의미론에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몬테규의 가능세계 의미론은 지표사와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그의 이론의 틀 내에서는 '문장 S를 발화하는 맥락'과 '그 발화된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의 참/거짓을 평가하는 상황'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카플란(Kaplan, 1989)의 논의와 연관된 다음과 같은 두

[30] 이하, Kang(2011)을 참조하였음

문장을 비교해 보자.[31](다음에는 '나', '지금', '여기'라는 지표사가 문장에 포함되어 있다.)

(1)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I am here now.)

(2)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필연적이다. (It is necessary that I am here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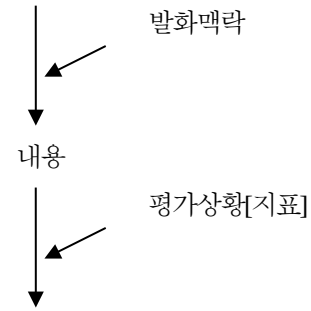
여기서 (1)은 화자가 그 문장을 발화하는 모든 맥락에서 참인 문장이다. 만일 '발화맥락(Context of Utterance)'[32]과 '그 발화된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의 참/거짓을 평가하는 상황(Circumstance of Evaluation)'의 구분이 없이 양자가 같다고 한다면, (1)은 모든 평가상황에서도 또한 참일 것이다. 그러므로 ('필연적인 참'을 통상적인 관행처럼 '모든 가능세계에서의 참'으로 규정할 때) 필연성 관련 어휘만 (1)에 추가된 (2) 또한 참이 될 것이다. 하지만 (2)는 참이 아니다. 결국, 발화맥락과 평가상황은 다르며, 이들은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카플란에 따르면, '발화맥락'과 '평가상황'이라는 문장에 대한 이중 지표화(double indexing)가 필요하다. 이제 지표사에 대한 카플란의 이론에 대해서 좀 더 말해보자.

카플란의 이론은 맥락 민감성(context-sensitivity) 혹은 맥락 의존성(context-dependency) 여부를 떠나서 보다 일반적으로, 문장들과 발화들이 어떻게 그들의 진리값을 얻는지에 대해 널리 인정되고 있는 표준적인 견해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건(Egan, 2011)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31] 엄밀하게 말한다면, 다음의 예는 카플란이 사용하는 예 그대로는 아니다. (특히 (2)와 관련하여.) 게다가 카플란은 필연성, 선험성, 분석성을 포함하는 보다 복잡한 논의를 진행한다. 하지만 여기서 다루는 예들이 카플란의 의도 및 주장을 보여주는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하의 예가 사용될 것이다.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Kaplan(1989)를 참조하라.

[32] 발화맥락은 문자 그대로, 발화가 이루어진 맥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때로 '사용의 맥락(Context of Use)'으로 불리기도 한다.

문장[특성(character)][33]



[표준적 카플란적 스토리]

(Egan, 2011, p. 224)

한 문장은, (위쪽 화살표↓와 관련된) 첫 번째 단계에서 발화맥락으로부터 표현된 내용에 이르는 함수를 결정하는, '**특성**(character)'과 연관된다. 여기서 '특성'은 카플란이 사용하는 전문용어로서, 한 표현의 특성은 '발화맥락이 주어졌을 때, 그 맥락에서의 내용을 결정하는 함수'이며, 대략적으로 언어적 의미와 유사한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나는 배고프다"고 말했을 때, 이 문장에서 '나'의 특성은 ''나'가 발화된 맥락에서의 화자'가 된다. 그리고 이런 '나'의 특성은 발화맥락의 해당 주체-즉, '나'의 내용(혹은 '나'가 가리키는 대상)-를 결정한다. 만약 이 문장을 말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라면, '나'의 특성은 소크라테스라는 내용을 결정하는 어떤 것이며, 플라톤이라면, 플라톤이라는 내용을 결정하는 어떤 것이다. 따라서 이런 지표사에 대한 카플란의 설명을 바탕으로 할 때, 어떤 맥락 민감적인 어휘도 포함하지 않는 문장은 불변하는(constant) 특성을 가질 것이며, 모든 발화맥락에서 같은 내용을 표현할 것이다. 반면에, 맥락 민감적인 어휘를 포함하는 문장은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발화맥락에 따라서 다른 내용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카플란의 이론은 맥락 민감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어휘 및 문장에 대한 이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단 발화맥락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의 진리값이 자동적으로 또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진리값의 결정에는 카플

[33] 문장보다는 어휘항목(lexical item)에 대해서 카플란의 특성(character)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지만, 문장의 구성요소들의 특성들에 근거해서, 특성을 문장에 할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따라서 문장의 특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할 수 있다고 이건(2011)은 언급한다.

란이 '**평가상황**(circumstance of evaluation)'이라고 부르는 것, 또는 데이비드 루이스(Lewis, 1980)가 '**지표**(index)'라고 부른 것[34]이 (아래쪽 화살표↓와 관련된) 두 번째 단계에서 관여한다. 평가상황은 간단히 말해서, '**특정 발화맥락에서 발화된 문장의 진리값을 그 맥락 하에서 평가하는 가능한 상황들**'이다. 어떤 발화된 문장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발화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즉 발화맥락이 무엇인지 뿐만이 아니라 그 발화가 이루어진 시점의 상황이 발화 내용 그대로인지를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를 가리키면서 "그는 살아있다"는 문장을 t시간에 발화한 경우에, 그것이 나타내는 내용이 <소크라테스는 t시간에 살아있다>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의 진리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가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평가상황에서의 시간 t'가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기 직전이라면, <소크라테스는 t시간에 살아있다>라는 내용은 참이게 되겠지만, '평가상황에서의 시간 t'가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난 후라면, 그것은 거짓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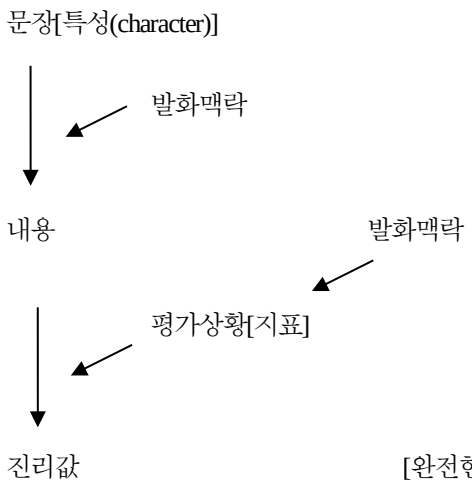
따라서 발화맥락에서 진리값을 문장들에 할당하는 것은 카플란에 따르면, 두 단계의 과정이 관계된다: 첫째, 발화맥락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 문장의 특성에 대한 입력으로서 이용된다. 그 다음 발화맥락에 대응하는 평가상황[지표]이 진리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맥락적으로 결정된 내용에 대해 입력으로서 이용된다. 따라서 한 맥락에서의 문장, 혹은 특별한 토큰 발화의 진리값은 발화맥락에 두 번–첫째, 특성에 대한 입력으로서, 둘째, 어떤 평가상황[지표]이 내용에 대한 유관한 입력으로 이용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민감하다. 예를 들어서, 지표사(예: 나)에 대한 맥락 민감성을 고려한다면, "나는 학생이다"는 문장은 그것을 A가 발화한다면, 이 문장은 발화맥락(그리고 이 경우에 화자)에 따라서 그 내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A는 학생이다>는 내용을 표현하게 되며, 이것이 참인지 혹은 거짓인지에 대한 평가상황은 이 경우에 발화맥락과 일치하게 되어서[35], 발화를 한 A가 발화한 맥락

[34] 여기서 루이스(Lewis, 1980)임을 주의해야 한다. 루이스(1970)는 이와는 달리, 진리값에 영향을 주는 모든 맥락적 요소들을 (몬테규와 유사하게) 지표라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루이스는, 몬테규와 비슷하게, 지표[평가상황]와 맥락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었다.

[35] 해당 경우에 <A는 학생이다>는 내용의 진리값을 평가하는 상황은 발화가 이루어진 시점, 즉 발화맥락과 같다.

에서 실제로 학생이면 참이 되고, 학생이 아니면 거짓이 되게 된다.

그런데 이런 표준적인 카플란의 그림에 따르면, 모든 평가상황들(지표들)이, 발화들 혹은 맥락에서 문장들에 대한 진리값을 결정하는 그들의 역할의 측면에서 동등한 것은 아니다. 발화 참(utterance truth), 즉 한 발화맥락에서의 문장의 참(the truth of a sentence in a context)[36]은, 맥락 C에서 문장 S의 내용이 (모든 지표가 아니라) 맥락 C에 대응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특정한 지표에 대해 산출하는 결정에만 단지 민감하다. 다시 말해서, 한 발화맥락에서의 문장 내용의 진리값은 (모든 지표가 아니라) **발화맥락과 관련된 지표**에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건(2011)에 따르면, 만약 우리의 도표가 맥락에서 문장들의 진리값의 결정에 대한 이런 완전한 카플란적 스토리를 반영하도록 하고 싶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써야 한다[37]:



(Egan, 2011, p.228)

이렇게 추가함으로써 위의 도표는 카플란의 그림을 따라서 맥락에서 한 문장의 진리값이 발화맥락에 두 번 민감하게 되는 방법을 포착할 수 있다. 특히, 이 도표를 통해서 발화맥락이 '발화맥락에서의 문장의 진리값과 유관한 지표'를 선택하는데 있어 특수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잘 표현된다.

---

[36] '발화 참(utterance truth)'과 보통 대비되는 개념은 '명제 참(proposition truth)' 즉, 한 명제에 대한 참이다.

[37]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이건은 다음 도표를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락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하지만 이 도표가 보여주는 것은 인식적 양상 및 맥락주의 논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여기서 차용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상에서 살펴본 지표사에 대한 카플란의 이론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자. 카플란은 언어적 표현의 의미(내포)를 두 가지 요소, 즉 맥락 독립적 뜻인 '특성(character)'과 맥락 의존적 뜻인 '내용(content)'으로 구분한다. 이들 중에서 표현의 언어학적 의미가 되는 것은 특성이며, 문장이 표현하는 뜻 중에서 진리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문장의 (특성이 아니라) 내용이다. 그리고 카플란은 특성을 '발화맥락으로부터 내용으로의 함수'로, 내용을 '평가상황으로부터 외연으로의 함수'로 정의하면서, 기존의 '문장 S가 가능세계 w에서 참이다' 및 '문장 S가 지표(index) *i*에서 참이다'라는 의미론의 중심개념을 '**발화맥락 *c***하에서 발화된 문장 S가 **평가상황 *e***에서 참이다'로 확장한다.

1.3. 인식적 양상에 대한 크랏저의 표준적 이론

이상의 맥락 민감성(및 맥락 의존성)과 관련된 카플란의 표준적인 이론에 대한 논의에 덧붙여서 본 논문의 주제를 위해서 보충할 필요가 있는 논의 내용은 인식적 양상에 대한 특수한 논의들이다. 나는 이와 관련하여 양상 일반 및 인식적 양상에 대해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들을 주로 크랏저(Kratzer)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건(2011)에 따르면, 양상에 대한 의미론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표준적인 견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전형적인 진술은 크랏저(Kratzer, 1977, 1981)[38]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세계 w에서 양상: P의 참은 세계 w에 어떤 특수한 관계(접근가능성 관계)를 갖는 세계들 w*에서 사물들이 P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의존한다.
>
> (Egan, 2011, p. 224에서 재인용하여 필자가 각색)

양상에 대한 이런 표준적인 견해에 따르면, 양상은 '가능세계들에 대한 양화사(quantifiers over possible worlds)'이며, 법칙적, 형이상학적, 의무론적, 인식적 양상 등의 다른 종류의 양상들은 유관한(relevant)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관계에서의 차**

[38] 크랏저에 의해 제시되는 양상에 대한 의미론은 Hintikka(1962), Kripke(1963)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양상에 대한 의미론으로서 대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교과서적 견해이다.

이에 의해서, 즉 여러 접근가능성 관계들에 상대적으로 서로 구별된다. 그러므로 어떤 접근가능성 관계를 그것들이 갖는지의 문제가 서로 다른 양상들을 구분 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접근가능성 관계'란 무엇이며, 이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양상 이론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보다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잠시 접근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39]. 원래, 접근가능성 관계는 (다양한 양상들에 대한 것이 아닌 일반적) 양상 문장들에 대한 참을 정의하기 위해서 크립키(1963)가 도입한 것으로, 간단히 말해서, 두 (가능) 세계들 사이의 (이항적인)관계라고 할 수 있다. 크립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만약 'p'가 세계 w로부터 접근가능한 모든 세계 w*에서 참이라면, 그리고 오직 그 때만 '필연적으로 p'는 세계 w에서 참이다. ('Necessarily *p*' is true at a world *w* if and only if '*p*' is true at every world *w** accessible from *w*.)
>
> (Kripke, 1963, 여기서는 Zalta, 1995, p. 9에서 재인용)

여기서 크립키가 접근가능성 관계를 사용하게 된 아이디어는, 잴타(Zalta, 1995)에 따르면, 모든 세계가 주어진 세계 w로부터 양상적으로 접근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40] 세계 w*에서 **참**인 모든 명제가 세계 w에서 **가능적으로 참**이라면, 그리고 오직 그 때에만, 세계 w는 세계 w*에 접근할 수 있다. (혹은 반대로, w*는 w로부터 접근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w*에서 진행되는 것은 **w의 관점으로부터의** 진정한 가능성이며, 그래서 w*에서 참인 명제들은 w에서 가능하다. 만약 w*에서 참이지만 w에서는 가능적으로 참이 아닌 명제들이 있다면, 그 때 그것은 w*가 w의 관점으로부터 가능하지 않은 사태를 표상하기 때문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p가 세계 w의 관점으로부터 가능한 **모든** 세계들에서 참인 한에서, '**필연적으로** p'라는 한 문장은 세계 w에서 참이다.

---

[39] 접근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양상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개관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나는 이후의 논의에서 '접근가능성' 개념 대신 '양상 패러미터(양상 토대)' 개념을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접근가능성과 관련된 이하 논의를 읽지 않는다고 해도 독자가 논문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40] 이하 Zalta(1995), p. 9 및 p. 13에서 필자가 각색함.

이상을 우리의 현실세계가 w라고 가정하면서 예를 들어 말해보자. 우리의 세계로부터 우리와 다른 어떤 다른 세계가 접근될 수 있으려면, (적어도) 그 다른 세계에서 참인 것이 우리 세계에서는 가능적으로라도 참이어야 한다. 만약 우리의 현실세계에서 가능적으로도 참이 아닌 '2+2≠4'라는 문장이 어떤 다른 세계에서 (사실) 참이라고 한다면, 그 세계는 우리의 세계로부터 접근될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다'는 문장이 우리세계에서 필연적으로 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세계의 관점으로부터 가능한 다른 모든 세계들에서 이 문장이 참일 때에만 허락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세계에서 빛보다 빠른 물질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다'는 문장이 우리세계에서 필연적으로 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w*에서 진행되는 것은 w의 관점으로부터의 진정한 가능성이며, 그래서 w*에서 참인 명제들은 w에서 가능하다'는 이런 생각은, 잴타에 따르면, 접근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또 다른 방식을 제안한다. 우리는 '신의 눈에서 가능한 모든 세계들의 집합으로서의 W'안에 있는 '모든 세계들의 집합'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W안의 한 원소인 어떤 주어진 세계 w의 거주민들의 관점으로부터, 모든 세계들 w*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w의 관점으로부터 가능하지 않은 w*의 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접근가능성 관계는 어떤 세계들이 주어진 세계 w의 관점으로부터 진정한 가능한 세계들인지를 명확하게 만든다. 직관적으로, 그때, 세계 w*가 세계 w로부터 접근될 수 있을 때 마다, 만약 ϕ가 w*에서 참이라면, 그때 '필연적으로 ϕ이다'는 w에서 참이고, 동등하게, 만약 '필연적으로 ϕ이다'가 w에서 참이라면 ϕ는 w*에서 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접근가능성 관계는 양상 논리의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측면 모두에서 그리고 또한 다양한 종류의 양상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는 접근가능성 관계와 관련된 이런 역할들 중에서,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보다는 본 논문의 주제와 보다 밀접히 관련된 논의, 즉 다양한 종류의 양상-그리고 특히 인식적 양상-에 대해 접근가능성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의를 집중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다시, 법칙적, 형이상학적, 의무론적, 인식적 양상 등의 다양한 종류의

양상들이 접근가능성 관계에서의 차이에 의해서 서로 구분된다는 이전 논의로 돌아와 보자. 양상에 대한 표준적인 이론에 따르면, '세계 w에서 법칙적으로(nomologically) 가능한 것'은 w로부터 법칙적으로 접근가능한 어떤 세계-그것의 역사가 w의 법칙과 양립가능한 어떤 세계-에서 참인 것이며, 'w에서 의무론적으로 가능한 것'은 w로부터 의무론적으로 접근가능한 어떤 세계에서 참인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의 주제인 인식적 양상과 관련하여, 'w에서 인식적으로 가능한 것(What's epistemically possible in w)'은 어떤 한 세계에서 참인 것인데, 그 세계는 어떤 의미에서 w로부터 인식적으로 접근가능하다. (아마도 해당 세계는 세계 w에 있는 어떤 사람 혹은 집단의 인식적 상태와 양립가능한 어떤 세계가 될 것이다.)[41]

한편, 접근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된 이상의 다양한 양상들에 대한 설명은 양상 패러미터를 중심으로 다른 방식으로도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상을 표현하는 한 발화는 항상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식에 적합하도록 바꿔 쓰일 수 있다:

(#) [법칙 혹은 규칙들의 집합, 바램들, 믿음들, 지식상태들 등등]에 따르면, [주요 명제]가 사실인 것은 [필연적, 가능적]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도 빛보다 더 빠를 수는 없다."와 같은 문장의 발화는 '(우리 세계의) 물리법칙 등에 따르면, <어떤 것도 빛보다 더 빠를 수는 없다>가 사실인 것은 필연적이다'와 같이 전환될 수 있다. 여기서 평가의 기초를 형성하는 명제들의 집합, 즉 'A에 따르면'에서 A에 해당하는 것들은 '**양상토대(modal base)**'라고 보통 불린다. 다소 다른 방식으로 말한다면, 양상토대(양상 패러미터)는 '법칙 혹은 규칙들의 집합, 바램들, 믿음들, 지식상태들 등등'과 양립가능한 세계들의 집합이다. 빛 문장은 (물리)법칙적 양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계의) 물리법

[41] 이건에 따르면, 이상의 설명은 크랏저가 말하는 바 그대로는 아니다. 왜냐하면 크랏저는 접근가능성 관계뿐만이 아니라 세계들에 대한 배치(ordering)를 부과하는 어떤 것-즉 '대화적 배경(conversational background)'-도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성을 위해서 이건은 후자의 것에 대한 논의를 생략한다. 나 역시 후자에 대한 논의가 필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생략된 크랏저의 논의를 언어철학적인 기반 하에 대략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핀텔과 길리스(2007)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참조하라.

칙'은 법칙적 양상토대가 된다. 따라서 이렇게 양상토대를 기준으로 다양한 양상들을 설명한다면, 각각의 양상들은 양상토대에서의 차이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양상들은 접근가능성 및 양상토대의 차이에 의해서 서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본 논문의 주제인 인식적 양상과 관련하여, **인식적** 접근가능성의 관계 및 **인식적** 양상토대(양상 패러미터)에 대해서 좀 더 말해보자. 인식적 접근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42]

> 만약 (세계 w에 있는) 한 주체 S가 세계 w*와 세계 w가 같다는 가설을 배제할 어떤 것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한 세계 w*는 주체 S에 대해 세계 w로부터 **인식적으로 접근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인식적 접근가능성 개념을 통해서 인식적 필연성은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

> 만약 P가 (주체 S에 대해) 세계 w로부터 인식적으로 접근가능한 **모든** 가능한 세계들에서 참이라면,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P는 (주체 S에 대해) 인식적으로 **필연적**이다.

그런데 인식적인 접근가능성과 관련된 이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도 있다. 앞서 한 주체가 세계 w*와 세계 w가 같다는 가설을 배제할 어떤 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인식적 접근가능성과 관련된 필요충분조건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조건은 'w에서 한 주체의 인식적 상태와 양립가능한 어떤 세계 w*가 있다는 것'으로 대체되어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인식적 접근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또한 규정가능하다.

> 만약 w에서 **한 주체의 인식적 상태와 양립가능한** 어떤 세계 w*가 있다면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한 세계 w*는 주체 S에 대해 w로부터 인식적으로 접근가능하다

여기에 덧붙여서, (인식적 양상이 인식적 접근가능성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앞서 언급된 내용과 같이) 'w에서 P가 (주체 S에게) 인식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P

[42] 이하 Fitelson(2011)의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가 (주체 S에 대해) 세계 w로부터 인식적으로 접근가능한 어떤 가능한 세계에서 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적 접근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서, 인식적 양상(그 중에서 인식적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 만약 P가 w에 있는 한 주체 S의 인식적 상태와 양립가능한 어떤 세계 w*에서 참이라면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P가 (w에서) 한 주체 S에게 **인식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P가 인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P가 주체 S의 지식과 양립가능한 어떤 세계에서 참**'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이는 곧 'P가 주체 S의 인식적 상태에 상대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앞선 양상토대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한다면, 'P가 인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주체S의 지식상태에 따르면, P라는 것은 가능적이다**'고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인식적 양상토대는 '주체S의 지식상태'가 된다. 이런 인식적 양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는 '~일 수(도) 있다(might)'를 포함하는 인식적 양상문장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다.

- 'P 일수(도) 있다(might: P)' 형식의 인식적 양상 문장은 참이다
  iff P가 (주체에게) 알려진 것과 양립 가능하다.
- 'P 임에 틀림없다(must: P)'형식의 인식적 양상 문장은 참이다
  iff not-P가 (주체에게) 알려진 것과 양립 불가능하다.

비록 (인식적) 양상에 대한 역사적인 논의들을 개관하는 과정에서 내가 '접근가능성' 개념에 대해 논의하기는 했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양상 패러미터(양상 토대)만을 통해서도 같은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는 양상 패러미터를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1.4. 일반적인 고전적 불변주의와 인식적 양상에 대한 고전적 불변주의

이상 1.1절에서 1.3절까지 살펴본, 가능세계 의미론 일반, 지표사에 대한 카플란의 이론, 그리고 인식적 양상에 대한 크랏저의 이론은 본 논문에서 살펴볼 모든 입장들이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만, 맥락주의 및 상대주의를 포함하는

가변주의와 이에 반대되는 불변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상과 같은 표준적 이론들을 어느 주제 범위까지 적용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우선 어휘 일반에 대한 '고전적 불변주의(Classical Invariantism)'[43]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입장에 대해서 말해보자.[44] 이 주장은 가변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기 이전인 2000년대 초반까지 비교적 널리 받아들여졌었다.[45] 고전적 불변주의는 매우 거칠게 말해서, 문장의 의미에 대해 지배적인 입장으로 간주되는 진리조건 의미론(Truth-Conditional Semantics)에서의 대부분의 문장의 의미, 즉 진리조건이 화자가 문장을 발화하는 맥락과 상관없이 항상 불변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 견해에 의하면, 대부분의 문장들에 대해서 이들의 진리조건은 발화맥락(혹은 기타 맥락적 요소들)과 상관이 없다. 하지만 이런 거친 규정이 고전적 불변주의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전적 불변주의는 앞서 살펴본 지표사 및 인식적 양상과 관련하여 약간의 예외들을 허용한다. 지표사에 대한 예외만을 허용하는 입장을 '보다 일반적 의미에서의 고전적 불변주의'라고 한다면, 인식적 양상에 대한 예외도 또한 인정하는 입장은 '인식적 양상에 대한 고전적 불변주의'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일반적인 고전적 불변주의에 대해서 말해보자. 고전적 불변주의가 대부분의 문장의 의미 및 진리값에 대한 맥락 의존성을 부정하거나 축소하지만, 모든

---

[43] 참고적으로 '불변주의(Invariantism)'라는 용어는 Unger(1984)가 지식귀속과 관련하여 처음 사용한 것이다. Unger는 지식귀속문장의 내용이 상황적인 것이 변함에 따라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지식귀속과 관련된 (불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다.

[44]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고전적 불변주의는 지식귀속에 대해서 호쏜(Hawthorne, 2004 등), 스탠리(Stanley, 2005 등) 등에 의해서 최근에 주장되고 있는 '관심-상대적 불변주의(Interest-Relative Invariantism)' 및 '주체-민감적 불변주의(Subject-Sensitive Invariantism)'와 다르다. 어휘 표현 일반에 대한 것인지 특정 표현에 대한 것인지를 떠나서, 지식귀속이라는 같은 주제 영역에 논의를 국한 시킨다고 하더라도, 양 불변주의는 차이가 있다. 맥팔레인(MacFarlane, 2005a)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지식귀속에 대한 고전적(엄격한) 불변주의가 발화맥락과 지표의 상대성을 모두 부정하는 반면에, 관심-상대적(주체-민감적) 불변주의는 발화맥락에 대한 상대성은 부정하지만 지표에 대한 상대성은 부정하지 않는다. 이들에 따르면, 지표의 한 요소인 주체 혹은 주체의 관심(이익)에 따라서 지식귀속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입장들은 고전적 불변주의를 '엄격한(strict) 불변주의'라고 이해할 때, '온건한(moderate) 불변주의'라고 이해될 수 있다.

[45] 가변주의의 도전이 거세지기 전에는 이런 주장이 거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는 특정한 철학들을 찾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표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고전적 불변주의도 지표사(indexicals)에 대한 취급은 예외로 삼는다. (앞서 1.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플란이 지표사의 의미론에 대한 기념비적인 업적을 이룩한 이후에, '나', '여기', '지금' 등의 지표사들은 누가 언제 발화했는지에 따라서 그 내용[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 정설로 자리 잡혀 있다. 그리고 이것을 불변주의 진영에서도 또한 인정한다. '불변주의'라는 용어에 집착할 때, 그것은 모든 언어 표현이 맥락과 상관없이 불변하는 의미값(semantic value)[46]을 갖는다고 오해될 수 있지만, 여기서 논의하는 불변주의는 최소한 특정한 **어떤** 언어 표현, 즉 지표사는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가변주의는 맥락 민감성을 지표사뿐만 아니라 기타 언어표현들에도 적용시킨다. 따라서 어휘 일반에 대한 불변주의와 가변주의의 논쟁은 맥락 민감성을 갖는 표현을 지표사까지 제한하느냐 혹은 지표사 이상으로 확장하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식적 양상에 대한 고전적 불변주의의 예외 사항 인정에 대해 말해보자. (앞서 1.3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인식적 양상 문장의 의미에 대한 크랏저의 표준적 견해에 따르면, 인식적 양상을 포함하는 문장의 내용 및 그것의 진리값은 주체에게 알려진 것, 즉 주체의 지식상태에 의존한다. 그리고 이것은 불변주의도 또한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불변주의가 (인식적 상태와 전혀 무관한 형이상학적 양상과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인식적 상태와 연관된 인식적 양상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 입장은 해당 주체가 맥락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다른 주체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거부한다. 앞서 서론에서 살펴본 열쇠의 예를 상기해 보자. "열쇠는 서랍에 있을 수(도) 있어(The key might be in the drawer)"와 같은 발화 문장과 관련해서 열쇠가 서랍에 있을 인식적 가능성은 주체 A가 아는 바와 주체 B가 아는 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불변주의의 직관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해당 열쇠 문장이 인식적 상태와 연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때의 인식적 상태는 **'신의 그것과 같은 이상적인 지식상태' 혹은 '구체적 상황에서의 특정 주체가 아닌 보편적인 임의의 일반 주체의 지식상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열쇠

[46] '의미값(semantic value)'은 언어학 및 언어철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언어들의 의미론적 특징들 -예를 들어서 진리조건 및 추론적 연결-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들에 의해 표현들에 할당되는 존재자(entity)이다. (Dever, 2006, p. 1)

가 서랍에 있을 가능성과 관련하여, 주체 A와 주체 B가 각자 자신의 증거적 상태에 따라서 자신들의 주장을 할 권리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불변주의에 의하면 분명히 잘못된 귀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47]

이제 고전적 불변주의와 가변주의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자. (지표사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고전적 불변주의는 지표사에 국한하여 내용 및 진리값의 맥락 의존성을 주장(카플란의 이중적 지표화 전략을 선택)하는데 반해서 일반적인 가변주의는 그 이외의 표현들-취향술어(맛 관련 어휘), 도덕적 어휘, 미학적 어휘, 미래시제, 지식귀속, 인식적 양상 등-에도 이런 맥락 의존성을 확장한다. 그리고 (인식적 양상과 관련하여) 인식적 양상에 대한 고전적 불변주의는 적합한 주체의 지식상태가 신 혹은 임의의 주체의 지식상태라고 주장하는데 반해서, 인식적 양상에 대한 가변주의는 적합한 주체의 지식상태가 구체적인 어떤 특정 맥락 하에서의 주체, 즉 화자 혹은 판정자 등이라고 주장한다.[48]

[47] 참고적으로 인식적 양상과 관련하여 이런 고전적인 불변주의를 주장하는 최근의 논문은 Braun(2012)이다. 고전적 불변주의가 가변주의의 등장과 함께 급격히 쇠퇴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논문의 시도는 매우 특색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8] 한편, 이와 같은 인식적 양상에 대한 불변주의와 가변주의의 구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사안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인식적 양상이 주체 상대성, 즉 주체의 지식상태와의 양립가능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인식적 양상은 기본적으로 가변주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정의상 인식적 양상에 대한 불변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규정된 바와 같이, 임의적 주체(및 주체의 지식상태)에 상대적인[의존적인] 것으로서의 인식적 양상에 대한 불변주의는 분명 가능하다. 결국, 인식적 양상에 대한 불변주의와 가변주의의 구분은 '주체(및 주체의 지식상태)'라는 개념을 각기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는가와 관련된다. 불변주의는 막연한 주체를 상정하며, 가변주의는 구체적인 주체를 상정한다.

2장. 불변주의에 대한 가변주의의 도전들: 인식적 양상문장에 대한 맥락주의와 상대주의

이제까지 1장에서 표준적 견해로서 가능세계 의미론 일반 및 지표사에 대한 카플란의 이론, 그리고 크랏저의 인식적 양상 이론에 대해서 개관하고, 왕년의 스타였지만 이제는 공공의 적이 된 고전적 불변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불변주의가 완벽하게 무너졌다는 결론은 아직 성급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가변주의 진영의 풍부한 논의들과 비교할 때, 불변주의가 열세인 것은 기정 사실인듯하다. 특히 인식적 양상과 관련하여, 일반 양상과 구분되는 것으로서의 인식적 양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단 받아들이게 된다면, 불변주의의 입지는 급속히 축소되는 듯하다. 사람들 각각이 접할 수 있는 정보, 지식상태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정보를 갖추지 않는다면 어떤 것에 대한 가능성을 전혀 주장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극단적인 원칙이 통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들 각자는 모두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 이외의 사람이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되는 정보, 지식에 근거하여 어떤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각 개인은 (실제 객관적 가능성의 참 여부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어떤 것에 대한 가능성을 주장할 권리를 마땅히 지닌다. 따라서 이런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인식적 양상에 대한 불변주의는 공감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이상의 간략한 나의 언급이 불변주의에 대한 앞으로의 홀대를 충분히 정당화시켜 줄 수는 없겠지만, 나는 가변주의적 직관이 올바르다고 믿고 있으며,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이 가변주의 내에서 올바른 입장을 찾는데 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불변주의에 대한 논의는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 논문의 중심 주제인 가변주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보자. 나는 기본적으로 가변주의가 올바른 방향에 놓인 견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변주의의 두 대표적인 입장인 맥락주의와 상대주의가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3장과 4장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선 이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가변주의 내의 복잡한 입장들을 간략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나는 2장에서 맥락주의 및 상대주의

가 대두되게 된 간략한 배경을 살펴보고, 이들 입장이 두 가지 중심이 되는 문제축을 따라서 네 입장들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다. 끝으로 나는 이런 두 중심 문제들의 특성들과 그것이 맥락주의와 상대주의 논쟁에서 가지는 의의를 살펴볼 것이다.

2.1. 맥락주의의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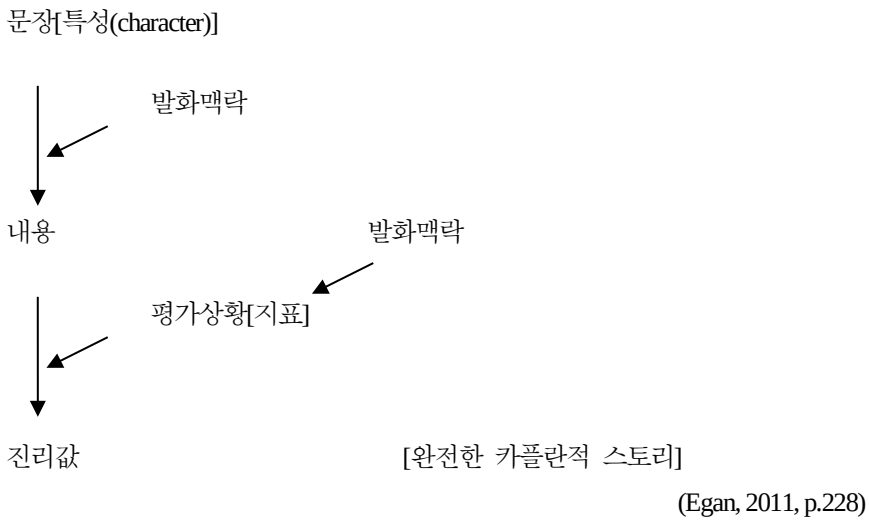
2.1.1. 맥락주의 일반

1.4절에서 고전적인 불변주의는 맥락 민감성(context-sensitivity)혹은 맥락 의존성(context-dependency)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는 입장이라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런 고전적 불변주의에 반대하는 가변주의는 지표사 이외에, 취향술어(맛 관련 어휘), 도덕적 어휘, 미학적 어휘, 미래시제, 지식귀속, 인식적 양상 등의 표현들 역시 맥락 민감적(맥락 의존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가변주의의 대표적인 입장인 맥락주의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가? 맥락주의의 핵심적인 주장은 맥락 민감적인 표현들을 포함하는 문장들이 나타내는 내용 혹은 명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그 내용의 진리값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문장이 발화된 맥락, 즉 **발화맥락(Context of Utterance)이 관련**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우선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입장들이 모두 맥락주의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맥락(context)'이란 표현이 전형적으로 문장이 발화된 맥락을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지만, 최근의 논의에서 맥팔레인을 포함하여 맥락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일부 철학자들은 맥락을 발화맥락만이 아닌, 판정맥락(Context of Assessment)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확장하여 사용한다. 게다가 단순히 발화맥락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만으로 맥락주의를 규정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이 있다. 맥락주의에 대한 반대론자들 역시 발화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고전적 불변주의자들은 비록 지표사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발화맥락에 대해서 논의하며, 가변주의의 또 다른 입장인 상대주의자들 역시 (판정맥락뿐만이 아니라) 발화맥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따라서 맥락주의를 제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화맥락과 연관된 입장으로 그

것을 기술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

맥락주의를 규정하는 보다 나은 방법은 **지표사에 대한 표준적인 카플란적 견해를 지표사 이외의 다른 표현들에도 확장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포함하는 문장의 내용 및 진리값이 발화맥락에 따라서만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으로 그것을 기술하는 것이다.[49]

앞서 1장에서 우리는 지표사에 대한 카플란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이건(2011)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도표화될 수 있었다.



(Egan, 2011, p.228)

이런 카플란의 지표사에 대한 이중 지표화(double indexing) 이론의 틀 내에서, 지표사 대신에 취향(맛) 관련 어휘, 도덕적 어휘, 미학적 어휘, 미래시제, 지식귀속, 인식적 양상 등의 일련의 용어를 대입시킨 입장이 일반적인 맥락주의 이론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맥락주의는 맥팔레인(MacFarlane)을 따라서 '지표적 맥락주의(Indexical Contextualism)'와 '비지표적 맥락주의(Non-indexical Contextualism)'로 구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입장으로 맥락주의가 구분되게 된 것은 '맥락 민감적인 표현들을 포함하는 문장의 내용 및 그것의 진리값이 발화맥락에 따라서만 변

[49] 카플란은 이런 점에서 지표사에 대한 그의 분석을 다른 표현들에 확장하지 않기 때문에 맥락주의자로 분류될 수 없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맥락주의 일반에 대해서, 내용 혹은 진리값이 절대적으로 결정되는지 혹은 상대적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지표적 맥락주의에 대해서 말해 보자.

1) 지표적 맥락주의

지표적 맥락주의는 맥락 민감적인 어휘들을 포함하는 (특정 패러미터가 물리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문장은 발화맥락과 관련된 상대적인 내용을 가지지만, 이 상대적인 내용이 발화맥락이 고정됨에 따라서 발화맥락의 요소인 화자(및 화자의 지식상태) 패러미터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그것의 진리값은 (해당 발화맥락과 관련하여) 절대적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취향 패러미터가 명시되지 않은) "삭힌 홍어회는 맛있어"라는 문장을 발화했을 때, 이 발화문장은 <철수의 입맛기준에 따르면, 삭힌 홍어회는 맛있어>와 같이 발화맥락의 한 요소인 화자 철수의 입맛[취향] 패러미터에 상대적인 내용을 표현하며, 이 내용은 또 다른 추가적 패러미터-예를 들어 청자인 영희의 입맛-에 상관없이 발화맥락과 관련하여 절대적으로 참 혹은 거짓을 갖는다. 일단 발화맥락이 고정이 되면, 그에 따라 내용이 결정이 되며, 따라서 진리값 또한 고정되는 것이다. 이상의 지표적 맥락주의는 다른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지표적 맥락주의**] 두 발화맥락 C와 C*에서 각각 내용이 다름으로써, 문장 S는 발화맥락 C에서는 참이고, 발화맥락 C*에서는 거짓일 수 있다

이 입장이 '지표적 맥락주의'라고 불리는 것은, '나', '지금', '여기' 등의 지표사(indexicals)가 발화맥락에 따라서 다른 내용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맛있다', '~일 수(도) 있다'와 같은 맥락 민감적인 표현들이 발화맥락과 관련하여 지표사적 특징을 갖는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다.

2) 비지표적 맥락주의

이런 지표적 맥락주의와 달리, 비지표적 맥락주의는 맥락 민감적인 어휘들을

포함하는 (특정 패러미터가 물리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문장의 내용이 발화맥락과 관련하여 상대적이라는 점을 부정한다. 다시 말해서 비지표적 맥락주의에 따르면, 맥락 민감적인 어휘들을 포함하는 (특정 패러미터가 물리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문장의 내용은 패러미터를 포함하지 않는 물리적으로 발화된 그대로의 절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절대적인 내용이 발화맥락과 관련하여-보다 정확하게는 발화맥락이 영향을 끼치는 평가상황과 관련하여-상대적인 진리값을 가질 수 있다. 홍어회와 관련된 위의 철수의 예에서, “삭힌 홍어회는 맛있어”라는 철수의 발화 문장이 표현하는 내용은 비지표적 맥락주의에 의하면 물리적으로 발화된 문장 그대로인 <삭힌 홍어회는 맛있다>이며, 이 내용은 발화맥락에 따라서 다른 진리값을 가질 수 있다. 만약에 해당 문장을, 위의 예에서와 같이, 철수가 발화한다면, 해당 내용의 진리값은 철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것을 경희가 발화한다면, 그것의 진리값은 경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이런 입장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결정된 (패러미터를 포함하는) 내용이 절대적인 진리값을 갖는 것이 아니라, (패러미터를 포함하지 않는) 절대적인 내용이 어떤 패러미터-발화맥락의 한 중심 요소인 화자 패러미터-에 상대적으로 다른 진리값들을 가질 수 있다. 단,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고전적으로 우리가 ‘내용’ 혹은 ‘명제’라고 말해왔던 것과 다른 것이다. 고전적인 명제[내용]와 다르게 패러미터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50]. 이제 비지표적 맥락주의는 지표적 맥락주의를 정식화한 방식과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비지표적 맥락주의**] 비록 서로 다른 두 발화맥락 C와 C*에서 내용이 같다고 하더라도, 이런 **같은 내용**이 발화맥락 C와 발화맥락 C*에 의해서 결정되는 각기 다른 평가상황들과 결합함으로써, 결국 문장 S는 한 발화맥락에서는 참이고 다른 발화맥락에서는 거짓일 수 있다.

정리하자면, 비지표적 맥락주의는 발화맥락의 요소인 화자에 따라서 발화된 문장의 진리값이 달라질 수 있다고 최종적으로 주장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맥락주

[50] ‘명제’를 참과 거짓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때, <P>라는 명제는 곧바로 참 혹은 거짓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비지표적 맥락주의가 상정하는 명제[내용]에 따르면, P는 곧바로 참/거짓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패러미터에 상대적으로 참/거짓을 갖는다. 따라서 여기서 전제되는 명제는 고전적인 명제와 다르다.

의라고 불릴 수 있지만, 지표적 맥락주의와 달리, 맥락 민감적인 어휘들을 포함하는 (특정 패러미터가 물리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문장이 서로 다른 발화의 맥락들에서 같은 내용을 표현하면서도 발화맥락이 영향을 주는 평가상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당 문장 내용의 진리값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진리값의 차이가 내용의 차이보다는 평가상황[지표]의 요소인 패러미터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결국, 지표적 맥락주의와 비지표적 맥락주의의 구분은 진리값의 차이를 내용 탓으로 돌리는지(지표적 맥락주의) 아니면, 패러미터 차이로 돌리는지(비지표적 맥락주의)에 대한 것이다.

2.1.2.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락주의

그러면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락주의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비교적 간단하다.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락주의는 맥락주의 일반에 대한 규정이 인식적 양상에 대한 특수성과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종전의 '일반적인 맥락주의에 대한 두 구분되는 입장인 지표적 맥락주의와 비지표적 맥락주의의 구분'이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락주의에도 또한 적용된다. 하지만 논의를 간편히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보다 전형적인 주장인 **지표적 맥락주의를 중심으로**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락주의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자.

앞서 1장에서 우리는 인식적 양상에 대해서 표준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크랏저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접근가능성' 개념을 제외하고서 이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떤 것이 인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누군가의 (현재) 지식 혹은 정보상태에 상대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인식적 가능성에 대한 표준 이론이 발화맥락을 중심에 두는 맥락주의와 결합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게 된다.

>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락주의**] 'P가 인식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P가 **화자 및 화자를 포함하는 집단**의 지식 혹은 정보상태에 상대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맥락주의에서 중심이 되는 '발화맥락'이라는 개념은 인식적 양상과 관련하여, 발화맥락의 중심 요소인 '화자의 지식상태'로 대체되어 설명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락주의의 핵심적 주장은 '적합한 양상 패러

미터 혹은 양상토대를 화자 및 화자를 포함하는 집단의 지식상태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락주의가 화자를 그 중심에 두면서도, 처음부터 화자를 포함하는 집단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 즉 초창기의 맥락주의는 화자 단독만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락주의는 화자의 지식만을 고려하는지 혹은 화자를 포함하는 유관한 집단의 지식을 고려하는지에 따라서, 맥팔레인(2011a)의 명칭 구분을 따라, '유아론적 맥락주의(Solipsistic Contextualism)'와 '비유아론적 맥락주의(Non-solipsistic Contextualism)'로 각각 구분될 수 있다.[51, 52] 우선 보다 기본적인 형태인 유아론적 맥락주의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앞서 설명된 일반적인 맥락주의가 '맥락 민감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문장은 발화 및 사용의 맥락에 따라서 다른 내용, 진리값을 갖는다'고 보다 포괄적으로 주장하는데 반해서, 인식적 양상에 대한 유아론적 맥락주의는 발화 및 사용의 맥락에서의 화자의 지식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따르면, "철수는 달리고 있을 수(도) 있다(Chulsoo might be running)"는 (발화된) 문장은 화자가 아는 것이 철수가 달리고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 경우-즉, 화자가 아는 것과 철수가 달리고 있다는 것이 양립가능한 경우-에 참을 표현한다. 여기서 고려하는 유아론적 맥락주의는 맥팔레인에 따르면, 만약 그것들이 관련된 세계들의 집합을 화자의 지식 혹은 증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인식적 양상들을 (크랏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식적으로 가능한 세계들에 대한 양화사들로 이해하는 이론이다.[53]

그러면 이런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락주의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논증을 살펴

---

[51]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유아론적 맥락주의와 비유아론적 맥락주의의 구분은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락주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맥락주의 일반과 관련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맥락주의 일반뿐만이 아니라 상대주의 일반 및 특정한 표현에 대한 상대주의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식귀속에 대한 유아론적 상대주의 및 비유아론적 상대주의가 존재한다. 하지만 논의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락주의와 관련하여 유아론적/비유아론적 견해를 논의하기로 하겠다.

[52] 철학에서 유아론(solipsism)이 갖는 특수한 성격을 감안한다면, 유아론적/비유아론적 구분보다는 개인적/집단적 구분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만, (맥락주의 및 상대주의 논쟁의 중심에 서있는) 맥팔레인(2011a)이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53] 이건(2011)

보도록 하자. 이 논증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인식적 양상 표현을 포함하는 문장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이들 문장의 용법들과 관련하여 보통 어떤 직관을 실제 갖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된다. 한 화자의 지식이 관련된다고 주장하는 유아론적 맥락주의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논증으로 우리는 드로즈(DeRose, 1991)의 논증을 고려할 수 있다.[54]

> [**암 검진**] 민수는 방금 병원진단을 받았으며, 암이라는 것을 배제할 음성 판정을 얻었다. 하지만 민수의 누나 민희는 결과가 어떠한지를 모르고 있다. 그녀는 민수의 건강에 대해 묻는 경수에게 "민수가 암에 걸렸다는 것은 **가능**해-병원 측은 이와 관련된 검사를 했지만, 우리는 내일까지는 그 결과를 모를 거야"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같은 시각에, 음성 판정 결과를 본 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민수씨가 암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다른 질병들에 대한 검진을 계획해야 한다."
>
> (DeRose, 1991, 여기서는 Egan, 2011, p. 220에서, 필자가 각색하면서 재인용)

이런 경우에 민희와 의사는 모두 참되게 말을 한 것처럼 보인다.[55] 인식적 양상 문장들이 **다른 맥락**에서 다르게 발화되었을 때,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식적 상태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인식적 상태에 반응한다. 민희가 "민수는 암이 있을 수(도) 있어"라고 말한다면, 그녀가 말한 것은 <민수가 암이 있다는 것이 화자인 민희가 아는 것과 양립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참되게 말한 것이다. 그리고 전혀 다른 맥락에서, 만약 의사가 "민수씨는 암이 있을 수도 있어"라고 말한다면, 그(의사)가 말한 것은 <민수가 암이 있다는 것이 해당 화자인 의사가 아는 것과 양립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참되게 말한 것이다.

다른 한편, 민희와 의사가 같은 발화맥락, 즉 같은 대화상황에 있으며, 의사가

---

[54] 여기서 누군가는 드로즈가 인식적 양상에 대한 논의를 명시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호쏜, 웨더슨(2005)에 따르면, 드로즈(1991)는 '가능한(possible)'에 대한 맥락주의적 제안을 제시했으며, 이건(2011)은, 비록 드로즈가 자신의 예를 인식적 양상에 대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인식적 양상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55] 그리고 드로즈는 그의 논문에서 '가능한(possible)'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 사례를 인식적 양상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일 수(도) 있다(might)'는 표현으로 구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말을 하고 민희가 이것을 듣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에 맥락주의는 화자 패러미터를 그 중심에 두기 때문에 청자인 민희가 화자인 의사의 지식상태를 기준으로 의사의 말을 이해해야 한다고 예견한다.

이상의 유아론적 맥락주의와 대조적으로,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락주의의 비유아론적 버전에 따르면, 유관한 지식상태는 화자뿐만이 아니라 화자가 포함하기를 의도하는 **일련의 집단**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집단의 구성요소가 화자 개인만을 포함할 때, 그것은 유아론적이 되며, 화자와 (화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화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또한 포함할 때, 비유아론적이 된다. 일상생활에서 인식적 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할 때, 화자 자신만의 지식상태를 근거로 하기 보다는 화자와 화자의 말을 듣고 있는 대화의 다른 참여자들 모두를 염두에 두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화자만을 포함하는 것보다, 화자 및 다른 참가자들을 포함하는 것이 보다 많은 사례들을 포섭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점에서 인식적 양상에 대한 **표준적 맥락주의**(Standard Contextualism)[56]는 비유아론적 맥락주의를 주로 가리키며, 이것의 핵심주장들을 맥팔레인(2010 draft)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의 정리는 앞서 잠시 언급된 단순 인식적 양상(Bare Epistemic Modals)을 바탕으로 한다.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은, 누구의 지식이 관여되는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나에게는, 그것은 그럴 수 있다"와 같은 문장이 아니라, "그것은 그럴 수 있다"와 같이 주체 및 주체의 지식상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장이다.)

SC1[57]: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의 발화들은 전형적으로 단일한 명제에 대한 주장들(assertions)이다.

SC2: 이 명제가 무엇인지는 유관한 **집단**에 의해 알려진 것에 의존한다. "P일 수(도) 있다(might)"는 P가 그 **집단**의 지식에 의해 열린 채로 남겨진 **어떤** 세계들에서 참이라는 명제를 표현하며, "P임에 틀림없다(must)"는 P가 **모든** 그런 세계들에서 참이라는 명제를 표현한다.

SC3: 이 집단의 구성은 사용의 맥락, 즉 발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 상황의 특징들-화자의 의도를 포함할 수 있는 특징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

[56] 표준적 맥락주의는 때때로 '고전적 맥락주의(Classical Contextualism)'로 불리기도 하며, 대체로 비유아론적인 지표적 맥락주의를 가리킨다.

[57] 맥팔레인의 원 논문에서는 'SC'가 아니라 'S'로 표기되어 있다.

SC4: 화자가 주장의 내용이 참이라고 생각할 좋은 이유를 가질 때만 화자가 **주장**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SC5: 만약 청자들이 주장의 내용을 거짓이라고 생각할 좋은 이유를 가진다면, 청자들이 주장을 **거부**하는 것은 적합하다.

SC6: 만약 그녀가 주장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생각할 좋은 이유를 가진다면, 화자는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MacFarlane, 2010 draft, pp. 3-4에서 필자가 각색)

여기서 SC1, SC2, SC3는 표준적 맥락주의의 직접적인 특성 및 주장 내용에 해당하며, SC4, SC5, SC6는 맥락주의를 옹호함으로써 뒤따르는 귀결과 연관되는 것으로, 화자의 주장, 철회 및 청자의 거부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인식적 양상에 대한 표준적 맥락주의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SC2에서 언급되는 유관한 집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SC3에서 언급되는 화자의 의도를 포함할 수 있는 발화맥락의 구체적 상황의 특징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명제와 그것의 진리값은 화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모든 집단이 아니라,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발화가 이루어진 대화 맥락 내의 집단**의 지식상태에 의존한다. 앞서 일반적인 맥락주의가 발화맥락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제한조건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부적 주제에 대한 맥락주의인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락주의 역시 발화맥락과 관련된 제한조건을 갖는 것이다.

한편, 이런 인식적 양상에 대한 표준적 맥락주의의 주장을 앞선 완전한 카플란적 스토리를 반영하여 이해하자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화자 A가 "P일 수(도) 있다"와 같은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을 발화했을 때, 그것이 나타내는 내용은 발화맥락을 고려하여, 화자와 화자가 염두에 두는 대화 내의 집단구성원들의 지식상태를 포함하는 <A와 (A가 염두에 두는 발화맥락 내의) 일련의 집단들의 지식상태에 따르면, P일 수(도) 있다>가 되며, 이 내용의 진리값은 다른 요소들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결정된다.

이상 2.1절에서, 맥락주의 일반 및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락주의가 어떤 입장인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그런데 이런 맥락주의를 둘러싼 논의들이 학자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맥락주의와 맥락주의가 반대하는 불변주의 진영 사이의 치열한 대결구도 때문만은 아니었다. 가변주의 내부에 맥락주의에 대한 보

다 강력한 저항 세력들이 생겨났으며, 이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맥락주의를 둘러싼 논의들은 더욱 풍부해졌다. 전형적인 지표적 맥락주의 이론이 같은 문장의 다른 발화들이, 그들이 발화맥락과 관련하여 다른 내용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진리값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 반해서, 가변주의 내의 또 다른 진영인 상대주의 이론들은 이보다 더 많은 변이(variation)가 있다고 주장한다.

2.2. 상대주의의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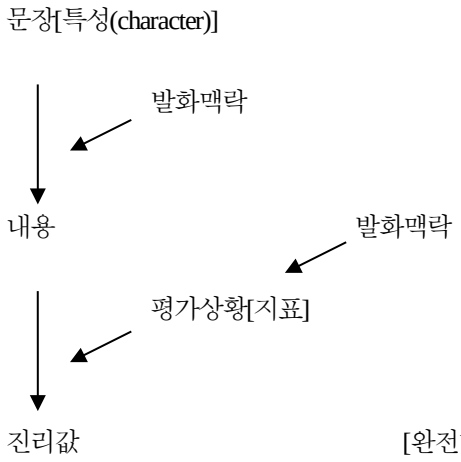
맥팔레인(2005a)과 같은 상대주의자는 고전적 불변주의 이론을 변증법의 단계들 중에 정(Thesis)에, 그리고 같은 가변주의 내에서의 맥락주의의 입장을 반(Antithesis)에 비유하면서, 상대주의 이론은 정과 반의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하는 합(Synthesis)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상대주의는 맥락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주의가 다루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역할을 (또한)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앞서 맥락주의에 대해서 '일반적인 맥락주의'와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락주의'를 구분하여 다루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주의에 대해서도 이들을 구분하여 다루어 보자.

2.2.1. 상대주의 일반

앞서 맥락주의 일반은 지표사에 대한 표준적인 카플란적 견해를 지표사 이외의 다른 표현들에도 확장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포함하는 문장의 내용 및 진리값이 발화맥락에 따라서만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으로 규정되었다. 이와 대비해서 상대주의 일반은 간단히 말해서, 카플란적 견해를 지표사 이외의 다른 표현들에도 확장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포함하는 문장의 내용 및 진리값이 발화맥락뿐만이 아니라, 판정맥락(Context of Assessment)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2.1.1.에서 (이건(Egan, 2011)을 따라) 맥락에서 한 문장의 진리값이 발화맥락에 두 번 민감하게 되는 방법이 아래와 같은 카플란의 그림에 의해서 보다 직관적으로 포착되었다. 그리고 이 도식을 지표사 이외의 몇몇 표현들에도 적용시킨 것이

일반적인 맥락주의였다.



[완전한 카플란적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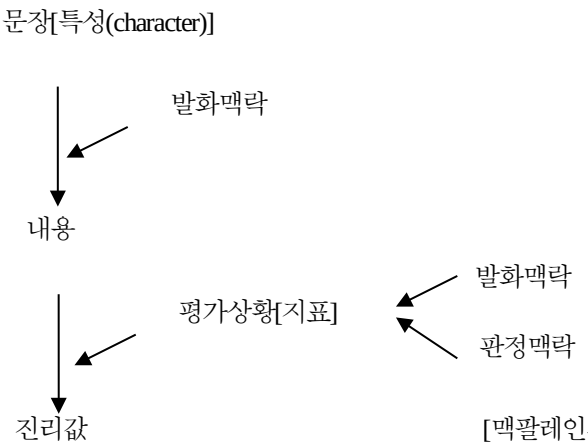
(Egan, 2011, p.228)

이 도표에 따르면 맥락주의 일반에서 발화맥락이 '발화맥락에서의 문장의 진리값과 유관한 평가상황[지표]'을 선택하는데 있어 특수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잘 드러난다. 그런데 이건(2011)에 따르면, 이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은 (보다 일반적인 상대주의라고 할 수 있는) 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 설명과 표준적인 카플란의 설명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맥락주의가 지표사에 대한 카플란의 이론을 지표사 이외에도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의 이런 주장은 발화맥락이 하는 특수한 역할과 관련하여 상대주의와 맥락주의가 갖는 차이점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상대주의를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건(2011)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전형적인 상대주의인) 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Truth Relativism)에 따르면, 맥락 C에서 문장 S의 발화의 참/거짓을 판정할 때, 맥락 C에서 문장 S의 내용에 (진리값을 결정하기 위해) 어떤 지표[평가상황]가 대입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발화맥락(Context of Utterance)뿐만이 아니라, 판정맥락(Context of Assessment)이기도 하다. 여기서 판정맥락은 간단히 말해서, 발화맥락이 화자와 연관이 되었듯이, 판정자(assessor)와 연관이 되는 것이다.[58] 따라서 맥팔레인에 따르면, 발화 참의 결정에 어

[58] 비록 참 상대주의의 대표적인 입장인 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가 판정자를 판정맥락의 중심 요소로

떤 지표가 관련되는가는 부분적으로 발화맥락에 의해, 그리고 부분적으로 판정맥락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을 도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59]



[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

(Egan, 2011, p.229)

여기서 맥락주의와 비교할 때 상대주의가 갖는 중요한 특성은 '맥락에서의 문장들(sentences in context) 혹은 특정한 발화들(particular utterances)에 진리값을 할당하는 것과 관련된 지표'를 선택하는데 책임이 있는 것이 발화맥락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그림에 따르면, 지표의 선택은 발화맥락과 판정맥락 모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것은 절대적인(simpliciter) 한 발화의 진리값과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발화맥락과 판정맥락의 쌍에 상대적인 문장의 진리값만 있거나 판정맥락에 상대적인 발화의 진리값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어떤 맥락이 유관한지에 대해서 맥락주의적 이론과 다른 종류의 변이를 허락한다. 여기서, 해당 발화 문장과 관련된 내용의 진리값은 판정맥락의 한 요소인 판정자(assessor)에 민

간주하기는 하지만, 모든 참 상대주의가 판정자를 적합한 패러미터로 삼는 것은 아니다. 가령 라설손과 스테펀슨의 참 상대주의는 판정자(assessor) 대신에 판단자(judge)를 적합한 패러미터로 간주한다. 판정자와 판단자는 매우 유사한 개념이지만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나는 판단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2부에서 진행할 것이다. 하지만 그전에 1부의 논의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판단자와 판정자를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59]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이건은 다음 도표를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팔레인의 상대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하지만 이 도표가 보여주는 것이 인식적 양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를 이용하도록 할 것이다.

감하다. 맥락주의의 핵심요소가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상대주의의 핵심요소인 판정자는 화자의 말을 듣는 청자뿐만이 아니라 화자 자신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맥락주의가 말하는 화자가 맥락에 따라서 하나로 고정될 수 있는데 반해서, 상대주의가 말하는 판정자는 화자 및 청자로 다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대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한 판정자에 의해서는 참인 것으로 올바르게 판정되며, 또 다른 판정자에 의해서는 거짓으로 올바르게 판정되는 같은 발화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상대주의에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참 상대주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맥락주의 일반에 대해서 내용의 절대성/상대성에 대한 다른 견해 차이를 바탕으로 지표적 맥락주의와 비지표적 맥락주의의 구분이 가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주의 또한 내용의 본성 차이와 관련하여 (맥팔레인의 용어를 사용하여) 참 상대주의(Truth Relativism)와 내용 상대주의(Content Relativism)로 구분될 수 있다. 내용의 본성과 관련하여 서로 유사성을 갖는 것은 각각 '지표적 맥락주의와 내용 상대주의' 및 '비지표적 맥락주의와 참 상대주의'이다. 전자들은 (패러미터를 안에 포함하는) 고전적인 내용[명제]을 옹호하며, 후자들은 (패러미터를 안에 포함하지 않는) 상대화된 내용[명제]을 옹호한다. 앞선 맥락주의 일반에 대한 논의에서는 지표적 맥락주의를 먼저 살펴보았지만, 우선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바의 연장선에서 상대주의 일반에 대해서는 참 상대주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사실 서술 순서와 일치하게 지표적 맥락주의와 참 상대주의가 각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 견해이기는 하다.)

1) 참 상대주의

참 상대주의는 판정맥락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상대주의로 분류될 수 있으며, 내용에 대해서는 비지표적 맥락주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패러미터를 포함하지 않는) 발화된 문장 그대로가 곧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참 상대주의는 앞선 지표적 맥락주의 및 비지표적 맥락주의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참 상대주의**] 비록 발화맥락 C에서 문장 S의 내용이 판정맥락에서의 패러미터 P와

P*에 관하여 같다고 하더라도, 이런 **같은 내용**이 '발화맥락 C 및 **판정맥락에서의 패러미터 P**'와 '발화맥락 C* 및 **판정맥락에서의 패러미터 P***'에 의해서 결정되는 각기 다른 평가상황들과 결합함으로써, 결국 발화맥락 C에서의 문장 S는 판정맥락에서의 패러미터 P로부터 판정될 때 참이고, P*로부터 판정될 때 거짓일 수 있다.

앞서 맥락주의 일반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내가 취향에 대한 홍어회 예를 사용하였던 것과 같이, 여기서도 같은 예를 사용해서 말해보자. 참 상대주의에 따르면 철수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발화된 문장 "삭힌 홍어회는 맛있어"라는 문장은 (발화맥락의 한 요소인 화자 철수가 아닌 판정맥락의 한 요소인 판정자) 길수에게 <삭힌 홍어회는 맛있어>라는 물리적으로 발화된 그대로의 내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 내용은 판정자인 길수의 지식상태에 따라서 상대적인 진리값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서, 철수와 길수는 같은 내용을 말하고, 또 이해하지만, 누가 판정자인 지에 따라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른 진리값을 귀속시킬 수 있게 된다.

2) 내용 상대주의

다음으로 내용 상대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자. 내용 상대주의는 적합한 패러미터가 판정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그것이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참 상대주의와 공통점을 갖지만, 내용의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참 상대주의와 차이점을 갖는다. 우리는 내용 상대주의의 직관을 다음과 같은 이건(2009)의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건은 청자에 따라 화자가 말한 것이 다르게 이해되는 용법을 '당신(you)'이 때때로 갖는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예를 고려해 보자.

[**게시판(Billboard)**] 영호는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Jesus loves you)"는 문장이 쓰인 게시판을 만든다. 이것이 발생한 맥락을 '써넣다(Inscribe)'라고 부르자. 진수와 동수는 각각 게시판을 지나 운전을 하면서 그것을 읽는다.

(Egan, 2009. p. 259에서 필자가 각색)

게시판이 진수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표준적인 맥락주의 견해에 따르면, 게시판의 독자에게 표현된 것은 <어떤 맥락c에 대해서, 예수는 당신c를 사

랑한다>일 것이다. 만약에 '맥락c'가 '써넣다' 맥락이면, '당신'은 어떤 집단을 지칭할 것이다. 그래서 표현된 명제는, 'G'가 '영호가 그의 글을 쓸 시간에 염두에 두었던 집단, 혹은 게시판을 읽을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집단'이라면, '예수는 G를 사랑한다'라는 형식을 지닌 어떤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맥락주의의 이런 예견은 잘못된 것 같다. 해당 상황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은 게시판이 독자인 진수에게 <예수는 진수를 사랑한다>는 내용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게시판에 있는 맥락 민감적인 어휘 '당신'의 의미값을 고정하는 것은 '읽는 시간에 있어서의 게시판의 맥락'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으며, 진수가 게시판을 읽을 때, '당신'은 진수를 집어내고, 동수가 좀 더 나중에 게시판을 읽을 때, '당신'은 동수를 집어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게시판이 각각의 독자에게 그들과 관련된 단일 명제를 표현한다고 말해야 한다. 이건은 이런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자만을 패러미터에 포함한다는 조건(Speaker Only)을 포기하고 청자 민감성(audience sensitivity)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60]

그런데 모든 내용 상대주의자가 이와 같이 특정한 극히 일부 표현에 대해서만 내용 상대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Egan, 2009)과 웨더슨(Weatherson, 2009) 등이 각각 대명사 및 직설법적 조건문과 같이 특정 주제 영역에 제한적인 내용 상대주의를 주장하는데 반해서, 카펠렌(Cappelen, 2008a, 2008b)은 내용 상대주의를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주장한다. 카펠렌(2008b)은 해석 민감적인 문장은 한 해석자에 상대적으로 한 내용을 가지며, 다른 해석자에 상대적으로 다른 내용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해석 민감성(interpretation sensitivity)은 자연언어에 편재해 있다고 주장한다. 카펠렌에 따르면, 해석 민감성을 구현하는 자연스러

[60] 한편 해당 사례에 대해서 다른 직관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은 해당 사례에서 진정한 화자는 게시판에 글을 쓴 영호가 아니라, 간접적인 화자로서의 게시판 자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다른 어떤 사람은 게시판에 쓰인 '예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문장은 실제 예수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화자인 예수의 의도대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이 해당 사례에서 진정한 화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사례가 보여주는 바는 화자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게시판을 해석하는 사람(판정자)은 화자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건의 주장, 즉 해당 사례는 '당신'이라는 어휘가 때때로 해석자 상대적인 내용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주장은 여전히 설득력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운 방식은 (적어도 어떤) 특성(character)들을 발화맥락과 해석맥락(Context of Interpretation)으로 구성된 순서쌍으로부터 내용들로의 함수로 해석하는 것이다. 카펠렌의 이런 주장은 맥팔레인이 내용을 발화맥락과 판정맥락으로 이루어진 순서쌍으로부터 진리값으로의 함수로 해석하는 것에 대비된다. 맥팔레인은 판정 민감성이 '진리값(truth-value)'을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한다고 생각하는데 반해서, 카펠렌은 해석 민감성이 '내용(content)'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관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61,62]

---

[61] 이런 내용 상대주의를 주장한다고 간주되는 학자들은 (비록 주제 영역은 다르지만) 이건(Egan, 2009), 웨더슨(Weatherson, 2009), 프레델리(Predelli, 1996, 1998a, 1998b), 카펠렌(Cappelen, 2008a, 2008b) 등이 있다. 그런데 잠시 여기에 언급된 학자들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자신들의 의견을 극적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저한 논문들에서의 의견과 자신의 이름만을 내세운 논문들에서 차이가 심하다. 먼저, 카펠렌은 호쏜과 같이 펴낸 책, Cappelen&Hawthorne(2009)에서의 친 맥락주의의 입장을 포기하고, Cappelen(2008a, 2008b)에서, 친 (내용) 상대주의로 변모한다. 다음으로, 호쏜 역시 몇 번 자신의 입장을 바꾼 적이 있다. 비록 지식 귀속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호쏜(2004)에서 그는 관심 상대적 불변주의(Interest-Relative Invariantism)를 주장한다. 그리고 인식적 양상에 대해서, 이건, 호쏜, 웨더슨(2005)에서 참 상대주의를 옹호하다가, 카펠렌&호쏜(2009)에서는 (유연한) 지표적 맥락주의에 대한 옹호로 돌아선다. 그리고 웨더슨(2009)은 직설법적 조건문(indicative conditionals)에 대해서 내용 상대주의를 옹호하지만, 웨더슨(2008)에서 도덕적 어휘에 대해서 불변주의를 옹호하며, 웨더슨(2011)에서는 지식귀속과 관련하여 관심 상대적 불변주의를 옹호하고, 이건, 호쏜, 웨더슨(2005) 및 이건&웨더슨(2011)에서는 인식적 양상에 대한 참 상대주의를 옹호한다. 다른 한편, 이건은 Egan(2009)에서는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어휘에 대한 내용 상대주의를 주장하지만, 다른 그의 논문들에서는 라설손-스테펀슨의 참 상대주의와 유사한 주장을 옹호한다.

[62] 한편, 나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 의해서도 내용 상대주의가 옹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홈친 수건**] 목욕탕 주인이 (수건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목욕용 수건에 '**이 수건은 훔친 수건이다**'고 새겨 넣는다. 같은 수건에 대해서, 목욕탕 안에서 그것을 본 A는 (주인의 의도를충분히 이해하지만) 해당 문장이 거짓이라고 간주하며, 목욕탕 밖에서 해당 수건을 본 B는 해당문장이 참이라고 간주한다.

여기서 해당 문장의 진리값 여부에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지표[평가상황]이다. 비록 (목욕탕 주인이 수건에 글귀를 써넣은 것으로서의) 발화의 맥락이 같다고 하더라도, 평가상황에 따라서, 같은 발화 문장은 두 가지 내용[가짜 훔친 수건에 대한 것과 진짜 훔친 수건에 대한 것]을 가질 수 있다. 이건의 '당신' 예가 해석자의 관점을 투영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비해서, 이런 훔친 수건의 예는 해석자가 해석을 하는 주변 상황과 연관이 된다. 이상의 나의 논의가 타당하다면, 내용 상대성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있다고 주장하는 카펠렌의 주장이 보다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 상대주의를 앞서 와 같이 정리하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내용 상대주의**] 서로 다른 **판정맥락**에서의 패러미터 P와 P*에 관하여, 발화맥락 C에서의 문장 S의 **내용이 각각 다름**으로써, 발화맥락 C에서의 문장 S는 패러미터 P로부터 판정될 때 참이면서, 패러미터 P*로부터 판정될 때 거짓일 수 있다.

이상으로 내용 상대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우 간단하게 개괄하였다. 내용 상대주의에 대한 부가적인 내용들은 4장에서 내용 상대주의에 대한 반론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다시금 다루어질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상대주의 일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금 정리해 보자. 상대주의 일반은 참 상대주의와 내용 상대주의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사이의 결정적 차이는 양자가 판정자의 상대성을 모두 인정하지만, 내용의 본성에 대해서 각각 다른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내용 상대주의는 판정맥락의 상대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참 상대주의와 같이) 상대주의로 분류될 수 있지만, 표현된 내용에 대해서는 참 상대주의와 달리 지표적 맥락주의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다. 다시 말해서, 홍어회 예에서 철수가 발화한 “삭힌 홍어회는 맛있어”라는 문장은 길수에게 원래 화자인 철수가 아니라 청자이면서 판정자인 길수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길수의 입맛기준에 따르면, 삭힌 홍어회는 맛있어>라는 판정맥락의 한 요소인 길수의 입맛에 상대적인 내용을 표현하며, 이 내용은 다른 맥락요소들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참 혹은 거짓을 갖는다. 이런 내용 상대주의는 고전적 명제 및 내용 개념에 수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참 개념에 있어서의 수정 또한 요구하지 않는다.[63] 이런 측면에서 내용 상대주의가 참 상대주의 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이해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주장의 본성과 관련하여 내용 상대주의는 보다 반직관적인 귀결을 갖는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한편, 현 시점에서 (맥락주의 일반 및 상대주의 일반을 포함하는) 가변주의 일반의 대표적인 네 입장들이 모두 소개되었다. 따라서 인식적 양상에 대한 상대주의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이들을 정리하도록 하자. 일반적인 가변주의의 입장들은,

[63] 명제 참 이외의 발화 참에 대한 도입이 요구되지 않는다.

내용 및 발화/판정 맥락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다음의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64]

[(표) **가변주의 내의 네 입장들**]

	고전적 내용[명제]	비고전적 내용[명제]
발화맥락 및 그것의 한 요소로서의 화자	지표적 맥락주의	비지표적 맥락주의
판정맥락 및 그것의 한 요소로서의 판정자	내용 상대주의	참 상대주의

여기서 지표적 맥락주의와 비지표적 맥락주의의 구분 및 내용 상대주의와 참 상대주의의 구분은 표현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른 것이며, 맥락주의와 상대주의의 구분은 (내용 및 진리값과 관련된) 맥락 및 맥락의 요소가 무엇인지에 따른 것이다.[65]

---

[64] 참고적으로 주제 영역을 생략한 채, 각 입장에 해당하는 학자들을 간략히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카펠렌(Cappelen), 호쏜(Hawthorne), 이건(Egan), 웨더슨(Weatherson) 등은 자신들의 주장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꾸었기 때문에 논문의 연도에 유념해야 한다.

[지표적 맥락주의]: 드로즈(DeRose, 1991 등), 코헨(Cohen, 1998 등), 데 사(De sa, 2008 등), 카펠렌&호쏜(Cappelen&Hawthorne, 2009 등) 등

[비지표적 맥락주의]: 르까나티(Recanati, 2007, 2008 등), 브로가드(Brogaard, 2009 등), 콤파(Kompa, 2002), 쾰벨(Kölbel, 2004, 2007, 2009 등) 등

[내용 상대주의]: 카펠렌(Cappelen, 2008a, 2008b), 웨더슨(Weatherson, 2009), 이건(Egan, 2009) 등

[참 상대주의]: 맥팔레인(MacFarlane, forthcoming 등), 라설손(Lasersohn 2005, 2009 등), 스테펀슨(Stephenson 2005,2007a, 2007b 등), 이건, 호쏜, 웨더슨(Egan, Hawthorne &Weatherson, 2005), 이건(Egan, 2007 등) 등

[65] 참고적으로 이들 네 입장에 대한 명칭의 문제와 관련하여, 학자들 사이에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본 논문에서 '비지표적 맥락주의라'는 용어로 지칭하는 입장을, 쾰벨(2009)과 르까나티(2007)는 '온건한 상대주의(Moderate Relativism)'라고 부르며, 내가 '내용 상대주의' 및 '참 상대주의'라는 용어로 지칭하는 입장을 웨더슨(2009)은 각각 '지표적 상대주의(Indexical Relativism)'와 '비지표적 상대주의(Non-indexical Relativism)'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이론의 명칭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나는 기본적으로는 이 글에서 맥팔레인(2007)의 용법을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학위논문을 쓰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의 용어 기준이 보다 많은 장점들을 지니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며, 그것이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맥팔레인의 분류 명칭에 동조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불평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나는 2.3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는 용어를 소개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용법

2.2.2. 인식적 양상에 대한 상대주의

이상 상대주의 일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 본 논문의 주요 관심사인 인식적 양상에 대한 상대주의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앞서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락주의가 맥락주의 일반에 대한 규정에 덧붙여서 인식적 양상에 대한 특수성이 결합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식적 양상에 대한 상대주의 또한 그러하다. 따라서 인식적 양상에 대해서도 참 상대주의와 내용 상대주의의 구분이 있다. 앞서 참 상대주의와 내용 상대주의 일반에 대해 살펴보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중복된 논의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는 (보다 대표적인 주장인) 인식적 양상에 대한 참 상대주의에 대해서 주로 논의할 것이며, 참 상대주의 중에서도 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에 논의를 국한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참 상대주의와 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 사이의 차이는 구문론적이고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생각만큼 크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화자 및 화자의 지식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락주의와 대비할 때, 인식적 양상과 관련하여 참 상대주의 주장의 핵심은 판정자(assessor)의 지식상태에 그것이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그리고 참 상대주의는 비지표적 맥락주의와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발화된 문장 그대로를 내용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참 상대주의에 의하면 발화맥락에서의 내용이 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진리값은 판정맥락의 한 요소인 판정자 및 판정자의 지식상태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화자 중심적인 맥락주의로는 한계가 있으며, 때로 판정자를 중심으로 하는 상대주의 이론이 보충되어야 한다'는 인식적 양상에 대한 참 상대주의의 대표적인 옹호 논증들 중에 하나는 '철회(retraction)'와 관련된 것이다. 이 철회 논증은 3장에서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락주의에 대한 상대주의 측의 반론을 살펴보는 부분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지만, 인식적 양상에 대한 참 상대주의적 직관이 어떻게 동기화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그것을 논의해 보도록 하자. 이 철회 논증은 맥팔레인(2010 draft)에 의해서 제시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예를 고려해 보자.

을 존중하도록 하겠다.

여름 방학 중이던 어느 날 길자는 캠퍼스를 거닐다가 한나를 만났다. 그리고 그녀와 대화하는 도중에 한나가 “교수님은 해외에 나가 계실 수(도) 있어”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하지만 길자는 좀 전에 교수님을 연구실에서 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한나에게 말해준다. 그러자 한나는 “어 그래? 그러면 내가 틀렸군. 교수님은 해외에 나가 계실 수 없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전 주장을 철회한다.

(MacFarlane, 2010 draft의 예를 필자가 각색)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인식적 양상에 대한 (비유아론적 버전을 전제하는) 표준적 맥락주의(지표적 맥락주의)를 따르게 된다면 위와 같이 한나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되게 된다. 맥락주의를 따르게 되면, 한나의 이전 발화는 그녀의 과거 발화맥락인 C_1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나의 나중 발화는 그녀의 현재 발화맥락인 C_2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나는 이전 시점과 나중 시점에서 각기 다른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즉 한나가 처음에 말한 내용은 <(발화맥락 C_1의 화자인) 한나의 지식상태에 따르면, 교수님은 해외에 나가 계실 수(도) 있어>가 되고, 한나가 나중에 말한 내용은 <(발화맥락 C_2의 화자인) 한나의 지식상태에 따르면, 교수님은 해외에 나가 계실 수 없어>가 된다. 따라서 나중의 한나는 이전의 자신의 발화를 철회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이전의 한나와 이후의 한나가 같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소위 철회를 한다는 것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결국 맥락주의가 옳다면 한나가 위의 사례와 같이 자신의 과거 발언을 철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녀는 철회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회를 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위와 같이 한나가 철회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직관을 갖는다. 그러므로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락주의는 옳지 않다.

인식적 양상에 대한 상대주의자는 이와 같은 철회 논증을 통해서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락주의가 한계가 있으며, 그것이 자신들의 이론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맥락주의가 예견하는 바와 달리) 한나의 철회가 적합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대주의자들은 한나가 이전에 말한 내용은 그녀가 입 밖으로 내뱉은 물리적인 것 그대로인 <교수님은 해외에 나가 계실 수(도) 있다>이며, 이전의 한나가 이 내용에 대해서 참을 부여하는데 반해서, 나중의 한나는 바로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거짓을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된 나중의 한나는 이전 한나의 지식상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중의 자신을 새롭게 판정자로 삼으면서 과거의 한나와는 다른 판단(진리값 귀속)을 한다. 그리고 이 때 양자는 같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이런 공통적인 내용에 대해 각각 다른 진리값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의 한나가 이전의 한나의 발언을 철회하는 것은 올바를 수 있다. 이상을 근거로 인식적 양상에 대한 참 상대주의의 입장을 정리하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 [**인식적 양상에 대한 참 상대주의**]: "P일 수(도) 있다"는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 발화의 내용은 <P일 수(도) 있다>이며, 이것은 (화자가 아닌) 판정자에 따라서 참/거짓이 결정된다.

따라서 인식적 양상에 대한 참 상대주의는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락주의(지표적 맥락주의)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 즉 '발화된 내용이 무엇인지'와 '적합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다.

한편, 참 상대주의가 맥락주의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때때로 어떤 조건하에서는 참 상대주의가 주장하는 바와 맥락주의자가 주장하는 바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은 화자와 판정자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한나가 발화한 처음 문장에 대해서**만** 고려해 보도록 하자. 한나가 "교수님은 해외에 나가 계실 수(도) 있어"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말한 내용은 단순히 <교수님은 해외에 계실 수(도) 있어>이다. 그리고 이것은 <(발화맥락 C_1의 화자인) 한나의 지식상태에 따르면, 교수님은 해외에 나가 계실 수 있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표적 맥락주의가 주장하는 바로서의 내용과 다르다. 하지만 참 상대주의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한나가 말하고 있는 발화맥락에서 한나가 한 말의 진리값은 (지표적 맥락주의의 주장과 같이) 화자인 그녀의 지식상태와 관련되게 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한나는 화자이면서 동시에 판정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참 상대주의자가 지표적 맥락주의와 달리 화자나 판정자와 같은 패러미터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의 내용에 대해서 주장하기는 하지만, 참 상대주의자는 올바른 패러미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판정자가 화자와 다르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화자의 관점(지식상태)을 고려한다는 맥락주의자의 직관을 따르

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에 대한 이상의 설명을 토대로 하여, 앞서 2.1.2.에서 인식적 양상에 대한 표준적 맥락주의에 대해 했던 것처럼, 단순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팔레인의 상대주의의 주장을 정리해보자. 단순 인식적 양상에 대해서 참 상대주의가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TR1[66]: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의 발화들은 전형적으로 단일한 명제에 대한 주장들이다.

TR2: 이 명제는 정보상태에 상대적으로만 진리값을 갖는다. "P일 수(도) 있다(might P)"에 의해 표현된 명제는 정보상태에 상대적으로 참이다 iff P가 그 상태에 있는 어떤 세계들에서 참이다. 'P임에 틀림없다(must P)'에 의해 표현된 명제는 정보상태에 상대적으로 참이다 iff P가 그 상태에 있는 모든 세계들에서 참이다.

TR3: 발화의 올바름에 대해 어떤 정보상태가 관련이 있는지는 판정맥락, 즉 발화가 그것으로부터 판정되는 구체적 상황의 특징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그 발화는 어떤 맥락들로부터 판정될 때 올바른 것으로, 그리고 다른 맥락들로부터 판정될 때 그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것이 상대주의이다.)

TR4: 화자가 주장의 내용이 (그녀가 차지하는 맥락으로부터 판정될 때) 참이라고 생각할 좋은 이유를 가질 때만, 화자가 **주장**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TR5: 만약 청자들[67]이 주장의 내용을 (그들이 차지하는 맥락들로부터 판정될 때)거짓이라고 생각할 좋은 이유를 가진다면, 청자들이 주장을 **거부**하는 것은 적합하다.

TR6: 만약 그녀가 주장의 내용이 (그녀가 차지하는 맥락으로부터 판정될 때) 거짓이라고 생각할 좋은 이유를 가진다면, 화자는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만약 그녀가 주장의 내용이 그녀가 차지하는 맥락으로부터 판정될 때 참이라고 생각할 좋은 이유를 갖는다면, 그녀는 그 주장을 **고수**할 수 있다.

(MacFarlane, 2010 draft, pp.7-8에서 필자가 각색)

TR1은 1장에서 언급된 맥락주의의 SC1과 같고 TR4 - TR6는 SC4 - SC6의 상대화된 버전이다. 표준적인 맥락주의로부터 상대주의가 주로 이탈된 것은 TR2와

[66] 맥팔레인의 원 논문에서는 'TR'가 아니라 'R'로 표기되어 있다.

[67] 여기서 '청자(hearer)'가 아닌, '청자들(hearers)'이라는 표현을 맥팔레인이 사용했다고 해서, TR5가 비유아론적 상대주의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화자의 이야기를 듣는 청자 즉 판단자는 여럿일 수 있으며, 그들 각각은 그들 각자의 판단의 맥락들부터 진리값에 대해서 다른 판단들을 할 수가 있다.

TR3이다. TR2는 주장된 내용이 어떤 집단의 정보에 대한 명제라는 맥락주의의 전제, 즉 명제적 내용 안에 특정 패러미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TR2에 따르면, 내용은 어떤 특정한 집단의 정보상태와 독립적이지만, 그것의 참은 정보상태에 상대적이다. TR3는 주장의 올바름은 사용의 맥락(발화맥락)의 특징들에 의존한다는 맥락주의의 전제를 거부한다. TR3에 따르면,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단지 (유관한 정보상태를 결정하는) 판정맥락에 상대적으로만 올바른 것/그른 것 또는 정확한(accurate) 것/부정확한 것[68]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상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에 따를 때,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 "P일 수(도)있다"의 내용은 물리적으로 표현된 바 그대로인 <P일 수(도) 있다>이며, 이 내용의 진리값은 판정자에 상대적으로 결정되게 된다.[69]

2.3. 맥락주의와 상대주의 논쟁을 둘러싼 두 문제와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서의 패러미터의 본성문제

이제 인식적 양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가변주의의 네 입장, 즉 지표적 맥락주의, 비지표적 맥락주의, 내용 상대주의, 참 상대주의 중에서 어떤 입장이 보다 더 타당한지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서, 이들 네 입장의 구분과 관련된 두 문제 즉, 내용의 본성과 관련된 문제와 패러미터의 본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비록 내용과 패러미터에 관련된 두 문제가 구분된다는 생각

[68] 맥팔레인은 정확성(accuracy)과 참(truth)을 구분한다. 태도 혹은 언화행위는 내용을 가지며, 이 내용은 적당하게 참 혹은 거짓으로 말해질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이 한 평가상황[지표]에 상대적으로 참이면서 다른 평가상황에 상대적으로 거짓일 수 있다. 태도 혹은 언화행위가 정확하다(accurate)고 말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그것이 문제시되는 상황에 상대적으로 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에 제이크가, 기원전 아고라에서 소크라테스가 앉아있던 정오에, "소크라테스는 앉아있다"고 주장했다고 해보자. 이 주장은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거짓이지만, 제이크의 당시의 주장은 정확했었다고 우리는 간주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MacFarlane(2011b), p. 538을 참조하라. 이외에도 MacFarlane(2007a) 및 MacFarlane(forthcoming) 등에서 '참'과 구분되는 '정확성' 개념이 등장한다.

[69] 한편 2장의 본문에서 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인식적 양상에 대한 내용 상대주의'는 상대주의에 대한 반론을 살펴보는 4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은 앞선 네 입장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이미 전제된 것이었지만 그것의 특성 및 의의가 충분히 조명되고 있지 못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1) 내용의 두께문제

지표적 맥락주의와 비지표적 맥락주의를 가르는 구분, 그리고 내용 상대주의와 참 상대주의를 가르는 구분은 물리적으로 발화된 문장의 내용 혹은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철수는 청와대에 있을 수(도) 있어"라는 단순 인식적 양상(Bare Epistemic Modal) 문장이 나타내는 내용은 물리적으로 발화된 문장과 같은 <철수는 청와대에 있을 수(도) 있어> 그대로인가 아니면 어떤 주체 A를 포함하는 <A라는 주체에 따르면, 철수는 청와대에 있을 수(도)있어>와 같은 것인가? 이에 대해서 지표적 맥락주의와 내용 상대주의는 모두 기존의 고전적인 내용[명제] 개념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서 후자와 같은 종류의 내용을 받아들인다. 반면에 비지표적 맥락주의와 참 상대주의는 전자와 같은 종류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내용[명제] 개념에 커다란 수정을 요구한다.[70] 이런 전자와 관련된 내용, 즉 패러미터를 포함하지 않는 내용을 카펠렌과 호쏜(2009)은 '얇은 내용(thin content)'이라고 부르며, 후자와 관련된 내용, 즉 패러미터를 포함하는 내용을 '두꺼운 내용(thick content)'이라고 부른다.[71] 나는 이런 카펠렌과 호쏜

[70] 대부분의 고전적인 명제주의자들은 내용 및 참이 가능세계 상대적이라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그 밖의 부가적 패러미터에 대한 상대성은 거부한다. 반면에 비지표적 맥락주의와 참 상대주의가 주장하는 비 표준적 명제[내용] 개념은 패러미터 상대성을 허락하는 것으로서의 명제[내용] 개념이다. 따라서 이들의 내용 개념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것이다.

[71]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카펠렌과 호쏜(2009)이 고전적 명제와 비교하여, 패러미터를 포함하지 않는 내용을 '얇은 내용(thin content)'으로 지칭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고전적 명제에 해당하는 '두꺼운 내용'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 용어는 그들의 책에서 두 군데의 주석(31과 49)에서 단지 언급될 뿐이다. 나는 이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두껍다'는 것은 '얇다'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의미가 있는 말이다. 따라서 얇음에 먼저 주목하게 된다면 두꺼움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고전적인 명제라는 기존의 용어가 일반적인 통용의 중심에 잡고 있으며, 그들(카펠렌과 호쏜)이 옹호하고자 하는 바가 고전적 명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용어에 대한 수정을 되도록 하지 않으면서, 이에 대비되는 용어에 대해서만 '얇다'라는 용어를 그들은 아마도 적용했을

의 용어법을 따를 것이며, 내용의 본성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내용의 두께문제**' 혹은 '**명제의 단위 문제**'라고 부르겠다. 고전적 명제주의를 고수하는 쪽은 패러미터를 포함하는 것을 명제 혹은 내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패러미터를 포함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두껍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께'라는 용어는 문제의 특징을 보다 직관적으로 나타내준다.[72]

그리고 나는 얇은 내용이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의 내용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얇은 내용주의**'로, 두꺼운 내용**만이** 이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의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을 '**두꺼운 내용주의**'로 부르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비지표적 맥락주의와 참 상대주의는 얇은 내용주의에 해당하며, 지표적 맥락주의와 내용 상대주의는 두꺼운 내용주의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런 얇은/두꺼운 내용주의 구분에 대해서는 유의할 사항이 있다.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의 발화 "might(ϕ)"가 그 내용으로 <might(ϕ)>와 같이 얇은 내용 그대로를 갖는다는 입장을 '얇은 내용주의'로, <might≪X≫(ϕ)>와 같이 '패러미터 X'를 포함하는 두꺼운 내용을 갖는다는 입장을 '두꺼운 내용주의'로, 단순히 부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두꺼운 내용주의는 두꺼운 내용[고전적 명제]**만이** 내용으로서 옳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며, 얇은 내용주의는 두꺼운 내용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때때로 얇은 내용이 될 수 있다는 보다 소극적인 주장이기 때문이다.[73] 따라서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카펠렌과 호쏜이 얇은 내용뿐만이 아니라 두꺼운 내용 또한 사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논문을 통해서 이 용어 사용을 고수할 것이다.

[72] 원래 두껍고, 얇은 것은 상대적이며, 정도를 허용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여기서 얇은 내용은 패러미터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두꺼운 내용은 그 이외의 경우, 즉 패러미터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적용된다. 즉, 카펠렌과 호쏜에 따르면, 여기서의 **두껍고 얇은 것은 이분법적인 절대적 구분**이다.

한편, 나는 두꺼운/얇은 내용이라는 용어 구분보다는 긴/짧은 내용이라는 용어 구분을 개인적으로는 선호한다. 그것은 패러미터의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는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포착하기에 두께에 대한 비유보다는 길이에 대한 비유가 보다 적절하다고 내가 생각하며, 내가 나의 석사 논문 및 여타 논문에서 '두꺼운/얇은 의미'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내가 언급한 용어 및 개념 사용에 대한 미덕을 고려할 때, 이미 공적으로 출판된 책의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나는 긴/짧은 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73] 얇은 내용주의가 이런 소극적 입장이라는 것은 얇은 내용을 주장하는 리펠(Rieppel, 2011)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일시주의자(temporalist)[시간에 대한 얇은 내용주의자]는 '영원한(eternal) 명제[두꺼운 내용]'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일한 믿음

만약에 패러미터를 포함하지 않는 문장이 명시적으로 발화되었을 때, 해당 문장이 항상 (패러미터를 포함하지 않는) 얇은 내용이라는 주장은 (단순한 얇은 내용주의와 구분하여) '철저한 얇은 내용주의'라고 불릴 수 있다. 따라서 내가 본 논문에서 단순히 '얇은 내용주의'라고 부르는 입장은 '철저한 얇은 내용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74]

결국 지금 논의되는 내용의 두께문제는 (카펠렌과 호쏜의 용법과 관련하여 그것을 이해할 때) **두꺼운/얇은 내용 중에서 어느 것이 내용 혹은 명제로서 더 적합한지**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내용에 대한 표준적인 입장에 따른다면, 패러미터가 포함되지 않은 문장의 물리적 발화가 표현하는 내용은 겉모습과 달리 패러미터를 포함하는 두꺼운 내용이며, 이것은 절대적으로 진리값을 갖는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진리담지자, 의사소통 과정에서 전달되는 것, 말해진 것, 주장된 것 등의 역할을 모두 수행 한다. 반면에 얇은 내용주의는 이런 두꺼운 내용에 의한 단일내용만능주의에 도전한다. 얇은 내용주의는 내용의 단위가 두꺼울 뿐만이 아니라, 때때로 얇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패러미터가 포함되지 않는 문장의 물리

의 대상이 아니다—즉, 일시적인(temporal) 명제[얇은 내용]도 또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상 필자가 부분 각색) 리펠의 주장을 여기서 논의되는 방식의 용어로 바꾸어 말한다면, 그것은 '어떤 얇은 내용주의에 따를 때, "might(ϕ)"는 그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내용으로 어떤 경우에는 <might(ϕ)>를,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might≪X≫(ϕ)>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된다.

[74] 한편, 용어 규정 및 입장들의 구분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하는 또 다른 사안이 있다. 내가 이 글에서 규정하는 것과 다르게, '단순 인식적 양상과 독립적으로, 얇은 내용과 두꺼운 내용을 구분하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론에 따르면, 발화된 문장이 "might(ϕ)"와 같은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인지 혹은 "might≪X≫(ϕ)"와 같은 비-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인지에 상관없이, 표현된 내용[명제]이 <might(ϕ)>이면 얇은 내용이 되고, <might≪X≫(ϕ)>이면 두꺼운 내용이 된다. 다시 말해서, 발화된 문장과 상관없이, 내용이 패러미터를 포함하지 않으면, 얇은 내용이고, 패러미터를 포함하면, 두꺼운 내용이 된다. 나는 앞서서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이 발화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얇은/두꺼운 내용의 구분을 적용하였을 뿐, 단순 인식적 양상이 아닌 문장이 발화된 경우, 즉 "영희에 따르면, 철수는 청와대에 있을 수(도) 있어"가 발화된 경우의 내용[명제]에 대해서는 얇은/두꺼운 내용이라는 용어 자체를 적용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방금 고려한 구분 방법 또한 불가능한 게 아니다. 하지만 나는 단순 인식적 양상을 기준으로 얇은/두꺼운 내용을 구분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얇은 내용과 두꺼운 내용으로 부르는 것에 대응되는) '기존 논의의 상대화된 명제와 절대적인 명제 사이의 구분' 역시 나의 이런 구분 규정을 따르고 있기에 굳이 그것을 다른 구분 규정으로 대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적 발화가 표현하는 내용은 표면 형식 그대로 패러미터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 내용의 진리값은 평가상황에서의 패러미터에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이상을 고려해 볼 때, **내용의 두께에 관련된 논증**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 표현, 전달, 이해되는 것 그리고 진리값이 귀속되는 것의 단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증이다. 즉, **주장(assertion)의 단위에 대한 논의**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 및 주장의 단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주장되고 이해되는 것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즉 다른 것을 말하는지 같은 것을 말하는지가 각각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내용 및 주장의 단위를 결정하는 문제 즉 내용의 두께문제는 **내용 및 주장의 동일성 조건을 규정**하는 것과도 연관된다.

한편, 내용의 두께에 대한 논의는 단순 인식적 양상과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인식적 양상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용의 본성 일반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 논의는 '개인적 취향 술어, '안다'와 관련된 지식귀속, 도덕적 어휘, 미학적 어휘, 미래시제'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1980년대를 전후로 리처드(Richard) 등에 의해서 주로 다루어진, 일시주의(temporalism)[75]와 영원주의(eternalism) 사이의 논쟁에서도 이미 다루어진 바 있다. 이들은 모두 '단순(수식어가 없는) 발화 문장의 내용이 패러미터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패러미터를 포함하지 않는 것인지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다룬다. 이런 점에서 내용의 두께에 대한 논의는 보다 보편적이다. 두께문제가 이런 보편성을 띄는 이유는 그것이 명제의 속성에 관련된 보다 넓은 문제의 하위 문제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발화된 문장의 내용이 물리적으로 표현된 문장 그대로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인지에 관계한다.

2) 패러미터의 본성문제

다른 한편, 맥락주의와 상대주의 사이의 논쟁과 관련된 다른 문제는 패러미터

[75]'temporalism'에 대한 번역어로는 '일시주의' 이외에도 '시간주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temporalism'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만 내용은 시간에 상대적으로 진리값을 갖는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시간주의'라는 번역어 또한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만, 'eternalism(영원주의)'와의 대조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일시주의'라는 용어가 보다 더 적합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이 글에서 'temporalism'을 '일시주의'로 번역하도록 하겠다.

의 결정과 관련이 된다. 나는 이것을 '**패러미터의 본성문제**'로 부를 것이다. 이런 패러미터의 본성문제는 앞서 선택된 맥팔레인의 용어 분류법을 따를 경우에 맥락주의와 상대주의 자체를 가르는 중대한 기준과 연관된다. 맥락주의와 상대주의 사이에는 맥락주의는 화자 혹은 화자의 지식상태를 적합한 패러미터로 놓고, 상대주의는 판정자 혹은 판정자의 지식상태를 적합한 패러미터로 놓는다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패러미터의 본성문제를 앞선 내용의 두께문제와 비교한다면, 내용의 두께문제가 패러미터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면, 패러미터의 본성문제는 어떤 종류의 패러미터가 보다 적당한지의 문제에 관계한다.[76]

여러 주제 영역 중에서도 특히 인식적 양상과 관련하여 패러미터의 본성문제는, <A에 따르면, P일 수(도) 있다>는 내용(예: <영희에 따르면, 철수는 청와대에 있을 수(도) 있어>)에서, A라는 패러미터에 무엇이 대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문제 또한 (내용의 두께문제처럼) 취향, 미학적 어휘 등의 주제에 따라, <A에 따르면, X는 맛있다(혹은 아름답다 등)>의 A에 어떤 패러미터가 적당한지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영역간의 공통성을 어느 정도 갖기는 하지만, 그것의 공통성은 내용의 두께문제 보다 덜 하다. 왜냐하면, A라는 패러미터에 어떤 것이 적합한지의 문제는 각 주제 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인식적 양상과 관련하여 패러미터의 본성문제는 **양상토대(양상 패러미터)의 본성문제**로 이해될 수 있으며, 기존의 이론들은 양상토대(양상 패러미터)에 주체(agent)혹은 주체의 지식상태를 주로 대입한다. 매우 개략적으로 말해서, 맥락주의는 A에 화자(혹은 화자의 지식상태)를, 상대주의는 A에 판정자(혹은 판정자의 지식상태)를 대입한다.

이제 패러미터의 본성문제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 전에, 논문 전체를 통해서 내가 사용하게 될 표기법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자. 나는 인식적 양상에 대해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패러미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표기법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

[76] 물론 기존의 두께 결정 문제가 어떤 패러미터가 적당한지의 여부를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문제의 핵심은 패러미터의 종류에 대한 것이기 보다는 패러미터의 유무에 대한 것이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 **A에 따르면, ϕ일 수(도) 있다: might≪A≫(ϕ)**

(여기서, 앞의 괄호 ≪ ≫ 안의 A는 '양상토대(modal base) 혹은 양화의 영역(domain of quantification)을 나타내며, 뒤의 괄호 ( ) 안의 ϕ는 '프레재슨트(prejacent)'[77]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표기법에 따르면, "ϕ일 수(도) 있다(might(ϕ))"와 같은 단순 인식적 양상을 포함하는 발화 문장의 내용은 그것이 **얇은 내용**일 경우에 **<might(ϕ)>**로 표기될 수 있으며, 그것이 패러미터가 A인 **두꺼운 내용**일 경우에, **<might≪A≫(ϕ)>**로 표기될 수 있다.

3) 두 문제의 특성과 핵심쟁점으로서의 패러미터의 본성문제

한편, 이런 내용의 두께문제와 패러미터의 본성문제는 많은 학자들이 그 구분을 염두에 두어온 것이지만, 나는 그것들의 특성이 충분히 명시적으로 강조되어 오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상대주의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형식화할 수 있으며, 해당 상대주의가 올바른지의 여부는 X와 Y에 각각 어떤 것이 대입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R] X는 Y에 상대적이다(X is relative to Y)

여기에서 X는 피상대항이며, Y는 상대항이 된다. 우리가 보통 상대주의의 구체적 입장들을 분류할 때, 피상대항만을 언급하여, 'X 상대주의'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예: 존재론적 상대주의, 도덕 상대주의, 인식적 상대주의, 사실 상대주의 등), 개념적 상대주의의 예에서 보듯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78] 따라서 보다 정

[77] 여기서 프레재슨트(prejacent)는 프레재슨트 명제(prejacent proposition)와 동의어이며, 이것은 양상 안에 포함되는 명제(the proposition embedded under the modal)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열쇠는 서랍에 있을 수 있다(The key might be in the draw)"와 같은 표현에서, '~일 수 있다(might)'를 제외한, '열쇠는 서랍에 있다'가 프레재슨트가 된다.

[78] 개념적 상대주의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개념에 상대적이라는 주장을 의미한다. 상대주의 일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Baghramian(2004)를 참조하라.

확한 표현을 위해서는 'Y-X 상대주의(**Y에 의한 X 상대주의**)'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앞선 중심이 되는 두 문제, 즉 내용의 두께문제와 패러미터의 본성문제는 각각 피상대항 결정 문제와 상대항 결정 문제에 대응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내용의 두께문제는 피 상대항 결정 문제와 관련되고, 패러미터의 본성문제는 상대항 결정 문제와 관련된다.**

우선 **피상대항(X) 결정 문제**는 **과연 무엇이 (어떤) 패러미터에 상대적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것은 참이 어떤 패러미터에 상대적인지 혹은 내용이 어떤 패러미터에 상대적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한편, 진리값과 내용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성 및 절대성이 서로 엇갈려서 대응된다고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어떤 패러미터에 상대적으로 진리값이 되는 내용, 즉 얇은 내용은 절대적이며, 어떤 패러미터에 상대적인 내용, 즉 두꺼운 내용은 절대적인 진리값을 가진다. 따라서 진리값과 내용의 이런 측면을 반영하여 피상대항 결정 문제를 서술하면, 그것은 '패러미터를 포함하지 않는 내용인 절대적인 얇은 내용이 어떤 패러미터에 상대적으로 참인가 아니면, 패러미터를 포함하는 내용인, (어떤 패러미터에) 상대적인 두꺼운 내용이 절대적으로 참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반면에 **상대항(Y) 결정 문제**는 상대성의 주체[79]가 아니라 그 피주체에 관련이 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피주체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만 단순히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피주체가 있는지**에 또한 관여한다. 맥락주의는 화자 패러미터가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상대주의는 판정자 패러미터가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상대항 결정 문제[내용의 두께문제]가 어떤 점에서 절대주의와 (절대주의와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상대주의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과 관련이 되는 문제라면, 상대항 결정 문제[패러미터의 본성문제]는 화자 중심의 맥락주의와 판정자 중심의 상대주의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과 관련이 되는 문제이다.

이상의 Y-X 상대주의 논의를 고려할 때 앞선 기존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안이 새로운 명칭이며, 'Y에 의한 X 상대주의'는 'X는 Y에 상대적이다'를 의미한다.)

---

[79]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subject'를 의미하며, 앞서 양상 패러미터에 대한 논의에서 등장했던 '주체'는 'agent'를 의미한다.

[(표) **가변주의의 네 입장들에 대한 이상적인 명칭들**]

	[두꺼운 내용주의]	[얇은 내용주의]
맥락주의 [화자에 의한 상대주의]	지표적 맥락주의 [화자에 의한 내용 상대주의]	비지표적 맥락주의 [화자에 의한 참 상대주의]
상대주의 [판정자에 의한 상대주의]	내용 상대주의 [판정자에 의한 내용 상대주의]	참 상대주의 [판정자에 의한 참 상대주의]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나는 기본적으로 이런 명칭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혼동에 혼동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논문에서 되도록이면 기존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다만 내가 기존 명칭들을 나의 명칭들로 대체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명칭대로 각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각 입장의 차이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용어를 기존 용어에 대한 부가적인 동의어로 간주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맥락주의와 상대주의의 논쟁에 대해서는 서로 구분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들이 관계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보다 명시적으로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한 사안은 맥락주의와 상대주의 논쟁에 대한 핵심 쟁점은 내용의 두께문제가 아니라 **패러미터의 본성문제**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화자 및 판정자를 중심으로 구분된 맥락주의와 상대주의라는 용어 정의에 의거해서도 그러하며, 그것이 과거에 충분히 논의된 바가 없었다는 점과 관련된, 논의의 고유성 및 새로움이라는 측면에서도 또한 그러하다. 따라서 나는 본 논문에서 내용의 두께문제에 대한 논의도 종종 할 것이지만, 주로 패러미터의 본성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즉, 피상대항을 결정하는 문제보다는 상대항을 결정하는 문제가 본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사안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논의한 1장과 2장의 일련의 예비적 사항들을 바탕으로 하여, 3장과 4장을 통하여 맥락주의와 상대주의에 대한 각각의 구체적인 반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3장. 맥락주의에 대한 반론들

맥락주의에 대한 반론은 크게, 불변주의 진영으로부터의 반론과, 같은 가변주의 진영 내의 상대주의로부터의 반론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전자의 진영은 가변주의로의 전환에 대해 저항하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며, 후자의 진영은 가변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가변주의 내부의 보다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진보적인 태도를 보인다. 나는 (한편으로는 불변주의에 대한 반론을 형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변주의에 대한 옹호 근거가 되었던) 앞선 2장의 논의들을 근거로 하여, 가변주의가 기본적으로 올바른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본 논문에서 불변주의 및 불변주의 진영의 반론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부분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한편 나는 맥락주의에 대한 상대주의의 반론들에 대해서 맥락주의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모두 살펴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비록 맥락주의자들이 상대주의 측의 몇몇 반론들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를 우리가 곧이곧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맥락주의는 한 가지 측면에서 결정적인 한계를 갖는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결정적인 한계에 주목하는 것만으로도 맥락주의를 거부하기 위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맥락주의에 대한 반론들에 맥락주의자가 일일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내가 맥락주의의 결정적인 한계를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도청논증에 대해서만큼은 맥락주의자들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러면 3장에서 다룰 내용을 미리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자. 우선 3.1절에서 나는 맥락주의에 대한 반론들을 이건(2011)의 구분을 따라서 '공통-내용 논증'과 '단일-발화 논증'으로 나누어서 각기 살펴보고, 이들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종류의 논증인 '타자 중심적 용법에 의한 반론'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맥락주의에 대한 이들 반론들이 역사적으로 짧은 기간 사이에 방대하게 제시되어 왔기 때문에 기존의 반론들을 살펴보는 3.1절은 부득이하게 복잡한 내용들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나는 3.2절에서 맥락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반론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도청논증에 대해서 맥락주의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들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3.3절에서 나는 기존의 도청논증 이외에도 (도청논증의 확장 및 파생과 관련된) '비화자 중심적 용법'이라는 추가적인 결정적 문제가 맥락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3.1. 맥락주의에 대한 기존의 반론들

표준적 맥락주의, 즉 지표적 맥락주의의 주장은 앞선 2장에서 언급했던 논쟁의 두 문제 구분에 근거하여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내용의 두께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의 내용이 두껍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패러미터의 본성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적합한 패러미터는 화자 패러미터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맥락주의에 대한 상대주의 측의 반론들은 이런 두 문제 모두와 부분적으로 연관된다.

이건(Egan, 2011)은 지표적 맥락주의에 대한 상대주의 측의 반론들을 개관하면서, 이들 논증들을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 두 가지 논증들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맥락주의에 대한 상대주의 측의 반대 논증은 크게 '공통-내용 논증(Common-content Arguments)'과 '단일-발화 논증(Single-utterance Arguments)'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80] 이중에서 판정자 중심적인 상대주의를 강요하는 것은 전자가 아닌 후자이다. 즉, 공통-내용 논증에 대해서는 맥락주의 진영에서 내용의 두께에 대한 주장을 수정함으로써(비지표적 맥락주의를 주장함으로써)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통-내용 논증은 물리적으로 같은 형태를 지닌 문장이 각각 다른 발화맥락에서 발화되었을 때 만약에 말해진 내용의 진리값이 다르다면, 그들의 진리값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패러미터가 관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81] 예를 들어서 "철수는 청와대에 있을 수(도) 있어"라는 문장을 영희와 정희가 각각 자신의 맥락에서 발화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만약

[80] Egan(2011), pp.230-239

[81]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내용과 진리값이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에 영희가 말한 내용은 참이고 정희가 말한 내용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희와 정희가 한 말이 (지표적 맥락주의가 내용의 두께문제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른 내용을 갖기 때문이 아니다. 공통내용 논증에 따르면 영희와 정희가 말한 내용은 <철수는 청와대에 있을 수(도) 있어>와 같이 얇은 내용으로 **공통**적이지만, 이런 공통 내용에 대해서 다른 패러미터가 관계하기 때문에 양자가 말한 내용의 진리값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공통-내용 논증이 (비록 내용의 두께문제와 패러미터의 본성문제 모두에 대한 주장을 그것이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장된 내용에 대해서 화자 패러미터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두꺼운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공통-내용 논증은 지표적 맥락주의에 대해서 맥락주의적 측면, 즉 화자 패러미터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표적 측면, 즉 두꺼운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표적 맥락주의자들은 비지표적 맥락주의로 전환함으로써 공통-내용 논증에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화자 중심성을 중심으로 맥락주의를 정의했던 앞서의 규정을 따를 때, 공통-내용 논증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맥락주의에 대한 반론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두꺼운 내용에 대한 반론일 뿐이다.

이에 반해서, 단일-발화 논증은 특별한 토큰 발화들(token-utterances)은 다른 판정자(assessor)에 상대적으로 다른 진리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논증이다. 발화맥락이 (이미) 고려된 구체적인 한 상황에서의 내용, 즉 단일한 토큰 발화의 진리값이 (발화맥락의 한 요소인 화자 이외에도) 판정자라는 판정맥락의 요소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공통-내용 논증이 함축하는 바가 내용이 공통적이라는 것에 그치는 반면에 단일-발화 논증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적합한 패러미터는 (화자가 아니라) 판정자라고 보다 명시적으로 주장한다. 예를 들어서 영희가 “철수는 청와대에 있을 수(도) 있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명수가 자신이 철수를 청와대 이외의 장소에서 좀 전에 보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영희의 말을 부정했을 때, 영희가 “어 정말? 그러면 내가 틀렸군.”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말을 철회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에 맥락주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희가 처음 발화한 문장의 내용이 화자인 영희의 지식상태와 관련된 것이라면, 명수는 영희의 말이 화자인 영희의 지식상태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위와 같이 영희

의 말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명수는 영희의 말의 참/거짓을 판정자인 자기 자신의 지식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이에 따라 발화를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현상에 대한 유력한 설명은 처음의 영희는 철수가 청와대에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지식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하였고, 명수 또한 이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지식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런 논증에 의하면 <철수가 청와대에 있을 수 있다>는 단일한 발화 내용이 각기 다른 판정자인 영희와 명수에 따라서 다른 진리값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앞선 공통-내용 반론이 내용의 두께문제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내용은 얇은 것이 되어야 한다)에서 맥락주의자가 표준적 입장인 지표적 맥락주의로부터 비지표적 맥락주의로 전환함으로써 그에 대처할 수 있음에 반해서, 단일-발화 반론은 패러미터의 두께문제, 즉 화자 패러미터가 적합하지 않고 판정자 패러미터가 적합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맥락주의자는 지표적 맥락주의든 비지표적 맥락주의든 모두 난점에 처하게 된다.

나는 (비록 이건이 붙인 명칭들이 논증들의 성격을 제대로 드러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맥락주의에 대한 반론들을 이상에서와 같은 두 가지 논증들로 구분할 수 있다는 이건의 주장 자체는 기본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맥락주의에 대한 일부 반론들은 공통-내용 논증과 단일-발화 논증을 면밀히 구분하지 않고, 양 논의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 둘은 각각 다른 성격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논의를 위해서 우리는 이들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논의들이 정확하게 (화자 중심적인) 맥락주의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데 맥락주의에 대한 상대주의 측의 반론들 중에는 이건이 분류한 두 논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반론 또한 존재한다. 이것은 이건, 호쏜, 웨더슨(2005)과 라설손(2005)에 의해서 제기되는 '타자 중심적 용법에 의한 반론'이다.[82] 이 반론은 간략하게 말한다면, 인식적 가능성에 대한 패러미터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맥락주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화자 주체가 아니라, 대화의 중심 화제가 되는 제삼의 타자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건이 말하는 단일-발화 논증은

[82] 비록 이건이 이건, 호쏜, 웨더슨(2005)의 저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건(2011)은 타자 중심적 용법에 대한 내용을 맥락주의에 대한 반론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판정자를 적절한 패러미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할 뿐 판정자 이외의 패러미터가 적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타자 중심적 용법과 관련된 반론은 단일-발화 논증에 속하지 않는다. 나는 먼저 이건이 구분하는 두 종류의 논증들을 살펴보고서, 타자 중심적 용법과 관련된 반론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할 것이다.

3.1.1. 이건의 공통-내용 논증

우선, 공통-내용 논증에 대해서 말해보자. 이건은 공통-논증의 범주에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논증들을 포함한다: 탈인용적 보고 논증(Disquotational Reporting Argument) 및 동의와 불일치에 대한 탈인용적 귀속 논증(Disquotational Attributions Argument of Agreement and Disagreement), 그리고 잘못 없는 불일치로부터의 논증(Argument from Faultless Disagreement)

이중에서 먼저 **탈인용적 보고 논증**을 살펴보도록 하자.[83] 탈인용적 보고는 A의 말을 B가 C에게 간접적으로, 즉 탈인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건(2011)의 예들을 토대로 하여, 인식적 양상을 중심으로 탈인용적 보고 논증을 (서술적 편의성을 위해 약간 각색하여) 설명하자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철수가 "영철은 그의 사무실에 있을 수(도) 있어(Youngchul might be in his office)"라고 말할 때, 철수의 말을 들은 민준은 철수가 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철수는 영철이 그의 사무실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어."와 같이, 탈인용적으로 보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민준이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즉, 우리는 탈인용적 보고가 안전하다는 직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만약 맥락주의가 맞는다면, 우리는 민준이 간접 보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불합리한 직관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맥락주의는 그르다. 이에 대해서 좀 더 말해보자.

귀류법 논증(reductio ad absurdum)의 가정에 의해서 지표적 맥락주의가 옳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철수의 발화는 철수의 발화맥락 C_1에서 <영철은 그의 사무실에 있을 수 C_1 (might C_1) 있다>는 내용을 표현하는데 반해서, 민준의 발화는 민준의 발화맥락 C_2에서 <철수는 영철이 그의 사무실에 있을 수 C_2 (might C_2) 있다>는

[83] 이런 종류의 논증은 Kölbel (2002), Egan, Hawthorne, Weatherson(2005)에 나타난다고 이건은 밝힌다.

내용을 표현하게 된다. 그런데, C_1과 C_2는 다르기 때문에 '~일 수 있다(might)'는 두 맥락에서 각기 다른 것을 표현하게 되어서 민준의 보고는 실수가 될 것처럼 보인다. 민준이 철수가 한 말을 제대로 전달(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준은 원래 화자인 철수의 발화맥락 C_1을 포함하는 내용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화맥락 C_2 를 포함하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민준의 보고는 일상에서 자연스럽다. 따라서 표준적 맥락주의 즉, 지표적 맥락주의는 탈인용적 보고에 대한 우리의 경험자료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 다시 말해서. 탈인용적 보고 논증의 핵심은 우리가 일상 대화 상황에서 탈인용적인 간접 보고를 할 때 우리는 패러미터를 포함하지 않는 내용을 종종 주고받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표적 맥락주의처럼) 항상 패러미터를 포함한 것이 인식적 양상을 포함한 문장의 내용이 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험 현상을 부정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동의와 불일치에 대한 탈인용적 귀속 논증**을 살펴보자. 앞선 탈인용적 보고 논증이 A의 말을 B가 C에게 탈인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었다면, 동의와 불일치에 대한 탈인용적 귀속 논증은 "A와 C가 서로 동의 혹은 불일치한다"고 B가 (A와 C의 발화를) 탈인용적으로 귀속시키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동의와 불일치 논증 중에서 불일치에 대한 논증은 특히 '잘못 없는 불일치로부터의 논증(Argument from Faultless Disagreement)'으로 불리면서, 지표적 맥락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반론을 형성해 왔다. 동의 논증과 불일치 논증의 구조 자체는 유사하기 때문에 편의상 불일치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자. 인식적 양상을 중심으로 하는 잘못 없는 불일치로부터의 논증은 (역시 이건의 예를 각색하여)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만약 가영이 "영철은 그의 사무실에 있을 수 있어"라고 말하고, 나영이 "영철은 그의 사무실에 있을 수 없어"라고 말한다면, 제삼자인 다영은 이것을 "가영과 나영은 영철이 사무실에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일치**한다."고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보고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이런 종류의 보고가 안전하다는 직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만약 맥락주의가 맞는다면, 불일치는 없게 된다.

앞서 와 마찬가지로, 귀류법 논증의 가정에 의해서 지표적 맥락주의가 옳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가영은 그녀의 발화맥락인 C_1에서 말하고 있고, 나영은 그녀

의 발화맥락인 C_2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각각의 맥락에서의 자신들의 지식-정보상태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가영과 나영은 서로 불일치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없다. 같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양자가 불일치하고 있다고 올바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일치가 있다고 보고하는 다영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 되게 된다. 결국, 다영은 주장할 입장에 있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한 셈이 된다. 하지만 다영의 발언은 사실 적절하다. 그러므로 이런 일상의 자연스러운 용법을 부정하도록 강요하는 맥락주의는 올바르지 않다. 이 논증이 특별히 '잘못 없는 불일치(faultless disagreement)' 논증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해당 상황에서 대화의 양 당사자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불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어느 한 사람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서로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이건이 말하는 공통-내용 논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논증을 매우 간략하게 이해하자면, 그것은 만약에 지표적 맥락주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의 내용이 적합한 양상토대를 화자의 지식상태(혹은 화자)로 삼는 두꺼운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탈인용적으로 귀속하는 여러 사례들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양상토대를 화자의 지식상태로 삼는다는데 있기 보다는 패러미터를 포함하는 두꺼운 내용이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에 의해서 표현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서, 공통-내용 논증은 내용의 두께문제에 보다 초점을 맞춘 지표적 맥락주의에 대한 반론이다. 따라서 맥락주의자들은 두꺼운 내용을 옹호하는 지표적 입장으로부터 얇은 내용을 옹호하는 비지표적 입장으로 전환함으로써 공통-내용 반론을 회피할 수 있다.

3.1.2. 이건의 단일-발화 논증

다음으로 '단일-발화 논증(Single-utterance Arguments)'을 살펴보자. 이건은 불일치(disagreement)와 관련된 반론들이 단일발화 논증의 핵심이라고 정리한다. 이런 불일치 관련 논증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잘못 없는 강한 불일치 논증(Strong Faultless Disagreement Argument)', '철회논증(Retraction Argument)', '도청자 논증(Eavesdropper Argument)'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 세 논증들 사이의 관계가 확연

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불일치할 때, 한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고수**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으며, 대화의 참여자들과 불일치하는 다른 제 삼자가 대화 참여자의 이야기를 **도청**하고서 자신 나름의 발화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세 논증들은 서로 혼합될 수 있으며, 각자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논증들은 '불일치 논증(Disagreement Argument)'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분류될 수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이런 단일-발화 논증은 판정자 중심적인 상대주의를 강요하는 논증으로, 화자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맥락주의(지표적/비지표적 맥락주의 모두)에 도전이 된다.

우선, **잘못 없는 강한 불일치 논증**에 대해서 말해보자. ('강한'이란 수식어가 붙지 않은) 단순한 잘못 없는 불일치 논증은 공통-내용 논증을 다루었던 조금 전의 3.1.1.에서 이미 언급된 바가 있다. 그리고 3.1절의 처음 부분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공통-내용 논증 (일반)은 내용의 두께문제와 패러미터의 본성문제 중에서 내용의 두께 문제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진 논증이며, 이 점에서 공통-내용 논증에 속하는 일반적인 잘못 없는 불일치 논증 또한 그러하다.[84] 다영이 가영과 나영이 서로 불일치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보고 할 때, 다영은 가영과 나영이 한 말들을 특정 패러미터를 포함하는 두꺼운 내용이 아닌 어떤 패러미터도 포함하지 않는 얇은 내용으로 이해하고 또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다영의 불일치 보고가 자연스럽다고 할 때, 이런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화자 패러미터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주장된 내용[말해진 내용]은 얇은 내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잘못 없는 불일치 사례만으로는 판정자를 중심에 두는 상대주의가 강요되기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단순한 잘못 없는 불일치 사례에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조건을 덧붙인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대화자인 A는 그 자신의 발화가 참이라고 여기는데 올바를 뿐만이 아니라, 상대자 B의 발화를 거짓으로 여기는데 있어서도 또한 올바르다. 예를 들어서 가영과 나영이 같은 장소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철수가 외국에 나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불일치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가영은 나영과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영이 자신과 다른 지식상태에 근거해서 철수가 외국에 나가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 나름의 지식상태에 근거해서 철수는 (여전히) 외국에 나가 있

[84] 예를 들어서, 이런 측면은 쾰벨(Kölbel, 2004a, 2004b) 등에 나타난다.

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영과 나영 두 대화자들은 진정한 잘못 없는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잘못 없는 불일치의 사례에서 대화자들이 서로가 한 말의 내용을 서로 오해할 수도 있었던 것과 달리, 서로의 주장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격렬히 대립한다.

이건은 대화자가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부정한다는 이런 요구조건이 덧붙여졌을 때의 잘못 없는 불일치 논증을 '잘못 없는 강한 불일치 논증(Strong Faultless Disagreement Argument)'이라고 부르며, 보다 강화된 이런 논증은 단순 잘못 없는 불일치 논증에 비해서 발화 참(utterance truth)을 판정맥락(context of assessment)에 민감하도록 하는 상대주의를 옹호하는 논증이 된다고 주장한다. 단순한 잘못 없는 불일치 논증 사례에 따를 때, 대화의 직접적인 상대자들이 서로가 의도한 바를 명확하게 파악했을 때, 즉 그들 각자가 어떤 패러미터에 근거해서 주장을 했는지가 명시적으로 드러났을 때, 그들이 서로 논쟁할 필요가 없는데 반해서, 잘못 없는 강한 불일치 논증 사례에서는 누가 해당 가능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정자인지가 여전히 논란거리가 된다.[85] 전자가 보여주는 것이 단순하게 패러미터의 포함여부(내용의 두께여부)와 관련되는데 반해서, 후자가 보여주는 것은 (판정자) 패러미터의 적절한 선택과 관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건에 의하면, 단순한 잘못 없는 불일치 논증이 공통-내용 논증에 속하는데 반해서, 잘못 없는 강한 불일치로부터의 논증은 단일-발화 논증에 속한다.[86]

이제 다음으로 **철회 논증**을 살펴보자. 이 논증은 주로 맥팔레인에 의해서 강조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대화 상황에서 제시된다.[87]

---

[85] 따라서 단순한 잘못 없는 불일치 논증에 대해서 맥락주의자들이 '양 대화자에게는 대화상의 '공통된 선제(common presupposition)'가 있고 불일치는 이런 선제가 가정될 때 사라진다(혹은 관련 논의는 선제를 통해서 해결된다)'고 대응하는 것(예: De sa, 2008 등)이 가능함에 반해서, 잘못 없는 강한 불일치 논증에 대해서는 이런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다. 공통된 선제가 명확해진 이후에도 여전히 논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86] 한편, 이런 의견은 이건에게만 고유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서로 구분해야 할 다양한 종류의 불일치가 있으며, 이 중에서 제한된 버전의 불일치 논증만이 제대로 된 패러미터의 본성문제에 해당한다는 것, 즉 화자 중심주의가 아닌 판정자 중심주의를 옹호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 맥팔레인(2009 draft, forthcoming), Huvenes(2012)등을 포함한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또한 지적된다.

[87] 철회논증은 인식적 양상에 대한 불일치 논증에는 해당하지만, 개인 취향 술어에 대한 불일치 논증에

[**철회**] 창수: "철수는 부산에 있을 수도 있어. (Chulsoo might be in Pusan.)"
진희: "아니야, 그것은 거짓이야, 그는 부산에 있을 수 없어. 나는 방금 그를 아래 홀에서 봤어."
창수: "어 정말? 그러면 내가 틀렸군."
(MacFarlane, 2010 draft, p. 4에서 필자가 각색)

일상에서 이런 대화의 교환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 같으며, 창수나 진희의 측면에서 그들의 발화는 어떤 종류의 언어적 오류도 포함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맥팔레인(2010 draft)에 따르면, 맥락주의는 이런 대화를 자신의 이론틀 안에서 매끄럽게 설명할 수 없다. 위의 대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설명이 되어야 한다:

(i) 보증(warrant): 어떻게 창수는 그의 첫 번째 주장을 하는데 있어서 그 자신이 보증된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수 있는가(might reasonably have thought)
(ii) 거부(rejection): 어떻게 진희는 창수의 주장을 부정확한 것으로 거부하는데 있어서 그녀 자신이 보증된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수 있는가
(iii) 철회(retraction): 왜 창수는 이것을 인정하고, 그의 원래 주장을 철회했어야 했는가

앞서 2장에서 살펴본 표준적 맥락주의의 주장 SC1에 따르면, 창수의 처음 언화행위(speech act)는 단일한 명제에 대한 주장이며, SC4, 즉 화자가 주장의 내용이 참이라고 생각할 좋은 이유를 가질 때만 화자가 **주장**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전제에 의해서, 만약 창수가 이 명제가 참이라고 생각할 좋은 이유를 갖는다면 그는 그의 주장을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보증된다. 창수가 자신의 주장을 하는 근거가 철수가 부산에 있다는 것을 배제할 어떤 것도 그는 알지 못했다는 단순한 것이었다고 가정해보자. 맥락주의자는 이것을 SC2(해당 명제가 무엇인지는 유관한 **집단**에 의해서 알려진 것에 의존한다)에서 맥락적으로 유관한 집단이 단지 창수 자신

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신이 맛[취향]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을 나중에 거부하는 일은 흔치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라고 간주함으로써, 그리고 창수는 그가 아는 한, 철수는 부산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주장했었다고 간주함으로써,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맥팔레인에 따르면, 이때 맥락주의자는 '거부(진희가 거부하는 것)'를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창수가 처음 주장했다고 맥락주의가 예견하는) **이** 명제, 즉 <창수가 아는 한, 철수는 부산에 있을 수도 있다>는 진희가 거부할 입장에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맥락주의자는 '철회(창수가 자신의 원래 주장을 철회하는 것)'를 설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창수가 처음 주장했던) 이 명제는 창수가 진희의 응답을 듣고 난 후에도 여전히 참이라고 간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창수가 자신의 처음 주장을 철회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유관한 집단이 시간을 통해서 고정되도록 유지해야 하며, 이런 유관한 집단을 결정하는 것은 SC3(유관한 집단의 구성은 발화맥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전제)를 근거로 할 때, 철회를 하고 있는 (나중의) 맥락이 아닌, 창수가 처음 주장을 한 맥락이다.

이런 어려움을 비유아론적 맥락주의를 추구함으로써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 즉 창수의 첫 번째 주장에서 맥락적으로 유관한 집단이 진희를 포함하는 집단이라고 수정함으로써 난점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맥팔레인에 따르면, 이런 방향의 움직임은 '거부'와 '철회'를 설명하도록 할 수 있지만, '보증'을 설명하는 것을 더욱 힘들게 한다. 왜냐하면 '보증'의 경우에 창수가 그의 첫 번째 주장을 하는데 있어서 맥락적으로 유관한 집단을 무한정으로 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명백하게 창수의 처음 주장은 창수 자신의 지식상태에만 근거한 것처럼 보인다. 결국 맥팔레인에 따르면, 유아론적 맥락주의도 그리고 비유아론적인 맥락주의도 보증, 거부, 철회의 경우를 한꺼번에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88]

---

[88] 한편, 이런 철회 사례를 맥팔레인이 그의 참 상대주의의 구도 내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앞서 2.2.2.에서 언급된 TR4, TR5, TR6를 통해서 살펴보자. 보증, 거부, 철회의 세 가지 사항들은 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여기서 창수는 "철수는 부산에 있을 수도 있다"는 자신의 처음 주장에 대한 진희의 반론에 직면하여 자신의 처음 주장을 철회한다.)

(i) 보증(warrant): 창수가 주장한 명제, 즉 <철수는 부산에 있을 수도 있다>는 명제는 창수의 맥락(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창수가 소유한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다)에 유관한 정보에 상대적으로 참이다. 그래서 창수가 주장을 한 순간, 그에 의해서 판단될 때, 주장은 올바르며, TR4는 그것을 보증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ii) 거부(rejection): 창수가 주장했던 명제는 진희의 정보에 상대적으로 거짓이다. TR5는 따라서 그녀가

이상의 맥팔레인의 논증은 (가장 중심이 되는) 철회에 대한 논의에 한정하여 그것을 간단히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어서 자신의 과거 발언을 철회하는 경우에 그는 예전 발화를 했던 과거의 자신(과거의 화자)이 아닌 현재의 자신(현재의 판정자)을 패러미터로 삼아 철회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맥락주의자들은 맥팔레인의 이런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브로가드(Brogaard, 2008), 핀텔&길리스(Fintel&Gillies, 2008), 도웰(Dowell, 2011) 등은 철회 논증에 대해, 맥락주의적 이론들도 상대주의 이론만큼이나 경험적 자료들을 잘 다룰 수 있다고 대응한다. 이들 맥락주의자들의 몇몇 대응은 다른 불일치 논증들에 대한 논의들과 중복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들을 여기서 언급하기 보다는 3장의 나머지 부분과 4장에서 부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불일치 논증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반론이 되는 **도청자(eavesdropper) 논증,** 혹은 도청(overhearing) 논증에 대해서 살펴보자. 도청논증의 대표적인 예는 이건, 호쏜, 웨더슨(2005)에서 처음 언급되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 [**탐정**] 홈즈와 왓슨은 영국의 베이커 가에 있는 그들의 집에 앉아서 모리어티의 말을 몰래 도청하고 있다. 모리어티는 그를 잡으려고 하는 홈즈의 계획을 피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런데 사실 홈즈는 모리어티에게 자신이 파리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짓된 정보를 미리 심어 놓았다. 모리어티는 홈즈가 심어놓은 정보를 발견하고서 그의 부하들에게 "홈즈는 나를 잡기 위해서 파리에 있을 수 있다." 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모리어티의 말을 도청하면서 왓슨은 "그것은 거짓이다."고 말한다.
>
> (Egan, Hawthorne &Weatherson, 2005, pp. 15-18로부터, 필자가 요약 및 수정)

모리어티의 말에 대해서 왓슨이 이와 같이 "그것은 거짓이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맥락주의는 이런 용법을 설명하지 못한다. 맥락주의에 따르면, 모리어티의 발화 문장이 어떤 진리값을 갖는지는 화자인 모리어티와 그와 관련된 집단인 부하들의 지식이 관계하므로, 왓슨은 모리어티가 한 말에 거짓을 부

그것을 거부할 자격을 갖게 한다.

(iii) 철회(retraction): 창수가 주장했던 명제는 창수가 진희로부터 철수는 부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배운 후에 그가 갖게 된 정보에 상대적으로 거짓이다. TR6는 그가 지금 차지하는 맥락으로부터 판단될 때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할 좋은 이유를 그가 갖는다면, 그의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할 수 없어야 한다. 하지만 맥락주의의 예견과 다르게, 화자가 의도한 집단과 상관이 없이 모리어티가 말한 문장은 제 3의 도청자에 의해서 그 진리값이 평가될 수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문제의 근본은 맥락주의는 기본적으로 발화가 이루어진 맥락의 범위 내에 있는 화자 및 화자를 포함하는 집단의 증거적 상태에 토대를 두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화의 직접적 참여자가 아닌 발화맥락 밖의 도청자가 (화자나 화자를 포함하는 집단의 증거적 상태가 아닌) 판정자인 자기 자신의 증거적 상태에 토대를 두고서 인식적 양상 주장에 대한 발화를 평가하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89]

이상 단일-발화 논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단일-발화 논증은 어떤 사례에서는 화자 패러미터(혹은 화자를 포함하는 집단의 패러미터)가 적절하지 않고, 판정자가 적절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맥락주의자는 단일-발화 반론에 대해서 앞선 공통-내용 반론과 같이 내용의 두께에 대한 주장을 수정함으로써 대처할 수 없다. 비 지표적인 맥락주의 역시 화자 패러미터를 중심으로 한다는 맥락주의의 기본 전제를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결국 단일-발화 논증은 지표적 맥락주의와 비지표적 맥락주의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다.[90]

3.1.3. 이건, 호쏜, 웨더슨과 라설손의 타자 중심적 용법에 의한 반론

이제까지 이건이 구분하는 맥락주의에 대한 두 종류의 반론인 '공통-내용 논증'과 '단일-발화' 논증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맥락주의에 대해서는 이 두 종류의 반론에 속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반론이 또한 존재한다. 이런 반론이 명시적으로

[89] 나는 내용에는 화자가 의도하는 바로서의 내용과 청자에 의해서 해석되는 바로서의 내용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중에서 후자는 화자-독립적일 수 있다. 맥락주의는 전자를 잘 포착할 수 있지만, 후자를 포섭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도청논증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두 내용의 구분 옹호에 대한 나의 구체적인 논의는 5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90]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지표적 맥락주의, 즉 내용은 얇으며, 이것의 진리값은 화자를 중심으로 결정된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단일-발화 논증에 대항하려고 하는 맥락주의자가 있다면, 그는 잘못 없는 강한 불일치 사례, 철회 사례, 도청 사례 등에서 나타나는 판정자들의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해야 한다. 이런 대처법과 관련된 논의는 3.2절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명백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몇몇 언어적 용법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불합리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에 연루된다.

나타나는 첫 논문은 (앞선 도청 논증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건, 호쏜, 웨더슨(2005)이다.

이건, 호쏜, 웨더슨(2005)에서 그들은 가장 전도유망한 세 가지 버전의 맥락주의를 고려하고, 이들 각각에 대해서 비판한다. 첫 번째 버전의 맥락주의는 드로즈(1991)가 처음에 제안한 종류의 이론이다.[91] 이 이론에 따르면, 관련된 공동체[집단]는 항상 화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부가적 제한조건, 즉 '화자 포함 제한 조건(Speaker-Inclusion Constraint)'이 있다.[92] 하지만 첫 번째 버전의 맥락주의는 인식적 양상이 종속절(that 절)에 포함된 경우와 인식적 양상이 시간 수식어에 의해서 속박[제한]되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하는 난점을 갖는다. 이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이건, 호쏜, 웨더슨이 고려하는 두 번째 버전의 맥락주의는 앞선 어려운 사례들에 대해서만 화자 포함 제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는, 비교적 제한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이건, 호쏜, 웨더슨에 따를 때, 이런 버전의 맥락주의 역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반론에 직면하게 된다. 나는 이 세 가지 반론들이 모두 공통된 특징, 즉 타자 중심적 용법과 관련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 반론들 중에서도 특히 세 번째 반론이 반론의 핵심적 요지를 제대로 드러낸다고 생각한다.[93] 따라서 이 세 번째 반론을 고려해 보도록 하자.

---

[91] 앞선 1.2절의 주석에서 언급된 바를 되풀이해서 말하자면, 이건과 이건, 호쏜, 웨더슨(2005)에 따르면, 드로즈(1991)의 견해는 인식적 양상에 대한 논의로 적절히 이해될 수 있다.

[92] 엄밀하게 말하자면, 1장에서 언급되었던 드로즈의 암 검진 예는 유아론적 맥락주의에 대한 것이며, 따라서 관련된 집단은 항상 화자**만**을 포함해야 한다.

[93] 물론 세 반론들 사이에는 차이도 있다. 하지만 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반론들은 그 본질적 성격상 포함 문제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반론은 복합 문장에 관계하며, 두 번째 반론은 어떤 특정한 패턴의 추론에 대한 난점과 관계한다. 우선 첫 번째 반론을 살펴보자. 이것은 다음과 같은 복합 문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두 번째 버전의 맥락주의가 한계를 갖는다는 것을 지적한다. 사례가 제시되는 상황에 대한 배경 맥락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 배경 맥락은 이건, 호쏜, 웨더슨(2005)이 그들의 논문을 처음 시작할 때 해결해야 할 중심 퍼즐로 제시한 것이다.

CNN 앵커가 리포터 마일즈에게 그란져 교수는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다. 마일즈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른다. 그녀는 프라하에 있을 수(도) 있다. 그녀는 거기에 여행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무도 그녀가 거기에 있는지 혹은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그녀의 계획을 바꿨는지 모른다." 이것은 CNN 리포터가 그녀의 위치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것을 보며 항상 즐겨왔던 그란져 교수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그녀가 남태평양 어디에 정확히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것

[**버스**] 수지는 철수를 위해서 깜짝 파티를 계획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경희는 이 계획을 알게 되었고 철수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했다. 지금 철수와 경희는 수지가 발각되지 않게끔 파티를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다. 현재 수지는 많은 파티 모자를 운반하면서 경희의 아파트로 걸어가고 있다. 그녀는 철수가 집으로 가기 위해서 자주 타는 버스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발견되는 것을 피하고자 옆에 있는 덤불로 뛰어든다. 철수는 경희의 아파트 창문으로부터 수지를 바라보면서 매우 재미있어하지만, 경희는 수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는 철수에게 수지가 왜 덤불에 숨어있는지 묻는다. 이에 대해서 철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철수: "나는 저 버스에 있을 수(도) 있어. (I might be on that bus.)"
(혹은 "나는 (평상시대로라면) 저 버스에 타고 있을 수(도) 있지")

(Egan, Hawthorne & Weatherson, 2005, p.10에서 필자가 각색)

이 프라하는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다른 한편, 리포터인 마일즈가 무엇을 잘못 말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그의 첫 번째와 세 번째의 문장들은 확실히 참인 것 같다: 결국, 그와 다른 사람은 그란져 교수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으며, 그녀는 프라하로 여행하기로 계획했었던 중이었다. 이런 배경 맥락이 전제되었을 때, 그란져 교수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a) "만약 마일즈가, 그가 내가 프라하에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할 때, 참되게 말한다면, 그때 나는 프라하에 있을 수(도)있다."

마일즈가 그란져 교수가 프라하에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참되게 말하고 있었다. 그 발화는 참인 명제를 표현했다. 그래서 (4)의 전건은 참이다. 하지만 후건은 거짓이다. 후건에 나타나는 '~일 수 있다(might)'는 종속(that)절 안에 있지도 않고, 시간 수식어의 범위 안에 있지도 않다. 따라서 화자-포함 제한 조건은 관련된 집단에 그란져 교수가 포함되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가 프라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녀(그란져 교수)가 프라하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참이 아니다. 따라서 두 번째 버전의 맥락주의는 난점에 처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반론은 직관적으로 타당한 어떤 추론적 패턴을 잘못된 것으로 몰아 부친다. 원래 예에서 한 방관자를 고려해 보자.

(b) [마일즈]는 '[그란져 교수가 프라하에 있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믿는다. ([Miles] believes that it might be that [Professor Granger is in Prague].)

(c) [마일즈]의 믿음은 참이다; 따라서

(d) [그란져 교수가 프라하에 있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It might be that [Professor Granger is in Prague].)

하지만 두 번째 버전의 맥락주의는 (b)과 (c)가 참인데 반해서, (d)는 거짓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자-포함 제한 조건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로부터 적용이 되는 경우로 추론할 때마다, 이런 반직관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하 Egan, Hawthorne &Weatherson, 2005, p.9로부터)

철수는 수지의 행동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어쨌든) 전달한 것처럼 보인다. 즉, 그는 참이면서 동시에 설명적인 어떤 것을 말했다. 하지만 어떤 맥락주의 이론에 따르더라도, '그가 버스에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은 참이 아니다. 그는 그 자신이 경희의 아파트에 있다는 것을 알며, 경희의 아파트는 버스의 안에 있지 않다. 결국 맥락주의가 주장하는 바로서의 지식상태, 즉 화자인 철수 및 철수를 포함하는 집단의 지식상태에 의거해서는 철수는 위와 같이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화자 포함 제한 조건을 주장하는 맥락주의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취지의 반론은 이건, 호쏜, 웨더슨(2005) 이후에, 라설손(2005)과 스테펀슨(2007b) 등에 의해서 제시된 바가 있다. 해당 상황에서 화자인 철수가 자신이 버스에 있을 가능성을 귀속시키는 주체로 간주하는 것은 수지이다. 다시 말해서, 철수가 말한 '나는 저 버스에 있을 수(도) 있어'라는 문장의 내용 및 진리값은 '수지(혹은 수지의 지식상태)'라는 양상 패러미터와 연관된다. 그리고 수지는 철수와 경희가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직접적인 대화 상황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 삼자, 즉 타자이다. 따라서 라설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런 반론을 '타자 중심적 (exo-centric) 용법에 의한 반론'으로 부른다.[94]

---

[94] 타자 중심적 용법과 반대되는 개념은 자기-중심적(auto-centric) 용법이다.

한편, 이건, 호쏜, 웨더슨(2005)에는 두 번째 버전의 맥락주의 이론이 다루기 힘든 사례로서, 버스 사례와 유사한 미로 사례가 또한 등장한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이 사례가 함축하는 귀결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그들의 미로 사례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미로] 준철은 미로에 갇혀있다. 진희는 나가는 길을 알며, 그녀가 이것을 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녀는 준철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준철은 출구가 왼쪽에 있는지를 묻는다. 진희는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It might be. It might not be.)"라고 말한다. 진희가 여기서 비협조적일 수는 있지만,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만약에 화자-포함 제한 조건이 포함되지 않은(unembedded) 인식적 양상에 적용된다면, 그때 진희는 분명히 그녀가 거짓이라고 알고 있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녀가 어느 방향이 나가는 길인지 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Egan, Hawthorne & Weatherson, 2005, pp. 9-10에서 필자가 각색)

이 사례는 이건, 호쏜, 웨더슨(2005)에 따르면, 완전히 확신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여기서 진희의 발화에 대해서 약간 어색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만약 진희가 출구가 왼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그때 그녀가 "그것은 (왼쪽에) 있을 수 있어(It might be (to the left))"라고 말할 준비가 되

한편, 혹자는 타자 중심적 용법과 관련된 위의 버스 사례에서 철수가 주장한 것을 과연 주장(assertion)의 일종이라고 간주해야 하는지 의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철수가 제 삼자를 염두에 두면서 그(그녀)의 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형적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한국어에 이런 용법이 있는지 의심스러워할 수 있다. 나는 비록 해당 사례가 매우 특수하고 드문 것이기는 하지만 철수가 말한 것은 주장된 것 혹은 말해진 것으로 올바르게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어에도 이런 용법이 이미 있거나 아니면 이런 용법이 앞으로 올바른 것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95]

이상에서 살펴본 타자 중심적 용법에 의한 반론은 이건이 분류하는 맥락주의에 대한 두 반론, 즉 공통-내용 논증과 단일-발화 논증에는 해당하지 않는 맥락주의에 대한 반론이다. 이 논증을 이건이 말하는 논증들 중에서 단일-발화 논증과 비교해 본다면, 단일-발화 논증이 적절한 인식적 가능성에 대한 패러미터가 판정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반해서, 타자 중심적 용법에 의한 반론은 적절한 패러미터가 화자 및 판정자 이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녀는 그것이 왼쪽에 있을 수 있다는 지식을 그녀 자신에게 귀속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정상적으로 화자들은 그들 자신이 안다고 그들 스스로가 여기지 않는 것들을 진정으로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진희의 발언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의미 이론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것을 위치시키는 것이 마땅한, 어떤 종류의 가식(pretense) 혹은 투사(projection)가 그녀의 발화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참고적으로, 이건, 호쏜, 웨더슨(2005)은 비슷한 사례가 호쏜(Hawthorne, 2004), p.27에 나타난다고 주석에서 밝힌다. 호쏜의 책에도 또한 미로의 예가 제시된다.

[95] 철수가 말한 것이 주장된 내용으로 올바르게 간주될 수 있다는 나의 이런 의견은 단순 직관에 호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는 전형성에 호소하는 것 이상의 보다 정교한 논증이 필요할 것이다. 가령 어떤 점에서 해당 사례가 '주장'에 대한 표준적인 이론들과 상충되는지가 보다 명확히 주장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언어학 진영에서의 논의는 타자 중심적 용법과 관련된 사례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나 역시 이런 일련의 경향을 따르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 용법과 관련하여, 설사 해당 용법이 한국어에 아예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편적인 언어논리를 적용해 볼 때 그것이 한국어 용법에 앞으로 포함되는데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과거 우리말은 수동태에 대한 표현이 적었지만, 일본어 및 영어 표현들에 대한 수동문 번역이 보편화된 지금 우리는 수동문에 대한 거부감을 과거보다 덜 갖고 있다. 언어적 용법 및 사용이 고정되지 않고 변화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용법의 수용은 실질적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양자의 논증들이 모두 화자를 중심으로 하는 맥락주의에 대한 반론을 형성하는 것은 맞지만, 타자 중심적 용법 반론은 비단 맥락주의에만 해를 가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나는 이와 관련하여 상대주의에 대한 반론을 살펴보는 4장에서 상대주의 또한 타자 중심적 용법에 의한 반론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96]

3.2. 도청논증에 대한 맥락주의의 대응과 그 문제점

이상에서 맥락주의에 대한 다양한 반론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나는 반론들을 단순히 나열하고 소개했을 뿐, 이런 반론들에 대한 맥락주의자들의 대응들을 일일이 언급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앞서 잠시 언급된 바 있는 것처럼) 맥락주의의 설명만으로는 불충분한 측면, 즉 맥락주의의 결정적 한계가 드러나는 측면이 있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맥락주의는 극복하기 힘든 치명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의 생사를 논의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상처들의 경과

[96] 타자 중심적 용법에 의한 반론이 맥락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서부터 출발했지만, 모든 종류의 맥락주의가 이와 관련해서 난점에 처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유연한 맥락주의를 옹호하는 카펠렌과 호쏜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람들은 '왼쪽'과 '가까운'을 사람이 보고하고 있는 주체들의 환경의 특징들, 혹은 주체들에게 현저한(salient) 상황과 특징들에 기생하는(parasitic)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슷하게 '재미있는' 과 '~일 수 (도) 있다'도 화자가 아닌 또 다른 개인의 맛 기준 및 정보상태와 연결될 수 있다." (이상 필자가 약간 각색)

이런 카펠렌과 호쏜의 대응 방식이 옳은지의 문제는 좀 더 논의해 보아야 한다.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현저성(salience)에 의존하는 설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왔다. 게다가 어떻게 기생하는(parasite) 지에 대해서 카펠렌과 호쏜은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맥락주의에 최대한의 호의를 베풀어서, '발화맥락'이라는 개념을 수정하여, 타자 중심적 용법을 맥락주의의 틀 내에서 포용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발화맥락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후보들은, 화자의 의도와 객관적인 상황을 포함하는 어떤 것, 화자가 발화하는 상황에서 화자가 귀속시키는 제 삼자의 지식상태 (예: 내가 추측하는 고양이의 기준), 발화맥락에서 알려진 것, 그리고 발화맥락에서 초점화된 것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현재 아는 범위 내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맥락주의자를 알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설령 이런 식의 방어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맥락주의에 치명적인 부분은 따로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전략의 성패에 대한 전망을 불확실한 것으로 남겨 두고자 한다.

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결정적 반론은 앞서 언급된 바가 있는 도청논증과 관련이 있다.[97] 도청논증은 그것이 불일치 논증들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도청논증은 화자와 판정자가 한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맥락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며, (앞선 이건의 구분에 따를 때) 단일-발화 논증에 속하기 때문에 지표적 맥락주의와 비지표적 맥락주의 모두에게 반론이 된다. 나는 도청논증 이외의 단일-발화 논증들, 즉 잘못 없는 강한 불일치 논증과 철회 논증에 대해서 맥락주의자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이지만, 설사 그들이 대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청논증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맥락주의자는 도청 논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미론적 무지(semantic blindness) 전략 또는 관련된 집단에 대한 맥락의 불확정성 전략을 취해왔다. 하지만 나는 이런 대응들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따라서 도청 논증에 대한 맥락주의자들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상대주의는 적어도 동기화된다. 게다가 기존의 도청 논증은 필자에 따르면 다른 방식으로 확장, 파생될 수 있다. 따라서 맥락주의자들에게 이것은 매우 나쁜 소식이 될 것이다.

3.2.1. 의미론적 무지 전략과 그 문제점

그러면 이제 맥락주의자들의 도청 논증에 대한 두 가지 대응 방식인 의미론적 무지 전략과 맥락 불확정성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의미론적 무지(semantic blindness)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의미론적 무지 전략은 상대주의자가 주장하는 일상적 대화 상황에서의 사례 직관을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98] 도청논증의 대표적인 예였었던 앞선 탐정의 사례를 상기해 보도록 하자. 맥락주의에 대한 상대주의의 반대 논증은 모리어티가 “홈즈는 나를 잡기 위해서 파리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도청을 하고 있는 왓슨이 “그것은 거짓이다”고 말하는 용법을 맥락주의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맥락주의는 화자인 모리어티 및 모리어티를 포함하는 부하들의 지식상태를 기준으로 홈즈가 파리에

[97] 한편, 맥팔레인을 포함한 몇몇 학자들은 도청논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맥락주의에 대한 반대 논증들이 처음 생각되었던 것만큼의 위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왔다.

[98] 이 논증은 원래 쉬퍼(Schiffer, 1996) 및 호쏜(Hawthorne, 2004)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진리값을 부여해야 한다고 예견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왓슨은 화자인 모리어티(및 그의 부하들)의 기준을 따라서 “그것은 참이다”고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반론에 대해서 의미론적 무지 전략을 취하는 맥락주의자들은 소위 총알을 깨무는(bite the bullet) 전략을 취한다. 그들은 맥락주의가 예견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참이다”고 왓슨이 말하는 것이 오히려 옳으며, 상대주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거짓이다”고 왓슨이 발화하는 것은 해당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도청논증에서 나타나는 용법을 맥락주의가 설명해야 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의미론적 무지 전략을 취하는 맥락주의자들이 왓슨의 부정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지표적 맥락주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왓슨이 말하는 ‘그것’은 화자인 모리어티(및 그의 부하들)를 포함하는 두꺼운 내용, 즉 <모리어티와 그의 부하들에 따르면, 홈즈는 모리어티를 잡기 위해서 파리에 있을 수 있다>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둘째는 비지표적 맥락주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왓슨이 말하는 ‘그것’은 비록 <홈즈는 모리어티를 잡기 위해서 파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얇은 내용을 가리키지만 이것의 진리값이 화자 및 화자를 포함하는 집단의 지식상태에 근거하기 때문에 왓슨의 발화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들 모두는 지표적 맥락주의 혹은 비지표적 맥락주의가 옳다는 것을 미리 가정하면서, 왓슨의 부정 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다.

한편, 의미론적 무지 대응은 일반인들의 어휘 사용이 잘못되었다는 것, 즉 그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도덕 철학에서 나타나는 오류 이론(error theory)과 유사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위의 사례에서 왓슨이 “그것은 거짓이다.”고 말하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일상적인 직관은 (의미론적 무지 대응에 따르면) 잘못되었다. 우리는 언어 표현의 의미 및 용법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실수를 하는[오류를 저지르는] 경우를 종종 본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은 질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무게라는 단어의 의미와 차별을 두지 않고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으로 위치에 관계없이 불변하지만, 무게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체를 측정한 위치에 따라 그 양이 달라진다. 따라서 질량은 절대적인 개념이며, 무게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반인들의 잘못된 어휘 사용 습관을 접했을 때, 그들의 잘못된 사용을 지적하고 그것을 수정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따라서 의미론적 무지 대응을 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위의 도청 사례에서도 이런 질량/무게 사례와 같이 우리는 어휘를 그릇되게 사용하는 경향을 수정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이런 전략은 효과적인가? 상대주의자들이 도청 사례에 대해서, "그것은 거짓이다."고 말하는 왓슨의 주장이 적절하며, 이것은 맥락주의에 대한 반론을 형성한다고 주장하는데 비해서, 의미론적 무지를 주장하는 맥락주의자는 "그것은 거짓이다."고 말하는 왓슨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사례는 맥락주의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핵심 쟁점은 왓슨의 부정 발화가 적절한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것이다.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이에 대해서 **어느 한 선택지를 우리가 강요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즉, 해당 사례에 대해서, 완전히 직관적이거나 혹은 전적으로 반직관적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왓슨이 모리어티의 말을 긍정하는 것도, 그리고 부정하는 것도 그것 나름대로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왓슨이 '그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홈즈는 모리어티를 잡기 위해서 파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얇은 내용을 가리켰다면 왓슨이 이것을 자신을 판정자로 삼아 부정하는 것은 옳을 수 있다. 반면에 왓슨이 '그것'이라는 표현으로 (원래 화자인 모리어티를 적합한 패러미터로 포함하는) <모리어티(및 그의 부하들)의 지식상태에 따르면, 홈즈는 모리어티를 잡기 위해서 파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두꺼운 내용을 가리켰다면, 왓슨은 그것을 긍정할 수 있다.[99]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나의 주장이 왓슨의 부정을 옹호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의미론적 무지 전략을 취하는 맥락주의자들의 논증적인 힘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왓슨의 긍정을 옹호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상대주의 측의 도청 반론의 힘도 무력화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견해에 대한 오해에 불과하다. 나는 왓슨의 긍정이 (때때로) 적절하지만 긍정만이 가능하다고 주

[99] 한편, 나의 이런 주장은 2부에서 내가 맥락주의/상대주의 및 두꺼운 내용/얇은 내용의 직관을 모두 수용하여, '얇은/두꺼운 내용 다원주의(얇은 내용과 두꺼운 내용이 동시에 주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와 '패러미터 다원주의(다원적인[복수적인] 패러미터들이 동시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를 주장하는 것과 간접적으로 연관된다.

장하고 있지는 않다. 왓슨이 부정하는 것 또한 적절하기 때문에 기존의 상대주의 측의 반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즉 도청 반론은 약화되지 않는다. 게다가 나는 (맥락주의자가 옹호하는) 의미론적 무지 전략을 회의적으로 바라볼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위의 질량 사례와 도청 사례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질량/무게 사례에 대한 전문적 용어의 우선권이 과학자에 있다면, 도청 사례에 대해서는 언어학자에게 그 우선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언어학의 전문적 용법과 일상적 용법 사이의 차이는, 과학적 용어에 대한 용법과 일상적 용어에 대한 용법에 비해서, 한결 덜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언어학자들이 문제시 삼는 어휘들의 많은 부분들(형식 언어를 제외한 부분들)이 일상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연언어에 대한 것인 반면에, 과학적인 용어는 일상인들이 자주 쓰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는 언어학자들이 갖는 전문성의 지위가 과학자들의 지위보다 덜 견고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표준어에 대한 논의가 대두될 때, 전문가들의 언어학적 원칙 못지 않게 일상인들의 실제 사용 규칙이 또한 존중된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질량/무게 사례와 도청 사례가 이와 같은 차이점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연 어떤 언어 표현의 사용에 대해서 일상인들이 **무지하기만 한지** 다시금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둘째, 전문적 용어와 일상적 용어의 대립이 있을 때, 우리는 전문적 용어만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용어에 대한 엄밀한 용법과 느슨한 용법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런 이원적인 전략은 어느 한 입장의 우월성으로부터 다른 한 입장이 사장되는 것을 막아준다. 사실 어떤 비유적이고 파생적인 의미에서, 의미론적 무지 전략과 같이, 전문가 독단주의 혹은 만능주의를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이론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 화자의 의도 및 맥락을 존중하는 맥락주의 본래의 관용적 정신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맥락주의 진영이 의미론적 무지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 강제성은 줄어들게 된다.

끝으로 **가장 중요하게**, 의미론적 무지 대응 전략은 그것이 임시방편적(ad hoc)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의미론적 무지 전략의 근저에는 일상인들의 많은 언어 사용이 사실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도덕이론에서 오류이론이 곤경에 처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문제점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반드시 그르다고만 볼 수 없는) 많은 현상적인 사실들을 부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떠안으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실과 동떨어진 임시방편적 주장들에 개입하게 되는 실수를 저지르는 셈이다. 결국, 의미론적 무지 전략은 도청 논증으로부터 맥락주의를 구해내지 못한다.

3.2.2. 맥락의 불확정성 전략과 그 문제점

이제 다음으로 **관련된 집단에 대한 맥락의 불확정성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 전략은 간단히 말해서, 맥락이 관련된 집단을 확정적으로 결정한다는 전제를 부정하는 것[100]으로 핀텔과 길리스(2011)에 의해서 옹호되었다.[101] 핀텔과 길리스는 맥락의 불확정성 주장을 포함하는 자신들의 수정된 버전의 맥락주의가 상대주의의 여러 반론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제시하는 맥락주의는 맥팔레인에 의해서 '흐릿한 맥락주의(Cloudy Contextualism)'라고 불린다.[102] 핀텔과 길리스가 그들의 주장을 전개하는 방식은 다소 복잡하다. 따라서 그들의 논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논의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맥팔레인에 의한 그들 이론의 정식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나는 맥팔레인의 정식화가 핀텔과 길리스의 논의를 왜곡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맥락의 불확정성 주장이 어떤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흐릿한 맥락주의가 어떤 입장인지를 우선 간략히 정리해 보자.

흐릿한 맥락주의는 단순 인식적 양상들을 포함하는 문장들의 발화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100] 이것은 앞선 표준적인 맥락주의의 첫 번째 주장인 SC1을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101] 한편, 핀텔과 길리스가, 불일치에 의한 상대주의의 반론, 그 중에서 특히, 현재 초점이 되고 있는 도청과 관련된 논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루게 될, 관련된 집단에 대한 맥락의 불확정성 전략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그 밖에도 '그것(that)'이 지칭하는 것을 프레재슨트(prejacent)로 간주하는 방법 및 시간상의 차이(time lag)와 관련된 반론을 제시한다. 하지만 나는 이들 대응들이 그다지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것이다.

[102] 핀텔과 길리스가 '맥락들의 구름(cloud of contex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맥락 확정의 모호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맥팔레인의 이런 명칭부여는 그들 이론의 핵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CC1: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의 발화들은 단일한 명제에 대한 주장들이 아니다. 그들은 그 자체로(sui generic) 명제들의 구름덩어리(cloud)를 발생시키는 언화행위들(speech acts)이다.

CC2: 한 명제는 그것이 허락될 수 있는(admissible) 맥락들의 집합 C안에 있는 맥락들 중의 하나에서 발화된 문장의 의미값(semantic value)이면, 그리고 오직 그때만 이런 구름덩어리에 있다. 집단 G가 맥락적으로 유관한 단일한 그런 맥락에 상대적으로, "P일 수(도) 있다(might P)"는 <P가 집단G의 지식에 의해 열린 채로 남겨진 어떤 세계들에서 참이다>는 명제를 표현하며, "P임에 틀림없다(must P)"는 <¬P가 집단G의 지식에 의해 열린 채로 남겨진 어떤 세계들에서 참이 아니다>는 명제를 표현한다.

CC3: 허락될 수 있는 맥락들 C의 집합은 발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 상황의 특징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각 맥락은 유관한 집단의 선택에 대응하며, 해당 집합은, 어떤 집단이 유관한지가 충분히 결정되지 않을 때, **복수의 맥락들(multiple contexts)**을 포함한다. 유관한 집단들에 대한 후보들로는 다음을 포함한다: 화자, 화자의 공공연한 청자; 화자와 청자; 대화에서 공공연한 파트너들로서 같은 탐구(investigation)에 참여하는 사람들.

CC4: 화자가 구름덩어리에 있는 명제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주장할 입장에 놓여 있을 때만, 즉 그녀가 그런 명제가 참이라고 여길 좋은 이유들을 가질 때만 그녀가 **언화행위를 하는 것**은 적합하다.

CC5: 만약 청자들이 P+(P+는 청자들이 진리값을 그것에 할당하기 위한 좋은 이유들을 갖는 구름덩어리에서 가장 강한 명제이다)를 거짓이라고 생각할 좋은 이유들이 있다면 언화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적합하다.

CC6: 화자는 구름덩어리에 있는 명제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참이라고 생각할 좋은 이유들을 그녀가 갖는다면, 그녀의 원래 언화행위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주장을 **고수**하도록 허락된다. 만약 그녀가 원래 발화를 고수한다면, 구름덩어리는 증명된 명제들을 거짓으로 배제하도록 소급적으로(retroactively) 줄어든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구름덩어리에 있는 어떤 명제들의 거짓에 기초로 하여 그녀의 원래 언화행위를 현명하게 **철회**할 수도 있다.

(MacFarlane, 2010 draft, pp. 9-10, 볼드 체 및 몇몇 표기들을 포함하여 필자가 각색)

그러면 흐릿한 맥락주의는 (상대주의자가 맥락주의에 대해서 제기한) 보증, 거부(및 고수), 철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 흐릿한 맥락주의는

보증, 거부, 철회 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논의를 위해서, 앞서 철회와 관련된 사례를 상기해 보자.

창수: “철수는 부산에 있을 수도 있어. (Chulsoo might be in Pusan.)”
진희: “아니야, 그것은 거짓이야, 그는 부산에 있을 수 없어. 나는 방금 그를 아래 홀에서 봤어.”
창수: “어 정말? 그러면 내가 틀렸군.”

이제, 보증, 거부, 철회는 흐릿한 맥락주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i) 보증(warrant): CC4에 따르면, 창수는 그가 “철수는 부산에 있을 수 있어”라는 발화가 발생시키는 명제들의 구름덩어리(cloud)에서의 명제들 중에 적어도 하나를 주장할 입장에 있다면, 그것을 발화하는 것에 보증된다. 그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킨다. 왜냐하면 이 구름덩어리는 ‘철수는 부산에 있다’가 집단 창수의 지식에 의해 열린 채로 남겨진 어떤 세계들에서 참이라는 명제를 포함하며, 창수는 이것을 주장할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ii) 거부(rejection): CC5에 따르면, 만약 진희가 진리값을 할당하기 위한 좋은 이유들을 갖는 구름덩어리에서 가장 강한 명제가 그녀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녀는 창수의 발화를 거부할 자격이 있다. 단순성을 위해서, 명제들의 구름덩어리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P_G: ‘철수는 부산에 있다’가 집단 창수의 지식에 의해 열린 채로 남겨진 어떤 세계들에서 참이라는 명제

P_S: ‘철수는 부산에 있다’가 집단 진희의 지식에 의해 열린 채로 남겨진 어떤 세계들에서 참이라는 명제

P_{GS}: ‘철수는 부산에 있다’가 집단 창수 및 진희의 지식에 의해 열린 채로 남겨진 어떤 세계들에서 참이라는 명제

진희는 그녀가 철수는 부산에 있지 않다고 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녀는 P_S 와 P_{GS}를 거부할 결정적인 이유들을 갖는다. 그녀는 다소 좀 더 약한 P_G를 받아들일 이유들을 가질 수 있지만 P_{GS}는 P_G

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녀는 창수의 발화를 거부할 자격이 있다.

(iii) 철회(retraction): CC6에 따르면, 창수는 구름덩어리에 있는 명제들 중에 어떤 것의 거짓에 대한 이유들이 주어졌을 때 그의 언화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P_S(그리고 따라서 P_{GS})가 거짓이라는 것을 진희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는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을 주목해야 한다: 흐릿한 맥락주의에 따르면, 창수는 철회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그는 또한, 활동하는 명제들의 구름덩어리를 단지 P_G로 소급적으로 줄이면서, 그의 이유를 고수할 수 있다.

(MacFarlane, 2010 draft, pp. 10-11)

핀텔과 길리스에 의하면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흐릿한 맥락주의에 따를 때, 새로운 증거 앞에서 화자는 자신의 주장을 고수할 수도 있으며 철회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고수 및 철회 여부는 강제적이지 않다.

그러면, 흐릿한 맥락주의는 도청 문제 해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앞서 언급되었던 대로) 도청 논증은 불일치의 특별한 경우로서, 보증, 거부, 철회의 범주 중에서 거부 사례의 한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상의 논의를 도청의 사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핀텔과 길리스(2008, 2011)가 도청 논증에 대해서 그들의 이론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그들의 논문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경청해 보자.[103]

대표적인 도청 논증인 탐정의 사례에서 "홈즈는 나를 잡기 위해서 파리에 있을 수 있다."는 모리어티 발언에 대해, 이를 도청하고 있는 왓슨이 "그것은 거짓이야"라고 모리어티가 한 말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핀텔과 길리스의 분석에서, 왓슨이 모리어티의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을 거부하는 것은, 만약에 그가 유관한 맥락들의 구름 덩어리 안에 있는 집단 G의 일원이라면, 단지 적절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홈즈는 나를 잡기 위해서 파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모리어티의 발화가 가질 수 있는 복수의(multiple) 독해들 중에서, 도청자인 왓슨이 속한 집단의 정보상태에 대한 주장이었던 독해가 있을 수 있다면, 왓슨은 모리어티의 발화를 적절하게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도청자인 왓슨을 집단 G의 일원이라고 간주하기란 쉽지 않다. 보통의 경우에 모리어티는 자신의

[103] 다음은 현 상황의 논의에 적절하도록 약간 수정되었다. 핀텔과 길리스는 다른 예들을 사용한다.

말이 도청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도청을 하는 왓슨까지 고려하면서 인식적 가능성에 대한 발화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핀텔과 길리스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그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가?

이에 대해서, 핀텔과 길리스(2011)는 모리어티가 유관한 집단 G의 일원에, 제삼의 도청자인 왓슨을 포함시키면서 "홈즈는 나를 잡기 위해서 파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단순 인식적 양상 발언을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그들에 따르면 "극단적으로 그럴법하지 않다." [104] 대신에, 핀텔과 길리스는 (비록 모리어티가 그가 한 가지 유관한 독해, 즉 전형적으로 유아론적인 독해 상황 하에서 단순 인식적 양상을 주장할 입장에 있게 되자마자, 그것을 발화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리어티가 단순 인식적 양상으로서 그것을 발화하기 때문에, 그는 따라서 복수의 독해를 발생시키게 되며, 왓슨이 거부하는 것은 바로 이들 복수의 독해들 중에 하나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핀텔과 길리스에 따르면, 비록 모리어티가 왓슨을 염두에 두고서 자신의 발화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발화한 것이 다양한 독해를 가능하게 하는 **단순 인식적 양상이었기 때문에** 모리어티의 대화 범위 밖에 있는 왓슨 역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핀텔과 길리스는 이상의 설명과 같은 방식으로 맥락이 관련 집단을 확정적으로 결정한다는 전제를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수정된 맥락주의가 도청 반론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이상을 통해서 흐릿한 맥락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도청논증으로부터의 반론을 피해갈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나는 핀텔과 길리스의 논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나는 핀텔과 길리스가 맥락이 관련 집단을 확정적으로 결정한다는 전제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리고 나는 핀텔과 길리스의 이런 주장을 2부에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이용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의 대응이 사실상 맥락주의 이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맥락주의의 핵심은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이 화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발화맥락에 상대적으로 그 내용과 진리값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앞선 2장에서 정의된 표준적 맥락주의에 따르면, 해당

[104] Fintel and Gillies, 2011, p. 26.

명제와 진리값은 화자 및 화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발화가 이루어진 대화 맥락내의 집단의 지식상태에 의존한다. 따라서 (비록 수정된 버전이기는 하지만) 맥락주의를 옹호하는 핀텔과 길리스는 유관한 집단에 제 삼의 도청자인 왓슨을 포함시킬 수 없다. 그는 발화맥락 내에 있다고 간주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핀텔과 길리스는 (비록 그들이 유관한 집단에 도청자인 왓슨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맥락을 모호하게 만듦으로써 단순 인식적 양상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도청자인 왓슨에 상대적으로 판정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발화맥락'이라는 개념을 화자와 화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화자의 대화를 듣고 있는 대화 참가자들 이상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기존의 '발화맥락' 개념을 판정맥락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핀텔과 길리스의 이와 같은 대응은 도청 논증 자체는 그것이 피할 수 있게 해주지만, 우리가 그들의 입장을 더 이상 맥락주의로 분류하기 힘들도록 만든다. 반론에 성공적으로 대답하는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점은 핀텔과 길리스를 카펠렌(2008b)이 내용 상대주의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 학자로 분류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된다.[105]

결론적으로, 다른 반론들에 대한 맥락주의의 대응들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으며, 전망이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도청논증은 맥락주의로 분류될 수 있는 입장들이 극복하기 힘들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와 같이, 도청 논증이 맥락주의에 결정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로는 맥팔레인(MacFarlane, 2007a), 몬트미니(Montminy, 2009) 등을 들 수 있다. 그들은 모두, 대화-내적(intra-conversational) 불일치를 맥락주의가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사이(inter-conversational)의 불일치는 그것이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여기서 대화-사이의 불일치는 (서로 의견이 교환되지 않는 두 대화 상황 사이의 불일치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도청 논증과 관련된 불일치에 해당한다.

---

[105] 게다가 핀텔과 길리스가 제시하는 거부, 철회를 위한 구체적 조건들은 적합하지 않다. 이 점은 맥팔레인(MacFarlane, 2010 draft)과 도웰(Dowell, 2011)에 의해서 각각 지적된 바가 있다. 맥팔레인과 도웰은 핀텔과 길리스가 상대주의를 비판하는 마스터마인드 사례 자체가 그들 자신의 흐릿한 맥락주의가 말하는 구체적 조건들과 어울리지 않음을 지적한다. 나중에 4장에서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핀텔과 길리스가 마스터마인드 사례를 통해서 맥팔레인의 상대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다루게 될 것이다.

3.3. 맥락주의의 결정적 문제로서의 비화자 중심적 용법

그런데 나는 비단 도청 논증만 문제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도청 논증이 맥락주의에 대한 결정적 반론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논의에서 드러나는 바 그대로의 도청 논증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와 관련해서 적어도 두 가지 사안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도청 논증은 불일치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동의의 경우에도 맥락주의와 같은 화자 중심주의에 대한 위협이 된다. 둘째, 청자가 화자의 대화를 대화상황 외적인 장소에서 엿듣는 도청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같은 대화 상황에 있을 때조차도, 판정자를 양상 패러미터[양상토대]로 갖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차례로 살펴보자.

우선, 나는 도청 논증에서 핵심적인 것은 그것이 불일치의 한 종류라는 것에서 나오는 특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도청 논증과 같이 화자의 말을 청자가 몰래 엿듣는 경우에, 설령 동의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화자 및 화자가 의도하는 발화 맥락내의 집단들 이외의 패러미터가 유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을 고려해 보자.

[탐정II] 앞선, 홈즈와 왓슨의 도청 사례와 같이 홈즈와 왓슨이 모리어티의 말을 몰래 도청하고 있다. 그리고 모리어티는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발언을 한다.

모리어티: “홈즈는 나를 잡기 위해서 파리에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사항이 원래 논증과 차이가 난다. 사실 모리어티는 홈즈가 파리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가 숨겨놓은 도청장치도 또한 발견했다. 하지만 그 역시 홈즈를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위와 같이 발언한다. 그리고 홈즈는 모리어티가 도청장치를 찾아냈고 일부러 위와 같이 발언했음을 직감한다. 하지만 왓슨은 이런 모든 사실을 모른다. 그리고 왓슨은 원래의 도청 논증처럼 모리어티에 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동의하는 발언을 한다.

왓슨: “그렇지, 그것은 맞아. 모리어티와 그의 부하들에 따르면, 그럴 수 있겠지.”

이 경우에 “홈즈는 나를 잡기 위해서 파리에 있을 수 있다”는 모리어티의 발

언에 대한 적합한 양상 패러미터는 모리어티의 입장에서 ≪홈즈와 왓슨이 생각하는 모리어티의 지식상태≫가 될 것이다. 반면에 모리어티의 말에 동의를 하는 왓슨의 양상 패러미터는 모리어티가 일부러 위와 같이 발언했다는 것을 모르는 왓슨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모리어티와 모리어티의 부하들의 지식상태≫가 될 것이지만, 모든 배경을 알고 있는 홈즈의 입장에서는 ≪**왓슨이 생각하는 모리어티와 모리어티의 부하들의 지식상태**≫가 될 것이다. 어떤 이유(가령, 모리어티가 역으로 자신들을 도청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홈즈가 의심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서 홈즈가 왓슨에게 모든 사정을 알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는 굳이 왓슨의 발언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왓슨의 유관한 양상 패러미터는 화자 및 화자 관련 집단 이외의 대상인 왓슨을 포함하는 것, 즉 ≪왓슨이 생각하는 모리어티와 모리어티의 부하들의 지식상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화 상황 외적인 환경에서 설사 동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몇몇 특수한 조건이 덧붙여진다면, 화자 및 화자 관련 패러미터가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이상의 탐정Ⅱ 사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안이 있다. 우선, 어떤 사람은 화자인 모리어티가 도청장치를 이미 발견했고, 도청하는 홈즈와 왓슨을 염두에 두면서, 즉 그들을 의도하면서 발화를 했기 때문에 탐정Ⅱ의 예가 맥락주의에 대한 반론을 형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맥락주의는 화자가 의도하는 모든 집단이 아니라, 화자가 의도하는 발화맥락 내의 집단을 중심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발화맥락'이라는 개념을 기존의 범위 이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앞서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사안은 비록 탐정Ⅱ의 사례가 화자를 중심으로 하는 맥락주의에 대한 (기존에 제시된 적이 없는 추가적인) 반론에 해당하지만, 그것은 맥락주의에 대한 반론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대주의에 대한 반론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왓슨이 생각하는 모리어티와 모리어티의 부하들의 지식상태'는 (상대주의가 주장하는) 판정자의 지식상태 또한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논의들은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2부에서 진행될 것이다.

둘째, 도청 상황이 아니어도 상대주의적 해석은 가능하다. 맥팔레인, 몬트미니 등을 포함하는 기존의 몇몇 논의들은 대화 사이(inter-conversation)와 대화 내(intra-conversation)의 구분이 명확한 것처럼 이야기 한다. 즉, 대화 내적 불일치 논증들,

즉 잘못 없는 (강한 및 일반) 불일치 논증 및 철회 논증은 맥락주의에 대한 심각한 반론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화 사이의 불일치 논증인 도청 논증은 상대주의적 해석만을 강요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같은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즉 대화 내적 불일치와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상대주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경우의 논증이 도청 논증과 유사하게 갖는 특징은 화자의 발언에 대한 상대방의 재 발언이 화자 발언의 내용을 제대로 나타낼 정도로 충분히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화자와 청자가 일회성 발언을 주고받는 경우에, 그들이 대화를 하는 맥락에 함께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판정자 패러미터가 인식적 양상 패러미터로 보다 우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예는 바로 뒤따를 것이다.) 이런 기존 도청 논증의 확장 혹은 파생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비화자 중심적 용법**'이라고 불릴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두 가지 사안을 고려 보았을 때, 우리는 불일치가 아닌 상황 및 도청의 경우와 다른 상황, 즉 같은 대화 내적 상황에서도 (상대주의와 같은) 판정자 중심주의가 유력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침묵하는 제 삼자]** 대화 참여자는 천수, 만수, 경수 세 명으로, 천수가 "이번 일요일에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어"라고 말하고, 만수가 "그래 맞아"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사실, 천수는 TV프로그램에서 증권전문가가 하는 말을 듣고서 이것을 기준으로 한 말이며, 만수는 점술의 맹신자로서, 이번 일요일에 불길한 일이 있다는 점괘를 기준으로 천수에 동의를 한 것이었다. 천수와 만수 모두는 서로들 같은 증거를 가지고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막후 사정을 제 삼자인 경수는 모두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천수의 처음 발화에서 양상 패러미터는 천수의 입장에서 '천수 및 증권전문가'가 될 것이며, 만수의 대답에서 양상 패러미터는 만수의 입장에서 '만수 및 점괘'가 될 것이다. 하지만 경수의 입장에서 볼 때, 천수와 만수는 서로 상대방의 주장이 자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지식상태에 의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천수의 경우에 만수의 동의를 (나중) 화자인 만수의 지식상태인 ≪만수 및 점괘≫가 아니라, 판정자 자신의 지식상태인 ≪천수 및 증권전문가≫로 이해하고 있으며, 만수의 경우에 (처음) 화자인 천수의 지식상태인 ≪천수 및 증권전문가≫

가 아니라, 판정자인 만수 자신의 지식상태인 ≪만수 및 점괘≫를 염두에 두면서 천수에게 동의를 하는 것이다. 불일치와 관련된 원래의 도청 사례에서 도청자인 왓슨이 “그것은 거짓이다”고 말할 때 그의 지식상태가 화자인 모리어티와 모리어티의 부하들의 지식상태가 아닌 판정자인 도청자 왓슨 자신의 지식상태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불일치도 없고, 도청 상황도 아닌 위와 같은 사례에서 만수가 말하는 “그래 맞아”라는 발화의 양상 패러미터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경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원래 화자인 천수가 의도하는 ≪천수 및 증권전문가≫가 아니라 만수를 판정자로 삼는 ≪만수 및 점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례는 같은 대화 상황 및 동의의 상황 속에서도 판정자 중심주의가 옹호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비화자 중심적 용법논증의 경우에 맥락주의는 결정적인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맥락주의 이외의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4장. 상대주의에 대한 반론들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맥락주의에 대한 상대주의 진영의 반론들에 대해서 맥락주의자들이 취하는 대응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소극적인 대응방식으로, 맥락주의자가 자신들의 이론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상대주의의 반론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식으로, 상대주의에 대해서 재반론을 펼치는 것이다. 나는 현 4장에서 후자에 보다 초점을 맞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3장에서 맥락주의는 그 본성상 결정적인 한계를 지닌다고 이미 논증했기 때문이다.

한편, 나는 이전 장에서 맥락주의는 (도청 논증 및) 비화자 중심적 용법이라는 치명적인 반론에 직면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맥락주의에 대한 다른 반론들, 즉 공통-내용 논증 및 잘못 없는 강한 불일치 논증 등에 맥락주의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그리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았다. 그런데 나는 상대주의 또한 (비록 그것이 맥락주의만큼의 치명적인 반론을 갖는지는 불분명할지라도) 그 자체로 충분한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맥락주의에 대한 반론을 다루었던 이전 장과 마찬가지로, 이번 장에서도 나는 상대주의자들이 그들에 대한 반론들에 어떻게 재대응하는가를 상세히 다루기보다는, 상대주의에 대한 반론들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서술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논의들 중 상당부분은 2부에서 새로운 이론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게 될 것이다. 이제 4장에서 앞으로 내가 다룰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4.1절에서 나는 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에 대한 반론들을 다룰 것이며, 4.2절에서 내용 상대주의에 대한 반론을 간략히 언급한다. 그리고 나는 4장을 마치기 전 4.3절에서, 기존 상대주의에 대한 나만의 새로운 반론들을 제시할 것이다.

4.1. 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에 대한 반론들

먼저 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에 대한 반론들을 살펴보자. 이들 반론들은 핀텔

과 길리스(2008), 디이츠(2008) 등에 의해서 제기된 것으로, 다른 종류의 참 상대주의, 예를 들어서 (판단자를 중심으로 삼는) '라설손-스테펀슨의 참 상대주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다. 즉, 나는 4.1절에서 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에만 고유하게 적용되는 반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들 반론들은 공통적으로 맥팔레인이 적합한 양상 패러미터를 **현재의 판정자(assessor)로 고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것들이다. 반론들의 요지를 간단히 미리 언급하자면, 4.1.1.에서 다룰 핀텔과 길리스의 반론은 판정자가 더 많이 아는 경우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며, 4.1.2.에서 다룰 디이츠의 반론은 (핀텔 및 길리스의 반론과 반대로) 판정자가 더 조금 아는 경우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4.1.1. 판정자가 더 많이 아는 경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핀텔과 길리스(2008)는 맥팔레인의 상대주의에 대한 다양한 반론들을 전개한다. 나는 이 중에서 패러미터의 본성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내가 판단하는 논증만을 다루도록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판정자가 더 많이 아는 경우와 관련된 반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반론은 보다 세부적으로 두 하위 반론, 즉 '더 **알게 된** 후의 평가에 대한 한계들 반론'과 '판정자가 화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례 반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106] 먼저 **더 알게 된 후의 평가에 대한**

[106] 그런데 내가 이런 이름으로 분류하는 핀텔과 길리스의 논증들은 그들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세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핀텔과 길리스는 이들 두 논증을 명백히 다른 것처럼 분류하고 있지만, 나는 그것의 중심 요지가 매우 유사하는 점을 고려해서 이들을 한 범주 하에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 두 비평은 모두 판정자가 과거의 자신 혹은 타인에 비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된 경우 및 현재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는 이들을 '판정자가 더 많이 알게 된 혹은 아는 경우와 관련된 반론'이라는 이름으로 한꺼번에 다루도록 할 것이다. 둘째, 핀텔과 길리스는, 내가 더 알게 된 후의 평가에 대한 한계들의 범주에 분류하는 열쇠의 예와 아이스크림 예를 서로 다른 반론인 것처럼 따로 떼어 언급한다. 그들은 전자를 맥팔레인의 상대주의를 옹호하는 철회논증에 대한 불신의 근거로, 후자를 맥팔레인의 상대주의에 대한 시제(tense) 반론의 사례로 각각 제시한다. 하지만 나는 이 두 사례의 기본적인 구조 및 성격이 같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열쇠 및 아이스크림 사례를 모두 더 알게 된 후의 평가에 대한 한계들 반론으로 분류하도록 할 것이다. 끝으로, 핀텔과 길리스는 내가 판정자가 화자보다 더 많이 아는 사례 반론의 일종으로 분류하는 '도청논증에 대한 재반론'을 그것이 불일치에 관한 반론이라는 점에서, 열쇠의 예에 해당하는 철회 사례와 연관시켜서 다룬다. 하지만 나의 아는/알게 된 반론 분류에 의하면 도청논증에 대한 재반론은 철회와 관련된 더 **알게 된** 후의 평가에 대한 한

한계들과 관련된 반론[107]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것은 앞선 3.1절에서 언급되었던, 맥락주의에 대한 상대주의의 철회 반론에 대해서 맥락주의 측에서 재반론하는 것과 연관된다. 이 반론의 요지는 맥팔레인이 맥락주의를 공격함과 동시에 자신의 상대주의를 옹호하는 근거로 삼는 철회 사례들의 소소한 변형이 **오히려** 맥팔레인 상대주의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핀텔과 길리스는 화자가 좀 더 나은 정보를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철회만 하는 것은 아니며 때때로 과거의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는데 저항**할 수 있다고, 즉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렇게 철회에 저항하고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는 경우를 맥팔레인의 판정자에 의한 참 상대주의는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핀텔과 길리스의 구체적 논증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들은 철회 논증에 대한 반론으로 다음과 같은 열쇠 및 아이스크림 예를 제시한다.

[**열쇠**] 순희: "열쇠는 서랍에 있을 수(도) 있어."

철이: "(서랍을 보고서 흥분하면서) 열쇠는 거기에 없어. 왜 너는 그렇게 말했니?"

순희: "나는 열쇠가 서랍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 나는 거기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어. 그리고 열쇠는 서랍에 있었을 수(도) 있었어.(The key might have been in the drawer.)"

[**아이스크림**] 소희는 아이스크림을 찾으면서 냉장고를 확인한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왜 그녀가 냉장고를 열었느냐고 물음을 받았을 때,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있었을 수도 있었어.(There might have been ice cream in the freezer.)"

여기서 비록 소희가 발화의 시점에,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없다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녀가 참인 어떤 것을 말했다는 것이 가능하다.

핀텔과 길리스에 따르면, 이런 사례들은 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에 대해서 의구심을 던진다. 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는 '화자가 그녀의 양상 주장의 프레재슨

계들 반론이 아닌, 판정자가 화자보다 더 많이 **아는** 사례 반론에 해당하게 된다.

[107] 참고적으로 이 반론은 때로 '과거적 회고 반론'이라고도 불린다.

트(prejacent)[‘φ일 수(도) 있다’에서 φ에 해당하는 것]를 배제하는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에 철회가 요구된다’고 예견한다. 다시 말해서 맥팔레인에 따르면, 열쇠가 서랍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순희는 자신의 **현재의** 지식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과거의 자신의 발화를 철회했어야 한다. 하지만 순희는 자신의 발화를 철회하지 않고서 자신의 발언의 정당성을 고수한다. 그리고 순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게다가 아이스크림 예 역시 이상과 유사한 논점을 포함한다. 따라서 맥팔레인의 상대주의는 핀텔과 길리스에 따르면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판정자가 화자보다 (현재)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례**에 의한 핀텔과 길리스의 상대주의 반론을 살펴보도록 하자. 나는 이런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례 반론에 ‘도청 논증에 대한 핀텔과 길리스의 재반론’ 및 ‘마스터마인드 사례 반론’이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먼저 도청 반론에 대한 핀텔과 길리스의 재반론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앞선 열쇠 사례가 상대주의 측의 철회 논증에 대해 재반론한 것이며, 철회 논증은 보다 넓은 범주인 불일치 논증들 중에서 하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불일치 논증의 다른 하위 범주인 도청 논증에 대해서도 핀텔과 길리스가 비슷한 취지에서 재반론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도청논증의 사례에서도 불일치한다는 직관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핀텔과 길리스(2008)는 이건(2007)에 제시된 예의 상황을 변형시켜서, 도청 논증 사례의 변형 사례가 맥팔레인의 상대주의에 역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핀텔과 길리스의 예는 ‘또는(or)’과 관련된 보다 복잡한 사례를 포함하며,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가 도웰(2011)에 의해서 더 잘 나타난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웰의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자.[108]

우선, 원래의 도청 사례를 다시 상기해 보자.

> [**탐정**] 홈즈와 왓슨은 영국의 베이커 가에 있는 그들의 집에 앉아서 모리어티의 말을 몰래 도청하고 있다. 모리어티는 그를 잡으려고 하는 홈즈의 계획을 피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런데 사실 홈즈는 모리어티에게 자신이 파리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짓된 정보를 미리 심어 놓았다. 모리어티는 홈즈가 심어놓은 정보를 발견하고

[108] 원래 이건(2007), 핀텔과 길리스(2008), 도웰(2011)의 예는 제임스 본드와 악당 블로펠드를 그 예로 들고 있지만, 이것을 앞선 3장에서 언급된 도청 논증에 맞추어서 홈즈와 모리어티의 예로 대체하도록 하겠다.

서 그의 부하들에게 “홈즈는 나를 잡기 위해서 파리에 있을 수 있다.” 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모리어티의 말을 도청하면서 왓슨은 “그것은 거짓이다.”고 말한다.

(Egan, Hawthorne &Weatherson, 2005, pp.15-18로부터, 필자가 요약 및 수정)

이에 대해서 도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제의 상황에서, 모리어티와 그의 부화들의 대화를 도청장치를 통해 엿듣고 있는 왓슨이 그의 옆에 있는 홈즈에게 “그것은 거짓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어색한 것 같다. 그리고 “모리어티가 말했던 것은 거짓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더욱 어색하다. 홈즈가 파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왓슨의 현재 정보상태에 따르면, 모리어티가 “홈즈는 나를 잡기 위해서 파리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판정자인 왓슨을 기준으로 할 때 거짓이다. 이것이 상대주의가 예견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 많이 알고 있는 왓슨이라 할지라도 홈즈와의 대화 속에서 모리어티는 홈즈의 위치를 모르는 것으로 이미 약속 혹은 전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이야.”라고 말해야 적절하다. 따라서 상대주의는 제 3의 도청자가 “그것은 참이야.”와 같이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109]

여기서 도웰(그리고 핀텔과 길리스)이 지적하는 것은 상대주의가 맥락주의를 공격하는 주요 논거가 되는 도청 논증의 사례 직관이 반드시 참 상대주의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직관에 따르면, 화자의 지식상태를

---

[109] 왓슨이 모리어티의 말에 동의를 하는 것은 왓슨의 입장에서 (3장에서 논의되었던) 타자 중심적 용법과 관련이 있다. 왓슨은 자신의 지식기준에 의한다면 그렇지 않지만(그리고 옆의 청자인 홈즈의 지식기준에 의해서도 그렇지 않지만), 도청의 화제가 되는 모리어티(및 그의 부하들)의 지식기준에 의한다면, 홈즈가 파리에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모리어티(및 그의 부하들)는 원래의 화자인면서 동시에 (왓슨 입장에서의) 제삼자이다.

한편, 핀텔과 길리스(2008)의 원래 논증은 다음과 같다.

“블로펠드가 제임스 본드는 취리히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짓된 증거를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블로펠드는 바보가 아니다. 그는 본드가 그것을 계획했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그의 부하 넘버 2에게 (29a)와 같이 말할 수 있지만, (런던으로부터 본드와 함께 도청하고 있는) 레이터는 (29-b)와 같이 불평할 수 없다:

(29) a.블로펠드: 본드는 파리에 있을 수 있거나 혹은 그는 런던에 있을 수 있다.

b.레이터: ?? 그것은 거짓이다/블로펠드는 틀렸어!

레이터는, (29-a)가 레이터에 의해서 판정될 때(CIA이론[참 상대주의]를 따를 때) 거짓인 어떤 것을 함축한다고 하더라도, 블로펠드와 불일치 할 수 없다.”

중심으로 하는 맥락주의가 더 적합하며, 이런 경우를 오히려 상대주의는 설명하지 못한다.[110, 111]

다음으로 (도청 논증에 대한 재반론 이외에 판정자가 화자보다 더 많이 아는 사례 반론에 속하는 또 다른 논증인) 마스터마인드 사례를 살펴보자.

> [**마스터마인드**] 준호와 그의 친구 명준은 추측과 답변을 통해서 상대방의 패를 알아맞히는 게임, 즉 마스터마인드 게임을 하고 있다. 준호가 명준에게 힌트를 주기 시작했다. "두 개의 레드가 있을 수 있어"라는 명준의 말에 준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
> 준호: "그것은 맞아. 그럴 수 있어." (Fintel& Gilles, 2008, p .83에서 필자가 각색)

[110] 한편, 맥팔레인과 다른 종류의 참 상대주의인 라설손과 스테펀슨의 참 상대주의도, 맥팔레인의 상대주의와 같이, 이런 반론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설손-스테펀슨의 참 상대주의에 따르면, 화자의 원래 문장은 **평가상황의 시간에서 판단자의 지식**에 관해 항상 평가된다. 즉, "홈즈는 나를 잡기 위해서 파리에 있을 수 있다"는 발화문장은 모리어티가 발화를 한 시간에서 모리어티의 지식에 의해서 판단된다. 따라서 라설손-스테펀슨의 참 상대주의는 왓슨이 "그것은 참이다"와 같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핀텔과 길리스는 앞선 아이스크림 사례가, 맥팔레인의 상대주의와 달리, 라설손과 스테펀슨의 참 상대주의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라설손과 스테펀슨의 참 상대주의가 주장하는 '평가상황의 시간에서 판단자의 지식에 관해 항상 판정된다'는 위의 제한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도리어 이론을 위협하기도 한다. 가령, 이 제한조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론은 철회 사례를 설명하는데 취약할 수 있다.

[111] 나는 도웰 및 핀텔과 길리스의 이상의 반론에 대해서 두 가지 사안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그들의 논의가 설령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주의에 대한 역공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들이 맥락주의를 제대로 방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상대주의자가 어떤 경우에 "그것은 참이다"고 도청자가 말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맥락주의자는 **다른 경우에** "그것은 거짓이다"고 말하는 것을 여전히 설명하기 힘들다. 따라서 맥락주의자는 "그것은 거짓이다"가 항상 적절하지 않다고 추가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이상 맥락주의자 역시 방어를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그들의 반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조건이 필요하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반론의 힘은 줄어든다. 맥락주의자가 도청자가 "그것은 참이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두꺼운 내용, 즉 <모리어티에 따르면, 홈즈는 모리어티를 잡기 위해서 파리에 있을 수 있다>을 가리킨다고 그들이 이미 전제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것'이 얇은 내용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참이다"고 도청자인 왓슨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맥락주의자들이 어떤 전제를 우선적으로 정당화하지 않은 이상 그들의 논의가 충분한 위력을 발휘하기는 힘들다. 한 대안으로서 의미론적 무지 전략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나는 3.2절에서 언급했었다. 과연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나는 회의적이다.

여기서 준호가 명준에 준 힌트를 토대로 하여 명준이 “두 개의 레드가 있을 수 있어”라고 말했을 때, 비록 준호가 두 개의 레드가 없다는 사실을 자신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은 적합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P인지 아닌지를 알 때조차도, 우리는 대화하는 도중에 ‘P일 수(도) 있다’라는 인식적 양상을 포함하는 문장의 내용에 쉽게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핀텔과 길리스에 따르면, 맥팔레인과 같은 판정자를 중심으로 하는 유아론적 상대주의에 의하면 준호가 한 말은 적합하지 않아야 한다. 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는 현재의 판정자의 지식상태를 적합한 양상 패러미터로 삼기 때문에, 현재 자신에게 두 개의 레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준호의 입장에서 판정자인 준호 그 자신은 “그것은 맞아. 그럴 수 있어.”와 같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준호의 발언이 적절하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맥팔레인의 이론이 이와 같은 경우, 즉 상대방의 입장을 염두에 두면서 인식적 양상을 포함하는 발화를 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것은 핀텔과 길리스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쉽지 않아 보인다.[112]

한편, 마스터마인드 반론은 그것이 화자포함 제한 조건(Speaker-Inclusion Constraint)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것이며,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측면을 다룬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보았던 이건, 호쏜, 웨더슨(2005)의 버스 사례, 즉 라설손(2005)이 ‘타자 중심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반론과 유사하다. 나는 보다 정확하게 규정한다면, 마스터마인드 반론이 타자 중심적 용법에 의한 반론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마스터 마인드 반론 또한 자신이 아닌 타인의 입장을 기준으로 삼는 용법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이상을 통해서, ‘더 알게 된 후의 평가에 대한 한계들 반론’과 ‘판정자가 화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례에 의한 반론’을 살펴보았다. 나는 이들이 모두 판정자가 더 많이 아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그 본성을 공유한다고 말했다.[113] 이들은 모두, 판정자가 상대방(혹은 과거의 판정자 자신) 보다 더 많

[112] 다른 한편, 앞서 3.2.2.의 한 주석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런 핀텔과 길리스의 주장에 대해서 맥팔레인(2010 draft)과 도웰(2011)은 마스터마인드 사례는 핀텔과 길리스가 주장하는 흐릿한 맥락주의에도 또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113] 하지만 다른 한편, 이들 사이에도 분명한 차이는 있다. 더 알게 된 후의 평가 반론이 같은 사람을 인식적 양상토대로 삼으며, 시간적 선후를 포함하고, 철회(즉 불일치의 일종)을 포함하는데 반해서, 판정자가 더 많이 아는 경우는 양상토대의 후보에 해당하는 것이 화자 및 판정자로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며, 대화 상황이 하나의 시간과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철회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알고 있는(알게 된) 상황에서, 판정자가 현재의 판정자 자신의 정보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상대방(혹은 과거의 판정자 자신)을 반박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맥팔레인의 판정자에 의한 참 상대주의를 반박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판정자가 더 많이 아는 경우만이 맥팔레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4.1.2. 무지한 판정자 반론

앞선 판정자가 더 많이 아는 경우와 관련된 반론이 더 많은 정보상태를 갖게 된 혹은 가지고 있는 판정자의 경우를 통해서 맥팔레인 상대주의의 한계를 지적했다면, 지금부터 살펴볼 무지한 판정자(ignorant assessor) 반론은 이와 반대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즉, 판정자가 더 잘 알고 있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더 모르고 있는 경우 역시 맥팔레인의 상대주의에 대해서는 문제로 작용한다. 이런 무지한 판정자와 관련된 반론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디이츠(2008)이다. 그의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자.

디이츠는 무지한 판정자 반론을 앞세워서 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의 반론은 공시적인(synchronic) 경우와 통시적인(diachronic)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양자의 논의가 상대주의에 대해서 함축하는 것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목적을 위해서 공시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디이츠의 반론을 살펴보도록 하자.

> [**무지한 판정자 시나리오: 골드바흐의 추측 -공시적인 경우**] 나미는 수학에 대한 전문가로서, 골드바흐의 추측, 즉 2보다 큰 모든 짝수는 두 개의 소수(Prime number)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추측을 증명하는 방법을 발견했으며, 둔식은 비전문가로서, 골드바흐의 추측에 대해서 그다지 정통하고 있지 않지만 이에 대한 나름의 자신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둔식의 더 나쁜 인식적 상황에 비추어 나미의 다음과 같은 의심할 여지없는 진술을 판단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
> 나미: "골드바흐의 추측에 대한 어떤 반례도 있을 수 없다(cannot)."
>
> 이에 대해서 둔식은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
> 둔식: "그것은 거짓이다(혹은 너는 틀리다)"
>
> (Dietz, 2008, pp. 248-249에서 필자가 각색)

맥팔레인의 상대주의와 같은, 유아론적 상대주의에 따르면, 전문가인 나미의

진술은 비전문가인 둔식에 의해서 판단될 때 거짓이다. 다시 말해서, 나미의 진술에 대해서, 둔식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유아론적 상대주의는 예견한다. 하지만 우리가 비전문가인 둔식의 인식적 상황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즉, 나미가 실제로 골드바흐의 추측에 대한 증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모르며, 골드바흐의 추측에 대한 증명이 아직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디이츠에 따르면 전문가인 나미의 "골드바흐의 추측에 대한 어떤 반례도 있을 수 없다"는 진술을 더 잘 모르는 둔식 혹은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이상하다. "오히려, 우리가 아는 것은 나미의 진술이 참인지 아닌지를 열린 문제로 남겨두는 것 같다"고 디이츠는 주장한다.

이상에서 디이츠가 지적하고자 하는 요지는, 맥팔레인과 같이 현재의 판정자의 지식상태를 기준으로 인식적 양상의 진리값을 결정하는 이론이 불일치에 대한 사례들, 즉 철회, 도청 사례 등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는 것과 같이 보였던 것은 판정자가 상대적으로 비판정자에 비해서 더 나은 지식-정보 상황에 있다는 사실과 매우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지식상태를 기준으로 어떤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한다면, 과연 그것이 참이 될 수 있는지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직관을 우리는 갖는다. 왜냐하면 인식적 양상의 진리값은, 비록 그것이 양상 패러미터가 되는 주체에 영향을 받는 바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주체 독립적인 사실, 즉 실재의 가능성 여부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식적 양상 문장을 포함하는 많은 대화에서 대화자들의 관심은 'P라는 가능성이 주체의 지식상태에 따라 내적으로 정합성 있게 도출되었는가'뿐만이 아니라, '주체의 지식상태에 따른 가능성이 실제 외적인 가능성을 얼마나 가깝게 예측해 내는가'에 있다. 이런 점에서 맥팔레인과 같이 유아론적인 판정자를 전제하는 이론은 사실성, 객관성의 측면에서 취약할 수 있다.

결국, 무지한 판정자 반론에 따르면, 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는 무지한 판정자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과 어긋나는 설명을 제시하며, 이것은 우리가 맥팔레인 상대주의를 배격해야 하는 중대한 이유가 된다.[114]

[114] 한편, 디이츠가 무지한 판정자와 관련된 반론을 제시하는 유일한 학자는 아니라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무지한 주체와 관련된 반론은 (참) 상대주의에 대한 반론의 역사에서 종종 등장하였다. 게다가 현대적 논의에서 조차, 디이츠의 반론은 핀텔과 길리스 및 도웰의 논의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4.1.3. 반론들에 대한 맥팔레인의 대응

맥팔레인의 상대주의에 대한 핀텔과 길리스(도웰) 그리고 디이츠의 반론은 모두 맥팔레인의 상대주의가 양상 패러미터를 **현재의** 판정자의 지식상태로 규정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문제점들을 갖는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런 반론들에 대해서 맥팔레인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앞서 언급된 바가 있는 것처럼, 나는 상대주의에 대한 반론들에 대해서 상대주의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4장의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나는 참 상대주의자인 맥팔레인의 대응들을 (나중에 2부의 논의가 전개되는데 필요한 만큼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우선, **핀텔과 길리스의 반론에 대한 맥팔레인의 대응**을 말해보자. 핀텔과 길리스가 열쇠의 사례, 아이스크림의 사례, 그리고 마스터마인드 사례를 각기 구분해서 서술한 만큼, 맥팔레인(2010 draft)은 이들에 대해서 각기 따로따로 대답을 한다. 하지만 핀텔과 길리스의 여러 반론들 대부분에 대해서 맥팔레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많은 부분이 수렴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맥팔레인이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필자가 생각하는 대응 방식은, 소위 '**다른 명제 전략**'[115]이다. 판정자가 더 많이 알게 된 사례들과 관련하여, 판정자인 화자가 과거에 발화했던 명제와 철회의

것은 아니다. 그것이 판정자가 더 조금 아는 사례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명시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으며, 디이츠의 논문이 무지한 판단자 문제를 더욱 깊이 있게 논의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디이츠의 반론을 중심으로 상대주의에 대한 반론을 살펴보지만, 도웰의 논문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잠시 언급된다.

[검사] 존은 작년까지 정기적으로 암 검사를 해왔지만, 만약 현재 그가 암 검사를 한다면 그가 암을 가질지 아닐지를 그는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검사가 시행되고 의사들이 결과를 알고 있을 때, 제인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제인: "존은 암에 걸렸을 수도 있어, 혹은 그는 암에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 (John might have cancer, Or he might not.) 나는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른다. 이에 대해서는 단지 의사들만이 안다. 나는 검사결과가 공개되면 그때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제인이 한 말은 적어도 분명히 적합하다. 그리고 여기서 판단과 관련된 것은 화자이면서 동시에 판단자인 제인의 지식일 수 없다. 제 삼자, 즉 의사들의 지식이 여기서 개입된다. 따라서 도웰에 따르면, 유아론적 입장은 견지될 수 없다. (Dowell, 2011, p. 6으로부터 필자가 각색)

[115] 한편 맥팔레인은 이런 다른 명제 전략을 타자 중심적 용법(및 포함 반론)에 대한 설명, 더 알게 된 후의 평가에 대한 한계들, 마스터마인드 사례, 선제 수용(presupposition accommodation)의 문제에도 또한 사용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현재의 발화가 나타내는 명제가 다르며, 마스터마인드 사례와 같이 판정자가 더 많이 아는 경우와 관련해서도, 판정자가 발화하는 "두 개의 레드가 있을 수(도)있어"라는 문장이 나타내는 <너에 따르면, 두 개의 레드가 있을 수(도) 있어>라는 고전적 명제[두꺼운 내용]와 <두 개의 레드가 있을 수(도) 있어>라는 명제[얇은 내용]는 다르다. 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맥팔레인에 따르면 핀텔과 길리스는 철회 논증과 관련된 상대주의의 주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상대주의가 마치 "열쇠는 서랍에 있을 수 있다"는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을 사용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진술들이 새로운 증거에 비추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상대주의자는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다. 상대주의자는 "열쇠는 서랍에 있을 수 있다"와 같은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의 내용은 <열쇠는 서랍에 있을 수 있다>와 같은 얇은 내용, 즉 판정에 민감한 명제**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인식적 양상 문장들을 사용하면서 화자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때때로** <내가 지금 아는 한, 열쇠는 서랍에 있을 수 있다>는 판정-불변적인 명제라는 것이다. 핀텔과 길리스가 지적하는 바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는 '얇은 내용만을 인정하며, 화자가 과거의 자신이 틀렸다고 비난 받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철회를 강요받는다'와 같이 극단적인 주장이어야 한다. 하지만 맥팔레인은 그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때때로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의 내용이 **다른** 명제, 즉 두꺼운 내용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핀텔과 길리스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저지르는 셈이다.

다음으로 아이스크림 사례에 대한 맥팔레인의 대응은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있었을 수도 있었어."라는 진희의 발화는 과거에 대한 과거의 지식상태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현재의 지식상태와 연관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과거 독해에 대한 과거적 불확실성(*past-uncertainty-about-the-past* reading)"이 아니라, "과거 독해에 대한 현재적 불확실성(*present-uncertainty-about-the-past* reading)"이 여기에 있다.[116] 이에 따르면, 진희의 과거에 대한 현재의 지식상태는 과거의 가능적 사실, 즉 아이스크림이 있**었**을 수 있다는 사실과 양립 가능하다.[117] 맥팔레인의 이런 설명이 야기하는

[116] MacFarlane(2010 draft), p. 18

[117]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과거의 가능적 사실과 양립 가능하다"고 맥팔레인이 말하는 것이 핀텔과

한 귀결은 “아이스크림이 있었을 수(도) 있어”라는 진희의 현재 발언은 “아이스크림이 있을 수(도) 있어”라는 진희의 과거 발언을 다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진희의 나중 발언의 내용과 처음 발언의 내용은 엄밀히 말해서 **다르다**. 그리고 이 점은 열쇠 사례에 대해서 맥팔레인이 지적했던 바와 유사하다.

끝으로, 마스터마인드 반론에 대한 대답에서도 맥팔레인은 이상과 유사한 대응을 한다. 그는 “might(ϕ)”라는 문장의 내용은 때때로 <might≪X≫(ϕ)>라고 주장한다. 즉, 준호가 “두 개의 레드가 있을 수 있어”라고 말했을 때, 준호는 자신이 아닌 상대방을 염두에 두고서 이 문장을 발화한 것이며, 이런 특수한 경우에 해당 문장이 나타내는 내용은 단순히 <두 개의 레드가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너의 입장에 따르면, 두 개의 레드가 있을 수 있어>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역시 맥팔레인에 따르면,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이 때때로 두꺼운 내용을 나타내는데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설명 가능하다.[118]

이상으로 핀텔과 길리스의 반론들에 대해서 맥팔레인이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필자가 생각하는 바를 다루었다. 하지만 나는 이런 다른 명제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4.3.1.에서 언급할 것이다.

다음으로 **디이츠에 대한 맥팔레인의 대응**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디이츠의 반론은 한마디로, 더 조금 아는 비전문가가 자신의 지식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더 많이 아는 전문가의 견해를 반박하는 것, 혹은 전문가가 한 발화의 진리값을 판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맥팔레인과 같이 현재의 한 판정자의 지식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유아론적 (참) 상대주의에 따르면, 이런 이상한 귀결을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반론에 대해서 맥팔레인(MacFarlane, forthcoming)은 그 자신의 대답을 몇

길리스에 대해서 그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과연 도움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필자는 의심스럽다.

[118] 한편, 스테펀슨(2007) 또한 타자 중심적 용법에 그녀의 설명에서 이상에서 살펴본 맥팔레인의 ‘다른 명제’ 전략과 유사한 주장을 한다. 스테펀슨은 인식적 양상과 관련해서는 취향술어와 달리 타자 중심적 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녀는 타자 중심적 용법을 예증하는 버스사례를 자신의 주장과 일관되게끔 설명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른 명제 전략을 사용한다. 하지만 맥팔레인의 논문에 자신의 설명이 스테펀슨과 유사하다는 언급이 있으며, 스테펀슨 역시 맥팔레인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어느 쪽이 다른 쪽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번 수정해왔다.[119] 가장 최근의 그의 대답은 유아론을 포기하고, 비유아론적인 상대주의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판정자 개인의 지식상태뿐만이 아니라, 판정자를 포함한 일련의 집단의 지식상태가 양상 문장의 진리값에 기여하게 된다. 과거 맥락주의자들이 단일한 화자만을 포함하는 유아론적 맥락주의로부터 화자 및 관련 집단들을 포함하는 비유아론적 맥락주의로 전환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참 상대주의자인 맥팔레인 역시 이러한 전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비록 맥팔레인의 대답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필자가 생각하지만, 나는 만약에 맥팔레인이 유아론적인 주장을 포기한다면, 무지한 판정자 비판이 기본적으로는 수정된 맥팔레인의 이론에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120]

그런데 나는 맥팔레인이 자신의 이론을 수정, 방어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를

---

[119] 이것은 맥팔레인이 쓰고 있는 자신의 책의 초안(draft)인 MacFarlane(forthcoming)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본 글이 작성되고 있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맥팔레인의 책은 완성이 되지 않고 있으며, 계속해서 부분적인 수정이 가해지고 있다. 따라서 완성된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기술이 될 것이다.

[120] 한편, 나는 최동호(2011)에서 디이츠의 무지한 판정자 반론에 대해서 맥팔레인이 유아론적 주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나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독립적으로, 맥팔레인이 비유아론적 상대주의를 포용하게 된다면, 무지한 판정자와 관련된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맥팔레인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사안이 있다. 맥팔레인은 (도웰을 포함하는) 핀텔과 길리스의 반론들에 맞서서 자신의 주장을 수정 혹은 부분적으로 철회하려고 하지 않지만, 디이츠의 반론에 대해서는 한걸음 물러선다. 맥팔레인의 이런 대응은 다음의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다소 아이러니 하다. 맥팔레인은 도웰이 핀텔과 길리스의 반론들을 토대로 하여, 맥팔레인의 상대주의가 유아론적 상대주의를 벗어나서 유연한 상대주의(Flexible Relativism)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며, 핀텔과 길리스의 반론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과정(MacFarlane, 2010 draft)에서도 그들의 반론들에 의해서 상대주의의 유아론적 버전을 포기하겠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서 디이츠의 반론은 유연한 상대주의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대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지만, 맥팔레인은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연한 상대주의의 대략적인 모습을 맥팔레인(MacFarlane, forthcoming)에서 언급한다. 정작 개선을 촉구하는 쪽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으면서 개선을 촉구하지 않는 쪽의 의견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는 것이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반론자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맥팔레인이 자신의 유아론적 버전을 포기하는데 있어서, 판정자가 더 많이 알게 된 혹은 아는 경우와 관련된 반론보다 무지한 판정자 반론이 더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떠나서, 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를 포함한 기존의 상대주의 이론들은 아직까지 강조되지 않아온 새로운 문제점들을 또한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에 대한 것을 4.3절에서 다룰 것이다. 그 이전에 (참 상대주의 이외에 상대주의에 대한 또 다른 대표적 입장인) 내용 상대주의에 대한 기존의 반론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4.2. 내용 상대주의에 대한 반론

이건, 호쏜, 웨더슨(2005)및 카펠렌(2008b)에는 내용 상대주의에 대한 중대한 반론이 나타난다. 이건, 호쏜, 웨더슨(2005)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보다 더 복잡하며, 실제 문제되는 측면 이외의 요소를 그것이 또한 포함하기 때문에, 카펠렌(2008b)을 중심으로 내용 상대주의에 대한 반론을 살펴보도록 하자. 카펠렌은 내용 상대주의를 방어하는 것을 그의 논문의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에 앞서서 우선 상대방 측의 반론을 정리한다.[121] 반론의 핵심은 간단히 말해서, 내용 상대주의는 **주장(assertion)에 대한 표준적인 이론(선호되는 이론)과 조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122] 반론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A는 S를 발화하며, A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이 발화는 어떤 해석의 맥락 C에 상대적으로 P를 의미한다. 이때 A가 P에 대해서 주장의 규범을 만족해야 한다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을까? 심지어 그것은 의미 있는가? 어떻게 그녀가, 어떤 중요한 의미에서, 그녀의 인지적 도달범위 밖에 있는 한 명제에서의 믿음에 개입(commit)할 수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 카펠렌은 다음과 같은 예를 고려한다.

> [**사기꾼**] 안수가 "만호는 사기꾼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유라가 허락될 수 있는 해석자라고 가정하자. 인식적 양상에 대한 내용 상대주의는 다음과 같은 보고의 참을 예견한다.

---

[121] 이하, 카펠렌(Cappelen, 2008b)에서

[122] 한편, 주장(assertion)에 대한 표준적인 이론과 그것이 조화되기 어렵다는 반론이 내용 상대주의에 대해서만 제기되어 왔던 것은 아니다. 참 상대주의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지적이 있어왔으며 이에 대한 참 상대주의자의 (재)대응 또한 진행되었다. 주장(assertion)에 대한 보다 진전된 논의들을 위해서는 브라운(Brown)과 카펠렌(Cappelen)이 2011년 편집한 『주장』(*Assertion)*을 참고하라

유라: "안수는, 내가 아는 한, 만호는 사기꾼이라고 **말했다**."

유라: "안수는 나의 인식적 상태에 대한 어떤 것을 말했다. "

믿음이 주장의 규범이라고 가정하면서:

유라: "안수는, 내가 아는 한, 만호는 사기꾼이라고 **믿는다**."

(Cappelen, 2008b, p.14에서 필자가 각색)

내용 상대주의에 의한다면, "만호는 사기꾼일 수(도) 있다"는 안수의 발화의 내용은 해석자인 유라의 맥락에 상대적으로 이해 및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유라는 안수의 발화의 내용을 <유라 자신의 지식상태를 기준으로 한 가능성에 대해서 화자인 안수가 말했다>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한 귀결이다. 어떻게 처음 화자인 안수는 (존재하는지조차 그녀가 모를 수 있는) 유라의 인식적 상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다른 방식으로 말해서, **어떻게 화자가 말하고자 혹은 주장하고자 의도한 바가 없던 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그에 의해서 말해졌다고 혹은 주장되었다고 이해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내용 상대주의를 의미 있는 대안의 목록으로 간주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123]

이상의 내용 상대주의에 대한 반론은, 앞서 지표적 맥락주의에 대한 일부 반론들이 내용의 두께문제와 패러미터의 본성문제가 얽혀있었던 것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양쪽 문제가 모두 관계된다. 왜냐하면 내용 상대주의는 두꺼운 내용을 주장함과 동시에 판정자 상대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정자 상대성이 내용 상대주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두꺼운 내용과 결합된다면, 단순히 판정자 상대성만이 주장되는 것에 비해서, 더 큰 저항감을 그것은 불러일으키는 듯하다. 다음의 두 주장을 비교해 보라.

(i) "만호는 사기꾼일 수(도) 있다"는 안수의 처음 발화의 내용이 <만호는 사기꾼일 수(도) 있다>와 같은 얇은 내용이며, 이 내용의 진리값은 안수가 전혀 모르는 유라라는 판정자에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

[123] 나는 2부에서 내용 상대주의의 옹호와 관련된 논의를 할 것이다. 다만 내가 거기서 옹호하는 것은, 판정자 및 해석자 상대성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비롯하여, 현재의 카펠렌의 내용 상대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ii) “만호는 사기꾼일 수(도) 있다”는 안수의 처음 발화의 내용이 <만호는 유라의 지식상태에 따르면 사기꾼일 수(도) 있다>와 같은 두꺼운 내용이며, 이 내용의 진리값은 안수가 전혀 모르는 유라라는 판정자에 상대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첫 번째 주장은 참 상대주의에 대한 것이며 두 번째 주장은 내용 상대주의에 대한 것이다. ‘참 상대주의와 같이, 안수가 주장한 내용이 발화문장 그대로의 것이지만, 안수가 전혀 모르는 유라는 이런 내용에 자신의 지식상태를 반영하여 진리값을 귀속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내용 상재주의와 같이, 안수가 주장한 내용이 안수가 전혀 모르는 유라를 포함하는 두꺼운 내용이며, 이 내용은 화자인 안수 이외의 판정자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 보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어떤 점에서 내용 상대주의에 대한 반론은 참 상대주의에 대한 반론 보다 더 강력하다.

4.3. 상대주의의 한계로서의 화자 중심적 용법

이상에서 우리는 상대주의에 대한 반론들을 살펴보았다. 나는 맥락주의에 비해서 상대주의가 보다 더 나은 처지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상대주의가 본래 맥락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두된 것이라는 사실과도 연관된다. 상대주의는 맥락주의를 철저하게 배제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그것은 맥락주의가 말하는 ‘화자’와 자신들이 말하는 ‘판정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화자 중심성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킨다. 그러면 (판정자 중심성을 내세우는) 상대주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내용 상대주의에 대한 ‘표준적 주장 이론과의 양립불가능성 반론’에 대해서 상대주의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조금 후 5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자. 나는 반론들에 대한 맥팔레인의 대응들이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특히나 판정자가 더 많이 아는 경우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그의 대응(특히 ‘다른 명제전략’)에 대해서 나는 전적으로 그에 찬성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맥팔레인이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의 대응이 과연 적절한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

보하도록 하겠다.[124] 하지만 보다 분명히 문제가 되는 바가 있다. 적어도 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는 (맥락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론을 제시하며, 상대주의를 강력하게 어필하게 만든) 도청 사례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설명을 했었어야 했다. 나는 비록 도청 사례에서 모리어티의 말을 부정하는 왓슨의 발화가 참 상대주의에 의해서 적절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맥락주의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왓슨이 모리어티의 말을 긍정하는 용법도 분명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모리어티가 "홈즈는 나를 잡기 위해서 파리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도청하는 왓슨의 입장에서 그는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야, 그것은 거짓이야"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어색하지 않다.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판정자인 왓슨이 화자인 모리어티(및 그의 부하들)의 지식상태에 근거하여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때로 적절할 수 있다는 직관이 있다. 그리고 이런 용법은 (판정자와 일치할 경우에만 화자 상대성을 인정하는) 참 상대주의가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용법은 앞서 3장에서 내가 '비화자 중심적 용법'이라고 불렀던 것에 대비해서 '화자 중심적 용법'이라고 불릴 수 있다. 비록 의미론적 무지전략을 취하는 맥락주의자들의 전략에는 무리가 있었지만, 그들이 오류이론을 떠맡으면서 화자 중심주의**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에서 한 걸음 물러난다면, 상대주의의 공격을 그들이 설령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상대주의 측에 역공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125]

결국 상대주의는 화자 중심적 용법을 깔끔하게 자신들의 품 안에 품지 못한다. 따라서 맥락주의가 만족스럽지 않듯이, 상대주의도 또한 그렇다.

---

[124] 비록 철회 사례(판정자가 더 많이 아는 경우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 등에 대한 맥팔레인의 다른 명제 전략[생략 전략]이 비록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식의 설명에 비해서 부자연스러운 것만은 사실이다. (맥팔레인과 같이) 내용의 두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주장을 하기보다는 패러미터의 본성문제에만 집중하여, 화자 혹은 제삼자[타자] 패러미터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더 쉬운 방법이다. 더 단순한 설명이 선호되어야 한다면 화자 중심적 용법 등이 때때로 여전히 필요할 수 있으며, 이점과 관련하여 맥팔레인의 이론은 비교우위를 점하기 힘들다.

[125] 독단을 포기하면 길이 열린다.

2부. 인식적 양상문장의 내용과 양상 패러미터에 대한 다원적 관점투영 상대주의

지금까지 1부에서 기존의 맥락주의와 상대주의 이론은 각각 한계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비록 내가 맥락주의자들과 상대주의자들이 상대방 측의 각 반론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대응하는지를 모두 다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1부에서 다루어진 내용만으로도 각 이론의 문제점들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매우 간단히 말한다면, 맥락주의에 대해서는 비화자 중심적 용법 논증이 결정적이었으며, 상대주의에 대해서는 화자 중심적 용법이 한계로 남아있었다. 양측이 서로의 심장을 부여잡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나는 본 논문의 1부에서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락주의와 상대주의의 기존 논쟁들을 정리하는데 지면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고, 기존 이론들에 대한 나의 평가 및 반론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전개할 2부에서 나는 관련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나는 맥락주의 및 상대주의가 기존에 제시된 반론들에 대해서 충분히 답하고 있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제시된 바가 없는) 새로운 반론들에 직면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이론을 고안해야 한다. 나는 내가 2부에서 옹호하고자 하는 주장을 '인식적 양상문장의 내용과 양상 패러미터에 대한 다원적 관점투영 상대주의'라고 부른다. 이 주장은 크게 '다원주의'와 '관점투영적 상대주의'로 나뉜다. 나는 우선 5장에서 맥락주의와 상대주의 사이의 논쟁이 (나의 전체 이론의 일부인) 다원주의만을 선택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나는 6장과 7장에서 이제까지 제시된 바가 없는 추가적인 반론들 때문에 '다원적 관점투영 상대주의'가 강요된다고 주장한다. 나의 이론은 여러 사례들이 보여주는 각각의 단계들을 따라, 어느 단계들까지 받아들이는지의 선택에 의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온건한 입장과 급진적인 입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 나는 6장에서 온건한 입장을, 그리고 7장에서 급진적인 입장을 제시할 것이다.

5장. 논쟁 해결의 실마리로서의 다원주의

5장에서 나는 인식적 양상문장의 내용과 양상 패러미터에 대해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이론, 즉 '다원적 관점투영 상대주의' 중에서 관점 투영 상대주의 이외의 주장인 다원주의에 대해서 주로 다룰 것이다. 나는 기존 맥락주의와 상대주의 논쟁이 어떤 종류의 다원주의를 인정함으로써 힘들이지 않고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5장에서 내가 다룰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자. 우선 5.1절에서, 나는 불변주의 및 가변주의(맥락주의, 상대주의) 논쟁의 근간에 있는 몇몇 구분들과 이에 따른 여러 가능한 입장들을 개관하고 내가 이 장에서 옹호할 입장을 간단히 소개한다. 그리고 5.2절에서 나는 내가 옹호하고자 하는 주장인 (어떤 종류의) 다원주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논증들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5.3절에서 다원주의를 옹호함으로써 내가 또한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주장, 즉 '판정자 상대적인 두꺼운 내용이 때로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를 내용 상대주의자인 카펠렌(2008b)의 논의를 빌려와 논의한다. 끝으로 5.4절에서 나는 맥락주의와 상대주의의 논쟁이 다원주의에 대한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여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할 것이다.

5.1. 여러 가능한 입장들의 구분과 이 장에서 옹호될 입장들

맥락주의와 상대주의(그리고 또한 불변주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입장들을 구분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부에서부터 내가 논쟁의 두 핵심문제라고 간주해온) '내용의 두께문제'와 '패러미터의 본성문제'가 여러 구체적인 언어적 요소 측면들과 갖는 관계들이 보다 분명히 드러날 때 우리는 해결책을 찾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세분화된 구분들과 그들로 인한 다양한 입장들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자. 나는 5.1절에서 웨더슨(2008)의 논의를 빌려와서 다양한 입장들의 스펙트럼을 개관하고,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주장을 옹호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옹호

논증들을 5.2절에서 제시하기에 앞서) 미리 밝힐 것이다.

5.1.1. 논쟁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입장들의 구분

웨더슨(Weatherson, 2008)에 의하면, 언어 이론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맵핑(mapping)이 있다.

- 물리적 움직임들(Physical Movements) → 언화행위들(Speech Acts)
- 언화행위들(Speech Acts) → 내용들(Contents)
- 내용들(Contents) → 진리값들(Truth Values)

(Weatherson, 2008, pp. 527-528)

여기서 첫 번째 맵핑은 언화행위(Speech Act)에 대한 것으로, 그것은 가령 어떤 사람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물리적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언화행위(이 경우에 어떤 주장을 하는 것)를 수행하는 것과 연관된다. 이 맵핑에 대한 탐구는 '우리가 어떻게 어떤 물리적 움직임을 함으로써 주장, 요구, 질문, 명령 등의 언화행위를 수행하는지'와 관련된 물음에 대답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맵핑은 내용(Content)에 대한 것이다. 어떤 언화행위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내용이 분명하지만, 다른 언화행위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 맵핑은 어떤 언화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말해진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과정과 관련된다. 끝으로 세 번째 맵핑은 진리값(Truth Value)에 대한 것이며, 내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항상 분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웨더슨에 따르면 이런 세 가지 맵핑들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분된(구분되어야 하는) 질문들을 물을 수 있다.

- 그것[맵핑]은 함수적 관계인가 혹은 일대-다수(one-many)적인 관계인가?
- 맵핑은 절대적인가 혹은 상대적인가?
  그리고 만약 상대적이라면 어떤 것에 상대적인가?

(Weatherson, 2008, p.528)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 X와 Y의 관계가 함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X의 각 원소를 Y의 오직 하나의 원소에 대응시키는 대응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며, X와 Y의 관계가 일대-다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X의 한 원소에 대해서 Y의 여러 원소들이 대응된다(대응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양자의 차이는 X의 한 원소에 대해서, Y의 한 원소만 대응되는지 아니면 여러 Y의 여러 원소들이 대응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가령[126] 사람으로부터 그들이 가진 아이들로의 맵핑은 일대-다수적이다. (한 사람은 여러 명의 아이들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많은 아이들을 가진다'거나 혹은 '모든 사람이 아이들을 어쨌든 갖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정의역 내에 있는 어떤 것들이 치역에 있는 많은 것들에 대응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인 절대성/상대성 여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가령[127] '한 사람 A'를 입력값으로 삼고, '어떤 사람 B 상대적으로, A가 B와 함께 갖는 첫 번째 아이'를 출력값으로 삼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맵핑은 상대적이다. (어떤 특정한 입력값 A에 대한 함수의 출력값과 같은 것은 없다. 단지 B1에 상대적인 출력값 혹은 B2에 상대적인 출력값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맵핑이 일대-일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떤 B에 상대적으로, A는 잘해봐야 한 사람이 맵핑된다. (B 상대적으로, B와 함께 첫 번째 아이를 갖는 사람은 A라는 한 사람이다.) 따라서 어떤 X와 Y에 대해서, 양자의 관계가 상대적이라는 것과 그들이 일대-일 관계에 있다는 것은 서로 양립가능하다. 상대주의[상대성]와 일원주의[일원성]는 서로 대치되는 주장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상대주의와 다원주의가(그리고 절대주의와 일원주의가) 서로를 함축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과 연관된다. '절대적인 여러 개의 것이 있다'는 주장과 '상대적이지만 하나의 것이 있다'는 주장이 모두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결국, 앞선 두 질문들이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느 한 쪽 질문[답변]이 다른 쪽 질문[답변]을 함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상대성 및) 상대주의는 앞선 1부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판정자 중심적 상대주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보다 넓은 의미의 상대주의, 즉 가변주의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상의 세 가지 맵핑 및 두 가지 물음과 관련하여 가능한 전체 입장들은 다음과 같은 총 12가지이다:

---

[126] 이하, Weatherson, 2008, p.528에서.

[127] Ibid.

[(표) **세 종류의 맵핑들과 두 질문들에 따른 여러 가능한 입장들**]

	일원주의	다원주의	절대주의	상대주의
언화행위	언화행위 일원주의	언화행위 다원주의	언화행위 절대주의	언화행위 상대주의
내용	내용 일원주의	내용 다원주의	내용 절대주의	내용 상대주의
참	참 일원주의	참 다원주의	참 절대주의	참 상대주의

웨더슨(2008)에 따르면, 언어에서 맥락-민감성에 대한 매우 단순한 모델은 앞선 세 맵핑들 모두가 함수적이고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허수아비'라고 부른다. (웨더슨이 허수아비라고 부르는 견해는 불변주의에 대체로 대응한다.) 그리고 이런 허수아비 견해에 대해서 (각 맵핑이 일대-다수적(one-many)이거나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하는 입장들이 다음과 같이 총 6가지가 가능하다: 언화행위 다원주의/언화행위 상대주의, 내용 다원주의/내용 상대주의, 참 다원주의/참 상대주의. 이들 중 몇몇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보자. 가령, 언화행위 다원주의자는 첫 번째 맵핑이 일대-다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내용 상대주의자는 두 번째 것이 어떤 다른 변항(아마도 판정자)에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참 다원주의자는 (세 번째 맵핑과 관련하여) 하나의 내용이 여러 개의 진리값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웨더슨은 이렇게 각 입장들을 분류하는 것의 장점은 허수아비에 대한 다양한 반대론자들 사이에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하는데 그것이 도움을 준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허수아비의 다양한 주장들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 허수아비가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제대로 따져보는데 있어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에서 웨더슨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 중에서, 단순 인식적 양상 및 취향술어 등의 맥락 민감적인 표현들과 관련하여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구분이 있다. 그것은 언화행위로부터 내용으로의 맵핑과 연관되는 것으로, (맥락주의와 상대주의의 논쟁 주제가 되는 맥락 민감적인 표현들과 관련된) 내용의 두께에 대한 구분이다. 2장에서 나는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의 내용이 (양상 패러미터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얇을 수 있다는 입장을 '얇은 내용

주의’로, 그리고 그것이 항상 두껍다는 입장을 ‘두꺼운 내용주의’로 부르겠다고 말했다. “P일 수(도)있다”라는 같은 발화문장에 대해서 그것의 내용은 <P일 수(도) 있다>와 같은 얇은 내용 혹은 <A에 따르면, P일 수(도) 있다>와 같은 두꺼운 내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내용의 두께에 대한 구분을 웨더슨의 논의에 추가하여 말한다면 가장 단순한 모델, 즉 허수아비 견해는 단순 인식적 양상과 관련하여 두꺼운 내용만을 인정하는 입장, 즉 두꺼운 내용주의가 될 것이다.

한편 이상의 구분들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나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할 것이다. **첫째** 우리는 각 견해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강도**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일원주의, 절대주의, 두꺼운 내용주의는 항상 하나이고, 절대적이며, 두껍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서 이에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다원주의, 상대주의, 얇은 내용주의는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없다. 때때로 다원적, 상대적, 얇은 것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허수아비 견해를 공격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다원주의, 상대주의, 얇은 내용주의[상대적 명제주의]에 대한 설명에서 이것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다원적일/상대적일/얇을 수 있다’가 아니라) ‘다원적이/상대적이/얇다’와 같이 서술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일 수 있다(~가 가능하다)’와 ‘~이다’를 특별히 차이 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다’는 ‘때때로 ~일 수 있다’와 “항상 ~이다’ 모두를 의미할 수 있으며, 이것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한 용어기준에 의해서 ‘A’라고 분류된 입장이 다른 기준에 의해서는 ‘B’라고 분류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일 수 있다’와 관련된 입장을 온건한 입장으로, 그리고 ‘항상~이다’와 관련된 입장을 철저한 입장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서술에서 내가 분류하는 다원주의/상대주의/얇은 내용주의는 철저한 입장이 아닌 **온건한 입장**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나는 이들을 통해서 온건한 입장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다원주의, 상대주의, 얇은 내용주의 각각에 대해서 기존에 주장된 내용의 강도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강도 사이의 차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다원주의에 대해서 말해보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원주의에 대해서 웨

더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대응이 다원적이라는 것]은 단지 정의역내에 있는 어떤 것들이 치역에 있는 많은 것들에 맵핑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에 내용 다원주의를 어떤 사람이 옹호한다고 해서, 그가 모든 내용이 다원적이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 그러데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것과는 다르다. 웨더슨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원주의는 모든 표현이 다원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아니다’는 것이지, ‘다원주의는 어떤 표현이 항상 다원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아니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웨더슨이 구분하는 다원주의는 (앞서 언급되었던) 중립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다’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의도하는 바로서의 다원주의는 ‘대응이 (때때로) 여러 가지 **일 수(도)** 있다’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서술상의 필요성에 의해서 순서를 바꾸어) 얇은 내용주의에 대해서 말해 보자. 앞서 2장에서 얇은 내용주의 및 두꺼운 내용주의에 대해서 내가 논의한 바와 같이, 두꺼운 내용주의는 고전적 명제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며, 얇은 내용주의는 때때로 얇은 내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만약에 패러미터를 포함하지 않는 문장이 명시적으로 발화되었을 때, 해당 문장이 항상 (패러미터를 포함하지 않는) 얇은 내용이라는 주장은 (단순한 얇은 내용주의와 구분하여) ‘철저한 얇은 내용주의’라고 불릴 수 있다. 나는 본 논문에서 ‘철저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는 경우의 얇은 내용주의를 온건한 입장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끝으로, 상대주의에 대해서 말해보자. 카펠렌(2008b)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해석 민감적인 문장은 한 해석자에 상대적인 한 내용을 가지면서, 다른 해석자에 상대적인 또 다른 내용을 가질 **수** 있다. 나[카펠렌]는 해석 민감적인 용어들이 **있다**는 주장을 ‘내용 상대주의’라고 부른다.
>
> (Cappelen, 2008b에서 인용 및 필자가 각색)

내가 카펠렌을 해석하기에 그는 여기서 ‘모든 문장이 해석자 상대적인 내용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장이 항상 상대적인 내용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128] 따라서 내가 분류하고자 하는 ‘~일 수 있다’

[128] 한편, 맥팔레인(2005c)이 “참에 대한 상대주의는 판정-민감적인 문장이 **적어도 하나** 있다는 견해이

와 관련된 온건한 상대주의 입장의 논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상을 근거로 할 때, 절대주의/일원주의/두꺼운 내용주의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철저한 입장임에 반해서 (내가 앞으로 서술하고자 하는) 상대주의/다원주의/얇은 내용주의는 온건한 입장들이다.

이제 여러 입장들의 구분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의해야 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해보자. 그것은 **다원주의의 동시성**에 대한 것이다. 인식적 양상 문장의 발화 "might(ϕ)"가 A라는 양상 패러미터와 B라는 양상 패러미터 모두와 관계가 된다고 하더라도(즉 A와 B가 모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각기 다른 발화맥락들에서 어느 하나로 적합한지 아니면 한 (발화)맥락 내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적합한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주장에 따르면 "might(ϕ)"라는 단순 인식적 양상 발화문장은 한 발화맥락에서 한 가지 패러미터만을 적합한 것으로 삼는데, 어떤 발화맥락에서는 A라는 패러미터 하나와만 연관되고 다른 발화맥락에서는 B라는 패러미터 하나와만 연관된다. 반면에 두 번째 입장에 따르면, 한 발화맥락 내에서, 단순 인식적 양상을 포함하는 문장은 A와 B 두 종류의 패러미터를 동시에 적합한 것으로 삼을 수 있다. 전자의 입장에 우리는 '통시적(diachronic) 다원주의' 혹은 '(발화)맥락-사이의(inter-contextual) 다원주의'라는 명칭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와 대비하여 후자의 입장에는 '공시적인(synchronic) 다원주의' 혹은 '(발화)맥락-내의(intra-contextual) 다원주의'라는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129] 그런데 유의할 것은 이 중에서 제대로 된 다원주의는 후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즉 보통 우리가 다원주의라고 말할 때 그것은 통시적인 다원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적인 다원주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한다면 '공시적인 다원주의' 혹은 '(발화)맥락-내의 다원주의'라는 명칭은 어폐가 있다. 하지만 나는 전자의 입장을 가리키는 편리한 이름표로서 공시적인 혹은 (발화)맥락-내의 다원주의를

다."(MacFarlane, 2005c, p. 312에서 필자가 각색)라고 주장할 때,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모든 문장의 참이 상대적이라고 참 상대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여기서 드러나는 상대주의의 주장 강도는 '항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에 대한 것이다.

[129] 보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발화)맥락 사이와 통시적임이 그리고 (발화)맥락 내와 공시적임이 정확히 대응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적/통시적이라는 표현이 본래 의미 이외의 넓은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용법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때때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원주의라는 용어는 아무런 언급이 없을 경우에 동시성에 관련된 다원주의인 공시적((발화)맥락-내의) 다원주의만을 의미한다.

덧붙여서, 우리는 (하나의 발화맥락 내에서) X와 Y가 일대-다수의 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 할 때, X안의 원소인 a 하나에 Y안의 원소들 b, c, d 등이 동시에 대응된다고**만** 말할 수도 있고, a 하나에 b가 대응될 수도 있고, c가 대응될 수도 있으며, d가 대응될 수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즉 같은 '가능할 수 있다' 내에서도 'b & c & d로 가능할 수 있다'와 'b or c or d로 가능할 수 있다'가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내가 의도하는 바로서의 다원주의는 양쪽 모두에 관계한다. 다시 말해서 나는 후자의 '또는'과 관련된 가능성에서 '또는'을 배타적(exclusive)으로 해석하지 않고, 포괄적(inclusive)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구분들 및 용어 규정을 염두에 둘 때, 기존의 입장들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잠시 살펴보자. 웨더슨에 따르면, 고전적 맥락주의[지표적 맥락주의]는 내용 맵핑과 참 맵핑에 대해서 허수아비가 옳다는 견해이다. 즉 이 견해에 따르면 두 맵핑 모두가 절대적이고 일원적(일대일-대응적)이다. 고전적 맥락주의는 첫 번째 맵핑에서만 허수아비에서 이탈하는 것이다.[130] 그리고 참 상대주의라고 불리는 입장은 내용 일원주의가 옳으며, 참 절대주의는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주장은 얇은 내용주의와 연관된다.[131] 따라서 이 입장은 세 번째 맵핑에서만 허수아비로부터 이탈한다. 다음으로, 내용 상대주의는 내용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에 판정자를 포함시키지만, 결정된 내용은 그것의 참이 판정자에 상대적

---

[130] 어떤 점에서 웨더슨의 주장은 오해될 소지가 있다. 앞서 1부에서 규정된 바로서의 지표적 맥락주의는 발화맥락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일견 그것은 (두 번째) 내용 맵핑이 절대적이며, 일원적이라는 것과 양립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내용 맵핑은 언화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내용이 하나로 확실하게 고정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계하는 것이며, 지표적 맥락주의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어떤 언화행위가 있을 때 화자가 어떤 내용을 주장했는가 하는 점은 (발화맥락과 관련하여) 하나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웨더슨이 말하는 바가 기존 논의와 충돌되는 점은 없다.

[131] 얇은 내용주의가 때때로 내용이 얇은 수도 있다는 주장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발화)맥락 사이의 얇은/두꺼운 내용 다원주의'와 결합되어, '한 발화맥락 사례에서는 적어도 내용이 얇은 내용 혹은 두꺼운 내용 어느 하나로 고정된다'는 주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얇은 내용주의는 내용 일원주의와 양립할 수 있다.

이지 않은 고전적인 명제[두꺼운 내용]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참 절대주의가 유지되면서 내용 상대주의는 참이다. 결국 내용 상대주의는 두 번째 맵핑에서만 허수아비로부터 이탈한다.

5.1.2. 옹호하고자 하는 입장들

이상 살펴본 다양한 입장들 중에서 어느 입장이 옳은가? 웨더슨(2008)에 따르면, 허수아비가 첫 번째로 전제하는 주장 즉, 언화행위 일원주의(Speech Act Monism)가 거짓이라는 것, 따라서 언화행위 다원주의가 옳다는 것은 비교적 분명하다. 예를 들어서, 왕은 '여기는 춥다'고 말함으로써, '여기가 춥다고 주장(assert)하는 것'과 '그의 신하에게 창문을 닫도록 명령(command)하는 것' 모두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용 다원주의와 달리, 언화행위 다원주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다. 그리고 웨더슨은 허수아비가 이점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좀 더 많은 예들이 카펠렌과 르포어(2005)에 나타난다고 말한다.[132] 하지만 웨더슨에 따르면 언화행위 다원주의 이외에 허수아비가 정확히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는 그다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이런 많은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까? 나는 언화행위에 대한 주장은 (후속 논의에서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본 논문에서 특별히 고려하지 않겠다. 그것은 내가 이에 대한 논의가 다른 논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함축하는 바가 적다고 생각하며, '의미론과 화용론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는 특정한 입장에 동정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내용 및 참에 관련된 논의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나는 내용과 참에 대한 절대주의/상대주의, 일원주의/다원주의, 두꺼운 내용주의/얇은 내용주의 중에서 다원주의, 상대주의, 얇은 내용주의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허수아비 견해에 반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내용 다원주의 및 참 다원주의와 내용 상대주의 및 참 상대주의를 주장한다.[133]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 다원성과 상대성 사이의 논리적 관계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함축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 앞서 지적되었지만, 어떤 것이 다른 것에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또 다른 것에도 상대적일

[132] 보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카펠렌과 르포어(2005)가 옹호하는 것은 단순한 언화행위 다원주의가 아니라, 언화행위 내용 다원주의이다.

[133]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다원주의 및 상대주의는 온건한 입장들을 가리킨다.

수 있다는 것과 비교적 잘 어울린다. 상대적이면서 일원적인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를 함께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면 내용과 참에 대해서는 어떤가? 보통 어느 한 쪽이 상대적이거나 다원적이라고 한다면 다른 쪽은 절대적이거나 일원적이어야 할 것처럼 생각된다. 과도한 상대성/다원성은 의사소통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생각이 널리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용과 참 모두에 대해서 상대성/다원성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상대주의 및 다원주의가 항상 상대적[다원적]이어야 한다는 강한 주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 논의를 하나씩 시작해 보자. 나의 주장은 5장의 나머지와 6, 7장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먼저 다음 절에서 다원주의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도록 하자.

5.2. 여러 다원주의들에 대한 옹호

내가 옹호하고자 하는 다원주의는 크게 '패러미터 다원주의(Parameter Pluralism)'와 '얇은/두꺼운 내용 다원주의(Pluralism of thin/thick Content)'라고 내가 부르는 입장들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은 일반적인 내용/참 다원주의와 달리, 맥락 의존성이 성립하는 표현들, 즉 취향술어(맛 관련 어휘), 도덕적 어휘, 미학적 어휘, 미래시제, 지식귀속, 인식적 양상 등 최근에 맥락주의 및 상대주의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어휘들에 국한된 주장이다. 명칭 그대로 패러미터 다원주의는 패러미터가 다원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며, 얇은/두꺼운 내용 다원주의는 내용이 얇은 내용과 두꺼운 내용으로 다원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패러미터 다원주의는 단순히 패러미터가 다양할 수 있다고 주장할 뿐, '패러미터가 다양함으로써 내용 또는 참 혹은 내용의 두께가 다양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패러미터 다원주의는 패러미터에 대한 주장일 뿐이다. 그러면 이런 패러미터 다원주의(특히, 인식적 양상에 대한 패러미터 다원주의)와 얇은/두꺼운 내용 다원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인식적 양상에 대한 패러미터 다원주의**]: "P일 수(도) 있다"와 같은 단순 인식적 양

상 문장이 발화되었을 때, 그 문장의 양상 패러미터는 다원적일 수(동시에 여러 가지로 다양할 수) 있다.

[얇은/두꺼운 내용에 대한 다원주의]: (패러미터를 포함하지 않는 문장이 물리적으로 발화되었을 때) 해당 내용은 한 (발화)맥락 내에서 얇은 내용과 두꺼운 내용을 동시에 표현할 수(도) 있다.

먼저 '패러미터 다원주의'에 대해서 말해보자. 패러미터 다원주의는 여기서의 규정에 따를 때 단순히 패러미터가 다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일 뿐, 세세하게 어떤 구체적인 패러미터로서 다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패러미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지의 문제는 (관점투영적 상대주의와 관련하여) 6장과 7장을 통해서 다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현재 5장에서의 주된 관심사가 맥락주의와 상대주의 사이의 논쟁을 해결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장에서는 패러미터를 주로 지금까지 다루어졌던 화자 및 판정자에 국한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자.[134] 이후의 장들에서는 화자, 판정자 이외의 추가적 패러미터 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현재까지의 논의들을 기준으로 할 때, 인식적 양상에 대한 패러미터 다원주의가 함축하는 것은 '**때때로 화자를 중심으로 하는 맥락주의와 판정자를 중심으로 하는 상대주의가 동시에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P일 수(도) 있다"라는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이 발화되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사람에 의해서 적합한 패러미터가 화자와 판정자인 것으로 동시에 각기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135]

다음으로, 나는 얇은/두꺼운 내용 다원주의를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지표적 맥락주의 및 내용 상대주의가 연루되는 두꺼운 내용주의, 즉 단순 인식적 양상문장의 내용은 항상 두껍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얇은 내용과 두꺼운 내용이 동시에 표현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얇은 내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며, 두꺼운 내용

[134] 내가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입장은 '다원적 관점투영 상대주의'로서 이것은 크게 다원주의와 관점투영적 상대주의로 나뉠 수 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다원주의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중에서 패러미터를 화자 및 판정자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135] 물론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일 것이며, 패러미터의 값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부가적인 제한 조건들이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들은 논문의 나머지 부분들에서 다양하게 제시될 것이다.

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36]

그런데 이렇게 패러미터 다원주의와 얇은/두꺼운 내용 다원주의를 동시에 주장하게 되면 어떤 종류의 참과 내용에 대한 다원주의에 또한 관여하게 된다. 내용이 얇을 수도 있고 두꺼울 수도 있다고 할 때, 우선 내용이 얇은 경우에는 패러미터 다원주의로 인해서 얇은 내용이 다양한 패러미터에 상대적으로 참이 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얇은 내용과 참 다원주의**가 결합될 수 있다. 그리고 내용이 두꺼운 경우에는 패러미터 다원주의로 인해서 두꺼운 내용이 다양한 패러미터에 상대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두꺼운 내용과 내용 다원주의**가 결합될 수 있다. 결국 나는 패러미터 다원주의와 얇은/두꺼운 내용 다원주의를 주장함으로써, '패러미터의 차이에 의한 내용 다원주의'와 '패러미터의 차이에 의한 참 다원주의'에 동조하게 된다.[137] 패러미터에 대한 논의와 내용의 두께에 대한 논의가 참과 내용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136] 한편, 앞서 언급되었던 맥팔레인의 주장은 얇은/두꺼운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맥팔레인은 단순 인식적 양상문장의 발화에 대해서 주로 그것이 얇은 내용을 갖는다고 주장하지만, 몇몇 예외적인 경우들(타자 중심적 용법, 더 알게 된 후의 평가에 대한 한계들 반론 예들 등)에 대해서는 그것이 두꺼운 내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런 해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맥팔레인은 패러미터를 포함하는 두꺼운 내용이 되는 경우와 관련된 문장은 단순 인식적 양상문장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른 문장의 생략일 뿐이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나타난 바를 기준으로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을 정의하는 핀텔과 길리스의 규정을 기준으로 할 때, 앞서 와 같은 해석은 여전히 가능할 수 있다. 해석의 적절성 여부를 잠시 떠나서 논의를 위해서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잠시 가정해 보자. 이때 맥팔레인의 주장은 얇은/두꺼운 내용과 관련하여 (발화)맥락-사이의 다원주의이면서, (발화)맥락-내의 일원주의이다. 왜냐하면 그는 서로 구분되는 두 발화맥락들과 관련하여 같은 문장이 어떤 발화맥락에서는 얇은 내용으로 단일하게, 그리고 다른 발화맥락에서는 두꺼운 내용으로 단일하게 결정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우리는 (발화)맥락-사이의 다원주의는 진정한 다원주의가 아니라고 말했다. 따라서 결국 맥팔레인은 얇은/두꺼운 내용과 관련하여 다원주의자가 아닌 일원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137] 비록 내가 (발화)맥락-내의 얇은/두꺼운 내용 다원주의(즉, 한 발화맥락 사례 내에서 얇은 내용과 두꺼운 내용이 동시에 표현될 수 있다)와 패러미터 다원주의의 결합을 통해서 참 다원주의와 내용 다원주의가 주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보다 직관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발화)맥락-사이의 얇은/두꺼운 내용 다원주의(즉, 서로 구분되는 두 발화맥락들과 관련하여 같은 문장이 어떤 발화맥락에서는 얇은 내용으로 단일하게, 그리고 다른 발화맥락에서는 두꺼운 내용으로 단일하게 결정된다)와 패러미터 다원주의가 결합하여, 참 다원주의와 내용 다원주의를 도출하는 것일 것이다.

패러미터 다원주의 + 얇은/두꺼운 내용 다원주의 ⟹
패러미터의 차이에 의한 **내용** 다원주의 + 패러미터의 차이에 의한 **참** 다원주의

여기서 나는 (패러미터 다원주의와 관련하여) 패러미터의 차이가 내용에 반영되는지(내용 다원주의) 아니면 참에 반영되는지(참 다원주의)의 문제 모두에 개입하고 있으며,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비해서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138]

그러면 이제 패러미터 다원주의 및 얇은/두꺼운 내용 다원주의를 옹호하는 구체적인 논증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나는 다원주의가 기존에 주장된 바가 적은 생소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다원주의에 대한 간접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내용 일반에 대한 다원주의를 옹호하는 카펠렌과 르포어, 소움즈의 논의를 우선 5.2.1.에서 개관한다. 그리고 나는 인식적 양상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주제영역에 대한 핀텔과 길리스의 패러미터 일원주의 비판을 5.2.2.에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5.2.3.에서 내가 옹호하고자 하는 두 종류의 다원주의인 '패러미터 다원주의'와 '얇은/두꺼운 내용 다원주의'에 대한 근거들을 밝히도록 하겠다.

5.2.1. 내용 일반에 대한 다원주의 옹호 논증들

내용 일반에 대한 다원주의는 최근에 카펠렌과 르포어, 소움즈 등의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옹호된 바가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원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그들에게서

[138] 덧붙여서, 비록 내가 (얇은 내용이 참 다원주의와 결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얇은 내용이 때로 절대적인 진리값을 가질 수 있다고 또한 생각하지만, 이 주장이 후속 논의에서 특별히 중대한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고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여전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얇은 내용이 절대적인 진리값을 갖는다는 주장(즉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P일 수(도) 있어"라는 발화를 통해서 <P일 수(도) 있어>라는 내용을 의도하며, 그들이 이 내용을 어떤 다른 기준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서 참 혹은 거짓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은 얇은 내용이 참 다원주의와 결합될 수 있다는 주장(즉, 얇은 내용이 다양한 패러미터 상대적으로 진리값을 때때로 가질 수 있다)과 양립가능하다.

배울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내용 일반에 대한 다원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새로운 논증을 따로 고안하지 않고, 이들의 논의에 귀 기울여보도록 하자. 그들의 논의에서 굳이 옹호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제거한다면 그것은 현재의 목적을 위한 훌륭한 역할을 해내게 될 것이다.

카펠렌과 르포어(Cappelen and Lepore, 2005)는 (맥락주의를 거부하면서) 의미론적 최소주의(Semantic Minimalism)와 언화행위 다원주의(Speech Act Pluralism)를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간단히 말하자면, 문장들의 발화들은 전형적으로 다수의 명제들을 표현하는데, 이들 중에서 하나는 의미론적으로 표현된 명제[내용]이며, 이런 의미론적인 내용은 (맥락과 상관이 없으며,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는) 최소한적인 공통 내용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다수의 명제가 한 발화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언화행위 다원주의이며, 나머지 주장은 의미론적 최소주의에 해당한다. 카펠렌과 르포어는 의미론과 화용론에 대한 철저한 이분법을 바탕으로, 의미론적 내용과 언화행위 내용이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용의 본성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즉 의미론적 내용과 언화행위 내용이 구분된다는 것을 부정하면서도[139] 언화행위 내용에 대한 그들의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 따라서 나는 그들의 주장에서 언화행위 다원주의에 대한 것만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면 '언화행위 다원주의'는 무엇인가? 카펠렌과 르포어는 일련의 논문들을 통해서 언화행위 다원주의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논증해왔다. 가령, 카펠렌(2008a)은 그가 '다원적 내용 상대주의(Pluralistic Content Relativism)'라고 부르는 주장을 옹호하는데, 이것은 언화행위 내용과 의미론적 내용에 대한 데이터들의 집합, 즉 다원주의 논제, 내용 상대주의 논제 그리고 어떤 소 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카펠렌이 '다원주의'라고 부르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 맥락 C에서 문장 S의 발화는 다원적인 명제들을 (문자 그대로) 주장할 것(그리고 말할 것)이다.[140,141]

---

[139] 혹은 구분을 받아들이지만, 의미론적 내용이 최소한 적이라는 것을 부정하면서도

[140] 카펠렌은 다음을 주석으로 덧붙인다. "만약 당신이 '주장을 하는 발화들' 보다 '문장들을 발화함으로써 주장을 하는 화자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면, 그것은 괜찮다. 뒤따르는 어떤 것도 여기서의 전문용어의 선택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카펠렌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서로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실제적인 경우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런 다원주의 논제가 옹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카펠렌과 르포어의 일련의 논문들과 소움즈의 논문들[142]에서 다원주의를 옹호하는 여러 다양한 논증들이 제시되었다고 주장하며, 카펠렌(2008a)에서 이들 중에 대표적인 두 논증((Cappelen and Lepore (1997)와 (Soames 2002))을 언급한다. 이들 중에서 카펠렌과 르포어(1997)에는 다음과 같은 논증이 나타난다.

[**옷 입는 사람**] A에 의한 다음 (1)의 발화를 상상해 보라.

(1) 저녁 11시경에, 나는 하얀 셔츠와 푸른 정장을 입고, 어두운 색 양말과 나의 갈색 브루노마글리 신발을 신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리무진을 타고 교통체증을 겪으며 공항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시카고 행 야간 비행을 했다.

(Cappelen and Lepore (1997), Cappelen(2008a)에서 재인용하며 필자가 각색)

다원주의에 따르면 다음의 (명백하게 다른 명제들인) 1.1에서 1.7은 모두 (1)의 발화에 의해서 말해졌던 것에 대한 참된 기술들이다.

1.1. A는 그가 하얀 셔츠를 입었다고 말했다.
1.2. A는 신발을 신었다고 말했다.
1.3. A는 그가 공항에 갔을 때 신발을 신고 있다고 말했다.
1.4. A는 그가 공황에 가는 도중에 교통 체증을 겪었다고 말했다.
1.5. A는 저녁 11시경에 그가 옷을 입고,
공황에 가서 시카고 행 비행기를 탔다고 말했다.
1.6. A는 그가 공황에 가기 전에 옷을 차려 입었다고 말했다.
1.7. A는 그가 공황에 가기 전에 어떤 고급스러운 신발을 신었다고
말했다.

(Cappelen and Lepore (1997), Cappelen(2008a)에서 재인용하며 필자가 각색)

---

[141] 참고적으로 카펠렌과 르포어(2005)에 나오는 다원주의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원주의: 어떤 발화에 의해서 하나의 것만이 말해지지는(주장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무한히 많은 명제들이 말해지고, 주장된다.

[142] 카펠렌은 다원주의를 옹호하는 많은 예들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고 말한다: Cappelen and Lepore 1997, 1998, 2005 and Soames, 2002, 2005, 2008

카펠렌에 따르면, 다원주의자는 이런 보고들이 (그들의 맥락들에서) 문자 그대로 참이라고 논증해오면서, (1)을 말할 때에 A는 1.1에서 1.7이라는 보충 절들을 말했다고 결론 내린다.(여기서, 1.1에서 1.7은 (1)을 발화했을 때 말해졌던 것에 대한 매우 작은 표본일 뿐이다. 이것들 이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이야기 될 수 있다.)

다원주의를 옹호하는 이상의 카펠렌의 논증은 간단히 말해서, 어떤 사람 A가 발화한 것을 다른 사람 B가 또 다른 사람 C에게 보고할 때, A가 말한 것은 매우 다양하게 보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A의 발화가 이렇게 다양하게 보고될 수 있다는 것은 A의 발화가 다양한 명제들을 나타낸다(주장한다)는 것과 연관된다.[143]

그런데 이런 언화행위 다원주의와 관련하여, 카펠렌과 르포어(2005)는 언화행위 내용에 대한 이론은 '화자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 말하거나 혹은 생각하는 사람들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들에 따르면, 화자가 말한 맥락인 발화의 맥락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하는 맥락 혹은 해석하는 맥락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한 발화에 의해서 무엇이 말해졌는지에 대한 단 하나의 올바른 대답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한 발화에 의해서 무엇이 말해졌는지에 대한 보고'에 의해서 무엇이 말해졌는지에 대한 단 하나의 올바른 대답도 또한 없다. 결국, 언화행위 내용이 확정되고 결정되는 메타언어는 없다. 그들에 따르면, 다원주의는 완전히 철저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내용 일반에 대한 다원주의(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언화행위 내용 다원주의)에 대한 핵심 논증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우리는 카펠렌 등의 논의에서 언화행위 내용과 의미론적 내용이 철저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거부하면서도, 언화행위 내용 다원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는 적어도 그들의 핵심주장 중에 하나인 '어떤 한 발화가 많은 각기 구분되는 명제들을 주장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웨더슨은 카펠렌과 르포어(2005)에 자신이 말하는 물리적 움직임들로부터 언화행위로의 첫 번째 맵핑과 관련하여 언화행위 다원주의를 옹호하는 많은 예들이 제시된

[143] 여기서 카펠렌과 르포어의 주장이 '하나의 명제가 여러 언어적 표현들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그들의 주장은 한 발화에 의해서 다양한 명제들이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고 말하지만, 카펠렌과 르포어가 옹호하는 언화행위 내용 다원주의가 웨더슨이 말하는 첫 번째 맵핑에만 관계되는지는 불확실하다. 웨더슨이 자신의 맵핑들에서 언급된 내용이 특별히 의미론적 내용(semantic content)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한, 카펠렌과 르포어의 언화행위 내용은 첫 번째 맵핑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맵핑과도 또한 연관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웨더슨의 해석이 적절한가의 문제와 별도로, 카펠렌과 르포어가 주장하는 바는 발화(utterance)와 명제[내용]의 다원성에 대한 주장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발화된 것과 발화하는 행동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확정 짓지 않고서도(그리고 의미론과 화용론의 구분에 대한 최근의 복잡한 논의들에 개입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원한 바를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위의 카펠렌 등의 다원주의 논증이 올바르다면 우리는 어떤 내용(언화행위 내용)이 (화용론의 영역이든지 의미론의 영역이든지 와 상관없이) 다원적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

5.2.2. 핀텔과 길리스의 인식적 양상에 대한 패러미터 일원주의 비판

그러면 이제 내용 일반이 아닌 맥락 민감성이 관계한다고 간주되는 표현들에 대한 다원주의 옹호 논증에 대해서 살펴보자. 핀텔과 길리스(2011)는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의 발화들이 단일한 명제에 대한 주장이라는 사실을 부정한다. 그들이 부정하는 것은 2장에서 언급했던 표준적 맥락주의의 첫 번째 주장(SC1) 즉,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의 발화들은 전형적으로 단일한 명제에 대한 주장들이다'는 것이다. '패러미터의 단일성에 의한 내용 일원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주장에 따르면, 영희가 "철수는 청와대에 있을 수(도) 있어"와 같은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을 발화했을 때, 이 문장이 표현하는 내용[명제]은 단 하나의 그리고 확정적인 패러미터와 연관되며, 이런 단일한 내용(혹은 패러미터)을 화자는 의도하고, 또 청자는 이해한다.

핀텔과 길리스는 앞선 1부에서 부분적으로 살펴보았듯이, 자신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고전적 맥락주의에 대해 반론을 제기함과 동시에 맥팔레인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전개해 나간다. 나는 앞선 3장 및 4장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핀텔과 길리스의 상대주의에 대한 대응 및 반론들이 모두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나는 그들에게서 다원주의 논제에 대한 통찰은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한다. 핀텔과 길리스가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하는 논증들을 우리는 앞선 3.2.2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핀텔과 길리스의 흐릿한 맥락주의가 패러미터의 다양성을 통해서 보증, 거부, 철회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구체적 논증 사례들 보다는 핀텔과 길리스가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결론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되지 않는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자.

핀텔과 길리스(2011)는 그들의 논문에서, 그들이 고전(canon)이라고 부르는 것 즉, 고전적[표준적] 맥락주의에 대해 비판하면서, 수정된 맥락주의를 옹호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고전적 맥락주의의 중요한 문제점은 맥락에 의해서 양상 패러미터가 단일하게 확정적으로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문제는 '단순 인식적 양상의 발화가 쟁점이 되는 확정적인(determinate) 맥락이 있다'는 허구에 의해서 그것[고전]이 짓눌린다는 것에 있다.……단순 인식적 양상은 맥락적으로 유관한 사람들에게 이용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양화(quantify)한다. 그 부분은 고전(cannon)이 올바른 곳이다.
>
> 하지만 한 발화맥락이 주어졌을 때, 집단의 경계선을 그리는 **다중적인**(multiple) 방식들이 있다. 그리고 "맥락"은 종종 이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선호되는지를 결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지 어떤 집단이-단지 어떤 모인 정보상태가-그런 단순 인식적 양상에 의해서 양화되는지가 **불확정적**이다. 그 부분은 고전이 잘못된 곳이다.
>
> (Fintel and Gillies, 2011, p. 109에서 필자가 각색)

핀텔과 길리스에 따르면, "P일 수(도) 있다"와 같은 단순 인식적 양상을 포함하는 발화 문장의 내용이 P와 맥락적으로 관련된 집단들의 정보상태와의 양립가능성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옳다. 하지만 발화맥락이 주어졌을 때, 관련 집단이 확정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비록 발화맥락이 고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집단 및 집단의 구성요소 들(화자, 청자 등)이 적합한 양상 패러미터인지는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양상 패러미터는 다원적일 수 있으며, 양상 패러미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내용 또한 (그것이 두꺼운 내용일 때, 양상 패러미터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여) 다원적일 수 있다.[144]

[144] 보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적합한 양상 패러미터가 무엇인지가 불확실하다'는 것과 '양상 패러미터가

이상 핀텔과 길리스의 다원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1부의 논의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언급된 논의들만으로는 인식적 양상에 대한 패러미터 다원주의를 올바른 주장으로 간주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식적 양상에 대한 패러미터 다원주의를 옹호하는 추가적인 논증을 살펴보도록 하자.

5.2.3. 패러미터 다원주의와 얇은/두꺼운 내용 다원주의를 위한 논증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보자.

> **[탐정III]** 홈즈와 왓슨,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영국의 베이커 가에 있는 그들의 집에 앉아서 모리어티의 말을 몰래 도청하고 있다. 모리어티는 그를 잡으려고 하는 홈즈의 계획을 피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런데 사실 홈즈는 모리어티에게 자신이 파리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짓된 정보를 미리 심어 놓았다. 모리어티는 홈즈가 심어놓은 정보를 발견하고서 그의 부하들에게 "홈즈는 나를 잡기 위해서 파리에 있을 수 있다." 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모리어티의 말을 도청하면서 왓슨은 모리어티의 말을 부정하며, 레스트레이드 경감도 이런 왓슨에 동의한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홈즈는 긍정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즉 왓슨이 "홈즈는 파리에 있을 수 없어.(모리어티가 한 말은 거짓일 수 있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고개를 끄덕이는 반면에 홈즈는 웃으면서 "홈즈는 모리어티를 잡기 위해서 파리에 있을 수도 있지.(모리어티가 한 말은 참일 수(도) 있지.)"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리고 왓슨, 레스트레이드, 홈즈는 이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이 사례는 앞서 3장에서 맥락주의에 대한 도청과 관련된 반론이었던 '탐정' 사례를 약간 수정한 것이다. 원래의 사례에서는 왓슨이 부정하기만 하였지만, 현재

여러 가지로 다원적이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전자는 모호성(vagueness)과 그리고 후자는 애매성(ambiguity)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정적인 내용들이 다양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원주의(pluralism)'라는 용어가 보통 양자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즉 일반적으로 내용이 다원적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용이 불확정적이라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자주 사용된다는 점, 그리고 핀텔과 길리스의 주장 및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불확실성과 다원성을 모두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본 논문에서 나는 특별히 '불확정적인 다원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에 '다원주의'라는 단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의 사례에서는 홈즈의 긍정도 추가되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그러면 해당 대화자들이 주장하고 또 그들에 의해서 이해된 내용은 무엇인가? 먼저 처음에 왓슨이 모리어티의 말을 부정할 때 왓슨이 말한 내용은 분명히 (모리어티 및 그의 부하들의 지식상태를 양상 패러미터로 포함하는) 두꺼운 내용이 아닐 것이다. 만약에 해당 내용이 그런 것이라면 왓슨은 위와 같이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왓슨이 말한 내용은 얇은 내용이 되며, 그가 이에 대해서 거짓을 부여했다는 것은 그가 화자인 모리어티의 지식상태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판정자인 그 자신의 지식상태에 의거해서 발화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왓슨의 발화는 참 상대주의가 설명하는 바에 적합하다. 반면에 홈즈의 발화가 나타내는 내용 및 그와 관련된 진리값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표적 맥락주의가 예견하는 바와 같이 내용이 <화자인 모리어티(및 그의 부하들)의 지식상태에 따르면, 홈즈는 모리어티를 잡기 위해서 파리에 있을 수 있다>가 되고 이것이 참이라는 절대적인 진리값을 갖거나' 혹은 '비지표적 맥락주의가 예견하는 바와 같이 내용이 <홈즈는 모리어티를 잡기 위해서 파리에 있을 수 있다>이고 이 내용이 화자인 모리어티(및 그의 부하들)의 지식상태에 상대적인 진리값을 갖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사례에서 도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리어티가 한 말'을 통해서 한 사람(홈즈)은 얇은 내용을 의미했고, 다른 사람(왓슨, 레스트레이드)은 두꺼운 내용을 의미했다는 것을, 그리고 각각 판정자와 화자를 그들이 적합한 패러미터로 간주하고 있음을 서로들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위의 사례와 달리 논쟁이 붙거나 서로의 말을 제대로 확인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상언어 사용의 유연성은 위와 같은 사례를 충분히 허락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결국 해당 사례는 동시에 얇은 내용과 두꺼운 내용이 주장될 수 있으며, 화자와 판정자가 동시에 적합한 패러미터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얇은/두꺼운 내용에 대한 다원주의와 패러미터 다원주의를 옹호하는 증거가 된다.[145]

[145] 혹자는 홈즈가 발화를 하는 맥락과 왓슨(및 레스트레이드)이 발화를 하는 맥락을 구분하면서, 해당 사례는 화자와 판정자가 동시에 적합한 패러미터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같은 맥락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우리가 발화맥락을 발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 내적인 상황으로 규정하게 된다면 해소될 것이다. 홈즈, 왓슨(및 레스트레이트)은 같은 대화 상황에 속해있고, 따라서 그들의 발화는 같은 발화맥락과 관계된다고

한편, 어떤 사람은 해당 사례가 양 다원주의를 옹호하는 논증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해당 사례는 구체적인 하나의 발화문장이 동시에 다른 패러미터를 갖는 것으로(혹은 얇은/두꺼운 내용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는 왓슨과 홈즈가 모리어티의 발화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화를 새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맥팔레인이 판정자가 더 많이 알게 된 사례들 반론 등에 대해서 다른 명제 전략을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상의 반론자는 같은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런 반론에 대해서 나는 한편으로는 그에 동의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왓슨과 홈즈는 모리어티가 한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리어티가 한 말이 아닌 것을 새롭게 주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게다가 왓슨과 홈즈가 명시적으로 발화를 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해당 발화내용을 생각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경우에도 왓슨과 홈즈가 생각한 심적 내용 및 그와 관련된 진리값은 (위에서와 같이) 명시적으로 발화를 한 경우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들의 내용 및 진리값이 새롭게 주장한 것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모리어티의 주장을 그대로 받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직관이 보다 우세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5.3. 주장 내용으로서의 판정자 상대적인 두꺼운 내용의 존재 옹호

앞선 논의를 통해서 패러미터 다원주의와 얇은/두꺼운 내용에 대한 다원주의가 옳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함축하는 바는 (순수) 두꺼운 내용주의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꺼운 내용 일반이 부정될 필요는 없다. 부정되는 것은 두꺼운 내용만이 주장 내용으로 적합하다는 주장일 뿐이다.

그런데 나의 입장은 (온건한) 내용 상대주의가 예견하는 바와 같이 어떤 경우에는 단순 인식적 양상문장의 내용이 판정자 상대적인 두꺼운 내용이 될 수도 있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음을 받아들인다는 귀결을 갖게 된다. 그리고 앞서 4장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내용 상대주의는 주장(assertion)에 대한 표준적 이론들과 상충한다는 반론에 직면하며, 내가 '내용이 때때로 판정자 상대적인 것으로 두꺼울 수도 있다'는 온건한 내용 상대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나 또한 같은 반론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내가 옹호하는 다원주의의 일관성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다원주의가 (기존 논의들에 대한 현재 구도 내에서의 해결을 모색하는) 5.4절의 논의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또한 필요하다. 그러면 판정자 상대적인 두꺼운 내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자. 나는 내용 상대주의에 대한 표준적 주장 이론과의 양립불가능성 반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장 일반에 대한 연관 논의들 및 '도대체 어떻게 화자가 말하고자 의도한 바가 없던 것이 그에 의해서 주장되었다고 다른 사람에 의해 간주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카펠렌의 몇몇 논의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기존에 제시된 주장(assertion)에 대한 대표적 이론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 주장을 하는 것은 대화적인 공통 근간(conversational common ground)에 정보를 덧붙이기를 제안하는 것이다. (스톨네이커)
2. 주장을 하는 것은 그것의 구성적인(constitutive) 규범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언화행위(speech act)이다. (참 규범-더밋, 지식 규범-윌리엄슨)
3. 주장을 하는 것은 공약(commitment)을 떠맡는 것이다. (브랜덤)
4. 주장을 하는 것은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패긴)[146]

이런 기존의 주장 이론들과 관련하여, 판정자를 중심으로 하는 (참 혹은 내용) 상대주의는 이들과 양립불가능하다는 반론들이 (앞선 1부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된 바가 있듯이) 이건, 호쏜, 웨더슨(2005) 등에 의해서 종종 제시되어왔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상대주의자들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보다 보수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이론들의 틀 내에서 상대주의가 자리를 잡을 수 있

[146] 관련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Stalnaker(1978), Dummett(1959), Williamson(1996, 2000), Brandom(1983, 1994), Pagin(2004)

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다 개혁적인 방법으로 주장에 대한 기존 이론을 수정하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카펠렌(2008b)은 주로 전자에 대한 것을 다루며, 카펠렌(2011)은 후자에 대한 것을 주로 다룬다. 이들에 대해서 자세히 탐구하는 것은 현재의 논의 궤도에 지나치게 벗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내가 확실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상대주의자들이 하는 구체적인 논증들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열린 채로 남겨둘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기존의 주장 이론에 의한 반론들이 다음과 같은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판정자 상대성이 주장에 대한 표준적인 개념들과 화해하기가 어렵다면, 우리는 판정자 상대성을 거부해야 한다. 하지만 맥팔레인(2005c)과 카펠렌(2008b)이 주장하듯이, 판정자 상대성이 엄연한 사실[147]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에 대한 표준적 이론들을 수정해야 한다**는 논리도 또한 가능하다. 나는 맥팔레인과 카펠렌의 이런 주장에 동조하며, 명제가 표현하는 것이 '화자가 주장한 것'이라는 용어에 의해서만 설명될 필요가 없이 '화자에 의해서 주장된 것[말해진 것]'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자와 후자는 비록 능동과 수동의 형태로 유사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후자를 기준으로 할 때, 화자에 의해서 말하도록 의도된 것뿐만이 아니라, 청자에 의해서 화자가 말했다고 이해된 것이라는 측면을 수용하기가 더 용이하다. 청자는 가능한 한 화자가 주장했다고 생각되는 바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때때로 청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혹은 어쩔 수 없이) 해석되는 바로서의 내용이 그에게 이해되기도 하는 것이다.[148]

---

147 앞의 내용 외재주의와 관련된 논의가 그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다.

148 한편 이와 같이 판정자 상대성을 부정하기 보다는 주장에 대한 표준적인 이론들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주장 내용의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의사소통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또한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말해서 화자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고서 청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며, 판정자 상대성이 이것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가 (한편으로)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으로 6장과 7장에서 내가 논증하는 몇몇 사례들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들과 연관이 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올바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으며,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나는 이에 대한 논의들을 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 이에 대한 것이 내가 핵심적으로 주장할 내용들

게다가, 주장에 대한 표준적 이론들 각각에 대해서 상대주의자들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가 아직 판가름이 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위의 대표적 이론들 중에서 도대체 어떤 이론이 주장에 대한 이론으로 보다 적절한가의 문제 또한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어떤 점에서 자국 내부의 교통정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려고 하는 것은 순서가 들어맞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내가 '주장 이론과의 양립불가능성에 의한 반론'에 대해 현 시점에서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지만, 이 반론으로 인해서 나와 상대주의자들과 같이 청자[해석자]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우울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 내가 비록 판정자 상대성을 때때로 인정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온건한) 내용 상대주의가 옳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는 판정자 상대성이 관련되는 모든 상황에서 내용 상대주의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나는 내용 상대주의와 참 상대주의가 판정자 상대성을 인정한다는 공통점을 갖기는 하지만, 주장의 본성과 관련하여 내용 상대주의가 참 상대주의보다 더 열악할 수 있다는 점을 4.2절에서 언급하였다. 매우 드문 경우에는 내용 상대주의가 예견하는 바와 같이 판정자 패러미터를 내용 안에 포함하는 두꺼운 내용이 주장된 내용으로서 적절할 수 있지만, 빈도수로 보았을 때 그런 경우보다는 주장된 내용은 얇은 내용이지만 그것의 진리값이 판정자 패러미터에 상대적인 경우, 즉 참 상대주의가 예견하는 바가 더 올바른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고 나는 예상한다.

5.4. 기존 논의들에 대한 현재 구도 내에서의 해결

이제까지 내가 옹호하고자 하는 다원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런 다원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맥락주의와 상대주의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해결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앞서 내가 이미 부분적으로 했지만 그것이 명시적으로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 범위에서 다소 빗겨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이에 대한 것을 본 학위논문 이외의 글에서 앞으로 다루도록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소중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 이병덕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정리하도록 하겠다. 맥락주의와 상대주의를 둘러싼 논쟁은 앞서 구분한 두 문제 즉 내용의 두께문제와 패러미터의 본성문제가 연관이 된다. 보다 엄격하게 말한다면 내용의 두께문제는 화자 및 판정자 상대성을 중심으로 규정된 맥락주의 및 상대주의 사이의 논쟁과 독립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지만, 현재의 논의들이 내용의 두께문제와 관련해서도 시사점을 지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언급하도록 하겠다.

나는 내용의 두께문제와 관련하여 얇은/두꺼운 내용 다원주의를 선택함으로써 얇은 내용주의와 두꺼운 내용주의 중에서 얇은 내용주의,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이 때때로 얇은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는 온건한 얇은 내용주의를 옹호한다. 두꺼운 내용주의자는 항상 내용이 두껍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얇은 내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얇은 내용이 주장된 내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정당화는 명제태도의 대상 혹은 주장의 대상으로서의 얇은 내용에 대한 옹호 및 합성성의 의미값, 진리담지자 등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논의들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현 논문의 범위를 지나치게 이탈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단순히 보통 사람들이 특별히 <A에 따르면, P일 수(도) 있어>라는 내용을 의도하지 않고서 단순히 <P일 수(도) 있어>라는 내용을 의도하면서 "P일 수(도) 있어"와 같이 발화하는 실제적 경향이 있다는 (부정되기 힘든) 사실에 의존하여, 얇은 내용이 주장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149]) 따라서 두꺼운 내용주의는 옳지 않다. 내용이 항상 두껍다고 주장하는 지표적 맥락주의 및 (철저한) 내용 상대주의는 패러미터의 본성문제와 무관하게 내용의 두께문제에 대한 그릇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옳지는 않다.[150]

한편 이상과 같이 얇은 내용주의를 선택하는 것은 어떤 장점을 갖는다. 두꺼운 내용만이 존재한다는 두꺼운 내용주의와 얇은 내용만이 존재한다는 철저한 얇은 내용주의는 각각 문제점을 갖는다. 앞서 논의한 바대로 두꺼운 내용주의는 판정자 상대성과 관련하여 반직관적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비록 판

[149] 얇은 내용이 주장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이 주장은 앞선 5.2절의 초반부의 주석에서 내가 언급한 '얇은 내용이 때때로 절대적인 진리값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과 연관된다.

[150]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가 있듯이 온건한 내용 상대주의에 대해서는 나는 찬성할 수 있다.

정자 상대적인 두꺼운 내용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단순 인식적 양상문장이 판정자 상대적인 두꺼운 내용을 표현하기 보다는 절대적인 얇은 내용을 표현하면서 판정자 상대적으로 진리값을 갖는 경우가 빈도상으로 더 많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두꺼운 내용주의는 한계를 갖는다.[151] 다른 한편 철저한 얇은 내용주의는 기존의 고전적인 명제[두꺼운 내용] 개념 수정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는다. 왜 때때로 고전적인 명제가 표현된 것 같아 보이는 분명한 경우들을 부정하면서, 항상 얇은 내용만이 표현되었다고 말해야 하는가? 이런 양 입장의 단점을 (온건한) 얇은 내용주의를 선택한다면 피하거나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패러미터의 본성문제와 관련하여 내가 패러미터 다원주의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보자. 앞선 1부의 논의에서 화자 중심성을 주장하는 맥락주의는 도청 논증(및 비화자 중심용법)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화자만을 고려하는 맥락주의는 그대로 옳은 수는 없다.

다른 한편 이런 맥락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판정자 중심성을 내세우는 상대주의는 어떠한가?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상대주의는 맥락주의 보다 더 나은 처지에 놓여있다. 비록 판정자가 더 많이 아는 혹은 더 조금 아는 경우와 관련된 반론들이 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에 대해서 제기되었지만 맥팔레인이 이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맥팔레인이 판정자 상대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도청 사례에서 판정자 상대성만이 강요되는 것은 아니었다. 비록 맥락주의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의미론적 무지전략을 취하는 맥락주의자들의 전략이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맥락주의자의 논의에서 화자 중심성만이 존재한다는 독단을 제거한 주장, 즉 화자 중심성**도** 존재한다는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대주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도청 사례에서 왓슨의 부정과 관련된 참 상대주의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같은 상황에서 왓슨이 긍정하는 경우 또한 자연스러우며, 이런 용법은 참 상대주의를 전제로 할 때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덧붙여서 철회 사례 등에 대한 맥팔레인의 다른 명제 전략이 비록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방식의 설명에 비해서 부자연스러운 것만은 사실이다. 더 단순한 설명이 선호되어야 한다면 화자 중심적 용법이

[151] 물론 판정자 상대적인 두꺼운 내용주의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화자 상대적인 두꺼운 내용주의 역시 3장에서 논의된 공통-내용 논증에 따라서 나름의 문제점을 지닌다.

때때로 여전히 필요할 수 있다. 게다가 앞으로 6장과 7장에서 전개될 관점투영적 상대주의에 대한 다양한 논증들은 판정자 상대성만을 주장하는 입장(기존의 참 상대주의 및 내용 상대주의)의 한계를 보다 극명하게 드러내 줄 것이다. 따라서 상대주의 입장 또한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맥락주의와 상대주의의 각 입장이 단점들을 갖고 있다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미 예상할 수 있듯이 우리가 패러미터 다원주의를 선택함으로써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 우리는 맥락주의와 상대주의 즉 화자 중심주의와 판정자 중심주의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배타적으로 선택하기를 강요받지 않는다. 현상에 대한 제대로 된 예측이 중요하며, 맥락주의 및 상대주의 어느 한 진영의 명예를 고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혹자는 나의 이런 양시론(兩是論)적 대처에 대해서 문제를 너무 쉽게 해결하려 든다는 비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하나의 통합된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모두가 옳다는 주장은 배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양쪽이 서로 장점과 단점을 맞물려 지니고 있을 때 양자를 종합하는 것을 극구 반대할 이유는 없다.

나는 이상의 5장을 통해서 맥락주의와 상대주의를 둘러싼 기존의 논쟁들이 다원주의를 택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다원주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맥락주의와 상대주의 모두에 반대하는 것이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양쪽 모두를 수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내리고자 하는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다. 나는 다원주의 이외에도 관점투영적 상대주의를 주장하고자 하며, 후자와 관련하여 맥락주의와 상대주의는 아직까지 제기된 바가 없는 새로운 반론들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양자가 화해함으로써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적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맥락주의와 상대주의는 종국에는 쇠퇴하거나 혹은 개혁을 요구 받게 될 것이다.

6장. 인식적 양상문장의 내용과 양상 패러미터에 대한 온건한 다원적 관점투영 상대주의

내가 '양상 패러미터의 본성문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P일 수(도) 있다"는 단순 인식적 양상문장의 내용 및 진리값이 어떤 패러미터와 연관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1부에서 살펴보았듯이 맥락주의 및 상대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이론들은 여러 사례들에 각각 어떤 양상 패러미터가 적합한가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나는 5장에서 패러미터 다원주의와 얇은/두꺼운 내용 다원주의를 선택함으로써 기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식적 양상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제기된 적이 없는 새로운 반론들이 가능하다. 이런 반론들을 제대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 나는 이런 나의 새로운 이론에 '**인식적 양상문장의 내용과 양상 패러미터에 대한 다원적 관점투영 상대주의**(Pluralistic Perspective-projective Relativism)'라는 명칭을 붙인다. 나의 이론은 크게 다원주의(Pluralism)와 관점투영적 상대주의(Perspective-projective Relativism)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다원주의의 모습은 앞선 5장에서 살펴보았다.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주로 관점투영적 상대주의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앞선 5장에서 살펴보았던 패러미터 다원주의가 패러미터의 본성문제와 관련하여 단순히 양상 패러미터가 다원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만 할 뿐 어떤 것으로 다원적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데 반해서, 관점투영적 상대주의는 패러미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말한다. 나는 이런 관점투영적 상대주의를 온건한 입장과 급진적 입장으로 구분하며, 6장과 7장에서 이를 순차적으로 다룰 것이다.

그러면 6장에서 내가 다룰 내용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보도록 하자. 우선, 나는 6.1절에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5장에서 내가 주장한 다원주의를 포함하여) 이론 전체의 개요를 살펴본다. 그리고 6.2절에서 나는 비록 양상 패러미터의 본성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것과 독립적으로 내용 일반에 대한 논의들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그것은 화자, 청자, 제삼자의 입장에서의 내용 구분과 판단자와 판단-귀속자의 구분에 대

한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6.3절에서 나는 판단자와 판단-귀속자 모두를 적합한 양상 패러미터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때때로 올바를 수 있음을 다양한 예들을 통해서 옹호한다.

6.1. 다원적 관점투영 상대주의의 개요

내가 앞으로 최종적으로 내리고자 하는 결론이 다소 긴 중간 논증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편의를 위해 결론을 미리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내가 내용의 두께 문제 및 양상 패러미터의 본성문제에 대해서 최적의 이론이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인식적 양상문장의 내용과 양상 패러미터에 대한 다원적 관점투영 상대주의 '는 다음과 같다:

"P일 수(도) 있다"와 같은,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이 발화된 경우에,

1. [**패러미터 다원주의**] "P일 수(도) 있다"와 같은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이 발화되었을 때, 그 문장의 양상 패러미터는 다원적일 수(동시에 여러 가지로 다양할 수) 있다.

1.1. [**얇은/두꺼운 내용 다원주의**]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의 얇은 내용인 <P일 수(도) 있다>와 두꺼운 내용인 <A에 따르면, P일 수(도) 있다>가 동시에 표현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관점투영적 상대주의**] 적합한 양상 패러미터 A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판단-귀속자 Y가 귀속시킨다고 메타 판단-귀속자 W가 귀속하는
판단자 X의 서술적 정보상태 K≫[152]

(다양한 사례들에 따라서 W, Y, X, K의 값은 각각 0이 될 수 있다. 다만, K값 혼자만 0이 안 되는 경우의 패러미터는 배제된다. 왜냐하면 서술적 정보상태 K만을 갖는 패러미터를 우리가 특별히 인식적 양상 패러미터로 간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52] 이것을 표현하는 다른 방식들은 '(메타 판단-귀속자 W가 귀속하는) 판단-귀속자 Y가 판단자 X의 서술적 정보상태 K라고 귀속시키는 것' 또는 '판단-귀속자 Y가 판단자 X의 서술적 정보상태 K라고 귀속시킨다'고 메타 판단-귀속자 W에 의해서 귀속되는 바' 이다.

이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P일 수(도) 있다”와 같은 단순 인식적 양상문장은 그 내용으로 <P일 수(도) 있다>와 같은 얇은 내용과 <A에 따르면, P일 수(도) 있다>와 같은 두꺼운 내용 모두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데, 얇은 내용은 A에 상대적으로 진리값을 갖거나 혹은 (A를 포함하는) 두꺼운 내용이 (절대적으로) 진리값을 가지며, A는 ≪판단-귀속자 Y가 귀속시킨다고 메타 판단-귀속자 W가 귀속하는 판단자 X의 서술적 정보상태 K≫로 (각각 W, Y, X, K의 값이 0이 될 수 있으면서) 결정된다. 여기서 특히 나는 ‘메타 판단-귀속자, 판단-귀속자, 판단자, 서술적 정보상태가 각 경우들에 따라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과 내가 옹호한 여러 다원주의들을 통해서, 나의 이론의 유연성이 확보되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보다 많은 사례들에 대한 설명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한편, 내가 여기서 사용하는 ‘상대주의’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1부에서 주로 논의된 판정자 상대성을 주장하는 이론들, 즉 참 상대주의 및 내용 상대주의와 차이가 있다. 앞서 판정자 상대성을 주장하는 상대주의를 좁은 의미의 상대주의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내가 옹호하고자 하는 상대주의는 보다 넓은 의미의 상대주의라고 할 수 있다.[153] 나는 ‘다원적 관점투영 상대주의’라는 나의 이론에서의 상대주의를 ‘**발화맥락의 요소들 이외의 것들에 대한 상대성을 주장하는 이론**’으로 규정할 것이다. 기존의 맥락주의는 발화맥락만 고려하였고, 기존의 상대주의는 (발화맥락뿐만이 아니라) 판정맥락을 고려한다. 하지만 나는 이것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위에서 언급한 판단자, 판단-귀속자, 메타 판단-귀속자, 서술적 정보상태 등과 관련된 더 많은 패러미터들이 추가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이런 다원적 관점투영 상대주의를 크게 두 입장으로 구분한다. 나는 판단자와 판단-귀속자만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온건한 다원적 관점투영 상대주의’로, 나머지 요소들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급진적인 다원적 관점투영 상대주의’로 부를 것이다. 전체적으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는 인식적 양상과 관련된 기존의 맥락주의 및 상대주의 이론들이 적합한 패러미터로 고려했던 화자 및 판정자가 판단-귀속자 및 판단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

[153] 하지만 이것은 서론의 주석에서 언급된 바가 있는 가장 넓은 의미의 상대주의, 즉 가변주의와는 다르다.

운 틀로 완전히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의 이론들이 예견하는 (꽤) 많은 사례들에 대해서 기존의 이론틀로 충분한 것들은 굳이 새롭게 대체될 필요가 없다. 화자가 적합한 곳에는 맥락주의가, 그리고 (화자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판정자가 적합한 곳에는 상대주의가 ('화자' 및 '판정자'로 지칭되는 것을 '판단자' 혹은 '판단-귀속자'라는 보다 정확한 용어로 대체하면서) 여전히 옳을 수 있으며, 화자 혹은 판정자가 적합한 경우에는 (앞서 5장에서 언급된) 다원주의로 충분할 수 있다.

언뜻 보기에 나의 이러한 주장은 반직관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제시하는 양상 패러미터는 지나치게 복잡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한 것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는 두 해당 이론의 설명력이 동일하다는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굳이 오컴의 면도날(Ockham's Razor) 원칙[154]을 지킬 필요가 없다. 비록 험난한 여정이 되겠지만, 나는 나의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씩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단계들 중에서 어떤 단계까지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예상한다. 다만, 내가 확신을 하는 것은 나의 논의들을 모두 따라온 사람들이 갖는 반감은 처음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것이다.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잘 알게 되었을 때는 사라지는 법이다.

한편, 향후의 논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서술적인 편리함을 위해서 내가 선택할 방법과 관련하여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나는 (앞서 5장에서 살펴본 대로) 패러미터 다원주의'와 '얇은/두꺼운 내용 다원주의'를 옹호하며, 그로 인해서 '패러미터의 차이에 의한 내용 다원주의'와 '패러미터의 차이에 의한 참 다원주의'에 개입하게 된다. 따라서 나는 두꺼운 내용인 경우에 다양한 패러미터를 포함하여 전체 내용이 다양할 수 있으며(이때 각 내용은 절대적인 참을 갖는다), 얇은 내용인 경우에 다양한 패러미터에 상대적으로 그 참이 다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의 이런 주장을 정확히 서술하게 위해서는 패러미터의 차이가 내용에 반영되는 경우(내용 다원주의)와 참에 반영되는 경우(참 다원주의)를 모두 서술해야

[154] 오컴의 면도날 원칙은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개의 주장이 있다면, 간단한 쪽을 선택하라'는 원리로서, '동등한 두 주장(혹은 이론)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지침들 중에 하나로 흔히 간주된다.

할 것이다. 하지만 양쪽을 모두 서술하는 것은 지면을 불필요하게 차지하게 된다. 게다가 앞으로 전개될 다양하고 복잡한 구체적 패러미터들에 대한 논의는 어떤 경우에는 내용을 대상으로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참을 대상으로 서술하는 것이 보다 직관적인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그래서 비록 패러미터의 차이가 내용에 반영되는 경우와 참에 반영되는 경우, 즉 두꺼운 내용(및 절대적 참)에 대한 것과 얇은 내용(및 상대적 참)에 대한 것을 모두 서술하는 것이 올바르지만, 상황에 맞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논의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용 다원주의와 참 다원주의 중 어느 한쪽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6.2. 패러미터 및 내용 일반에 대한 몇몇 구분들

우선, 패러미터 및 내용 일반과 관련하여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구분들에 대해서 말해보자. (따라서 6.2절의 논의 내용은 인식적 양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화자, 청자, 제삼자 패러미터의 구분과 판단자와 판단-귀속자 패러미터의 구분이다. 내가 인식적 양상 패러미터의 결정과 관련된 구체적 주장들을 하기에 앞서, 이들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체 혹은 주체의 지식상태라는 기존의 양상 패러미터를 추가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보다 복잡한 것으로 확장해야 하는 근거와 밀접히 연관되기 때문이다: 익히 예상할 수 있듯이 화자, 청자, 제삼자 패러미터의 구분은 기본에 논의된, 맥락주의적 직관인 화자 중심적 용법, 상대주의적 직관인 판정자 중심적(혹은 비화자 중심적) 용법, 그리고 타자 중심적 용법 구분에 대응이 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판단자와 판단-귀속자의 구분은 기존의 패러미터에 추가적 요소들이 덧붙여져야 한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게다가 화자와 청자 입장에서의 패러미터 및 내용 구분은 주장(assertion) 일반의 본성 문제, 즉 주장된 것[말해진 것]이 무엇인지의 문제와도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는 앞선 5.3절에서 논의된 바, 즉 주장 내용으로서의 판정자 상대적인 두꺼운 내용의 존재 옹호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시사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배경들을 염두에 두면서 논의를 진행해보자.

6.2.1. 화자 및 청자 패러미터의 구분과 그에 따른 내용의 구분

다음과 같은 예를 고려해 보자.

> [**탕구르**] 이집트의 고대 유적에서 석판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고대 이집트인인 A에 의해서 "**람세스 II세는 탕구르 때문에 죽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그 탕구르의 증상이 소개되어 있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탕구르'로 명칭 되는 병의 증상들을 현대 의학자인 B가 판단해 보았을 때, 그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장티푸스'라고 부르는 병에 대한 것에 가깝다고 하자.

이런 상황에서 "람세스II세는 탕구르 때문에 죽었다"라는 문구가 나타내는 내용은 무엇인가? 즉, A에 의해서 주장된 것은 무엇인가? 얼핏 보기에, 그것은 <람세스II세는 탕구르 때문에 죽었다> 그대로인 것 같지만, 대답은 좀 더 복잡하다. 나는 해당 문구가 나타내는 내용 혹은 (내용과 관련된) 패러미터를 화자에 의해서 의도된 것과 청자에 의해서 이해된 것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편의상 서술은 내용을 위주로 진행될 것이다.) 일상적인 대화상황에서 이 둘은 보통 일치하지만, 위와 같은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먼저 오늘날 **청자[해석자]의 입장**에서 이해된 것을 고려해 보자. 처음에 문장을 발화한 것은 고대인 A이지만, 오늘날의 청자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문장 내용의 귀속자를 원래 화자로만 반드시 볼 필요는 없다. 문구를 해석하는 청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용 및 (내용과 관련된) 패러미터의 귀속자는 어떤 측면에서 청자 자신이다. 반면에 이때 화자는 피귀속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귀속자인 청자에 의해서 이해된 바로서의 내용을 청자가 귀속자라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청자의 입장에서 청자의 방식대로 청자에게 이해된 내용'으로 불릴 수 있다.

> [**청자의 입장에서 청자의 방식대로 청자에게 이해된 내용**] 람세스II세는 장티푸스 때문에 죽었다.[155]

이것을 우리가 청자에 의해서 이해된 내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155] 혹은, 람세스II세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장티푸스라고 생각되는 것 때문에 죽었다.

실제로 과거의 문헌학적인 정보에 대해 이런 내용을 적용시키는 경향을 갖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보통, 과거의 사람들이 'A'라고 부르는 어휘 혹은 개념을, 이에 대응하는 속성들을 갖는 오늘날의 개념 'B'로 대체하여 이해하며, 또 그렇게 재 기술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런 어휘 혹은 개념을 포함하는 문장의 내용은 귀속자인 **청자가 피귀속자인 화자의 관점을 자기식대로 재해석하여 이해하는 경우의 내용**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귀속자인 청자가 피귀속자인 화자가 의도하는 개념을 자신의 방식으로 변환하는 경우는 매우 특수한 사례에 불과하다고 반론을 펼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와 관련된 예들을 오늘날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자연종 외재주의(natural kind term externalism)와 관련된 예들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인이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오늘날의 우리는, 비록 그리스인들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 지라도, <H_2O는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이해한다.[156]

그런데, 이런 '청자의 입장에서 청자의 방식대로 청자에게 이해된 내용'에 대한 주장은 내용 상대주의를 옹호하는 카펠렌(2008b)이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카펠렌은 화자가 그녀에게 인지적으로 접근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는 자신의 주장, 즉 내용 상대주의의 핵심적인 주장에 대한 세 가지 근거들 중에 하나로, 다음을 언급한다. "내용에 대해서 외재주의자인 몇몇 우리들은 이름들과 자연종 표현들을 포함하는 문장들에 의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인지적으로 접근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미 개입하고 있다."[157] 카펠렌의 이런 주장은,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름과 자연종에

---

156 혹자는 이렇게 화자가 말한 내용이 청자식대로 재해석 되는 경우는 자연종 등을 포함하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특정 언어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일상적인 개개인은 특정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런 점에서 "아는 만큼 이해된다."는 것이 일상 어휘에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다. 대화 도중에 해당 어휘가 특별히 문제시 되는 상황들-예를 들어,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두 당사자가 특정 개념을 서로 확연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화자가 말한 내용이 청자가 이해하는 내용과 정확히 같은지의 여부는 서로에 의해서 일일이 지적되지 않는다.

157 이외에도 카펠렌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시간이 몇 시인지, 누구에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여기', '지금', '당신'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표현의 특성(character)만을 알고 내용(content)을 모르더라도, 화자는 이들 표현들을 보통 사용한다는 것이다.

대한 내용 외재주의를 따른다면, 우리는 화자가 인지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가 때때로 주장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정자(해석자)에 의한 내용 상대성 논의와 별도로, 화자에게 인지적으로 접근될 수 없는 내용을 화자가 주장한다는 사실은 이미 주류 철학 이론에서 포섭되고 있다.

그러면 청자가 재해석하여 이해하는 내용과 내용 외재주의에 대한 카펠렌의 논의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나는 청자에 의해 재해석되는 내용의 존재가 내용 외재주의와 관련된 사회-언어적 사실들–예를 들어서, 퍼트남(Putnam)의 언어적 노동의 분업(the division of linguistic labor) 논의와 관련된 사실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화자는 자신의 발화가 청자의 방식대로 어느 정도 재해석되어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언어적 노동이 분업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인지적으로 접근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를 갖는 어떤 전문 용어를 포함하는 문장들을 주저함 없이 발화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사실 티타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회에서 통용되어 이해될 때 공적인 의미로 재해석되어 이해될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필자가 티타늄을 다른 물질과 시각적으로 구별해 낼 수 없고, 또한 '티타늄'이라는 용어를 전문가적으로 정의할 수 없음에도 불과하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사용한다.

이제 다시, 청자의 입장에서의 내용에 대한 본래의 논의로 되돌아가 보자. '청자의 입장에서 청자의 방식대로 청자에게 이해된 내용' 이외에 청자의 입장에서 다른 내용 후보는 없는 것인가? 나는 '화자가 말한 바를 귀속자인 청자의 방식대로 재해석해서 이해하는 것으로서의 내용' 이외에도, 청자가 화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화자가 의도했다고 그가 생각하는 바로서의 내용을, 청자의 입장에서의 또 하나의 내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의학지식이 장티푸스를 진단할 정도로 높지는 않았다고 가정해본다면, 석판에 적힌 문장을 통해서 화자가 의도했던 바는 분명히 <람세스 II세는 장티푸스 때문에 죽었다>는 아닐 것이다. 고대인은 장티푸스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설령 의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지칭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청자인 오늘날의 우리는 이런 사정들을 감안해 볼 수 있으며, 화자인 고대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의도했다고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볼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청자의 입장에서 화자를 최대한 고려하면서 청자에게 이해되는 내용'으로 부를 수 있다.

> [**청자의 입장에서 화자를 최대한 고려하면서 청자에게 이해되는 내용**] 람세스II세는, 우리가 화자인 고대인의 관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그가 의도했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탕구르'라는 병으로 인해 죽었다.

이렇게 청자의 입장에서 화자를 최대한 고려하면서 청자에게 이해되는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은 루이스(Lewis, 1975)가 우리의 언어가 가능한 이유는 **진실성(truthfulness)과 신뢰(trust)의 규약**이 전제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이 깊다. 만약에 화자가 가능한 한 참을 얘기하려고 하고 청자가 화자의 말을 가능한 한 신뢰하려고 한다는 것과 관련된 그런 규약이 없다면 언어 현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자는 자신의 기준만을 고집하지 않고서 화자의 입장에 동조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158]

한편, 이상에서 살펴본 청자의 입장에서 이해될 수 있는 두 내용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양자는 단지 강조하는 측면이 다를 뿐이다. 한 내용은 귀속자인 청자 자신의 기준이 좀 더 강조되며, 다른 내용은 피귀속자인 화자의 기준이 좀 더 강조된다.

다음으로, 우리는 청자의 입장에서 이해된 바가 아닌, **화자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화자가 의도한 바로서의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대 이집트인 A가 석판에 글을 새길 때, 후세에 그것을 발견할 모든 대상을 염두에 둘 수는 없다. 탕구르가 후세에 어떤 다른 병으로 인식될 것인가의 문제와 별개로, 발화하는 그 시점의 지식상태에만 기반을 두어 화자가 의미하는 바로서의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이때는 앞선 청자의 입장에서 고려된 내용과 달리, 화자가 곧 귀속자가 될 것이다. '화자의 입장에서 화자의 기준으로 화자가 의도하는 내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자의 입장에서 화자의 기준으로 화자가 의도하는 내용**] 람세스 II세는 당시(고대)의 화자 그 자신의 기준에 따른 '탕구르'라는 병 때문에 죽었다.

---

158 이와 관련된 내용은 강진호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셨다. 이에 대해서 깊이 감사 드린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런 화자가 의도한 바로서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추정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포착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탕구르 상황에 따르면, 화자인 고대인과 청자인 현대인은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없으므로, 우리는 고대의 화자 그 자신의 기준에 따른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6.2.2. 판단자와 판단-귀속자 패러미터의 구분

그런데 이상의 탕구르에 대한 논의를 되짚어 볼 때, 우리는 어떤 특정 어휘들의 경우에 그것을 포함한 문장의 내용과 관련하여, 어휘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해당 사람과 그 기준을 해당자에게 귀속시키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조금 후에 다루어질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적합한 양상 패러미터를 결정하는 문제와 깊은 연관을 지니기 때문에 잠시 이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자.

청자의 입장에서 청자의 방식대로 청자에게 이해된 내용과 화자의 입장에서 화자의 기준으로 화자가 의도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청자의 입장에서 화자를 최대한 고려하면서 청자에게 이해되는 내용의 경우에, 용어의 기준이 되는 해당자는 고대인 A인 반면에, 그 용어를 A에게 귀속시키는 사람은 현대인 B가 되어 양자는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된다. 나는 용어의 기준이 되는 해당자 혹은 판단 해당자에 '**판단자(judge)**'라는 명칭을, 그리고 용어를 귀속시키는 사람 혹은 판단자를 결정하는 사람에 '**판단-귀속자(judgment attributor)**'라는 명칭을 부여하도록 하겠다. 인식적 양상을 중심으로 판단자와 판단-귀속자를 설명하자면, 판단자는 가능성/필연성을 판단하는 사람 혹은 인식적 가능성/필연성의 기준이 되는 사람을 의미(이런 점에서 '양상-판단자'라는 용어가 더욱 적절할 것이다)하며, 판단-귀속자는 인식적 가능성/필연성을 판단자에게 귀속시키는 사람에 해당한다.

먼저, 판단자에 대해서 말해보자. 나는 관점투영적 상대주의를 옹호하는 이후의 논의에서 1부부터 5장까지 사용되었던 화자, 판정자라는 패러미터 대신에 되도록이면 판단자라는 패러미터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 **왜 갑자기 화자, 판정자라는 용어 대신에 판단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가?** 그것은 간단히 말해

서 판단자라는 개념이 화자, 판정자라는 개념보다 더욱 포괄적인 개념이며,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하는데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판단자'라는 명칭은 내가 고안한 것이 아니다. 참 상대주의자인 라설손과 스테펀슨은 인식적 양상 및 취향에 대한 그들의 논의에서 판단자라는 개념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판단자는 인식적 양상 및 취향의 기준이 되는 '주제 해당자'이다. 예를 들어서 라설손과 스테펀슨에 따르면, 어떤 사람 K가 강아지의 맛 기준을 염두에 두면서 "새로 나온 개 사료는 맛있다"고 말했을 때, 판단자는 K가 아니라, 강아지가 된다. 그리고 강아지는 화자도 판정자도 아닌 제삼자(혹은 주제자)이다. 비록 (맥팔레인의) 판정자(assessor)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1부에서는 고의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1부에서 다루었던 타자 중심적 용법에서의 적합한 패러미터(버스 사례에서의 수지)를 라설손은 '판단자'라고 부른다.[159] 그러면 맥팔레인이 말하는 판정자와 라설손과 스테펀슨이 말하는 판단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판단자가 '해당 용어의 기준이 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반해서, 판정자는 '해당 주장 내용의 진리값을 판정하는 사람'이다. 앞선 도청의 사례를 상기해 보자. 모리어티가 "홈즈는 나를 잡기 위해 파리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도청자인 왓슨은 부정한다. 이때 왓슨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판단자는 가능성의 기준의 되는 사람, 즉 모리어티이다. 라설손에 따르면, 왓슨의 입장에서 왓슨이 모리어티의 말을 부정하는 것은 인식적 양상과 관련된 타자 중심적 용법이 될 것이다. 반면에 판정자는 모리어티의 입장에서 모리어티 자신이 될 수 있으며, 왓슨의 입장에서 왓슨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들 각자는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진리값 귀속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160]

---

[159] 보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라설손이 취향 술어와 인식적 양상 표현 모두에 대해서 타자 중심적 용법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서, 스테펀슨은 취향 술어에는 타자 중심적 용법이 있지만, 인식적 양상 표현에는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타자 중심적 용법과 관련하여 취향 술어와 인식적 양상을 가리지 않고 공통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라설손과 스테펀슨의 판단자 개념이 아닌 라설손의 판단자 개념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더구나 판단자를 처음 도입한 것은 라설손(2005)이다.

[160] 판정자와 판단자의 차이와 관련하여, 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와 라설손-스테펀슨의 참 상대주의의 중대한 차이점은 후자는 화자의 원래 문장이 평가상황의 시간에서 판단자의 지식에 관해 항상 평가(판단)된다는 제한 조건을 갖는다는 것이다. "홈즈는 나를 잡기 위해서 파리에 있을 수 있다"는 모리어티의 발화문장은 (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가 예견하는 바와 같이 왓슨이라는 판정자에 의해서 진리값이

결국 판단자 개념이 타자 중심적 용법에 보다 적합하다는 점, 그리고 판단자 개념을 사용한다면 화자, 청자, 제삼자 등을 한꺼번에 다루기 용이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나는 화자, 판정자라는 개념 대신에 (라설손과 스테펀슨이 사용하는) '판단자'라는 개념을 앞으로 되도록이면 사용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판단-귀속자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판단자 결정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서, "철수는 참치 회가 영희에게 맛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문장을 고려해 보자. 이 문장에서 맛의 기준이 되는 해당자, 즉 판단자는 영희이지만, 영희에게 맛을 귀속시키는 사람은 철수이다. 나는 이렇게 (철수와 같이) 판단자를 결정하는 사람을 '판단-귀속자'라고 부른다.[161] 그런데 참치 회와 관련된 방금 전의 예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이 문장에서 **취향과 관련해서**, 취향의 기준이 되는 해당자, 즉 판단자인 영희와 영희에게 맛을 귀속시키는 사람인 철수가 구분이 되는 반면에, **'~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에 대한 기준 해당자, 즉 판단자'와 '판단자 결정자인 판단-귀속자'는 모두 철수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예에 국한하여 생각할 때, 취향과 관련해서는 판단자와 판단-귀속자의 구분이 존재하지만, 인식적 양상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 인식적 양상과 관련하여 판단자와 판단-귀속자가 구분되는 예는 앞으로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제시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자와 판단-귀속자의 구분이 때때로 가능하다는 나의 주장은 그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판단-귀속자가 보는 스스로의 관점과 판단-귀속자가 보는 타인의 관점이 때때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화자 A가 말하고, 청자 B가 듣는 상황에서, A가 A를 판단자로 규정하면서 말을 한다면 A가 말하는 것은, A의 입장에서 '판단자와 판단-귀속자가 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이 되며, 청자B가 B자신을 판단자로 규정하면서 A의 말을 이해한다면 B가 이해하는 것은, B의 입장

판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리어티가 발화를 한 시간에서 모리어티(판단자)의 지식에 의해서 항상 판단된다.

161 철수가 말한 '영철은 영희가 외계인이라고 믿는다'라는 문장에 대해서 '영희는 외계인이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영철이고 영철에게 이런 믿음을 귀속시키는 사람은 철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믿음의 해당 주체와 믿음 귀속자가 구분될 수 있는 것처럼, 판단 해당자와 판단-귀속자는 구분될 수 있다.

에서 **‘판단자와 판단-귀속자가 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이 된다. 반면에 청자B가 A를 판단자로 규정하면서 A의 말을 이해한다면 B가 이해하는 것은, B의 입장에서, **‘판단자와 판단-귀속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이 된다.[162]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자. 개의 주인이 “개 먹이가 개에게 맛있다”고 말할 때, 맛있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개이다. 즉 개가 판단자가 된다. 하지만 맛있음과 개를 연관시키는 것은 주인이므로 판단-귀속자는 주인이다. 여기서 판단-귀속자인 주인은 투영자가 되고, 판단자인 개는 피투영자, 즉 피귀속자가 된다.[163, 164]

그런데 판단-귀속자와 판단자가 일치하는/불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 구분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지 않은 몇몇 구분들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판단-귀속자/판단자의 성격이 보다 분명히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앞선 1부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맥락주의/상대주의의 화자/판정자와 판단-귀속자/판단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또한 드러날 것이다.

---

[162] ‘화자/청자(및 제 삼자)’와 ‘판단-귀속자/피 판단-귀속자(판단자)’는 구분된다. A가 말하고, B가 이것을 듣고 있을 때, 화자와 청자는 한 사람들로 각각 고정되지만, 판단-귀속자와 피 판단-귀속자는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상대적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화자가 아닌 청자인 B도 그 자신의 입장에서는 판단-귀속자가 또한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마도 제 삼자는 판단-귀속자가 될 수 없는 것 같다.

[163] 한편 판단자와 판단-귀속자의 구분 및 이들의 일치 여부와 관련된 나의 주장은 앞선 상대주의에 대한 나의 반론 및 몇몇 앞부분의 논의들에서 비록 명시적이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그 내용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런 구분은 내용 귀속 및 지칭의 결정, 그리고 말해진 것과 이해되는 것 사이의 차이 등과 관련이 된다.

[164] 나의 이런 주장을 라설손의 주장과 대조해 보자. 라설손에 따르면, 우리 자신(our own)이 판단자일 때 우리가 화자, 청자, 제삼자인지와 상관없이, 판단자에 대한 용법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되며, 타자가 판단자일 때, 그것은 타자 중심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개사료 예’의 경우에 화자인 사람 자신이 판단자인 개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타자 중심적 용법과 관련된다.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판단자와 판단-귀속자가 같으면 자기-중심적이고, 다르면, 타자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대답하기 위해서 의문문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너에 따르면) P일 수(도) 있는가?”라는 문장의 내용과 관련하여 판단자는 ‘너’이다. 그러면 이 경우에 판단-귀속자 또한 ‘너’인가? 우리는 이 문자의 내용에 대한 적합한 양상토대로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i) 내가 아는 너 (ii) 네가 아는 너 (iii) 너. 이중에서, (ii)와 (iii)의 경우에 판단-귀속자는 ‘너’가 된다. 즉, (ii)와 (iii)의 경우에는 판단자와 판단-귀속자가 일치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닌 것 같다. 따라서 판단자와 판단-귀속자가 같으면 자기-중심적이고, 다르면 타자 중심적이라는 원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혹자는 판단-귀속자와 판단자가 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을 1인칭적 내용으로, 그리고 판단-귀속자와 판단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을 3인칭적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감초는 나의 기준에 따르면 맛있다”와 같이, 우연히 1인칭적이면서, 판단-귀속자와 판단자가 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이해는 올바르지 않다. 1인칭적 내용은 판단자와 판단-귀속자의 구분과 관계가 없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을 고려해 보자. “감초는 그가 귀속시키는 그의 기준에 따르면 맛있다.” 이 문장의 내용은 3인칭적이면서, 동시에 판단-귀속자와 판단자가 일치한다. 따라서 판단-귀속자와 판단자가 일치하는/불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 구분과 1인칭적/3인칭적 내용 구분은 구별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화자 중심주의적인 맥락주의와 판정자(및 판단자) 중심적인 상대주의를 ‘판단-귀속자와 판단자가 일치하는/불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과 연관지어 생각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 ‘판단-귀속자와 판단자가 일치하는/불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 논의는 맥락주의/상대주의 논의를 벗어난, 내용 일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논의이며, 더욱이 그것은 화자 혹은 판정자 어느 하나만을 변항으로 고려하는 기존의 맥락주의/상대주의 이론들과는 차이가 있다. 비단 판단-귀속자와 판단자의 일치 여부를 떠나서, 판단-귀속자와 판단자라는 범주는 기존의 맥락주의와 상대주의가 말하는 화자, 판정자 범주보다 더 세련된 범주라고 나는 생각한다. 맥락주의가 화자만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주의가 화자와 청자 모두가 될 수 있는 판정자(판단자)를 도입했다면, 나의 주장은 이를 화자, 청자 각각이 (그대로 혹은 거꾸로) 대응 될 수 있는 판단자와 판단-귀속자라는 범주를 추가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판단-귀속자와 판단자가 일치하는/불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 구분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의 이론들에 대한 반론들을 재해석할 수 있다. 맥팔레인의 판정자는 ‘판단자와 판단-귀속자가 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과 연관된다. 그리고 맥팔레인의 판정자 상대주의는 (앞서 4.3.1에서 타자 중심적 용법과 관련된 반론에서 살펴보았듯이) 판단-귀속자와 판단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반면에 맥락주의가 한계를 갖고 있는 도청 논증의 경우는 ‘판단-귀속자와 판단자가 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

과 관련이 있다. 모리어티가 말하고 왓슨과 홈즈가 이것을 도청할 때, 왓슨의 입장에서 초점이 되는 해당자인 판단자와 판단자 결정자인 판단-귀속자는 일치한다.

결국 간단히 정리하자면, 맥락주의는 판단-귀속자와 판단자가 일치하는 어떤 경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취약하며, 상대주의는 판단-귀속자와 판단자가 일치하지 않는 어떤 경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계를 지닌다.

6.2.3. 다양한 패러미터 및 그에 따른 내용들에 대한 정리

이제 다시 람세스 II세에 대한 논의로 되돌아와 보자. 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은 판단-귀속자/판단자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앞서 화자, 청자의 입장에 따른 다양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명칭으로 재규정될 수 있다. <람세스 II세는 장티푸스 때문에 죽었다>와 같은, 청자의 입장에서 청자의 방식대로 청자에게 이해된 내용은, 화자가 피귀속자이고, 청자는 판단-귀속자인 동시에 판단자라는 점에서, '청자인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와 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청자의 입장에서의 내용'이라고 또한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람세스 II세는 고대의 화자 그 자신의 기준에 따른 '탕구르'라는 병 때문에 죽었다>와 같은, 화자의 입장에서 화자의 기준으로 화자가 의도하는 내용은, 판단-귀속자와 판단자가 화자로 일치하지만 그것이 화자 자신의 의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화자인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와 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화자의 입장에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람세스 II세는, 우리가 화자인 고대인의 관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그가 의도했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탕구르'라는 병으로 인해 죽었다>와 같은, 청자의 입장에서 화자를 최대한 고려하면서 청자에게 이해되는 내용은, 화자가 피귀속자이면서 판단자이고, 청자는 판단-귀속자가 되기 때문에, '청자인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와 불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청자의 입장에서의 내용'으로 부를 수 있다.

한편, 여기서 혹자는 이상의 화자/청자 및 판단-귀속자/판단자와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화자인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와 불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화자의 입장에서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즉, 화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하면서 판단-귀속자인 화자와 피귀속자인 판단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가? 비록 앞서 인용한 탕구르 사례에는 '화자인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와 불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화자의 입장에서의 내용'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 나는 이 내용 역시 우리의 논리적 이론 선택지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개먹이 예에서 주인인 화자의 입장에서 판단자인 개에게 맛 기준을 귀속시킬 때, 즉 "개 사료는 우리 초복이에게 맛있다"고 주인이 발화한 경우에, 그 내용은 '화자인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와 불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화자의 입장에서의 내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의 연장에서 우리는 화자 및 청자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제삼자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삼자인 그가 귀속시키는 그에 대한 것은 '제삼자인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와 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제삼자의 입장에서의 내용'으로, 제삼자인 그가 귀속시키는 타자에 대한 것은 '제삼자인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와 불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제삼자의 입장에서의 내용'으로 부를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화자, 청자, 제삼자의 입장 구분과 판단-귀속자 및 판단자의 일치 여부에 따른 다양한 패러미터 혹은 내용들**]

* 화자의 입장에서의 패러미터 혹은 내용
(i) 화자인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와 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화자의 입장에서의 패러미터 혹은 내용
(ii) 화자인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와 불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화자의 입장에서의 패러미터 혹은 내용
* 청자(해석자)의 입장에서의 패러미터 혹은 내용
(i) 청자인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와 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청자의 입장에서의 패러미터 혹은 내용
(ii) 청자인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와 불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청자의 입장에서의 패러미터 혹은 내용
* 제삼자의 입장에서의 패러미터 혹은 내용
(i) 제삼자인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와 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제삼자의 입장에서의 패러미터 혹은 내용
(ii) 제삼자인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와 불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제삼자의 입장에서의 패러미터 혹은 내용

이와 같이 다양한 패러미터 및 내용과 관련하여, 화자, 청자, 제삼자의 입장 구분과 판단자와 판단-귀속자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것들이 구분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양상 패러미터와 관련된 이후의 논의들과 연관하여, 화자 및 판정자만을 적합한 패러미터의 범주에 포함했던 기존의 맥락주의 및 상대주의 이론들이 명백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틀은 새로운 틀로 대체되어야 한다. 끝으로, 나의 주장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탕구르 사례와 관련된 논의는 매우 특수한 것으로, 모든 일상적 대화상황에 적용될 필요는 없다. 탕구르와 달리, 보통은 화자와 청자가 마주해서 서로 자신의 발언들을 교환하는 것이 일상적인 대화 상황이다. 따라서 화자가 의도한 바로서의 내용과 청자가 이해한 바로서의 내용의 구분 및 판단자와 판단-귀속자가 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의 구분도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필자는 언제나 이런 구분들이 두드러진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둘째, 혹자는 내가 탕구르와 같이 화자의 말이 청자에게 보다 분명히 전달되지 못하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근거로 하여 청자의 입장에서의 내용 및 판단자/판단-귀속자 구분을 옹호하고 있다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 내가 탕구르 예를 통해서 이를 논증한 것은 보다 선명하게 논점을 드러내기 위한 극적인 수단일 뿐, 해당 예와 같이 매우 제한된 경우를 통해서만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이 근거 지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셋째, 판단자와 판단-귀속자기 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의 구분은 내용의 두께문제 및 양상 패러미터의 본성문제에 대한 논의와 원칙적으로는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이 구분은 내용 및 내용 귀속에 보다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겠지만, 이런 구분은 패러미터의 본성문제와 관련된 해법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끝으로 내가 비록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기는 했지만, ‘화자, 청자, 제삼자’ 및 ‘판단자, 귀속자’의 구분은 반드시 내용과만 관련될 필요는 없다. 탕구르 사례는 주로 ‘탕구르’, ‘장티푸스’ 등의 고유명사(=고정지시어)가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중립적인 내용이 패러미터 상대적으로 그 진리값이 평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지만, 다른 표현들이 사용된 문장들을 통해서는 내용 다양성뿐만이 아니라 참 다양성이 보다 쉽게 드러날 수 있다.

6.3. 관점투영적 양상 패러미터 ≪Y⇒X≫의 도입

그러면 이상에서 살펴본 판단자와 판단-귀속자기 일치하는/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된 패러미터 및 내용의 구분을 우리가 양상 패러미터의 본성문제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을까? 즉, '탕구르'와 같은 용어에 대해서 판단자와 판단-귀속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었듯이, '~일 수(도) 있다'와 같은 인식적 양상 표현에도 그 구분을 또한 적용할 수 있을까? 필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판단-귀속자가 보는 판단자의 인식적 가능성을 판단-귀속자와 판단자가 일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역시 나누어 볼 수 있다.[165] 하지만 이렇게 판단자와 판단-귀속자기 일치하는/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된 패러미터 및 내용의 구분이 인식적 양상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필자가 앞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중간단계의 결론, 즉 판단자 이외에 판단-귀속자가 양상 패러미터에 추가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지는 않다. 엄밀히 말해서, 해당 어휘를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 판단자와 판단-귀속자가 일치하는/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된 패러미터 및 내용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판단자와 판단-귀속자가 이미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미리 가정하는 것이며, 판단자 이외의 어떤 요소가 양상 패러미터에 추가되어야 함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이곳 6.3절에서 양상 패러미터에 판단자 이외에 판단-귀속자가 추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는 논의의 편리함을 위해서 판단-귀속자 Y가 귀속시키는 판단자 X를 ≪Y⇒X≫라고 표기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관점투영적 양상 패러미터**(perspective-projective modal parameter)'라고 부르겠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경우에 판단자 이외에 판단-귀속자가 필요한가? 혹은 어떤 경우에 적합한 패러미터 및 내용이 판단-귀속자Y가 귀속시키는 판단자X를 양상 패러미터로 삼는 것일 수 있는가? 나는 **적어도** 다음의 4가지의 경우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4가지 경우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어떤 점에서 부분적으로 중첩된다. 그리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판단자'와 '판단

[165] 앞선 탕구르의 예를, "람세스 II세가 죽은 원인은 탕구르일 수(도) 있다"는 문장과 같이 인식적 양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바꾸어 재조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탕구르가 아니라, '~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될 것이다.

-귀속자가 귀속시키는 판단자(≪판단-귀속자⟹판단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직관에 의존한다.

1) 확장된 타자 중심적(exo-centric) 용법
2)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의 정보상태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경우
3) 판단자인 화자의 의도가 판단-귀속자인 청자에 의해서 더 잘 파악이 되는 경우
4) 판단-귀속자가 판단자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근본적인 방법론적 한계[166]

한편, 위의 경우들에 대한 논의는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발화 문장에 판단자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문장조차 그것의 실질적 패러미터 및 내용은 판단자 이외의 판단-귀속자를 양상 패러미터로 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이 경우들은 양상 패러미터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X에 따르면, P일 수(도) 있다"라는 발화 문장의 내용이 때로는 <Y가 귀속시키는 X에 따르면, P일 수(도) 있다>가 된다는 것 혹은 내용은 <X에 따르면, P일 수(도) 있다>이지만 이것의 진리값이 ≪Y가 귀속시키는 X≫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잠시 부언설명을 해보자.

지금까지 인식적 양상에 대한 표준적인 논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P일 수(도) 있다"와 같은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이런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의 내용이 두꺼운 내용인지 혹은 얇은 내용인지 그리고 만약 두꺼운 내용이라면, 내용 안에 포함된 양상 패러미터를 어떤 값으로 하면서 그것[두꺼운 내용]이 절대적인 참을 갖는지 혹은 만약 얇은 내용이라면 양상 패러미터를 어떤 값으로 하면서 그것[얇은 내용]이 상대적인 참을 갖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런 연구 경향성 속에는 "X에 따르면, P일 수(도) 있다"와 같이 단순 인식적 양상이 아닌 인식적 문장의 경우에 그것의 내용은 단순히 <X에 따르면, P일 수(도) 있다> 그대로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즉, 암묵적 상대화

[166] 기타, 양상 문장의 내용에 대하여 판단자가 귀속시키는 바를 판단-귀속자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지만 혹은 그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만, 판단-귀속자가 보는 판단자에 따르면 해당 양상 내용이 적절한 경우 (예: 너(판단자)에 따르면 P일 수 없지만, 내(판단-귀속자)가 보는 너(판단자)에 따르면 P일 수(도) 있다)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implicit relativization)의 경우와 달리, 명시적 상대화(explicit relativization)의 경우에는 흥미로운 논쟁거리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대부분 전제해 왔다.

하지만 내가 앞으로 주장하는 바에서 드러나게 될 것과 같이, 심지어 명시적 상대화를 나타내는 “might≪X≫(P)”와 같은 문장이 발화된 경우에도,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그것의 내용이 <might≪X≫(P)> 그대로가 아닌, <might≪[W⟹(Y⟹X)]’s K≫(P)>가 될 수 있다. (혹은 내용은 <might≪X≫(P)>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W⟹(Y⟹X)]’s K≫에 상대적으로 진리값을 가질 수 있다.) 두꺼운 내용주의(표준적 맥락주의 및 내용 상대주의)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발화된 문장 “might(P)”의 내용이 (발화 혹은 판정)맥락에 따라, <might≪X≫(P)>일 수 있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발화된 문장 “might≪X≫(P)”의 내용이 맥락에 따라서, <might≪(B⟹A)’s K≫(P)> 등이 될 수 있다(혹은 얇은 내용주의(비지표적 맥락주의 및 참 상대주의)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발화된 문장 “might(P)”의 내용이 맥락과 상관없이 <might(P)>이면서 패러미터 X에 상대적으로 진리값을 가질 수 있었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발화된 문장 “might≪X≫(P)”의 내용이 맥락과 상관없이 <might≪X≫(P)>이면서 패러미터 (B⟹A)’s K에 상대적으로 진리값을 가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후자가 성립하는 사례들의 범위를 나는 과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우 희소하다고 하더라도, 없는 것과는 분명 다르다.

덧붙여서, 나는 1)에서 4)의 경우 이외에, 다음의 (가), (나), (다)의 경우에도 양상 패러미터는 ≪Y⟹X≫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가)~(다)와 1)~4)의 차이는 1)~4)의 경우들과는 달리, 아래의 (가), (나), (다)의 경우들은 단순 인식적 양상이 아닌 경우에만 그것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가)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의 기준에 대한 판단-귀속자 자신의 새로운 관점 및 해석을 강조하는 경우

(나)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적으로 책임 전가시키고 싶지는 않은 경우

(다) “C가 생각하는 B가 귀속시키는 A에 따르면, P일 수(도) 있어”라고 발화가 이루어졌지만, 여기서 C가 생각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양상 패러미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러면, 이것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6.3.1. 확장된 타자 중심적 용법

앞서 3장에서 맥락주의에 대한 상대주의의 반론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언급되었던 타자 중심적(exo-centric) 용법에 대한 논의를 상기해 보도록 하자. 이것은 조금만 수정한다면 우리가 관점투영적 양상 패러미터를 필요로 하는 근거가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타자 중심적 용법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 나타나는 인식적 양상의 용법이었다.

> [**버스**] 철수는 버스로 출퇴근을 한다. 철수의 딸 수지는, 어느 날 퇴근 시간에 아빠를 놀래 켜 주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 근처의 수풀에 몰래 숨어있다. 그런데 사실 철수는 예정보다 일찍 퇴근을 했고, 수지가 수풀에 숨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철수는 곧바로 수지에게 다가가지 않고서 버스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뒤쪽에서, 아내 경희를 만나 그녀와 함께 (숨어있는) 수지를 바라보며 수지에 대해서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때 버스가 도착했고, 철수는 그 버스를 가리키면서 "**나는 저 버스에 타고 있을 수(도) 있어**"라고 옆에 있는 경희에게 말한다.
>
> (Egan, Hawthorne & Weatherson, 2005, p. 10의 내용을 필자가 각색)

여기서 해당 인식적 양상 문장에서 작동하는 증거는 화자이자 판정자인 나의 증거가 아니라, 화제의 중심이 되는 수지의 지식이었다. 따라서 기존의 맥락주의는 이런 용법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졌다.[167] 그런데 이런 타자 중심적 용법에 의한 논증은 다음의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확장될 수 있다. 나는 이와 관련된 논증을 '확장된 타자 중심적 용법에 의한 논증'이라고 부를 것이다.

> [**버스 II**] 앞서 버스 사례와 유사하지만, 한 가지 반전이 있다. 사실 수지는 철수가 버스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철수를 이중으로 속이기 위해서,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있다. 수지는 아빠가 다가오면 갑자기 뒤돌아서서 놀래 켜 줄 속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배경을 (철수의 말을 듣고 있는 아내) 경희는 알고 있다.

---

[167] 한편, 라설손-스테펀슨의 참 상대주의는 그것이 타자 중심적 용법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이 용법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갖지는 않는다. 다만 스테펀슨의 경우에는 그녀가 취향술어에 대해서는 타자 중심적 용법을 인정하지만, 인식적 양상에 대해서는 타자 중심적 용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식적 양상과 관련해서는 그녀 역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저 버스에 타고 있을 수(도) 있어'라는 철수의 발화 문장은 어떤 양상 패러미터와 연관되는가? 이 경우에, 맥락주의의 예견과 달리 해당 인식적 양상 문장에서 작동하는 증거가 화자 철수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인식적 가능성의 주체는 철수가 아니다.) 그러면 (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는 이와 관련하여 올바른가? 화자인 철수의 입장에서 판정자는 철수 자신이다. 따라서 철수의 입장에서 상대주의가 예견하는 바는 맥락주의가 예견하는 바와 일치한다. 그리고 청자인 경희의 입장에서, 판정자는 경희 자신으로 화자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맥락주의와 상대주의의 주장이 경희의 이해와 관련하여 차이를 보이지만, 그녀만의 지식상태가 철수가 발화한 문장의 의미 및 진리값을 결정하는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판정자 중심의 상대주의(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도 이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168]

이렇게 화자와 판정자의 지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남은 대안은 화제의 중심이 되는 수지의 지식이다. 수지의 지식상태가 관련이 되는가? 철수의 입장에서, 즉, 수지가 철수를 이중으로 속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입장에서, 철수가 발화한 문장에 대한 적합한 양상 패러미터는 <수지의 지식상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철수는 화자이면서 그 자신의 입장에서 판정자가 되는 반면에, 수지는 인식적 가능성의 기준이 되는 사람, 즉 (가능성) 판단자가 된다. 따라서 철수의 입장에서 해당 문장에 대한 적합한 패러미터는 판단자인 수지만을 포함하는 것이어도 충분하다. 이상은 수정되기 이전의 '버스' 사례뿐만이 아니라, 변형이 가해진 '버스II' 사례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는 옆의 청자 경희의 입장에서 그녀가 이해하는 것(혹은 진리값을 귀속시키는 것)은 어떤 패러미터와 연관되는가? 이 경우에도 <수지의 지식상태>일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나는 반드시 그렇지 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청자인 경희는 실제로 철수가 버스에 없다는 것을 수지 본인이 안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희의 입장에서 그녀가 이해하는 것(또는 진리값을 귀속시키는 것)과 연관된 패러미터는 (청자인 그녀가 화자인 철수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게 될 때), **<철수가 귀속시키는 수지의 지식상태>**

[168] 나는 여기서 모든 종류의 참 상대주의가 타자 중심적 용법과 관련하여 한계를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그녀 자신의 입장에서 철수가 말한 것은 거짓이지만, 화자인 철수의 입장에 서서 경희가 그의 말을 이해했을 때(혹은 진리값을 귀속시킬 때) 철수가 말한 것은 참이 된다. (즉, 경희가 패러미터를 '경희' 자신으로 간주할 때 철수의 말은 거짓이지만, 경희가 패러미터를 '철수가 귀속시키는 수지'로 간주할 때 철수의 말은 참이 된다.) 참고적으로 경희가 가능성의 판단자인 수지를 기준으로(수지를 염두에 두면서) 생각할 때, 철수가 말한 것은 '수지'에 따라서도 그리고 '경희가 귀속시키는 수지'에 따라서도 거짓이 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같은 수지라는 판단자가 상정되지만 철수의 관점과 경희의 관점에 따라서 철수가 한 말의 진리값이 각각 참과 거짓으로 나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진리값의 차이는 판단자만으로는 포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상을 통해서 볼 때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화자가 적절한 패러미터로 삼는 바와 청자가 적절한 패러미터로 삼는 바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순히 판단자라는 단독의 주체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사례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 결국, 이런 복잡한 특수 사례를 올바르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판단자(수지)만으로는 부족하며 판단자를 결정하는 사람, 즉 판단-귀속자(철수 혹은 경희)가 판단자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혹자는 이상의 나의 설명이 '판단-귀속자가 귀속하는 판단자'와 같은 관점투영적 패러미터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반대할 수 있다. 새로운 요소 도입의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반론은 어느 정도 유효하다. 나의 논증은 '반드시'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는 아니다'고 말할 때 주장하는 바가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앞서 내가 주장한 다원주의, 즉 어떤 경우에는 다양한 패러미터 및 내용(혹은 참)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주장과 연관된 유연성에 근거하여, 항상 관점투영 패러미터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경희가 철수가 한 말을 ≪철수가 보는 수지≫를 기준으로 참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것(혹은 ≪경희가 보는 수지≫를 기준으로 거짓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타당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매우 특수한 경우에 관점투영적 패러미터는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확장된 타자 중심적 용법이 관점투영적 양상 패러미터를 필요로 하는

근간이 된다고 할 때, 앞서 타자 중심적 용법의 하위 논증으로 내가 분류한 핀텔과 길리스의 마스터마인드 사례 또한 확장된 타자 중심적 용법에 대한 논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마스터마인드 사례를 다시 상기해 보자.

> **[마스터마인드]** 준호와 그의 친구 명준은 추측과 답변을 통해서 상대방의 패를 알아맞히는 게임, 즉 마스터마인드 게임을 하고 있다. 준호가 명준에게 힌트를 주기 시작했다. "두 개의 레드가 있을 수 있어"라는 명준의 말에 준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
> 준호: "그것은 맞아. 그럴 수 있어." (Fintel& Gilles, 2008, p .83에서 필자가 각색)

앞서 우리는 준호가 두 개의 레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즉, 반드시 화자는 자신의 정보상태를 바탕으로 하는 가능성 발언만을 할 필요는 없다. 준호가 "그것은 맞아. 그럴 수 있어"라는 발화를 통해서 의도하는 것은 <명준에 따르면, 두 개의 레드가 있는 것이 가능하다>이다. (혹은 준호가 명준이 말했다고 이해하는 내용은 <두 개의 레드가 있는 것이 가능하다>이지만 이것은 명준에 상대적으로 참이다.) 그런데 이런 마스터마인드 게임 상황에서, 과연 준호의 발언에 대한 적합한 양상 패러미터는 ≪명준(판단자)≫뿐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판단자 이외에 판단-귀속자가 때로 필요할 수 있다는 현재의 주장 경향을 반영하여 생각해 보았을 때, 준호의 발화에서 양상 패러미터는 ≪준호(판단-귀속자)⟹명준(판단자)≫ 또한 될 수 있다. 준호가 말하는 내용은 <(적어도) 내가 아는 너에 따르면, 그럴 수 있다>(혹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아는 너에 따르면 참이다.)는 것이다. 비록 마스터마인드 사례가 판단자 이외에 판단-귀속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기술은 ≪준호(판단-귀속자)⟹명준(판단자)≫과 같은 관점투영적 양상 패러미터를 고려하는 것에 대한 것임은 분명하다.[169] 따라서 어떤 사태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우선

[169] 한편, 어떤 사람은 마스터 마인드 사례를 약간 변형한다면, 다음과 같은 대안적인 해석을 허락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변형된 예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본문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명준의 발화에 대해서 준호가 추가적으로 대답하는 상황이 아니라, 명준이 준호에게 "두 개의 레드가 있을 수 있어?"와 같이, 보다 적극적으로 준호의 의

시 되는 상황에서 적합한 패러미터는 관점투영적인 것이 때로 될 수도 있다.

한편, 확장된 타자 중심적 용법과 관련된 예는 '버스II' 사례와 '마스터마인드' 사례 이외에도 가능하다. 예들이 늘어날수록 설득력 또한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추가적인 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도록 하자.

[동전 던지기 내기 I] 세 사람 A, B, C가 있어서 내기를 하는 상황이다. 내기의 방법은 '세 사람이 눈가리개를 하고서, 심판인 D가 공중에 던진 동전의 개수를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서 쪽지에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다. A, B, C 세 사람은 이 도박에 엄청난 액수를 걸었기 때문에 모두 신경이 날카롭다. 시합이 시작되었고, 우연의 일치로 공중에 던져진 동전들 중에서 하나가 A의 신발 위에 떨어져 소리를 내지 않게 되었고, 나머지 동전들은 바닥에 떨어져서 10개에 대응하는 소리를 냈다. 따라서 동전문제의 정확한 답은 11개이다. 그런데 A는 착각 혹은 그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해 11개 소리가 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의 발에 놓인 것을 포함하여 12개 동전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B가 "동전의 개수는 11개일 수 있어"라고 말했고, 이를 듣고서 A는 씩 웃으면서 "동전의 개수는 11개일 수 있지"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B는 자신의 말대로 11개를 적었고, A는 자신의 말과 달리 12개를 적어냈다. 심판인 D는 조용히 동전들을 수거하고, B가 승리했음을 선언한다. 따라서 A와 D이외에는 A의 신발 위로 우연히 동전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모른다. 한편 C는 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A와 B가 같은 말을 했는데 B만 승리하다니, 그들이 말한 것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겠군.'

이런 상황에서, A의 말은 (A 자신의 발에 동전이 떨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B의

견을 물어보았고 이에 대해서 준호가 "그럴 수 있어"라고 대답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변형된 경우에 대해서, 혹자는, 준호의 발화 내용이 <명준(너)이 귀속시키는 준호(나)에 따르면, 레드는 두 개일 수 있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용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드러난 정보들을 바탕으로, 너(명준)가 나(준호)에게 귀속시키는 바에 따르면, 두 개의 레드가 있는 것이 가능하다>이기 때문에, 변형된 사례에서 양상 패러미터는 ≪명준⟹준호≫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혹자의 생각은 잘못되었다. 여기서, 그는 <명준이 귀속시키는 준호의 패 정보에 따르면 이러이러하다>는 것과 <명준이 귀속시키는 준호의 지식상태에 따르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혼동하고 있다. 전자는 <명준에 따르면, 준호의 패 정보는 이러이러하다>는 내용과 사실상 그 의미가 동일하다. 비록 마스터마인드 사례와 유사하면서, 적합한 양상 패러미터를 ≪명준⟹준호≫로 갖는 사례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낼 수 있다고 필자가 생각하지만, 적어도 위의 방식의 예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지식상태에 따르면, 동전의 개수가 11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A의 말을 C가 처음에 이해한 것은 A의 지식상태에 따르면 동전의 개수가 11개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상황은 A, B, C가 눈을 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상대방들의 지식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리고 여기서 A가 B를 염두에 두면서 말하는 것은 (마스터마인드와 비슷하게) 타자 중심적 용법에 해당한다. A는 상대방(타자)의 지식상태를 염두에 두면서 해당 발화를 한 것이다.

이제 다음의 연결된 사례를 고려해 보자.

> **[동전 던지기 내기 II]** 이전 시합에 연속하여, 2라운드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B는 좀 전과 마찬가지로 "동전의 개수는 11개 일 수 있어" 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C가 씩 웃으면서 "그래, 동전의 개수는 11개일 수 있지"라고 동의한다. 그런데 C의 말투는 아까 A 자신과 비슷하다. 그리고 이번에 A가 들은 소리는 10개였다. 이제 A는 의심을 한다. 자신이 들은 10개의 소리가 맞는데, B가 좀 전의 자신처럼 발등 위에 우연히 동전이 놓여있었나? 아니면, 동전의 개수가 10개라는 자신의 판단이 틀리고, C가 좀 전의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12이 답인가? 이제는 매우 불확실해졌다. 하지만 결국 A는 C의 말투가 신경 쓰여서 우연히도 C의 발 위에 동전이 놓였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C의 발화를 A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처음에 A에게 떠오른 것은 C가 1라운드에서의 자신의 입장과 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때 C의 발화는 B의 지식상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문제의 상황은 훨씬 복잡할 수 있다. 이미 한 번의 우연을 겪은 A의 입장에서는 B와 C 모두의 발 위로 동전이 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큰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의 1라운드에서 돈을 잃었기 때문에 A의 이런 의심은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복잡한 배경들을 머릿속에 담아두면서 A는 C의 발화에 대한 적합한 패러미터를 ≪C⇒B≫, 즉 C가 귀속시키는 B로 삼으면서, 추후의 추론을 계속해 나간다. (C의 입장에서 관련 지식상태는 B라고 할 수 있지만, C의 말을 이해하는 A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B가 아니라, 'C가 귀속시키는 B'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판단자 이외에도 판단-귀속자가 필요해 보이는 경우들은 (앞으로의 논증사례들에서도 부분적으로 드러나겠지만) 도박, 전쟁, 게임, 수읽기 싸움, 죄수

의 딜레마 상황 등 상대방의 복잡한 심리상태를 추측하고, 일어날 사건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들이 많다. 단순히 '나' 혹은 '상대'가 아니라, '상대가 보는 나' 혹은 '내가 보는 상대'를 염두에 두면서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관점투영적 양상 패러미터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6.3.2.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의 정보상태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례를 고려해 보자.

> **[증인]** 일반 가정주부인 정희는 어느날 사회 사상가 막수의 강연을 들었다. 사회, 정치적 배경 지식이 부족했던 정희는 강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막수가 "**대한민국은 전복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을 얼핏 듣는다. 몇 달 후 정희는 한 법정의 증인으로 참석하게 되는데 해당 재판은 국가보안법을 어긴 죄목으로 기소된 막수에 대한 것이었다. 검사는 정희에게 막수가 한 말을 기억해보라고 요구한다. 이에 대해서 정희는 "막수는 대한민국은 전복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대답한다. 정희의 이 발언은 처음에 막수에게 불리한 것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변호사가 정희에게 강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묻고, 정희가 이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게 되자, 정희의 증언 내용의 신뢰도는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다. 결국 막수가 말한 "대한민국은 전복될 수(도) 있다"는 발언은 정희가 처음에 이해한 바 그대로의 내용이 아닌 것처럼 점차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는 재차 정희에게 막수가 정확히 어떤 말을 했으며, 좀 전의 정희의 발언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추궁한다. 이때, 정희는 아까 자신이 한 말은 비록 자신이 막수의 강연을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적지만 <적어도 정희 자신이 이해하는 막수의 말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복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항변한다.

해당 사례에서 대한민국의 전복 가능성과 연관된다고 여겨지는 판단자는 막수이지만, 막수와 전복 가능성을 연결시키는 사람은 정희이다. 그런데 정희는 막수의 정보, 지식상태를 그녀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적다. 검사의 요구에 대해서 정희가 말한 내용은 <막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복될 수 있다>로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서, 막수에 따라

서도 대한민국이 전복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변호사가 추궁하자, 정희는 자신이 어려운 강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절대적인 확신은 못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이해했던 막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복될 수 있다고 강연에서 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판단-귀속자로서의 정희는 판단자인 막수의 정보상태를 확신할 수 없을 때, 자신이 보는 관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즉 <정희⇒막수>를 적절한 패러미터로 삼으면서, 자신의 주장을 올바른 것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의 정보상태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판단자의 실제 정보상태'와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에게 귀속시키는 정보상태'를 다른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도 또한 가능하다. 예전에 상대방 K에 대해서 매우 잘 알아서 K의 지식상태에 따른다면, P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 동안 K를 보지 못하였고, K에 대한 자신의 기억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나머지, <(실제 K에 의하면, P일 수 있는지, 혹은 실제로 K가 P일 가능성을 귀속하는지는 한동안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알았던 K에 의하면 P일 수 있다>고 생각 혹은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예들을 발화의 내용이 (혹은 내용과 관련된 적절한 패러미터가) 판단자만이 아니라 판단-귀속자도 또한 추가적으로 포함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170]

[170] 한편, 여기서 논의되는 자신이 없는 경우가, 앞서 맥팔레인의 참 상대주의에 대한 반론 중에 하나였던, 판정자가 더 조금 아는 경우들, 즉 무지한 판정자 반론과 관련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지한 판정자 반론의 핵심은 판정자가 해당 주체보다 더 무지한 경우에, 우리는 그의 발화가 적절하지 않다는 직관을 갖지만, 유아론적 상대주의에 따르면, 무지한 판정자의 발언이 참이 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지한 판정자 반론이 무지한 판정자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서 발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인 반면에, 여기서의 자신이 없는 경우는 그 반대의 것으로서, 무지자가 자신의 능력을 평가절하하여, (일종의) 겸손을 드러내는 상황의 적절성에 대한 내용이다.

6.3.3. 판단자인 화자의 의도가 판단-귀속자인 청자에 의해서 더 잘 파악이 되는 경우

다음으로, 판단자의 의도가 판단-귀속자에 의해서 더 잘 파악이 되는 경우에, ≪판단-귀속자가 귀속시키는 판단자≫를 적절한 양상 패러미터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보자. 나는 이것을 단순 인식적 양상이 아닌 경우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단순 인식적 양상인 경우는 단순 인식적 양상이 아닌 경우를 약간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따로 다루지는 않겠다.

A가 "나에 따르면, P일 수(도) 있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을 듣는 B는 사실 A보다 더 A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A가 한 말을 마음속으로 부정할 수 있다. B는 마음속으로 '아니야 내가 아는 너에 따르면(너에 따르더라도), P일 수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화자인 판단-귀속자가 판정자와 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화자의 입장에서의 내용'과 관련된 ≪A⟹A≫보다 '청자인 판단-귀속자가 판정자와 불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청자의 입장에서의 내용'과 관련된 ≪B⟹A≫이 상황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것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제대로 된 화자의 입장에서의 내용은 내가 바라보는 나의 기준을 포함하는 것 보다는 남이 바라보는 나의 기준을 포함하는 것일 수 있다. 이때의 내용은 단순히 ≪A≫ 혹은 ≪A⟹A≫만이 아니라, ≪B⟹A≫를 양상 패러미터로 갖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어떤 특수한 경우, 즉 화자의 의도가 화자 자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판단-귀속자인 청자에 의해서 더 잘 파악이 되는 경우에, 설사 판단자가 발화 문장에 명시적으로 언급이 된 상황, 즉 단순 인식적 양상이 아닌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문장의 어떤 내용은 판단-귀속자가 보는 판단자를 양상 패러미터로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상에서 판단자인 화자의 의도가 판단-귀속자인 청자에 의해서 더 잘 파악이 되는 경우에 ≪판단-귀속자가 보는 판단자≫를 양상 패러미터로 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추가적 요소를 도입했을 때, 사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기술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보다 많은 사례들을 단일한 이론 내에 포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나은 설명적 장점이 있다는 점 등에서 판단-귀속자의 추가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6.3.4. 판단-귀속자가 판단자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근본적인 방법론적 한계

화자가 자신의 관점을 명시적으로 발화하지 않았을 경우, 즉 양상 패러미터를 포함하지 않는 문장을 발화한 경우에 청자가 그것을 추측하는 데는 방법론적으로 한계가 있다.[171] 이것은 타인의 마음(other mind)과 관련된 오래된 철학적 문제 중의 하나이다. 맛, 즉 취향과 관련된 예를 끌어들여 보자. 화자가 "감초는 맛있다"고 말할 때 이것을 듣고 있는 사람은 그가 화자의 맛 기준을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엄밀하게 말해서, 정확한 화자의 기준을 고려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앞선 타자 중심적 용법의 경우와 같이 화자가 청자를 판단자로 염두에 두고서 "감초는 (너에게) 맛있다"고 말하는 경우에도, 화자인 판단-귀속자는 청자인 판단자의 입맛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이것은 취향과 같이, 서술하기 어려운 다소 주관적인 기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인식적 양상의 핵심인 지식상태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방법론적 한계가 적용된다. 영희가 "철수는 부산에 있을 수(도) 있어"라고 말한 경우에 이것을 듣고 있는 청자는 대화 맥락의 전후 사정으로 영희의 지식상태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제 삼자인 청자가 매우 세세한 영희의 지식상태에까지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리하자면, 판단-귀속자와 판단자가 다를 때,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에게 귀속시키는 관점과 실제 판단자의 관점이 귀속과 관련된 근본적 방법론적 한계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단순한 판단자의 기준만을 양상 패러미터에 포함하는 것은 사태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되기에 부족하며, 보다 정확한 내용 귀속을 위해서 판단자 이외에 판단-귀속자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판단-귀속자가 귀속시키는 판단자의 기준, 즉 ≪판단-귀속자⟹판단자≫로 양상 패러미터 혹은 취향 패러미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172] 다음의 보다 구체적인 예를 고려해 보자.

---

[171] 또한 화자가 관점을 포함하는 문장을 발화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발화된 문장의 내용이 화자가 의도한 내용의 전부가 아닌 경우가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전체 내용을 청자가 파악하는 데에는 원리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물론, 청자가 화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되물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172] 혹자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마음과 관련된 방법론적 한계에 대한 논의가 이전에 언급된 확장된 타자 중심적 (exo-centric) 용법에 대한 논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비록 양쪽 논

[**체험학습 도시락**] 내일 체험학습에 가는 아이(A)에게 엄마(B)가 도시락을 준비하면서, 아이의 입맛을 염두에 두면서, “유부초밥은 맛있어”라고 말한다. 아이는 맛있음을 판단하는 주체가 자신임을 알고 있지만, 엄마가 바라보는 자신의 입맛(B⟹A)과 자신이 바라보는 자신의 입맛(A⟹A)이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아차린다. 따라서 아이는 “내가 아무리 다시 생각해 보아도, 유부초밥은 (나에게) 맛이 없어”라고 대답한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 엄마(B)가 말한 “유부초밥은 맛있어”라는 발화는 그것의 내용이 <유부초밥은 맛있다>이며, 이것이 B 상대적으로 참이라고(혹은 내용이 <유부초밥은 B에게 맛있어>라고) 단순하게 이해될 수 없다. 보다 정확하게는, 화자인 엄마(B)의 입장에서 ‘화자인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와 불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화자의 입장에서의 패러미터’는 <B(엄마)⟹A(아이)>가 될 것이고, 아이인 청자(B)의 입장에서 ‘청자인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와 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청자의 입장에서의 패러미터’는 <A(아이)⟹A(아이)>가 될 것이다.[173] 따라서 이런 경우에 적합한 패러미터를 판단자만을 포함해서 규정하기 보다는 판단-귀속자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규정하는 것이 사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기술이 된다.

한편, 본 논문의 주요한 주제인 인식적 양상과 관련해서도 판단-귀속자가 판단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방법론적 한계를 갖기 때문에 관점투영적 양상 패러미터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를 구성해 볼 수 있다. 나는 이에 대한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하나는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의 관점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대화자들 사이에 오해가 발생하는 그 근저에 타인의 마음을 접근하는 것에 대한 방법론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는 예이다.

의가 꽤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차이가 있다. 확장된 타자 중심적 용법에 대한 논의에서 추가적 패러미터가 필요한 근거로 제시된 버스II와 같은 사례에서 강조된 바는 타인의 마음에 대한 접근의 한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중적 속임 및 지식상태의 차이에 기인한 특수 상황들에 대한 것이다.

[173] 청자 B가 화자 A의 말을 청자의 입장에서 ‘청자인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된 청자의 입장에서의 패러미터’인 <B⟹A>와 연관 지어 생각한다면, 뒤따르는 아이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 ‘청자인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된 청자의 입장에서의 패러미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이것은 동물이 판단자가 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동물의 행동, 사고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귀속시키곤 한다. 하지만 우리는 동물과 의사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다. 따라서 우리가 "이 강아지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강아지의 정확한 지식상태를 알 수 없다.[174] 따라서 단순히 강아지의 지식상태는 그것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양립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부족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우리인간⟹어떤 동물≫을 기준으로 양상 패러미터를 결정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주장의 설득력은 고등동물이 아닌 하등동물일 경우에 더 두드러져 보인다. 보다 고차적 지향성을 귀속시킨다는 의미에서, <개구리는 벌을 파리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 강아지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보다 더 인간의 관점이 투영된 듯하며,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기술을 위해서는 인간이 보는 관점이라는 추가적 요소를 그 기술에서 생략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오해의 원인이 타인의 마음 인식에 대한 방법론적 한계 때문임을 보여주는 사례를 살펴보자. 우리는 다음의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다.

> [**오해**] 가희는 나희가 P에 대한 가능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떠 보기 위해서, "**P일 수(도) 있어**"라고 말한다. 그런데 사실 가희는 P일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때 나희는 가희가 자신의 지식을 테스트하려고 하는지 모르고서, 가희가 진정으로 그렇게 말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 나희는 가희의 발화의 내용이 <가희를 포함한 일련의 집단의 정보상태에 따르면, P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한다. (혹은 가희의 발화의 내용은 <P일 수(도) 있어> 그대로 이지만, 가희가 이에 대해서 참을 부여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하지만 그녀가 이해하는 가희의 발화 내용(혹은 관련 참)을 부인하면, 가희가 무안해 할 것을 염려하여(혹은 다른 상황으로 P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가희와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서),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한다. 이때, 가희 역시 나희의 이런 숨겨진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희의 발화의 내용을 <나희 및 가희를 포함하는 일련의 집단의 정보상태에 따르면, P라는 것이 가능하다>로 이해한다. (혹은 나희의 발화의 내용은 <P일 수(도) 있어> 그대로 이지만, 나희 및 가희를 포함하는 일련의 집단의 정보상태에 따라, 나희가

[174]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강아지는 소위 '지식상태'라고 부르는 것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서 참을 부여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그런데 이런 가희와 나희의 마음속과 관련 상황들을 모두 알고 있는 다희가 옆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희와 나희는 모두 P일 수 있다고 실제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서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혹은 그에 참을 부여하고 있다고) 오해한다.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편의상 패러미터를 내용 안에 포함하는 두꺼운 내용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내는 발화의 내용과 화자가 갖는 실제 믿음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며, 청자는 그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이 들을 수 있는 물리적 발화와 객관적 상황에 근거하여 화자의 발화 및 믿음 내용을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다희의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나희가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한 것의 내용은 판단자만을 포함하는, <나희에 따르면, 그럴 수 있다> 혹은 <가희에 따르면, 그럴 수 있다>로 이해될 수 없다. 그것은 <나희가 귀속시키는 가희에 따르면, 그럴 수 있다>가 될 것이다.[175] 따라서 이와 같이 타인의 마음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방법론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판단자뿐만이 아니라 판단-귀속자가 또한 양상 패러미터의 요소로 추가되어야 한다.[176, 177]

이상에서 내가 주장한 것을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하자면, 나희의 입장에서

---

[175] 참고로, 모든 것을 다 아는 제 삼자 다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처음에 가희의 발화가 나타내는 내용은 <가희가 귀속시키는 나희에 따르면, P일 수(도) 있다>가 되며, 이때 실제로 가희가 믿는 내용은 <가희에 따르면, P일 수 없다>가 된다. 그리고 가희의 물리적 발화를 나희가 이해하는 것은, 본문에서 언급되었듯이, <가희를 포함한 일련의 집단의 정보상태에 따르면, P일 수 있다>이다. 다른 한편, 나중에 나희가 발화한 "그래, 그럴 수 있어"라는 문장의 내용은 다희가 바라보았을 때, 화자인 나희의 입장에서, <나희가 귀속시키는 가희에 따르면, P일 수(도) 있다>이며, 이 때 나희의 믿음 내용은 <나희에 따르면, P일 수 없다>가 된다. 그리고 나희의 물리적 발화를 가희가 이해하는 것은, 본문에서 언급되었듯이, <나희 및 가희를 포함하는 일련의 집단의 정보상태에 따르면, P일 수 있다>가 된다.

[176] 당연히 이상의 사례는 얇은 내용에 상대적인 참이 관계되는 방식으로 재서술될 수 있다.

[177] 혹자는 해당 사례가 지나치게 작위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필자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다. 아이가 4살 무렵에 유명 장난감 캐릭터들에 열중했던 적이 있다, 할머니는 아이와의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가 말하는 장난감 캐릭터들의 이름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하지만 아이는 할머니가 제대로 모른다고 추정하면서, 일부러 캐릭터의 이름을 잘못 말하면서 할머니를 떠보았다. 그리고 결국 할머니가 캐릭터들의 이름을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순수한 가희는 알 수 없고, 나희가 바라보는 가희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희가 보는 가희와 가희가 보는 가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희의 관점만으로는 안 되고, 판단자 가희 이외에 판단-귀속자 나희를 양상 패러미터 혹은 취향 패러미터에 추가해야 한다.

그런데 필자는 방법론적 한계와 관련된 주장에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다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주장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나는 방법론적 한계와 관련된 논의가 이상에서 다루어진 것처럼 판단-귀속자와 판단자가 구분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판단-귀속자와 판단자가 같은 인물일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즉, **판단자와 판단-귀속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의 경우에도 방법론적 한계라는 측면에서, 판단자만으로는 설명적 한계가 있다**. 이 경우에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근본적인 방법론적 한계는 타인의 마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대한 자신의 반성과 관련된 것이다. 즉, 소위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이와 관련된다. **모든 경우가 그렇다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판단-귀속자와 판단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 판단-귀속자가 보는 그 자신 보다, 다른 판단-귀속자가 보는 그가 보다 사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술일 수 있다. 따라서 내용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혹은 적합한 패러미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단지 판단자만을 포함하기 보다는 판단-귀속자 또한 같이 포함해야 한다. 만약에 나의 이런 주장이 타당하다면, 방법론적 한계와 관련하여, 판단-귀속자와 판단자가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양상 패러미터는 ≪판단-귀속자⟹판단자≫가 되어야 한다는 보다 일반적인 주장에 우리는 도달하게 될 것이다. 나는 판단-귀속자와 판단자가 일치하는 경우의 예로 다음의 (a)와 (b)를 고려할 것이다.

(a) 판단-귀속자는 현재의 나이며, 판단자는 과거의 나이다. 어떤 경우에는 과거의 나 자신을 현재의 나는 일종의 타인으로 간주한다.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과거의 내가 어떤 근거로, 어떤 지식상태에 의해서 p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오랜만에 살펴본 사춘기 때의 일기장을 보니 거기에는 "부모님은 나를 미워할 수(도) 있어"라고 적혀있었다. 현재의 나의 의식, 기억과 과거의 나의 의식, 기억은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는 어떤 점에서 다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판단-귀속자가 판단자를 이해하는데 방법론적인 한

계가 있다는 사안이 여기서도 또한 적용된다.

(b) 현재 내가 바라보는 현재의 나의 경우에, 판단-귀속자와 판단자는 일치한다. 이때 판단-귀속자인 내가 판단자인 나를 동일한 시간대에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방법론적 한계가 있는 것일까? 어떤 경우에는 남이 판단-귀속자가 되는 것이 내가 판단-귀속자가 되는 경우보다 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보다 덜 정확하기도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남이 훨씬 더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판단-귀속자인 내가 판단자인 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방법론적인 한계가 없지는 않다. 예를 들어서 중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나름의 망상증상을 갖고 있는 한 개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178] 이런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바로서의 어떤 일에 대한 지식[앎]과 보다 더 객관적인 입장에 서있는 그 사람의 스승이 그에게 그가 할 수 있다고 귀속시키는 바로서의 어떤 일에 대한 지식은 분명 다를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여기서 문제되는 방법론적인 한계는 앞에서 논의된 것과 같은 판단-귀속자와 판단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서의 방법론적인 한계와는 다른 차원이다. 후자의 방법론적인 한계가 타인의 마음의 문제와 관련된 회의주의와 연관이 된다면, 전자의 방법론적인 한계는 내성의 오류불가능성 내지는 투명한 내성과 연관이 되는 것이다. 전자는 조금 뒤에 논의될 4), 즉 판단자인 화자의 의도가 판단-귀속자인 청자에 의해서 더 잘 파악이 되는 경우와 연관된다. (b)와 4)는 한 주체의 의도가 그 자신이 아닌 타인에 의해서 더 잘 파악될 수 있음을–즉, 객관성의 어떤 측면을–드러내 준다.

6.3.5. 그 외에 관점투영적 양상 패러미터가 적절한 경우

한편, 우리는 6.3.1.에서 6.3.4.까지 다루어진 경우들 즉, 1)에서 4)까지의 경우들 이외에도, 내용 혹은 진리값이 ≪Y⇒X≫ 형식의 관점투영적 양상 패러미터와 연관되는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는 이런 경우들이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경우들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

[178] 해당 사례에서 당사자의 비정상성이 강조될 필요는 없다. 누구나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점에 대해서 착각하기 마련이다.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제 나는 그런 전체 설명을 위한 조그마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점투영적 양상 패러미터가 필요하다는 앞선 예증들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몇몇 기타 예증들 (가), (나), (다)를 추가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앞선 1)에서 4)의 경우가 단순 인식적 양상과 단순 인식적 양상이 아닌 경우에 모두 적용될 수 있었다면, 지금부터 살펴볼 (가)~(다)는 단순 인식적 양상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우선, (가), 즉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의 기준에 대한 판단-귀속자 자신의 새로운 관점 및 해석을 강조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런 (가)의 경우는 단순 인식적 양상의 경우가 아니라, 단순 인식적 양상이 아닌 경우, 즉 발화에서 판단자X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양상 패러미터가 ≪Y⇒X≫ 형식의 관점투영적 양상 패러미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판단자는 B이지만, 판단자 B의 지식상태가 어떠하다 에 대한 판단-귀속자 A 자신의 공약(commitment)이 강할 때 즉, 자신의 새로운 관점이 판단자B의 지식상태 규정에 중요함을 강조하는 경우에, 판단자만을 포함하는 문장의 실질적 내용은 판단-귀속자가 귀속시키는 판단자를 포함하는 바로서의 내용이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화자인 판단-귀속자는 (판단-귀속자가 보는) 판단자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야 하겠지만 혹은 나타내는 것이 좋겠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음의 예를 고려해 보자.

[**경전**] 공자의 말이 담긴 유교 경전에 대해서, 한나라 시대의 금문파와 고문파는 경전의 해석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금문파는 한나라 시대의 문자로 쓰인 경전을 텍스트로 했으며, 고문파는 한나라 시대 이전의 옛 글자체로 쓰인 경전을 텍스트로 했다. 이 두 학파가 경전의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논쟁한 덕분에 훈고학은 더욱 발달했다. 이런 역사적 배경맥락 하에서, 양쪽 학파가 공자에 따르면, P일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한나라 당시에 공자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것은 책들 밖에 없기 때문에 공자 말의 진짜 의미는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쪽 학파는 객관적인 공자의 입장에 절대적으로 접근할 수 없으며, 자신들의 주관적 해석에 의해서 공자의 견해가 어느 정도 구성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제 양쪽 학파에서 한 명씩의 대표가 나와서 자신들의 견해가 상대방의 것보다 보다 타당함을 주장하려고 한다. 그

들에게 있어서 원래 공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이론이 더 낫다는 것에 대화의 무게 중심이 쏠려있다고 해 보자.

이런 상황에서 금문파의 한 학자가 말하는 "**공자에 따르면, P일 수(도) 있다**"의 의미 및 내용은 <금문파적 입장에서 귀속시키는 공자에 따르면, P일 수(도) 있다>일 것이며, 고문 파의 한 학자가 말하는 "공자에 따르면, P일 수 없다"의 의미 및 내용은 <고문파적 입장에서 귀속시키는 공자에 따르면, P일 수 없다>일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판단자에 따르면, P일 수(도) 있다"라는 물리적 발화 문장의 내용이 <판단-귀속자가 귀속시키는 판단자에 따르면, P일 수(도) 있다>가 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179]

그런데 혹자는 이상과 같은 나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오히려 이 사례가 나의 주장에 대한 반대 사례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금문파와 고문파가 서로 대립하는 이유는 <공자에 따르면, P일 수(도) 있다>라는 '같은 내용'에 대해서 그들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앞선 1부에서 논의되었던) 잘못 없는 불일치 논증을 통해서 상대주의자가 맥락주의자의 <A에 따르면 P일 수 있다>라는 두꺼운 내용 옹호를 거부하고, <P일 수 있다>라는 공통된 것으로서의 얇은 내용을 옹호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로, 이런 불일치 사례가 보여주는 바는 적절한 내용이 '어떤 한 문파가 귀속시키는 공자에 따르면, P일 수 있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자에 따르면, P일수 있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 이런 반론은 타당해 보이지만, 3장에서 언급된 맥락주의에 대한 이건의 두 반론, 즉 공통-내용 논증과 단일-발화 논증 각

[179] 한편, 이와 같은 사례, 즉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의 기준에 대한 판단-귀속자 자신의 새로운 관점 및 해석을 강조하는 경우에 양상 패러미터가 ≪Y⇒X≫ 형식의 관점투영적 양상 패러미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와 유사한 직관을 갖는 사례는 (비록 인식적 양상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서양철학에서 철학사 전공자들과 현대 영미권의 분석철학 전공자들(특히 주제중심 연구가들) 사이의 논쟁 경향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가령 A라는 분석철학자가 "칸트에 따르면, P이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칸트 전공자 B는 "그것은 칸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고 반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다시 A는 "실제로 칸트가 그렇게 말했는지 와의 사실 여부와는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내가 귀속시키는 칸트(혹은 칸트적 해석)'에 따르면, P이다"고 대꾸할 수 있다. 크립키(1982)가 비트겐슈타인을 해석한 바 또한 이와 유사하다. (이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이 규칙 따르기 역설을 그대로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크립키가 귀속시키는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역설을 읽어낸 것인지의 논의가 있다.)

각의 하위범주에 속하는 '단순한 잘못 없는 불일치 논증'과 '잘못 없는 강한 불일치 논증'이 서로 다르다는 것, 다시 말해서 불일치는 '서로 같은 것을 말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사라지는 종류의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종류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반론자가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면, 그는 동일한 파괴력을 유지하면서 나의 주장에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위의 경전의 사례에서 보다 강한 종류의 불일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각 문파는 그들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하더라도(물론 이미 깨닫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위의 논의가 성립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불일치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각기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판단자 및 판단-귀속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들로 (정당하게) 간주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앞선 단순 인식적 양상의 경우에, "might(P)"의 내용에 <might(P)>보다 <might≪A≫(P)>이 더 적합한 경우가 있듯이, 여기서의 단순 인식적 양상이 아닌 경우에 "might≪A≫(P)"의 내용에 <might≪A≫(P)>보다 <might≪B⟹A≫(P)>이 더 적합한 경우가 있다.[180]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단순 인식적 양상문장의 내용이 두꺼울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패러미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발화문장의 내용이 더 두꺼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방금 언급되었던, 화자인 판단-귀속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객관적인 판단자 자체의 지식상태 보다는 판단자의 지식상태에 대한 판단-귀속자의 주관적 견해임이 강조가 될 때이다.

다음으로 (나)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적으로 책임 전가시키고 싶지는 않은, 혹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 [**은둔자**] 적군과의 전쟁에 맞서서, 상대방이 언제 공격해 올 것인지를 예측해서 미리 그곳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때 왕은 신하 A에게 숲 속에 은둔하고 있는 과거의 뛰어난 전술가 B에게 의견을 듣고 오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전술가 B는 보안 문제 때문에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서, 추상적인 시구를 통해서 예상 침략 시간을 언급한다. 신하 A는 왕에게 전해들은 바를 그대로 말하지만, 그 시간이 정확히 어떤 시간인지 모두들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 신하 A가, <전술가 B에 따르면, 새벽2시에 적군이 쳐들어 올 수도 있다>고 B의 말을 해석한다. 그리고

[180] 앞서 와 마찬가지로 이상은 얇은 내용에 대한 다양한 참 상대성을 통해서도 서술될 수 있다.

신하들과 왕은 대부분 그것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 적군은 한 낮에 쳐들어 왔고, 전쟁에서 막대한 손해를 끼친 왕은 나중에 회의를 열어서 신하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왕은 <전술가 B에 따르면, 새벽2시에 적군이 쳐들어 올 수도 있다>는 내용의 판단자가 되는 전술가 B를 찾아내어, 그에게 잘못된 예측을 한 것에 대해 벌을 내려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아니다'는 직관이 강하다. 그렇다면 책임이 있는 사람은 신하 A인가?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적으로 A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비록 타인에 의해서 풀어 써진 것이기는 하지만, <전술가 B에 따르면, 새벽2시에 적군이 쳐들어 올 수도 있다>는 내용의 인식적 양상 판단자는 분명히 B이다.

사실 이와 같은 사례는 앞선 (가)의 경우와 유사한 점이 있다. (가)와 (나) 모두, **판단자에 대한 판단-귀속자의 어떤 해석이 내용 귀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들에는 비록 명시적으로 발화된 것이 판단자만을 단독으로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내용은 판단-귀속자와 판단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나)의 사례는 앞선 6.3절의 6.3.3.–즉,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경우–과 유사해 보이지만, 뚜렷한 차이점을 갖는다. 판단-귀속자가 의도적으로 가능성에 대한 판단자**만**의 기여를 배제하는 것은 양자가 유사하지만, 판단자 이외에도 판단-귀속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강제성이 3)의 경우에는 (나)의 경우 보다 덜하다.

끝으로, 다음의 (다)의 경우에도 양상 패러미터는 ≪Y⇒X≫ 형식이 될 수 있다.

(다) "C가 생각하는 B가 귀속시키는 A에 따르면, P일 수(도) 있어"라고 발화가 이루어졌지만, 여기서 C가 생각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양상 패러미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아직까지 언급된 바가 없지만, 나는 조금 후 7장에서 내용 귀속이 이중으로 될 수 있는 경우를 다룬다. 이 경우에 판단-귀속자는 두 명이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판단-귀속자가 양상 패러미터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판단-귀속자를 생략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B가 A에게 귀속시킨다고 C가 귀속시키는 지식상태'에서, 실질적으로 C가 귀속시키는 바와 B가 A에게 귀속시키는 바가 별다른 차이가 없을 때, 양상 패러미터는 ≪B⇒A≫로 결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예는 7장에서 제시될 것이다. 여기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새로운 개념인 메타 판단-귀속자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6.3.6. 관점투영적 양상 패러미터에 대한 예상 의문들과 대답들

이제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좀 더 정확히 이해되기 위해서, 관점투영적 양상 패러미터에 대한 필자의 주장을 두 가지 의문 사안을 중심으로 보다 분명히 해보자.

첫째, 필자는 1)에서 4)의 경우는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의 경우에도 그것이 적용이 된다고 주장하였지만, 보통, 그냥 ≪X≫가 아니라, ≪Y⇒X≫를 의도하는 경우에는, 단순 인식적 양상문장을 발화하는 것과 같이 양상 패러미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양상 패러미터를 화자가 발화하는 과정에서 밝히는 것이 정상 아닌가? 과연 단순 인식적 양상과 관련하여 관점투영적 양상 패러미터를 포함하는 두꺼운 내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표현된 것의 내용이 복잡한 것일 수 있는가?

이런 의문에 대한 나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단순 인식적 양상의 두꺼운 내용에는 ≪Y⇒X≫를 양상 패러미터로 하는 것**만** 있다는 주장과 특수한 사례들에서 양상 패러미터는 ≪Y⇒X≫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 내가 주장하는 바와 다르다. 나는 내용의 두께와 관련된 문제에서 얇은 내용과 두꺼운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을 주장했던 것처럼, 양상 패러미터와 관련된 문제에서도, 단 하나의 내용만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특수한 사례들에서 조차 양상 패러미터가 ≪Y⇒X≫로**만**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나는 주장하고 있지 않다. 나의 주장은 해당 특수 사례들에서 양상 패러미터는 ≪Y⇒X≫가 더 적합하며, 이것이 사태를 보다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특수한 사례들의 경우에 판단-귀속자가 되도록이면 자신이 의도하고 있는 바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Y⇒X≫를 그의 물리적 발화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한

다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나는, 대부분의 경우에 X에 대한 보다 정확한 기술은 ≪Y⇒X≫이지만, 반드시 이것만을 양상 패러미터로 간주할 필요는 없으며, ≪Y⇒X≫가 양상 패러미터로 보다 적합한 특수한 경우들이라고 할지라도, 굳이 복잡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을 때, 즉, Y를 강조할 필요가 없을 때는 양상 패러미터를 Y가 생략된 X로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판단-귀속자 Y의 도입은 항상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둘째, 관점투영적 양상 패러미터인 ≪X⇒X≫와 단순 판단자 양상 패러미터인 ≪X≫의 차이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사실 ≪X≫는 애매하다. 그것은 단순히 단독의 양상 패러미터로 이해될 수도 있고, 보다 복잡한 양상 패러미터인 ≪Y⇒X≫에서 Y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중에서 Y와 X가 같은 경우가 ≪X⇒X≫이다. 만약에 ≪X≫가 ≪X⇒X≫의 생략인 경우라면, 그것은 ≪X⇒X≫에서 앞의 X인 판단-귀속자 X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X≫와 ≪X⇒X≫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사태에 대한 엄밀한 기술의 결과가 하나는 ≪X≫이고, 다른 하나는 ≪X⇒X≫일 때 양자는 차이를 보인다. 후자는, 판단-귀속자가 바라보는 판단자로서의 그 자신을, 관점으로 하기 때문에 반성적 성격을 띤다.

7장. 인식적 양상문장의 내용과 양상 패러미터에 대한 급진적인 다원적 관점투영 상대주의

앞선 6장에서 우리는 인식적 양상문장의 내용과 양상 패러미터에 대한 온건한 관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나는 6장에서 논의한 바의 직관들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간 보다 급진적인 논의를 해보자. 나는 앞서 언급된 것 이외에도 추가적인 양상 패러미터의 요소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내가 요청하는 추가적 요소들은 '메타 판단-귀속자'와 '서술적 정보상태'이다. 나는 이것들의 필요성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역설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7장의 주장들을 정리하면서 앞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몇몇 추가적인 논의들을 다루도록 할 것이다. 이제 각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7.1. 메타 판단-귀속자의 도입

나는 앞서 판단-귀속자와 판단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관점투영적 양상 패러미터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지만,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판단-귀속자와 판단자 등만이 아니라,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에게 귀속시킨다고 귀속시키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이중 귀속과 연관된 사람을 '**메타 판단-귀속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메타 판단-귀속자가 필요한 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 나는 '판단-귀속자에 대한 메타 판단-귀속자들의 서로 다른 귀속의 예'와 '변형된 '조조의 화룡도 퇴각의 예'를 고려해 본다.[181] 앞서 판단자라는 단독의 패러미터에 판단-귀속자를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판단자'와 '판단-귀속자가 귀속시키는 판단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직관에 의존했듯이,

[181] 혹자는 앞서 5장에서 언급된 버스II 사례를 통해서 메타 판단-귀속자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이미 논증되었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비록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사례에 '경희'라는 메타 판단-귀속자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앞선 사례가 메타 판단-귀속자가 요청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메타 판단-귀속자가 도입되어야 함을 역설하기 위해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경우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우가 필요하다.

판단자와 판단-귀속자에 메타 판단-귀속자를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판단-귀속자가 귀속시키는 판단자'와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에게 귀속시킨다고 메타 판단-귀속자가 귀속시키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직관이다. 그러면 우선 전자의 예를 살펴보자.

7.1.1. 판단-귀속자에 대한 메타 판단-귀속자들의 서로 다른 귀속

다음과 같은 사례를 고려해 보자. 다음은 스테펀슨(2007)에 나오는 예를 약간 변형한 것이다.

(A) 철수와 순이는 영희의 애완견 말복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철수: "영희는 그 개 사료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듯해. 왜냐하면 개에게 그것을 많이 먹이거든."

이런 상황에서, 개 사료 맛의 판단자는 대화에서 현저하게 부각되는 개가 되며, 이렇게 개에게 이런 맛을 귀속시키는 사람, 즉 맛의 판단-귀속자는 영희가 된다. 따라서 적합한 취향 패러미터는 ≪영희⇒개≫가 된다.

반면에 이와 약간 다른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보자.

(AA) 철수: "영희는 그 개 사료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듯해. 왜냐하면 개에게 그것을 많이 먹이거든."
순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그건 철수 너 자신만의 생각이야 내가 보기에는 영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영희가 그 사료를 많이 먹이는 이유는 빨리 그 사료를 소모하고 새로운 좀 더 맛있는 사료를 사기 위해서야.'

(AA)의 경우에 맛의 판단자가 개가 되며, 판단-귀속자가 영희가 되는 것은 앞선 (A)와 같다. 하지만 이 경우에 순이가 (철수의 말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단순히 <≪영희⇒개≫에 따르면, 개먹이는 맛있다>로 간주하는 것 즉, 취향 패러미터를 ≪영희⇒개≫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청자인 순이의 입장에서 그녀(순이)는 '영희가 해당 개 사료가 개에게 맛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경우에 '판단-귀속자인 영희

가 판단자인 개에게 귀속시킨다고 생각되는 바'가 철수와 순이에게서 각각 차이가 나게 된다. '영희가 개에게 귀속시킨다고 철수가 생각하는 바'와 '영희가 개에게 귀속시킨다고 순이가 생각하는 바'가 서로 다른 것이다. 여기서 영희라는 판단-귀속자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 즉 철수와 순이와 같은 이중 판단-귀속자를 우리는 '**메타 판단-귀속자**'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메타 판단-귀속자는 간단히 말해서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에게 귀속시킨다고 귀속시키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자 한다.

W⟹(Y⟹X): (W가 생각 혹은 귀속하는) Y가 귀속시키는 X
(W: 메타 판단-귀속자, Y: 판단-귀속자, X: 판단자, ⟹: '귀속시킨다'를 의미.

예를 들면, 네가 나에게 귀속시킨다고 내가 생각하는 정보상태의 경우에, 표기는 ≪나⟹(너⟹나)≫와 같이 된다. 여기서 판단-귀속자는 너이고, 판단자는 나이며, 메타 판단-귀속자는 나이다.[182]

다시 (AA)에 대한 논의로 돌아와 보자. 청자인 순이는 화자인 철수의 말을 자기 자신의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도 있고, 철수의 말에 최대한 동정적이면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6.2절에서 내가 논의한 것, 즉 청자의 입장에서의 적합한 패러미터가 '청자(순이)의 입장에서 청자의 방식대로 청자에게 이해된 것'과 '청자의 입장에서 화자를 최대한 고려하면서 청자에게 이해된 것'으로 구

[182] 여기서 잠시 ≪나⟹(너⟹나)≫ 양상토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보통, 화자 S가 "네가 생각하는 나에 따르면,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청자 H가 이것을 들을 때, 양상토대는 ≪H⟹S≫이다.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 양상토대를 기술하면 그것은 ≪S⟹(H⟹S)≫가 될 것이다. 즉, '네가 생각하는 나'라는 것은 보다 엄밀하게는 '내가 생각하는, 네가 생각하는 나'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때 적절한 양상토대는 ≪S⟹(H⟹S)≫인가 아니면 단순히 ≪H⟹S≫인가?
'네가 생각하는 나'의 경우에, 초점 맞춰지고 있는 대상은 '나'이다. 따라서 판단자는 '나'이다. 그러면 귀속시키는 주체는 누구인가? 해당 문장에 대한 적합한 양상토대는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네가 나에게 귀속시킨다고 내가 생각하는바≫가 된다. 따라서 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때는 ≪A⟹(B⟹A)≫를 양상토대로 간주해야 한다.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 즉 양상토대 ≪A⟹(B⟹A)≫와 ≪B⟹(B⟹A)≫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 우리는 그냥 ≪B⟹A≫를 적합한 양상토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B가 판단-귀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청자인 B가 판단-귀속자가 될 수 있다.

분될 수 있다는 것[183]과 연관된다. (이 중에서 후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 현상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진실성과 신뢰의 규약이 필요하다는 루이스의 논의를 통해서 뒷받침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청자인 순이는 한편으로 자신이 영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우선시 하면서, 철수가 한 말을 거짓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최대한 화자인 철수에 동정적인 입장에 서서 철수가 한 말을 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때 전자와 관련된 패러미터는 **≪순이⇒(영희⇒개)≫**가 될 것이며, 후자와 관련된 패러미터는 **≪철수⇒(영희⇒개)≫**가 될 것이다. 결국 해당 사례에서 메타 판단-귀속자들이 보는 판단-귀속자는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는 진리값의 차이로 연결된다. 그리고 이런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판단-귀속자에 덧붙여서 메타 판단-귀속자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AA) 사례는, 판단-귀속자인 영희가 판단자인 개에게 귀속시킨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메타 판단-귀속자인 철수와 순이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이들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양상 패러미터가 메타 판단-귀속자를 포함하는 것, 즉 '(순이의 입장에서) 판단-귀속자 영희가 판단자 개에게 귀속시킨다고 메타 판단-귀속자인 철수가 귀속시키는 것' 또는 '(순이의 입장에서) 판단-귀속자 영희가 판단자 개에게 귀속시킨다고 메타 판단-귀속자인 순이가 귀속시키는 것'이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184]

---

[183] 한편 여기서의 구분은 6.2절에서 '판단자'와 '판단-귀속자'라는 용어를 도입하기 이전에 내가 구분했던 두 구분, 즉 '청자의 입장에서 청자의 방식대로 청자에게 이해된 것'과 '청자의 입장에서 화자를 최대한 고려하면서 청자에게 이해된 것' 사이의 구분과 연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나는 6.2절에서 이 두 구분이 각각 '청자인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와 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청자의 입장에서의 패러미터'와 '청자인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와 불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청자의 입장에서의 패러미터'에 대응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구분이 반드시 판단자 및 판단-귀속자와 연관될 필요는 없다. (다만 6.2절에서의 논의는 판단자 및 판단-귀속자와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였기 때문에 그렇게 서술했을 뿐이다.) 본문의 사례에서 청자인 순이는 판단-귀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후자의 구분들로 이해한다면 나의 주장은 오해될 수도 있다. 다만 후자의 구분들을 취향에 대한 판단자와 판단-귀속자 사이의 구분이 아니라, 내용(혹은 내용 귀속)에 대한 판단자와 판단-귀속자 사이의 구분으로 간주한다면, 여전히 후자의 구분들을 통해서도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전달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 판단자와 판단-귀속자에 대한 일부 정의가 수정될 필요는 있을 것이다.)

[184] 한편, 해당 (AA) 사례를 약간 변형했을 때, '메타 판단-귀속자' 이외에 '**메타 메타 판단-귀속자**'가 필요해 보이는 경우를 우리는 구성해 볼 수 있다. 이 사례를 (AAA)라고 하자. 이 사례는 철수는 사실

한편, (A)의 경우에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메타 판단-귀속자가 필요해 보인다. (A)의 판단-귀속자이면서 화자인 철수는 영희가 개에게 귀속시킨다고 생각하는 바를, 영희가 개에게 하는 행동 및 영희의 발화를 반영하여, (i) 있는 그대로 귀속시킬 수도 있고, (ii) 철수 자신의 관점을 투영해서-재해석해서-귀속시킬 수도 있다. 만약에 후자의 경우라면, 그 때 양상 패러미터는 ≪영희⇒개≫보다는 ≪철수⇒(영희⇒개)≫가 보다 적합할 것이다.

다음으로 메타 판단-귀속자가 요구되는 또 다른 중요 사례를 살펴보자.

7.1.2. 변형된 조조의 화룡도 퇴각 스토리

우선, 소설 삼국지 원본에 나타나는 조조의 화룡도 퇴각 이야기는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원래 화룡도 퇴각 스토리]** 적벽대전에서 패한 조조가 퇴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점에서 길이 둘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넓지만 멀리 돌아가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좁지만 화룡도로 통해가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좁은 길에서 일반적으로 적군의 병사들이 밥을 짓고 있음을 암시하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때 조조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과 관련된 계략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는 좁은 길은 위장이고, 넓은 길에 적군이 숨어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조조의 위나라 군대는 좁은 길로 향한다. 다른 한편, 제갈량은 조조가 의심이 많은 인간이어서, 좁은 길은 위장이고, 넓은 길에 적군이 숨어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그는 조조가 좁은 길로 향할 것을 미리 알고서, 좁은 길에 역으로 군사들을 배치시켜 놓는다.

(순이가 아는 것처럼) 영희가 개에게 해당 개 사료가 맛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순이를 놀리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다 복잡한 사례에서 (철수가 순이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염두에 둘) 적합한 양상 패러미터는 ≪순이⇒(철수⇒(영희⇒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메타 판단-귀속자'가 요청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에 의해서 '메타 메타 판단-귀속자'가 또한 요청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논리적으로 무한정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국에는 '메타⋯⋯메타 판단-귀속자' 또한 허락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도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나는 삼중 혹은 사중 귀속까지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은 인간 인지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사실상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메타 메타⋯메타 판단 귀속자'가 무한히 가능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된 소중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 선우환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결국, 조조는 제갈량의 계책에 당하게 된다.

(羅貫中, 불명/2006, 5권, pp. 39- 49 에서 필자가 필요에 맞추어 요약.[185])

이제 논증을 위해서, 원래의 이야기에서 약간의 사항만 수정해 보자.

[변형된 화룡도 퇴각 스토리] (소설 원본과 달리) 새로운 가정이 추가된다. 조조는 좁은 길은 위장이고, 넓은 길에 적군이 숨어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지만, 아군 측에 상대방의 첩자가 있으며 자신의 말이 첩자를 통해서 제갈량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부러 자신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조조는 "**좁은 길에는 적군들이 있을 수 있어**"(이것을 'might(P)'라고 하자)라고 말한다. 그런데 첩자가 실제로 있었고 그는 제갈량에게 조조의 말을 보고한다. 하지만 제갈량은 조조가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위와 같이 말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조가 실제로 그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바는 '<좁은 길에는 적군들이 있을 수 있어>는 조조의 지식상태에 따를 때 거짓이다' 이거나 혹은 <조조의 지식상태에 따르면 좁은 길에는 적군들이 있을 수 없다>(= <might≪조조≫(￢P)>)이지만, 그는 그의 의중을 제갈량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조가 제갈량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바는 '<좁은 길에는 적군들이 있을 수 있어>는 조조의 지식상태에 따를 때 참이다[186]' 이거나 혹은 (조조 자신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조조의 지식상태에 따르면, 좁은 길에는 적군들이 있을 수 있어> (= <might≪조조≫(P)>)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조조 자신이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의도하는 바는 '<좁은 길에는 적군들이 있을 수 있어>는 제갈량이 귀속시키는 조조의 지식상태에 따르면, 참이다' 혹은 <제갈량이 귀속시키는 조조의 지식상태에 따르면, 좁은 길에는 적군들이 있을 수 있어>가 될 것이다. 반면에 모든 정황을 눈치 채고 있는 제갈량의 입장에서 제갈량이 조조가 발화했다고 이해하는 바는 '<

[185] 중국의 소설 삼국지연의에 대해서, 수많은 종류의 번역본들이 존재하지만, 이들 번역본들은 편역이 아닌 정역인 경우에 서로간의 내용상의 차이가 적고, 단순히 번역 수준 및 문장력에 있어서만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필자의 논의는 스토리 자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판본을 출처로 하는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가장 대중적인 번역본들 중에 하나인 황석영의 번역판을 출처로 삼았다.

[186] 즉, 조조가 제갈량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명제는 <좁은 길에는 적군들이 있을 수 있어> 그대로이지만 이에 대해서 조조 자신이 참을 부여하고 있다고 제갈량이 생각하기를 조조는 바란다.

좁은 길에는 적군들이 있을 수 있어>가 **≪제갈량이 조조에게 귀속시킨다고 조조가 (스스로)가 생각[귀속]하는 것≫**에 따르면, 참이다' 혹은 <제갈량이 조조에게 귀속시킨다고 조조 (스스로)가 생각[귀속]하는 바에 따르면, 좁은 길에는 적군들이 있을 수 있어> (= <might≪조조⟹(제갈량⟹조조)≫(P)>)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경우들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자(=조조) 이외에 판단-귀속자인 제갈량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판단-귀속자가 판단자에게 귀속시킨다고 귀속시키는 '메타 판단-귀속자(=조조)'가 때때로 별도로 요청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편, 어떤 사례에서 메타 판단-귀속자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적합한 양상 패러미터로 간주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6장에서 관점투영적 양상 패러미터가 필요한 기타의 경우들 중 (다)와 연관된다. 7.1.1.에서 언급했듯이, (A)의 경우에 내가 영희의 생각하는 바를 주관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서 거의 그대로 보고할 때, 양상 패러미터는 ≪나⟹(영희⟹개)≫보다, 메타 판단-귀속자인 나를 생략한, ≪영희⟹개≫가 더 적합하다. 여기서 '나'라는 메타 판단-귀속자가 특별히 수행하는 역할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서 판단자와 판단-귀속자가 구분이 되기는 하지만 항상 판단-귀속자를 드러내어 관점투영적 양상 패러미터를 우리가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처럼, 판단-귀속자와 메타 판단-귀속자가 원칙적으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항상 메타 판단-귀속자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7.1.3. 메타 판단-귀속자와 구분되어야 할 주인공이라는 개념

한편, 비록 적합한 양상 패러미터의 범주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메타 판단-귀속자와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메타 판단-귀속자와 구분해야 하는 개념이 있다. 그것은 내가 '주인공(해당자)'라고 부르는 개념이다. 말하는 사람이든지 말을 듣는 사람이든지 모두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또 이해한다. 이런 각각의 자신들을 나는 '주인공' 혹은 '당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주인공 개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뒤따를 수 있다: 모든 두꺼운 내용에서 주인공(혹은 당사자)이 메타 판단-귀속자 혹은 판단-귀속자인가? 아니면 주인공은 그 외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것은 메타 판단-귀속자 및 판단-귀속자가 어떤 속성들을 갖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이다.

우선, 판단자와 판단-귀속자만 있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이런 경우에 주인공이 판단-귀속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주인공이 A일 때, A가 “B가 귀속시키는 A(자신)에 따르면, P일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때 판단-귀속자는 주인공인 A가 아니라, 타인인 B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메타 판단-귀속자⟹(판단-귀속자⟹판단자)≫에서 메타 판단-귀속자가 주인공이 아닌 경우를 상상할 수 있을까? 화자의 입장에서 화자가 “내가 너에게 귀속시킨다고 네가 귀속 혹은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P일 수 있다”고 말한다면, 즉 양상 패러미터가 ≪너⟹(나⟹너)≫라면, 화자인 주인공과 메타 판단-귀속자인 ‘너’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상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두꺼운 내용에서 주인공이 메타 판단-귀속자 혹은 판단-귀속자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주인공의 개념을 도입한 것과 관련하여, 라설손의 이론과 나의 이론 사이의 차이점을 우리는 이 주인공 개념을 통해서 재해석해 볼 수 있다. 라설손의 경우에, 판단자만 존재하는데 비해서, 나의 경우는 주인공, 판단-귀속자, 판단자가 존재한다. 다음을 다시금 예로 고려해 보자: (A) 철수: “영희는 그 개 사료가 (애완견에게) 맛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해. 왜냐하면 개에게 그것을 많이 먹이거든.” 이 경우에, 판단자는 애완견이며, 판단-귀속자는 영희, 주인공은 철수이다. 그리고 판단-귀속자인 영희와 판단자인 개가 일치하지 않는다. 반면에, 라설손의 경우에 철수와 판단자인 개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철수가 발화하는 해당 문장은 타자 중심적용법과 관련된다. 따라서 나의 설명과 라설손의 설명은 차이가 있다. 라설손은 주인공과 판단자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자기-중심적인 것과 타자 중심적인 것을 나누는데 반해서, 나는 판단-귀속자와 판단자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아마도 라설손은 판단-귀속자와 내가 말하는 주인공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듯하다. 하지만 앞서 내가 언급한 바와 같이 주인공은 때로 판단-귀속자와 다를 수 있다. 즉, 내가 주인공이면서 나 이외의 판단-귀속자인 B가 판단자인 C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내가 언급할 수 있다. 비록 이와 같이 자기-중심적/타자 중심적 및 판단-귀속자와 판단자가 일치하는/불일치하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 구분이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인공과 판단-귀속자가 일치하는 경우로 제한을 두게 된다면, 나의 설명과 라설손의 설명 사이에 차이는 없다.

7.2. 서술적 정보상태의 도입

이제 내가 양상 패러미터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요소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이 마지막 추가 요소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나의 주장은 기존의 양상 패러미터를 확장해온 지금까지의 여러 단계들 중에서도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을 법한 주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설령 온건한 다원적 관점투영 상대주의에 대한 논의 및 급진적인 다원적 관점투영 상대주의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논의에 큰 저항감이 없었던 독자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매우 특수한 경우에는 양상 패러미터를 이와 같이 복잡화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며, 최대한 이것을 설득력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7.2.1. 양상 패러미터에 주체 및 주체의 지식상태만 포함하는 입장과 서술적 지식상태를 포함하는 입장의 구분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양상 패러미터는 주체 혹은 주체의 지식상태로 고정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대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양상 패러미터에 **주체를 포함하지 않고서, 구체적이고 서술적인 어떤 지식(정보)상태 및 지식기준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철수에 따르면, P일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론 혹은 구체적 서술적 기준에 따르면, P일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런 대안을 '양상 패러미터에 서술적 지식상태**만** 포함하는 입장'으로 부를 수 있다. 이런 입장과 주체 및 주체의 지식상태를 양상 패러미터로 삼는 기존 입장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서 드러난다.

> 코난도일의 소설에 나오는 탐정 홈즈는 A가 범인인지 아닌지 궁금해 하며, A가 범인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그런 도중에 홈즈는 A가 범인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를 접하게 되었다. 이때 결정적 증거를 접하기 전에 홈즈가 가지고 있던 지식상태와 접한 후에 홈즈가 가지고 있던 지식상태는 분명 다르다.

이와 같은 예에서 결정적 증거를 접하기 전과 후의 홈즈의 지식상태의 차이는 기존의 입장에 따르면, '시간t_1에서의 홈즈(혹은 홈즈의 지식상태)'와 '시간t_2에서의 홈즈(혹은 홈즈의 지식상태)'로 그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반면에 서술적 지식상

태를 양상 패러미터에 포함시키는 입장에 따르면, 특정 시간 전후의 홈즈의 지식 상태의 차이는 (시간을 언급함이 없이) 어떤 서술적 지식상태 K와 다른 어떤 서술적 지식상태 L의 차이를 통해서 드러낼 수도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서술적 상태**만** 포함하는 입장과 서술적 상태**도** 또한 포함하는 입장은 구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주체만 포함하는 입장과 주체도 포함하는 입장 역시 구분되어야 한다. 서술적 상태만 포함하는 입장의 반대 입장은 주체도 포함하는 입장 및 주체만 포함하는 입장이며, 주체만 포함하는 입장의 반대 입장은 서술적 상태도 포함하는 입장 및 서술적 상태만 포함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서술적 상태도 포함하는 입장과 주체도 포함하는 입장은 서로 양립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입장들 중에서 어떤 것이 양상 패러미터에 대한 주장으로서 보다 적합한 것일까?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나는 서술적 지식상태**만** 포함하는 입장에는 반대하지만, (주체에 더불어) 서술적 지식상태**도** 포함하는 입장에는 찬성한다. 그리고 이런 서술적 지식상태도 양상 패러미터에 적합하다는 주장은 (좀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주체만 양상 패러미터에 적합하다는 의견에 대한 반론이 된다. 결국 나는 주체만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서술적 지식만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주체를 포함하는 입장, 서술적 지식상태를 포함하는 입장 그리고 주체와 서술적 지식상태를 동시에 고려하는 입장에는 찬성하는 것이다.[187] 나는 주체와 서술적 지식상태 중에서 어느 한 쪽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양자는 장점과 단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양자를 모두 고려할 때, 보다 더 많은 사례들을 적합하게 설명해 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체와 서술적 지식상태가 모두 고려**되었을 때 보다 나은 결과가 보장된다.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양상 패러미터에 서술적 지식상태**도** 포함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나는 기본적으로는 주체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 입장들에 무게 중심을 두며, 서술적 지식상태를 부가하는 입장은 보조적인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식적 양상 패러미터가 주체만 포함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다.)

[187] 여기서 다음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양상 패러미터가 주체만으로 구성된 경우가 있다.'와 '양상 패러미터에는 주체만이 적합하다.' 나는 전자에는 찬성하지만 후자에는 반대한다.

7.2.2. 서술적 지식상태를 도입하는 입장에 대한 예상 반론과 그에 대한 대답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필자가 서술적 지식상태를 도입하는 입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시작부터 못마땅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대체 왜 쓸데없는 복잡함을 자초하는가? 이런 회의적 시각을 물리치고 논의의 기반을 보다 굳건히 다지기 위해서 나는 서술적 지식상태를 도입하는 입장에 대한 두 가지 예상 반론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하도록 하겠다.

우선, 첫 번째 예상 반론과 그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어떤 회의론자는 과연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의 내용이 서술적 정보상태를 포함하는 것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는 만약에 서술적 정보상태가 포함된 것이 화자가 의도하거나 청자에 의해서 이해되는 소위,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A에 따르면, P일 수 있다"와 같은 명시적 상대화(explicit relativization)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나는 회의론자의 이런 의심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조한다. 서술적 정보상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명시적으로 발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구체적 정보를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수(철회에 저항) 사례의 변형]

t_1에) 명철: "올림픽 중계방송을 아직 보지 않아서 정확한 사실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지만, 현재 김연아가 피겨 금메달을 땄을 수 있어"

t2에) 지훈: (김연아가 금메달을 따지 못했음이 밝혀진 상황에서) "아까 너는 김연아가 금메달을 땄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명철: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추가 설명을 하지 못했었지만, 좀 전(t1)에 내가 말했던 내용은 '내가 매우 신뢰하는 피겨 전문가인 김전문 선생의 기준, 즉 내가 귀속시키는 김전문 선생의 유나 스핀(Yuna Spin)과 트리플 러츠(triple lutz)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 및 우아하고 아름다운

예술적 동작에 부과치를 부여하는 정상적인 기준에 따르면, 김연아가 금메달을 땄을 수 있다는 말이었어."

이와 같은 예처럼, 어떤 사람이 과거 자신이 말했던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도록 요구 받는 상황에서, 그가 과거에 자신이 의도했던 내용은 서술적 정보상태를 이미 포함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게다가 이런 경우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들에서도 또한 만족될 수 있는 것이다.

(i) [과거의 발화에 대해서, 화자가 아닌 청자가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을 때, (현재에는 대화를 나눌 수 없는) 해당 화자가 의도한 내용을 타인인 청자가 나중에 정확히 구속하기]:

t_1에) 인디애나 존스의 아버지: "역사적인 유물인 크리스털 해골은 남미의 파라과이 오지에 있을 수 있어"

t_2에) 인디애나 존스: "크리스털 해골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없었던 돌아가신 아버지가 예전에 그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옥슬리 교수의 연구서를 보고 나서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과거에 아버지가 말은 '아버지가 귀속시키는 옥슬리 교수의 이러 저러한 고고학적 자료에 근거한 어떤 기준 K에 따르면, 크리스털 해골이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구나(혹은 과거에 아버지가 한 말은 이러이러한 근거에 따라 참이었구나)!"

(ii) [마음속의 의도가 복잡하지만, 과묵한 사람]: 이번 월드컵에서 어떤 팀이 우승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독일의 한 축구 기술위원이 자신은 나름의 구체적인 기준들 혹은 정보들을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그의 과묵한 성격으로 인해서 그런 사안들을 일일이 언급하지 않고서 간단히 "독일이 우승할 수 있다"고 짤막하게 말하는 경우

따라서 이와 같이, 때때로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의 내용은 서술적 정보상태를 포함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예상 반론과 그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자. 과연 화자가 어떤 특정한 양상 패러미터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을 발화하는

경우에도 그 문장의 내용이 어떤 양상 패러미터를 포함하는 두꺼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에 대한 대답이 부정적이라면, 이렇게 화자가 특정한 의도를 갖지 않고서 발화하는 예는, 같은 논리에서 응용되었을 때, 서술적 지식상태를 도입하는 입장에도 또한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반론은 몰트만(2010)에서 그녀가 맥팔레인에 대해서 제기한 비판들 중에서 두 번째 비판인 의도 문제와 관련이 깊다. 몰트만은 "맥팔레인의 상대주의는 취향 패러미터를 판정맥락의 부분으로 가정하지만, 이런 기준 개체들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자신의 반론이 쉬퍼(Schiffer, 1987)의 의미-의도 문제(the meaning-intention problem)의 일반화에 해당하는 반론이라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화자는, 취향 패러미터와 같은 그런 개체들이 그의 발화가 되리라고 그가 의도하는 상대적인 한 맥락의 일부분인 것을, 대개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화자는, 취향 패러미터가 그의 의도들의 일부인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면서도 "이것은 맛있다(this tastes good)"와 같은 문장을 발화하는데 있어서, 완전히 정당화 될 수 있다.
>
> (Moltmann, 2010, pp. 195-196에서 필자가 각색)

몰트만의 반론은 어떤 기준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의도하지 않고서도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이 맛있다고 발화할 수 있다는 것, 즉 화자의 의도에 취향 패러미터가 포함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188] 몰트만의 비판은 맥팔레인 식의 참 상대주의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원래 제시된 것이지만, 이것은 똑같이 응용되어, 서술적 지식상태를 도입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반론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화자가 특정한 의도 없이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을 발화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화자는 특정한 구체적인 정보상태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도,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을 때대로 발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서술적 지식상태를 도입하는 입장에게 좋은 소식이 못 된다.

[188] 화자가 특정한 의도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 가능성에 대한 발화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몰트만의 주장은 우리말 표현 "그럴 수도 있지"의 용법을 통해서 지지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보고를 누군가에게 듣고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곤 한다. 이때 화자는 구체적인 이유에 토대를 두고서 그런 발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능성에 대한 언급만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상 반론에 대해서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싶다. 비판의 핵심은 간단히 말해서, 양상 패러미터 혹은 취향 패러미터가 화자에 의해서 명확하게 의도되지 않은 경우에 서술적 지식상태를 도입하는 입장은 난처함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반론이 서술적 지식상태를 도입하는 입장에 그다지 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K나 L과 같은 지식(정보)상태가 항상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그것이 양상 패러미터에 포함이 되어, 결과적으로 내용에도 포함이 될 수 있다(혹은 얇은 내용이 그것에 상대적으로 진리값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나는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나는 맥팔레인과 달리,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의 내용이 언제든지 얇은 내용 그대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의도가 특별히 전제되지 않고서 발화되는 문장의 내용이 의도와 관련된 양상 패러미터를 전혀 포함하지 않고서 그냥 얇은 내용으로 이해된다고 나는 매우 쉽게 주장할 수 있다.[189] 다음의 예를 보도록 하자.

A: "철수는 청와대에 있을 수(도) 있어"
B: "너의 정보상태에 따르면, 철수는 청와대에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니?"
A: "아니 그냥 나의 정보상태를 굳이 연관시키지 않고서 (정보상태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정보상태에 기준해서) 그럴 수 있다는 말이야"

이와 같은 사례는 물리적으로 발화된 문장 "might(P)"의 내용이 반드시 두꺼운 내용인 <might≪X≫(P)>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나는 서술적 지식상태를 도입하는 입장에 대한 두 가지 예상 반론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하였다. 이제 7.2.3.과 7.2.4.를 통해서, 서술적 지식상태를 도입하는 입장과 기존 주체 및 주체의 지식상태만 고려하는 입장 각각의 장· 단점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우선 다음의 7.2.3.에서 양상 패러미터에 서술적 정보상태를 포함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런 논의는 서술적 지식상태를 도입하는 입장의 장점과 기존 입장의 단점을 드러내 줄 것이다.

[189] 반면에 맥팔레인의 이론이 몰트만의 비판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맥팔레인은 모든 경우에 얇은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에 따르면, 타자 중심적 용법이나 마스터마인드 문제의 경우 등에서 단순 인식적 양상은 두꺼운 내용만을 갖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들에 의도 없이 발화된 발화의 내용이 얇은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설명할 수 없다.

7.2.3. 양상 패러미터에 서술적 지식상태를 포함해야 하는 이유

우선, 서술적 지식상태를 도입하는 입장이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서술적 지식상태를 도입하는 입장의 장점은 반대로 '주체 및 주체의 지식상태만 포함하는 입장'의 한계 및 단점에 대응된다. 나는 해당 문장의 양상 패러미터가 주체 양상 패러미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몇몇 특수한 경우들에 대해서, 서술적 정보상태가 추가적으로, 혹은 대체적인 것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다음의 (i)에서 (vi)까지의 경우들은 **어떤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있어서 그 가능성에 대한 이유 및 근거가 중요하다는 직관을 공통적으로 갖는 것**이다. 여기서 각 경우들은 몇몇 부분에서 서로 중첩되며, 서로 완벽히 배타적이지는 않다.

(i) 대립의 해소와 관련된 '주체 및 주체의 지식상태만 포함하는 입장'의 한계와 '서술적 지식상태를 도입하는 입장'의 장점

우선 '주체 및 주체의 지식상태만 포함하는 입장'은 대립의 해소와 관련된 한계를 지닌다. A와 B라는 두 사람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며, 그들 사이의 논의가 복잡해 질 때를 고려해 보자. 이런 논쟁의 과정에서 A가 "P일 수(도) 있어"라고 발화하고 B가 "P일 수 없어"라고 발화한 경우, 그것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두 사람이 논쟁과정에서 서로 확인할 수 있다. B는 A가 했던, "P일 수(도) 있다"는 것이 보다 정확히 어떤 말인지 되물을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A가 <나에 따르면, P 일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B에게 충분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을 것이다. 양자가 서로의 의견에 있어서 세세한 면에서 불일치하고 있다면,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정보**를 언급하면서 그들 사이의 말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이러 저러한 기준에 따르면, P일 수(도) 있어"와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190]

결국, 논쟁의 당사자들이 세부적 근거에 있어서 불일치하는 경우에 그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술적 정보상태를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며, 단순한 '주체 및 주체의 지식상태만 포함하는 입장'은 이것을 하기에 불충분하다.

[190] 단순 인식적 양상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단순 인식적 양상의 경우에도 과거 한 말의 의미 및 내용을 정확히 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

(ii) 대화 참여자 사이의 실질적인 지식이 서로 다른 경우에 '주체 및 주체의 지식상태만 포함하는 입장'의 한계

다음으로 대화 참여자 사이의 실질적인 지식이 서로 다른 경우에 그들의 발화 내용(혹은 진리값)을 주체 혹은 주체의 지식상태만으로 기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보자. 다음의 예를 생각해 보자.

> **[전문가와 일반인]** 소수에 대해 깊이 있게 전공한 유명한 대수학 전문가가 "골드바흐의 추측, 즉 2보다 큰 모든 짝수는 두 개의 소수(Prime number)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추측에 대한 반례는 없음에 틀림없다"고 권위 있는 강연에서 말했다. 이와 비교하여, 이제 갓 골드바흐의 추측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고서, 그것에 대해서 반나절 동안 생각해본 고등학생이 "골드바흐의 추측에 대한 반례는 없음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전문가와 고등학생 모두에게 있어서, 그들이 물리적으로 발화한 문장은 동일하다는 점에 유의하자.

이때, 이 둘은 같은 것을 말했는가? 다른 것을 말했는가? 같다는 직관 못지않게 다르다는 직관 또한 가능하다.[191] 한편으로, 수학자와 고등학생이 같은 물리적 발화를 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둘은 같은 내용을 말했다고 간주될 수 있으며, 다른

[191] 이런 직관은 카펠렌과 호쏜이 그들의 책에서 옹호하는 것이다. 카펠렌과 호쏜은 그들의 책 p.62에서, 코치와 일상인의 예를 언급한다. 이것은 소위 동의(agreement)에 대한 데이터가 반-맥락주의자들이 생각해온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데이터가 공통내용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되는 것이다. 즉, 어떤 경우에는 두 사람이 다른 내용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동의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의에 대한 데이터는 같은 내용을 지지하지 않는다. 코치는 6피트8인치 이상인 사람만을 "크다"고 하며, 일상인은 6피트만 넘으면 "크다"고 말한다. 이때 6피트 4인치인 사람에 대해서 코치가 "그는 크지 않다"고 말하고 일상인이 "그는 크다"고 말할 때, 제삼자가 양쪽이 서로 불일치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진정한 불일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같은 명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7피트인 사람을 보고서 그가 크다고 하는데 있어서 양쪽이 일치 및 동의한다고 제 삼자가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즉, 다른 명제이지만 그들은 동의한다고 보고될 수 있다. 카펠렌과 호쏜은 이런 코치와 일상인 예를 통해서, 동의 보고는 그들이 이해하는 상대주의의 핵심인, 얇은 내용주의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 그들은 7피트인 사람에 대해서, 코치와 일상인이 다른 명제들을 각각 주장하지만 서로 동의한다고 보고될 수 있다는 직관을 받아들인다.

한편으로, 그들이 주장을 하는 실질적인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서술적 지식상태가 매우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것은 다르다'거나 혹은 '그들은 (겉보기와 달리) 사실상 다른 진리값 귀속을 하고 있는 셈이다'고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사람들이 말한 내용이 무엇인지 혹은 그들이 어떤 참/거짓 판정을 하는지를 분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는 양상 패러미터의 (실질적)차이들이 내용 및 진리값의 차이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단순히 수학자의 지식상태와 학생의 지식상태만으로는 그 차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지식상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다.

한편 이와 관련된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동렬과 경문, 만수는 무인도에 갇혀 있어서 프로야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지 못하다. 동렬과 경문은 "**기아라는 야구팀이 우승할 수 있다**"는 발화문장에 대해서 각각 참, 거짓을 귀속한다. 그리고 만수는 동렬과 같이 해당 문장에 참을 귀속한다. 이때, '주체 및 주체의 지식상태만 포함하는 입장'에 따르면, 동렬과 만수의 양상 패러미터는 매우 유사할 것이라고 추측된다. 왜냐하면 양자 모두 기아라는 야구팀의 우승가능성을 긍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만수는 비록 동렬과 같이 <기아라는 야구팀이 우승할 수 있다>에 참을 귀속하지만, 그 이유가 되는 것, 즉 만수의 구체적 지식상태는 동렬보다는 경문에 더 가깝다고 가정해보자. 다시 말해서, 동렬은 (동렬이 알고 있는 기아 선수들의 투구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인) D에 따라 기아의 우승가능성을 주장하며, 만수는 (만수 자신이 알고 있는 기아 선수들의 타격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인) M에 따라 그렇게 한다. 반면에 경문은 (경문 이 알고 있는 기아 선수들의 타격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인) K에 따라, 기아의 우승불가능성을 주장한다. 따라서 만수의 M과 경문의 K는 매우 유사하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에 의해서 (단순한) 만수의 지식상태와 (단순한) 동렬의 지식상태는 유사해 보이는 반면에, 만수의 구체적인 지식상태 M과 동렬의 구체적인 지식상태 D는 다르다.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단순한) 지식상태에서는 양자의 차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지만, 구체적인 서술적 지식상태에서는 양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때 만수와 동렬이 같은 말을 했다는 직관과 다른 말을 했다는 직관(혹은 양자가 사실상 같은 진리값을 부여하고 있다는 직관과 사실상 다른 진

리값을 부여하고 있다는 직관)이 모두 가능하다. 같은 것에 대한 직관은 주체의 지식상태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겠지만, 다른 것에 대한 직관은 그럴 수가 없다. 양자의 지식상태가 유사하다고 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것과 관련된 직관은 다른 것에 의해서, 즉 서로 다른 구체적인 서술적 지식상태에 의해서 설명될 필요가 있다.[192]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서술적 지식상태가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화 참여자 사이의 지식차이가 큰 경우 및 실질적인 양상 패러미터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 주체를 그리고 단순히 주체의 지식상태를 양상 패러미터로 고정하는 것은 양자가 말하고 이해하는 내용의 차이를 제대로 드러내 줄 수 없다. 그런 경우에 주체의 **어떤 구체적** 지식상태 즉, 서술적 정보상태의 보충이 필요하다.

(iii) 확신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주체 및 주체의 지식상태만 포함하는 입장'의 한계

서술적 정보상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이유는, 앞선 근거와 같이 판단주체 사이의 지식차이가 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확신의 차이가 있을 때, 즉 주관적 확률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서술적 정보상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A는 '60% 가능하다'를 염두에 두고서 "P일 수 있다"고 말하고, B는 '90% 가능하다'를 염두에 두고서 "P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둘은 같은 것을 말하는가?

---

192 만수와 동렬이 사실상 다른 것을 말했다는 것은 차치하고서 라도, 과연 만수와 동렬이 사실상 다른 진리값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혹자는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자 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예' 혹은 '아니요'를 발화하면서, 긍정 혹은 부정을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즉, 우리는 때때로 '아니요'를 통해서 사실상 긍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강한 긍정이 부정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만수와 동렬이 같은 진리값을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그들이 사실상 다른 진리값을 부여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가령 야구 전문가 S가 보기에 만수가 비록 기아타선에 대한 자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기아가 우승할 수 있다는 것을 긍정하고 있지만, 기아타선이 강하지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만수는 기아가 우승할 수 없다고 말하는 셈이라고, 즉 만수는 어떤 의미에서 기아의 우승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청자의 입장에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비해서 다른 진리값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반직관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물론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다. 양자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직관이 여기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것을 말한다는 직관의 이면에서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A와 B가 구체적으로는 다른 정보상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서술적 지식상태를 도입하는 입장이 보충될 필요가 있다.[193]

(iv) '주체 및 주체의 지식상태만 포함하는 입장'의 지식변화에 대한 설명의 한계

한 주체가 그의 지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그는 과거에는 K라는 이유 때문에 'P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K가 아닌 L이라는 이유 때문에 'P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P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차이가 없다. 즉 그는 어떤 점에서 같은 내용을 귀속시키고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다른 내용을 그가 귀속시키고 있다는 직관도 또한 가능하다. 이런 경우를 '주체 및 주체의 지식상태만 포함하는 입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입장에 따르면, 시간 t_1에서의 주체의 지식상태와 시간 t_2에서의 주체의 지식상태는 다르다. 따라서 과거의 발화와 현재의 발화는 다른 내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 따르면, 양 발화의 차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주체의 어떤 지식상태가 다른지를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시간 t_1의 주체와 t_2의 주체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과거의 발화 내용과 현재의 발화 내용이 단순히 차이가 있다는 것만이 드러날 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사람의 지식상태는 단일한 특정 시간에 한꺼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식은 t_1에서 t_n사이에 습득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와 단순 시간을 결합하여, 양상 패러미터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체 및 주체의 지식상태만 포함하는 입장'은 한계를 갖는다.

---

[193] 한편, 확신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반드시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일 필요는 없다. 동일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더 알게 됨에 따라, 즉 증거 및 정보가 늘어남에 따라 확신상의 차이를 가질 수 있다. 그럴 때 같은 물리적 발화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했던 말과 나중에 했던 말의 실질적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v) 주체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주체 및 주체의 지식상태만 포함하는 입장’은 주체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한계를 갖는다. 몰트만이 의도가 없는 경우에 취향 패러미터를 항상 상정하는 이론이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던 것은 주체가 없는 경우에도 또한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화자는 <나에 따르면, P일 수(도) 있어>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 단순히 <P일 수(도) 있어>를 염두에 두면서 “P일 수(도) 있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니면, 그는 <자신의 기준 K에 따르면, P일 수(도) 있어>가 아니라, <그냥 기준 K에 따르면, P일 수(도) 있어>를 의도하면서, “P일 수(도) 있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화자가 양상 패러미터가 아예 없는 얇은 내용을 귀속시킨다고 이해하거나, 화자가 주체가 없이, 어떤 구체적인 정보상태 기준을 포함하는 두꺼운 내용을 귀속시킨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화자가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의도하지 않고서 발화하는 경우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양상 패러미터를 전혀 포함하지 않거나 정보상태 양상 패러미터만 포함하는 것을 우리는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다.

(vi) 변형된 연환의 계략

다음의 예를 고려해 보자.

[**변형된 연환의 계략**] 위나라의 조조 군이 오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배를 이끌고 남하했지만, 배위에서의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병사들은 뱃멀미를 일으키면서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배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배를 안정시키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신하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조조는 다수결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연환이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종이에 적어서 자신에게 제출토록 한다. 신하 A와 B는 “연환은 안전할 수 있다(이것을 P라고 하자)”고 썼고, 신하 C와 D는 “연환은 안전할 수 없다(이것을 Q라고 하자)”고 썼다. 이제 조조는 신하들의 의견이 담긴 종이를 공개하면서, 신하들에게 그들이 발화했던 것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다. 먼저 신하 A는 “단순히 배를 묶는 것은 진동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바람직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단순한 근거에 따르면(이상을 PA라고 하자), 연환이 안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이에 대해서 신하 C는 "만약에 배들을 서로 묶게 되면, 적군이 불화살로 공격을 했을 때, 서로 인접해 있는 모든 배들이 불타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이상을 QC라고 하자), 연환이 안전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신하 B는 자신이 '연환이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은 또 다른 연환 찬성론자인 A와 다른 근거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의 말과 A의 말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신하 B는 "겨울철에는 서북풍이 불기 때문에 적군이 불화살로 인한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화살들을 막아줄 것이어서 화공은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이상을 PB라고 하자), 연환은 안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마지막 남은 신하 D는 "자신은 신하 A, B, C가 고려했던 이유들을 모두 생각해 보았으며, 이 지역에는 겨울 내내 서북풍이 불지만, 지역 기후의 특이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동남풍이 부는 시기가 있으며,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이상을 QD라고 하자), 연환은 안전할 수 없다"고 말한다.[194]

이런 예를 보고서 판단할 때, 우리는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의견이 각각 자신들의 진영에서 <연환은 안전할 수 있다> 혹은 <연환은 안전할 수 없다>는 얇은 내용을 갖는다는 점에서 각각 공통적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신하 B가 '자신이 연환이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은 또 다른 연환 찬성론자인 A와 다른 근거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고 주장했듯이, 같은 찬성론자의 입장에서도 그 근거가 현저히 다를 경우에 그들은 다른 것을 말했다고 또한 생각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인용된 연환의 계략 예는 다른 구체적 지식상태들, 즉 PA, PB, QC, QD에 따라서, 같은 물리적 발화의 실질적인 내용들이 각기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발화문장의 진리값이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195]

---

[194] 삼국지 소설에 나오는 연환의 계에 대한 이야기는 이보다 더 단순하다. 원래의 이야기를 위해서는 羅貫中(불명/2006), 4권 pp. 249-254를 참조하라. 본문에서 언급된 신하D의 주장은 소설 속에서, 방통의 계략을 눈치 챈 서서의 견해에 가깝다. 참고로 소설 속에서 서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지만, 연환전략을 나서서 반대하지는 않는다.

[195] 소설 삼국지에서 빌려와 변형했다는 공통점과 그들이 형식적으로 서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연환의 계략에 대한 예는, 앞서 메타 판단-귀속자가 필요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용했던 화룡도의 예에 비교될 수 있다. 다만 그들 사이의 차이는 화룡도 퇴각의 예가 양상토대로 주체만을 포함했던 것과는 달리,

한편, 이상의 변형된 연환의 계략 예가 보여주는 반론의 핵심 내용은 사실 단순하다. 그것은 '주체 및 주체의 지식상태만 포함하는 입장'은 다음의 차이를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ㄱ)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론에 따르면, P일 수 있다.
(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이론에 따르면, P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주체만을 명시하여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P일 수 있다"고 말하는 내용과 "아인슈타인의 어떤 구체적 이론에 따르면, P일 수 있다"고 말하는 내용은 모든 경우에 일치하지는 않는다. 대화 상황에 따라서는 양자가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런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매우 특수한 경우에는) 주체 패러미터만 고려하지 말고, 서술적 정보상태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상 서술적 정보상태를 양상 패러미터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들을 (i)에서 (vi)에 걸쳐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런 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제시하는 서술적 정보상태는 대개 한 주체가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 근거들에 관련된 것으로서, **과연 그런 세부적인 주장의 정당화 근거들이 양상 패러미터 및 내용에 영향을 끼친다고, 그리고 그들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가?** 이런 반론에 대해서, 나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대답할 것이다. 첫째, 나는 패러미터 및 내용의 본성에 대한 서로 다른 직관들이 있을 수 있음에 근거하여 나의 주장을 옹호할 수 있다. 이런 반론을 펼치는 사람과 나의 의견 차이는 양상 패러미터 및 내용의 본성에 대한 직관이 서로 다르다는 것에 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용 및 양상 패러미터의 본성은 (매우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는) 비유적으로 말해서, 매우 두꺼울 수 있다는 것이다.[196] 서술적 정보상태가 추가되어야 하는 근거는 앞서 판단-귀속자, 메타 판단-귀속자가 추가되어야 하는 근거의 연장선에서 있다. 만약에 내용 및 양상 패러미터에 대한 다른 직관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이전 단계에서 그것을 거부했어야

연환의 계략 예는 양상토대로 서술적 지식상태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196] 앞서 나는 내용의 얇고 두꺼움의 구분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여기서 '더 두껍다는 것'은 단지 비유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다. 굳이 서술적 정보상태의 추가만을 거북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게다가 애초에 인식적 양상을 둘러싼 논의가 주체의 지식상태, 즉 증거적 상태와 관련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증거와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둘째, 나는 서술적 지식상태를 포함하는 양상 패러미터들이 두꺼운 내용[명제]과 항상 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 앞서 나는 다원주의에 대한 나의 견해는 내용 다원주의뿐만이 아니라 참 다원주의를 아우르는 것이란 점을 언급했다. 따라서 나의 견해에 따르면, 굳이 두꺼운 내용 자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서술적 정보를 근거 삼아서 어떤 얇은 내용의 진리값이 판별될 수(도) 있다. 서술적 정보가 (내용 안에 포함됨으로써) 내용에 기여한다는 주장보다는 그것이 (내용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참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나는 그런 것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7.2.4. 서술적 지식상태만을 도입하는 입장의 단점

이상을 통해서 서술적 정보상태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서술적 지식상태를 도입하는 입장'의 장점 및 '주체 및 주체의 지식상태만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단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유념해야 하는 것은 내가 서술적 지식상태만이 적합한 양상 패러미터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나는 기존의 주체 및 주체의 지식상태에 때때로 서술적 지식상태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주체의 지식상태와 서술적 지식상태 중에서 상대적인 중요성은 주체의 지식상태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점과 관련하여 '서술적 지식상태**만**을 도입하는 입장'은 한계를 갖지만 '주체 및 주체의 지식상태를 포함하는 입장'[197]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자. 나는 '주체 및 주체의 지식상태를 포함하는 입장'이 (서술적 지식상태만을 도입하는 입장에 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주체 기준의 내용은 **기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경우**에 유용하다. 인식적 양상의 경우에, "철수의 이러저러한 지

[197] 이 입장은 패러미터가 주체만으로 구성된 경우도 포함하며, 이것과 적합한 패러미터는 주체 및 주체의 지식상태만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서로 다름에 유의하자.

식상태 K에 따르면, P일 수(도) 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상태를 우리가 서술할 수 있지만, 맛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리가 기술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철수에게, A는 맛있다"와 같이 주체라는 기준을 통해서 내용을 표현하면 판단자의 의도를 전달하기에 더 유용하다. 둘째, 주체 기준 방식은 어떤 **주체의 지식상태를 화자 혹은 판정자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을 때** 유용하다.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와 상담한 후에 환자에게 "너는 암일 수 있어"라고 말한다고 할 때, 보호자는 의사의 지식상태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의사의 어떤 구체적인 지식상태에 따르면, 암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보다는 <의사에 따르면, 암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가 화자가 의도하는 내용으로서 보다 더 적합하다. 따라서 구체적 지식상태를 판단-귀속자가 기술하기 곤란한 경우에 주체 기준의 방식은 서술적 정보상태만 고려하는 입장보다 더 유용하다. 끝으로, **여러 가지 기준이 모두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 주체 기준의 내용은 더 편리하다. "철수의 지식상태 K와 기타 등등의 관점L, M에 따르면, p일 수(도) 있다"는 "철수에 따르면, p일 수(도) 있다"와 같이 간략하게 대체해서 표현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주체를 기준으로 삼는 내용은 **대체 및 축약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리고 이런 주체 및 주에의 지식상태만 고려하는 방식의 장점들은 반대로 서술적 정보상태만 고려하는 방식의 단점들이 된다.

게다가 서술적 정보상태만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칫 주체와 지식상태의 연결관계를 분리시킴으로써, 주체의 인식적 상태에 대한 양상, 즉 인식적 양상의 특수성을 그것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귀결을 낳는다.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이론에 따르면, P일 수(도) 있다'와 관련된 양상을 우리가 굳이 **인식적** 양상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술적 정보상태만 양상 패러미터에 포함시키는 입장은 유지되기가 힘들다.

7.2.5. 정리

처음에 밝힌 바와 같이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주체 및 주체의 지식상태만 포함하는 입장'과 '서술적 지식상태만을 포함하는 입장'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 및 주체의 지식상태와 서술적 지식상태 모두를 각각의

구체적 사례들에 맞게 양상 패러미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양상 패러미터의 본성문제에 대한 적합한 대답은 '주체 및 주체의 지식상태'와 '서술적 지식상태' 모두를 고려하지만 주체 및 주체의 지식상태를 보다 중시하는 것, 간단히 말해서 '서술적 지식상태**도** 포함하는 입장'의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7.3. 다원적 관점투영 상대주의에 대한 정리와 이에 대한 몇몇 부가적 논의들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함과 동시에 아직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양상 패러미터 결정에 대한 몇몇 부가적인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7장을 마무리 하도록 하자. 지금까지의 주장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나는 앞서 6장의 초반에 언급된 바와 같이 양상 패러미터의 본성문제에 대한 나의 이론을 '**인식적 양상문장의 내용과 양상 패러미터에 대한 다원적 관점투영 상대주의**'라고 부른다. 그리고 메타 판단-귀속자까지만 허락하지는 그 이상을 허락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온건한/급진적인 입장을 구분한다.)

[(표) **인식적 양상문장의 내용과 양상 패러미터에 대한 급진적인 다원적 관점투영 상대주의**]

"P일 수(도) 있다(might(P))"와 같이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Bare Epistemic Modal sentence)이 발화된 경우에,

1. [**패러미터 다원주의**]: "P일 수(도) 있다"와 같은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이 발화되었을 때, 그 문장의 양상 패러미터 A는 다원적일 수(동시에 여러 가지로 다양할 수) 있다.

1.1. [**얇은/두꺼운 내용 다원주의**]: 단순 인식적 양상 문장의 얇은 내용인 <P일 수(도) 있다>와 두꺼운 내용인 <A에 따르면, P일 수(도) 있다>가 동시에 표현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관점투영적 상대주의**]: 적합한 양상 패러미터 A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판단-귀속자 Y가 귀속시킨다고 메타 판단-귀속자 W가 귀속하는 판단자 X의 서술적

정보상태 K≫[198]

(다양한 사례들에 따라서 W, Y, X, K의 값은 각각 0이 될 수 있다. 다만, K값 혼자만 0이 안 되는 경우의 패러미터는 배제된다. 왜냐하면 서술적 정보상태 K만을 갖는 패러미터를 우리가 특별히 인식적 양상 패러미터로 간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W=Y=X=K=0 인 경우의 내용은 <might(P)>로서 얇은 내용이 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두꺼운 내용이 된다.

따라서 적합한 양상 패러미터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

1) 판단자만을 양상 패러미터로 삼는 경우: ≪판단자 X≫
2) 판단-귀속자만을 양상 패러미터로 삼는 경우: ≪판단-귀속자 Y≫
3) 판단-귀속자와 판단자를 양상 패러미터로 삼는 경우:
   ≪판단-귀속자 Y⟹판단자 X≫
4) 판단-귀속자와 판단자 이외에
   메타 판단-귀속자도 양상 패러미터로 삼는 경우:
   ≪메타 판단-귀속자W⟹(판단-귀속자 Y⟹판단자 X)≫
5) 서술적 정보상태와 판단자를 양상 패러미터로 삼는 경우:
   ≪판단자 X's 서술적 지식상태 K≫
6) 서술적 정보상태와 판단-귀속자를 양상 패러미터로 삼는 경우:
   ≪판단-귀속자 Y's 서술적 지식상태 K≫
7) 서술적 정보상태와 판단자, 판단-귀속자를 양상 패러미터로 삼는 경우:
   ≪(판단-귀속자 Y⟹판단자 X)'s 서술적 지식상태 K≫
8) 서술적 정보상태, 판단자, 판단-귀속자, 메타 판단-귀속자 모두를 양상 패러미터로 삼는 경우:
   ≪[메타 판단-귀속자W⟹(판단-귀속자 Y⟹판단자 X)]'s 서술적 지식상태 K)≫

또한, 판단자 X는 화자와 청자 이외에 제 삼자가 될 수 있으며, 아래의 예에서와 같이, 화자 S만 인식적 양상을 포함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에, 위의 1)~8) 모두의 경우에서 판단자 X는 S가 된다. 반면에 판단-귀속자인 Y 및 메타 판단-귀속자 W는 화자인 S와

[198]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메타 판단-귀속자 W가 귀속하는) 판단-귀속자 Y가 판단자 X의 서술적 정보상태 K라고 귀속시키는 것' 혹은 '판단-귀속자 Y가 판단자 X의 서술적 정보상태 K라고 귀속시킨다'고 메타 판단-귀속자인 W에 의해서 귀속되는 바'

청자인 H의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각각 S 및 H의 값이 될 수 있다.

예) 화자 S) "P일 수(도) 있다"
청자 H) (침묵) ……

끝으로,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할 것은 각각의 해당 상황들에서 위의 양상패러미터들이 모두 동등한 빈도로 적절한 양상 패러미터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양상 패러미터의 요소들이 적은 경우들이 많은 경우들 보다 더 높은 빈도를 갖는다.

이런 나의 주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여러 의문점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7장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가능한 몇몇 의문점들에 대해서 대답하도록 하겠다.

첫째, 어떤 사람은 양상 패러미터를 필자와 같이 늘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면서, "필자의 논리를 따른다면, 가상적인 추가적 예들을 통해서, 판단-귀속자, 판단자, 메타 판단-귀속자, 서술적 정보상태 기준 이외에도 더 많은 추가적인 요소들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고 반론을 펼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반론은 "그런 식으로는 양상 패러미터의 요소들 무수히 많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와 같은, 극단적인 회의주의적 방식으로 표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반론에 대해서 필자는 기본적으로 그에 동의한다. 즉, 나는 가상적인 추가적인 예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적절하다면, 지금 제시된 것 이외의 추가적인 요소들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가 이와 관련된 적절한 예시를 제시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한다. 내가 관점투영적 양상 패러미터 및 서술적 정보상태 기준 등이 필요함을 근거로 들었던 예들은 매우 특수하며, 또한 복잡하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그런 방식의 복잡성을 사람들이 실제 대화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내가 든 예시들이, 물론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다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제시한 것보다 더 복잡한 예들은 인간의 일상적인 인지능력을 벗어난 것으로, 사실상 사용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양상 패러미터 요소의 추가도입은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야기 한 그 곳에서 그리 멀리 않을 것이다. 만약에 보다 복잡한 패러미터를 포함하는 예를 누군가가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나는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 다만 논리적으로 무한적일 수 있다는 반론은 실질적으로 유효하지는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현재 내가 다루고 있으며, 염두에 두고 있는 의미론은 화용론적인 것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보다 구체적인 반론으로서, 혹자는 위의 표의 3)과 8)에서 메타 판단-귀속자인 W가 화자인 경우가 과연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W가 화자가 되는 경우에 ≪화자⟹(판단-귀속자 Y⟹판단자 X)≫ 및 ≪화자⟹(판단-귀속자 Y⟹판단자 X의 기준 K)≫가 양상 패러미터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메타 판단-귀속자인 화자가 없는 ≪판단-귀속자 Y가 귀속시키는 판단자 X≫ 혹은 ≪판단-귀속자 Y가 귀속시키는 판단자 X의 기준 K≫만으로 양상 패러미터가 되는데 충분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화자인 경우와 달리, 메타 판단-귀속자가 청자인 경우는 3)과 7)에서 비교적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서 나는 어떤 경우에는 메타 판단-귀속자 없는 양상 패러미터가 적절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에 조차 메타 판단-귀속자를 덧붙이는 것을 양상 패러미터로 볼 수 있음을 예를 통해서 보이도록 하겠다. 이후의 논의에서 편의상 서술적 지식상태 K는 생략하며, (얇은 내용이 아닌) 두꺼운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을 하도록 하겠다. 메타 판단-귀속자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경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i) [판단자 X와 판단-귀속자 Y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내용:
might≪메타 판단-귀속자 W⟹(판단-귀속자 Y⟹판단자 X)≫(P)
(ii) [판단자 X와 판단-귀속자 Y가 일치하는 경우의 내용:
might≪메타 판단-귀속자 W⟹(판단-귀속자 Y⟹판단자 Y)≫(P)
(iii) [판단자 X가 제삼자인 C인 경우의 내용:
might≪메타 판단-귀속자 W⟹(판단-귀속자 Y⟹판단자 C)≫(P)

이중에서 먼저 판단자와 판단-귀속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나는 이런 것 중에서도 특수한 경우 즉, W와 X가 일치하는 경우를 예로 들겠다. 즉, 이 경우에 <might≪메타 판단-귀속자X⟹(판단-귀속자Y⟹판단자X)≫(P)>가 그 내용이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메타 판단-귀속자 X가 화자 A가 되는 것이 가

능한가? 즉, <might≪A⟹(B⟹A)≫(P)> 가 유의미한 내용이 될 수 있는가?

사실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다. 앞선 '변형된 조조의 화룡도 퇴각의 예'에서 조조의 발화의 실제 의미는 화자인 조조의 입장에서, <might≪제갈량⟹조조≫(P)>, 혹은 <might≪조조⟹(제갈량⟹조조)≫(P)>, 즉 <제갈량이 나(조조)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내(조조)가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P일 수 있다>가 될 것이라고 나는 주장했었다. 따라서 판단자와 판단-귀속자가 일치하지 않는 복합 사례 중에서 W와 X가 일치하는 사례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199]

다음으로, 판단자와 판단-귀속자가 일치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이때 화자 A가 메타 판단-귀속자가 된다면, 양상 패러미터는 ≪A⟹(B⟹B)≫가 될 것이다. 이때 만약 B가 A의 대화를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청자라면, 양상 패러미터는 ≪나⟹(너⟹너)≫가 된다. 이것이 가능한 경우는 화자가 청자 자신 보다, 혹은 청자 자신에 못지않게 청자에 대해서 잘 아는 경우가 될 것이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 맥락상, A의 발화가 <A가 귀속시키는 A 자신의 관점에 따르면, P일 수 있다>에 대한 것임이 확실한 경우에, 다음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
> A) "P일 수 있을까?"
>
> B) "그래, 그럴 수 있어"

이 사례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경우에 해당한다. B는 A에 대해서 A자신 못지않게 잘 알고 있다. 이 때 A의 발화의 내용은 가정에서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보는 나에 따르면, P일 수 있을까>가 된다.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

---

[199] 한편, 이와 같은 사례는 보다 추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A는 B를 속이려고 의도하고 있다. B는 A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며, A는 B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A는 B가 생각하는 A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바란다. 이때 A는 "P일 수 (도) 있어"라고 말한다.

이때 A에게 이 발화의 진리값은 두 가지로 나뉜다. B의 측면을 고려할 때, <might≪[A⟹(B⟹A)]'s K≫(P)> 혹은 <might≪B⟹A≫(P)>는 참이다. 하지만 A 자신의 측면을 고려할 때는 <might≪A's L≫(P)>는 거짓일 수 있다. 이 사례는 더 많이 아는 A가 일부러 바보인 척하는 경우로, 앞서 언급된바 있는 마스터마인드의 사례와 유사성을 지닌다.

A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자신의 믿음의 정합성에 대해서 스스로가 의심스러운 경우가 될 것이다. 그리고 B가 말하는 것의 내용은 <네가 너에게 귀속시킨다고 내가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P일 수 있다>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판단자와 판단-귀속자가 일치하는 경우의 내용에서 화자가 메타 판단-귀속자가 되는 예를 얻게 된다.[200]

끝으로 판단자가 제삼자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화자 A가 메타 판단-귀속자가 될 때, 양상 패러미터는 ≪A⇒(B⇒C)≫가 된다. 이런 경우는 앞선 버스II의 사례를 한 번 더 꼬아서 만든 다음의 버스 III의 사례를 통해서 예증될 수 있다. 다음의 사례와 버스 II의 차이는 옆에 있는 청자인 경희가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고, 수지의 말에 대응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이다.

> [**버스 III**] 사실은 수지는 철수가 버스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녀는 철수를 이중으로 속이기 위해서 모른 채 하고 있다. 그리고 철수의 말을 듣고 있는 옆의 청자 경희는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다. 반면에 철수는 수지가 속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때, 철수가 "나는 저 버스에 있을 수 있어"라고 말하고, 경희는 "그래, 너는 저 버스에 있을 수 있어(혹은 그래 그것은 참이야)"라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희의 나중 발화인 "그래, 너는 저 버스에 있을 수 있어"는 양상 패러미터를 ≪경희⇒(철수⇒수지)≫ 혹은 ≪철수⇒수지≫로 할 때 참이며, 양상 패러미터를 ≪경희⇒수지≫로 할 때 거짓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양상 패러미터가 ≪경희⇒(철수⇒수지)≫가 되는가? 그것은 경희가, 수지가 이중으로 속이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수가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경희 자신이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에, 적합한 양상 패러미터가 될 수 있다. 경희가 철수는 그런 이중 속임을 모른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때 경희의 입장에서 양상 패러미터는 ≪철수⇒수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단순히 ≪철수⇒수지≫를

---

[200] 한편, 메타 판단-귀속자가 청자 B인 경우는 보다 쉽게 구성할 수 있다. 취향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자면, 영악한 어린 아이는, 엄마가 "그것은 맛있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엄마가 생각하는 자신의 기준이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 K에 따르면 그것이 맛있다>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취향 패러미터는 ≪아이⇒(엄마⇒아이)≫가 될 것이다. 물론, 같은 상황 하에서 우리는 취향 패러미터를 ≪엄마⇒아이≫로 규정할 수도 있다.

양상 패러미터로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경희 자신이 메타 판단-귀속자로 등장해야 한다. 따라서 이상에서 (ㄷ)에 대한 예증 또한 가능하다.

결국, 이상을 통해서 볼 때, 앞선 표의 4)와 8)에서 메타 판단-귀속자인 W가 화자인 경우는 가능하다.

결론

나는 지금까지 1부에서 인식적 양상에 대한 기존 논의들인 맥락주의와 상대주의가 모두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새로운 대안 이론을 모색하는 2부를 통해서, 패러미터의 본성문제와 관련하여 인식적 양상문장의 내용과 양상 패러미터에 대한 나의 주장을 설명하였다.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는 화자 및 판정자 패러미터만을 상정하던 기존 이론들이 보다 복잡한 패러미터들을 포함하는 이론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준적인 가능세계 의미론이 처음에 세계만을 도입하다가, 시간을 덧붙이게 되었고, 맥락주의 및 상대주의 논의 등을 통해서 개인들[주체들]까지 요구하게 되었지만,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예외적인 사례들까지 포섭하기 위해서는 기존 화자와 판정자라는 주체들뿐만이 아니라, 판단-귀속자를 포함하는 보다 다양한 주체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매우 예외적인 사례들을 위해서는 서술적인 지식상태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해야 한다.

나는 이상에서 내가 주장한 바가 그대로 혹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최근의 인식적 양상 등을 비롯한 주변부의 논의들-취향, 지식귀속, 도덕적 술어, 미학적 술어 등-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상 패러미터 결정과 관련된 나의 관점투영 논의들은 객관성과 주관성에 대한 논의가 뒤얽힌 최근 논의들 이외의 범주에도 또한 응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P일 수(도) 있다”와 같은 인식적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주장 “P이다” 역시 어떤 기준에 대한 상대성 여부를 (일정부분) 포함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P이다”는 문장의 의미[내용]가 어떤 주어진 조건하에서 <A에 따르면, P이다>가 될 수 있다.[201] 따라서 나는 순수 객관적 영역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나의 몇몇 주장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때의 패러미터에, 주체의 어떤 (서술적) 지식상태가 반드시

[201] 한편, 사실 문장의 의미 및 내용이 상대성 패러미터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과 사실 혹은 실재, 참 등이 상대적이라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나는 후자와 연관된 형이상학적 주제영역에 대한 상대주의의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대입될 필요는 없다. 어떤 패러미터가 어떤 경우에 적합한지의 문제는 아직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다. 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나의 잠정적 생각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작업들을 학위논문 이후의 과제들로 남겨두겠다.

우리는 본 논문의 논의들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특수한 상대주의적 견해가 유의미하게 논의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모든 상대주의자가 이를 희망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상대주의 중에서 올바를 수 있는 것은 특정 주제에 대한 몇몇 주장들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주의 이론들 중에서 제대로 된 옥석들을 가려야 한다.

참고 문헌

강진호 (2011), 「언어철학연습: 맥락주의와 상대주의 강의 핸드아웃」, Available at: <http://cafe.daum.net/denkbewegung>.

_____(2013), 「맥락주의와 '공유된 내용'의 문제」, 『철학적 분석』 27, pp. 1-57.

문귀선 (2011), 『형식 의미론 입문』, 한성대학교 출판부.

우윤식 (2001), 『현대 통사론의 이해』(2 판),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최동호 (2007), 『'브랜덤의 추론적 의미이론' 과 구성성 문제』,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2011), 「인식적 양상에 대한 맥락주의와 상대주의 논쟁 고찰」, 『철학사상』 제 39 권, pp. 257-298.

羅貫中 (불명/2006), 『삼국지』, 4 권, 5 권(황석영 옮김), 창작과 비평사 출간.

Bach, Kent (2011), "Perspectives on possibilities: contextualism, relativism, or what?", In *Epistemic Mod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Baghramian, Maria (2004), *Relativism*, Routledge, New York.

Boghossian, Paul (2006), *Fear of Knowledge: Against Relativism and Constructivism*,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Brandom, Robert (1983), "Asserting", *Noûs*, 17, pp.637-650.

_____(1994), *Making It Explicit*,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Braun, David (2007), "Indexicals",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Available at: <http://plato.stanford.edu/entries/indexicals/>.

_____(2012), "An invariantist theory of 'might' might be right", *Linguist and Philos* 35, pp. 461-489.

Brogaard, Berit (2008), "In defense of a perspectival semantics for 'know'",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86, pp.439-459.

_____(2009), “Perceptual content and monadic truth: On Cappelen and Hawthorne's Relativism and Monadic Truth”, *Philosophical Books* 50 (4), pp. 213-226.

Brown, Jessica and Cappelen, Herman (2011), *Assertion: New Philosophical Essays* (eds. Jessica Brown and Herman Cappele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appelen, Herman (2008a), “Content relativism and semantic blindness”, In *Relative Truth* (eds. M. García-Carpintero and M. Kölbe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2008b), “The creative interpreter: Content relativism and assertion”, *Philosophical Perspectives*, 22, pp.23-46.

_____(2011), “Against assertion “, In *Assertion: New Philosophical Essays* (eds. Jessica Brown & Herman Cappele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appelen, Herman and Hawthorne, John (2009), *Relativism and Monadic Tru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2011), “Reply to Lasersohn, MacFarlane, and Richard”, *Philosophical Studies* 156 (3), pp.417-419.

Cappelen, Herman and Lepore, Ernie (1997), “On an Alleged Connection between Indirect Quotation and Semantic Theory,” In *Mind and Language*, Vol. 12, pp. 278-296.

_____(1998), “Reply to Richard and Reimer”, In *Mind and Language* , pp. 117-621.

_____(2003), “Context shifting arguments”, *Philosophical Perspectives*, 17, Language and Philosophical Linguistics.

_____(2005), *Insensitive Semantics: A Defense of Semantic Minimalism and Speech Act Pluralism*, Oxford: Blackwell.

Carston, Robyn (2002), *Thoughts and Utterances: The Pragmatics of Explicit Communication*, Oxford: Blackwell.

Charlmers, David (2011), “Frege’s puzzle and the objects of credence”, *Mind* 120 (479), pp.587-635.

Chomsky, Noam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dht: Foris Publications.

Cohen, Stewart (1998), "Contextualist Solutions to Epistemological Problems: Scepticism, Gettier, and the Lottery",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76, pp.289-306.

_____(1999), "Contextualism, Skepticism, and the Structure of Reasons.", *Philosophical Perspectives* 13, Epistemology, pp.57-89.

_____(2000), "Contextualism and Skepticism", *Philosophical Issues* 10, Skepticism, pp.94-107.

De Sa, Dan López (2007), "The many relativisms and the question of disagre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hilosophical Studies* Vol. 15(2), pp.269-279.

_____(2008), "Presuppositions of commonality: An indexical relativist account of disagreement", In *Relative Truth* (eds. M. García- Carpintero and M. Kölbe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297-310.

_____(2011), "The Many Relativisms: Index, Context, and Beyond", In *The Blackwell Companion to Relativism* (ed. S. Hales), Blackwell.

DeRose, Keith (1991), "Epistemic possibilities", *Philosophical Review*, 100(4), pp.581-605.

Dever, Josh (2006), "Semantic value", In *Encyclopedia of Language & Linguistics (Second Edition)*, pp. 137-142.

Dietz, Richard (2008), "Epistemic modals and correct disagreement", In *Relative Truth* (eds. M. Garcia-Carpintero and M. Kölbe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239-262.

Dowell, Janice (2011), "A flexibly contextualist account of epistemic modals", *philosophers' imprint* vol. 11, no. 14.

Dummett, Michael (1959), "Truth",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59, pp.141-62.

_____(1991), *The Logical Basis of Metaphysics*, Harvard University Press.

_____(2010), *The Nature and Future of Philosoph*,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Egan, Andy (2007), "Epistemic modals, relativism, and assertion", *Philosophical Studies*, 133, pp.1-22.

_____(2009), "Billboards, bombs, and shotgun weddings", *Synthese*, 166, pp.251-279.

_____(2011), “Relativism about epistemic modals”, In *A companion to relativism* (ed.Steven D. Hales), Blackwell.

Egan, Andy and Weatherson, Brian (2011), “Introduction: Epistemic Modals and Epistemic Modality”, In *Epistemic Mod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gan, Andy, Hawthorne, John, and Weatherson, Brian (2005), “Epistemic modals in context”, In *Contextualism in Philosophy* (eds. G. Preyer and P. Peter), Chapter 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31-168.

Fernandez, Neftali Villanueva (2009), “Contextualism and Relativized Content: A Critical Study on François Recanati’s Perspectival Thought”, *teorema* Vol. XXVIII/1, 2009, pp. 149-163.

Fintel, Kai. von and Gillies, Anthony S (2007), “An opinionated guide to epistemic modality”, *Oxford studies in epistemology 2*, pp.32-62.

_____(2008), “CIA leaks”, *Philosophical Review*, 117, pp.77-98.

_____(2011), “Might made right”, In *Epistemic Mod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Fitelson, Branden (2011), “Notes on “accessibility” and modality”, Available at : <http://fitelson.org/125/accessibility.pdf, 2014.3.28. >

Garson, James (2009), “Modal Logic”,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Available at: <http://plato.stanford.edu/entries/logic-modal/>.

Glüer, Kathrin (2009), “The normativity of meaning and content”,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 Available at: <http://plato.stanford.edu/entries/meaning-normativity/>.

Hawley, Katherine (2001), *How Things Persis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awthorne, John (2004), *Knowledge and Lotter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2007), “Eavesdroppers and epistemic modals”, *Philosophical Issues* 17 (1), pp.92-101.

Hintikka, Jaakko (1962), *Knowledge and Belief*,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Huvenes, Torfinn (2012), “Varieties of disagreement and predicates of taste”,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Volume 90, Issue 1.

Kaplan, David (1989), "Demonstratives: An essay on the semantics, logic, metaphysics, and epistemology of demonstratives and other indexicals", In *Themes from Kaplan* (eds. J. Almog, J. Perry, and H. Wettste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481-566.

King, Jeffrey (2003), "Tense, modality, and semantic values", *Philosophical Perspectives*, 17, pp.195-245.

_____(2011), "Structured propositions",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Available at: < http://plato.stanford.edu/entries/propositions-structured/>.

Kment, Boris (2012), "Varieties of Modality",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Available at: < http://plato.stanford.edu/entries/modality-varieties/>.

Kölbel, Max (2002), *Truth Without Objectivity*, London: Routledge.

_____(2004a), "Faultless disagreement",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104, pp.53-73.

_____(2004b), "Indexical relativism versus genuine relativism", *International Journal of Philosophical Studies*, 12, pp.297-313.

_____(2007), "How to spell out genuine relativism and how to defend indexical relativism", *International Journal of Philosophical Studies*15 (2), pp.281 - 288.

_____(2009), "The evidence for relativism", *Synthese* 166 (2), pp.375-395.

Kompa, Nikola (2002), "The context sensitivity of knowledge ascriptions", *Grazer Philosophische Studien*, 64, pp.79-96.

Kratzer, Angelika (1977), "What 'Must' and 'Can' Must and Can Mean", *Linguistics and Philosophy* 1 (3), pp.337--355.

_____(1981), "The Notional Category of Modality", In *Words, Worlds, and Contexts: New Approaches to Word Semantics* (eds. H. J. Eikmeyer and H. Rieser), de Gruyter, Berlin, pp. 38-74.

Kripke, Saul (1963), "Semantical Analysis of Modal Logic I: Normal Modal Propositional

Calculi", *Zeitschrift fu¨ r mathematische Logik und Grundlagen der Mathematik*, 9, pp.67 - 96.

_____(1982), *Wittgenstein on Rules and Private Language*, Harvard University Press.

Lasersohn, Peter (2005), "Context dependence, disagreement, and predicates of personal taste", *Linguistics and Philosophy*, 28, pp.643-686.

_____(2009), "Relative truth, speaker commitment, and control of implicit arguments", *Synthese*, 166.

_____(2013), "Non-world indices and assessment-sensitivity", *Inquiry: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Philosophy* Volume 56, Issue 2-3.

Lewis, David (1970), "General semantics", *Synthese*, 22, pp.18-67.

_____(1975), "Languages and Language", In *Minnesota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ed. Keith Gunders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 3-35.

_____(1979a), "Attitudes de dicto and de se", *Philosophical Review*, 87, pp.513-545.

_____(1979b), "Scorekeeping in a language game", *Journal of Philosophical Logic*, 8, pp.339-359.

_____(1980), "Index, context, and content.", In *Philosophy and Grammar* (eds. S. Kanger and S. Öhman), Reidel, Dordrecht, pp. 79-100.

Lycan, William.G (2008), *Philosophy of language*: *A Contemporary Introduction (second edition)*, Routledge .

MacFarlane, John (2003), "Future contingents and relative truth", *Philosophical Quarterly*, 53(212), pp.321-336.

_____(2003 draft), "Epistemic Modalities and Relative Truth", UC Berkeley, November 2003, Available at:<http://johnmacfarlane.net/epistmod-2003.pdf>

_____(2005a), "The assessment sensitivity of knowledge attributions",*Oxford Studies in Epistemology*, 1, pp.197-233.

_____(2005b), "Knowledge laundering: Testimony and sensitive invariantism",

Analysis, 65, pp.132-138.

_____(2005c), "Making sense of relative truth",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105, pp.321-339.

_____(2007a), "Relativism and disagreement", *Philosophical Studies*, 132, pp.17-31.

_____(2007b), "Semantic minimalism and nonindexical contextualism", In *Context-Sensitivity and Semantic Minimalism* (eds. G. Preyer and G. Pet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240-250.

_____(2009), "Nonindexical contextualism", *Synthese*, 166, pp.231-50.

_____(2009 draft), "Varieties of Disagreement", Available at: <http://johnmacfarlane.net/varieties.pdf>.

_____(2010 draft), "Epistemic modals: relativism vs. cloudy contextualism", *Chambers Philosophy Conference on Epistemic Modals*, University of Nebraska, April 16, 2010, Available at: <http://johnmacfarlane.net/cloudy.pdf>.

_____(2011a), "Epistemic modals are assessment sensitive", In *Epistemic Modals* (eds. A. Egan and B.Weathers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2011b), "Relativism and Knowledge Attributions", In *The Routledge Companion to Epistemology* (eds. Sven Bernecker and Duncan Pritchard), London: Routledge, pp.536-544.

_____(Forthcoming), *Assessment Sensitivity*, Available at: <http://johnmacfarlane.net/reltruth.web.pdf>

McGrath, Matthew (2012), "Propositions",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Available at: <http://plato.stanford.edu/entries/propositions/>.

Mckay, Thomas & Nelson, Michael (2010), "Propositional attitude reports",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Available at: < http://plato.stanford.edu/entries/prop-attitude-reports/>.

Miller, Alexander (2007), *Philosophy of language(Second Edition)* ,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Moltmann, Friederike (2003), "Propositional attitudes without propositions", *Synthese* 135 (1), pp.77 - 118.

_____(2010), "Relative truth and the first person", *Philosophical Studies*, 150, pp.187-220.

Montminy, Martin (2009), "Contextualism, relativism, and ordinary speakers' judgments", *Philosophical Studies*, 143, pp.341-356.

Ninan, Dilip (2011),"Semantics and the objects of assertion" , *Linguistics and Philosophy* 33 (5), pp.355-380.

_____(2012), "Propositions, semantic values, and rigidity", *Philosophical Studies* 158 (3), pp.401-413.

Pagin, Peter (2007), "Assertion",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Available at: < http://plato.stanford.edu/entries/assertion/>.

Parsons, Josh (2010), "Assessment-contextual indexicals",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89 (1), pp.1-17.

Pearson, Hazel (2012), "A judge-free semantics for predicates of personal taste", *Journal of Semantics*, First published online: March 9, 2012.

Pagin, Peter (2004), "Is assertion social?" *Journal of Pragmatics*, 36, pp.833-859.

Pagin, Peter and Westerståhl, Dag (2010), "Compositionality I: Definitions and Variants", *Philosophy Compass* 5(3), pp.250-264.

Perry, John (1998), "Possible world semantics", In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Version 1.0, London: Routledge.

_____(2001), *Reference and Reflexivity*, CSLI, Stanford.

Picardi, Eva (2006), "Colouring, Multiple Propositions, and Assertoric Content", *Grazer Philosophische Studien* 72 (1), pp.49-71.

Predelli, Stefano (1996), "Never put off until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 *Analysis*, 56(2), pp.85-91.

_____(1998a), "I am not here now", *Analysis*, 58, pp.107-115.

_____(1998b), "Utterance, interpretation and the logic of indexicals", *Mind& Language*, 13(3), pp. 400-414.

Putnam, Hilary (1981), *Reason, Truth and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Quine, Willard.V (1969), "Propositional objects", In *Ontological Relativity and Other Essay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Rabern, Brian (2012a), "Against the identification of assertoric content with compositional value", *Synthese* 189 (1), pp.75-96.

_____(2012b), "Propositions and multiple indexing", *Thought* 1 (2), pp.116-124.

Recanati, François (2003), *Literal Mean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_____(2007), *Perspectival Thought: A Plea for (Moderate) Relativ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Richard, Mark (1980), "Temporalism and eternalism", *Philosophical Studies*, 39, pp.1-13.

_____(1982), "Tense, propositions, and meanings", *Philosophical Studies*, 41, pp.337-351.

_____(2003), ''Introduction to Part I,'' In *Time, Tense, and Reference* (eds. A. Jokic and Q. Smith), Cambridge, Mass.: MIT Press, pp.25-45.

_____(2004), ''Contextualism and Relativism,'' *Philosophical Studies* 119, pp.215-42.

Rieppel, Michael (2011), "Stoic disagreement and belief retention",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Volume 92, Issue 2, pp.243-262.

Scharp, Kevin (Forthcoming), "Brandom on Communication", In *Philosophical Profiles in the Theory of Communication* (eds. Jason Hannon & Robert Rutland),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Schiffer, Stephen (1987), *Remnants of meaning*, Cambridge, MA: MIT Press.

_____(1996), "Contextualist solutions to scepticism",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96, pp.317-333.

Schroeter, Laura (2012), "Two-dimensional semantics" ,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Available at: <http://plato.stanford.edu/entries/two-dimensional-semantics/>.

Soames, Scott (2002), *Beyond Rigidity; The Unfinished Agenda of Naming and Necess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2005), "Naming and Asserting", In *Semantics vs. Pragmatics* (ed. Z. Szabo),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2009), "The Gap between Meaning and Assertion: Why What We Literally Say Often Differs from What Our Words Literally Mean", In *Philosophical Essays: Natural Language: What It Means and How We Use It*, Princeton University Press.

Speaks, Jeff (2010), "Theories of meaning",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Available at: < http://plato.stanford.edu/entries/meaning/>.

Sperber, Dan and Wilson, Deirdre (198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Stalnaker, Robert (1978), "Assertion", In *Syntax and Semantics 9, New York: New York Academic Press*, pp.315-332.

Stanley, Jason (1997a), "Names and Rigid Designation", In *A Companion to Philosophy of Language* (eds. Bob Hale and Crispin Wright), Oxford: Blackwell Publishers.

_____(1997b),"Rigidity and Content", In *Language, Thought, and Logic* (ed. Richard Hec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131 - 156.

_____(2005b), *Knowledge and Practical Interes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2007), *Language in Context: Selected Essay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tephenson, Tamina (2005), "Assessor sensitivity: epistemic modals and predicates of personal taste", In *New Work on Modality*,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 51.

_____(2006), "A parallel account of epistemic modals and predicates of personal taste", *Sinn und Bedeutung* 11.

_____(2007a), *Towards a theory of subjective meaning*, Thesis (Ph. D.)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Dept. of Linguistics and Philosophy.

_____(2007b), "Judge dependence, epistemic modals, and predicates of personal taste", *Linguistics and Philosophy*, 30, pp.487-525.

Stojanovic, Isidora (2007), "Talking about taste: disagreement, implicit arguments, and relative truth", *Linguistics and Philosophy* 30 (6), pp.691-706.

Unger, Peter (1984), *Philosophical Relativi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Vaidya, Anand (2007), "The Epistemology of Modality",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Available at: <http://plato.stanford.edu/entries/modality-epistemology/>.

Weatherson, Brian (2008), "Attitudes and relativism", *Philosophical Perspectives* 22 (1), pp.527-544.

_____(2009), "Conditionals and indexical relativism", *Synthese*, 166, pp.333-357.

_____(2010), "No royal road to relativism", *Analysis* 71 (1), pp.133-143.

_____(2011), "Defending interest-relative invariantism", *Logos and Episteme* 2 (4), pp. 591-609 .

Weber, Clas (2012),"Eternalism And Propositional Multitasking: In Defense Of The Operator Argument", *Synthese* 189 (1), pp.199-219.

Williamson, Timothy (1996), "Knowing and asserting", *Philosophical Review*, 105, pp.489-523.

_____(2000), *Knowledge and Its Limi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right, Crispin (2007), "New age relativism and epistemic possibility", *Philosophical Issues* 17(1), pp. 262-283.

Yalcin, Seth (2007), "Epistemic modals", *Mind*, 116, pp.983-1026.

_____(2011), "Nonfactualism about epistemic modality", In *Epistemic Modals* (eds. A.Egan and B.Weatherson), pp.265-33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Zalta, Edward (1995), "Basic concepts in modal logic", Available at: <mally.stanford.edu/notes.pdf>.

Abstract

Advocating the pluralistic perspective-projective relativism for epistemic modal sentences

Choi, Dongho
Dept. of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dissertation, I will explore discussions of epistemic modals that have attracted interests from many scholars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By “epistemic modals,” I mean epistemic uses of modal terms such as “necessary”, “possible”, and “might”. Unlike general modals, they are linked to the epistemic state of the agent. For example, the expression ‘The key might be in the drawer’ is relevant to the epistemic information state of the utterer. While according to the knowledge of agent A, it is possible for the key to be in the drawer, according to that of agent B, it is not so. Assertions of A and B seem to be appropriate, independently of the objective fact that the key is in the drawer. From their own evidences, they seem to have the right to assert the possibility of some events. If so, which philosophical questions can be proposed regarding such epistemic modal expressions? The main problems are as follows: Does the meaning or the truth

value of the sentence ‘P is epistemically possible’ vary or stay constant depending on the situation? If it changes, on whose epistemic state [information state] does it depend? When Chulsoo says that the key might be in the drawer, is the meaning or the truth value of that utterance relative or absolute? If it is relative, to whose informational state is it relative? In other words, according to which agent is the meaning or the truth value of the epistemic modal sentence determined? In regard to this topic, the two prominent theories are contextualism and relativism. Roughly speaking, contextualism is focused on the speaker or the speaker’s information state, while by contrast, relativism is focused on the assessor or the assessor’s information state. In this paper, my goal is to try and argue for which theory, among contextualism, relativism, or a third alternative, is the best.

Specifically, I will argue that the pluralistic perspective-projective relativism for epistemic modal sentences is the most plausible. My point is that the determination of an agent’s information state in epistemic modals must become more complex than it is now in order to deal with various cases. I think that beyond the speaker and the assessor, the elements of a judge, a judgment-attributor, a meta-judgment-attributor and descriptive informational state should be considered as an addition. My conclusion is that the epistemic modal sentences of ‘might P’ express the followings: P is compatible with the judge’s informational state that the meta-judgment-attributor attributes what the judgment-attributor attributes to the judge. (However, the meta-judgment-attributor, the judgment-attributor, the judge or the informational state can be omitted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Therefore, simply contextualism or relativism can be satisfactory depending on those circumstances. My proposal is to include certain aspects of contextualism and relativism, and to add extra elements on top of that. In order to argue for these claims, I demonstrate step by step that additional elements as mentioned above should be supplemented on several established factors.

Let’s introduce the outline of my dissertation. My paper is divided into two parts. In section one, I will show that the existing theories are inadequate. In section two I will develop a new

alternative. Section one is composed of chapters 1- 4. In chapter 1, as a preliminary to the entire dissertation, I will introduce possible world semantics and the standard theories for indexicals and epistemic modal sentences, and explain variantism's opposing view, classical invariantism. Chapter 2 will be an outline of the two most representative views of variantism, contextualism and relativism. This will be followed by a deeper examination of objections to contextualism (chapter 3) and objections to relativism (chapter 4). In section two, I propose a new theory that selectively accepts and rejects pros and cons of current existing views. First, in chapter 5, by selecting a certain type of pluralism, I will show how we can resolve the arguments in question regarding the conflict between contextualism and relativism, without making major revisions. Finally, in chapter 6 and 7, in order to deal with new arguments that have not been covered so far, I will show that major revisions are necessary.

Keywords: Epistemic Modals, Contextualism, Relativism, Pluralism, Content, Modal Base

Student Number: 2007-30732